

고리고개에서
추리(醜李)골까지

고리고개는 내가 태어난 집 앞의 고개 이름으로 개성시 고려동에 위치하고 있다.
내가 태어난 집은 청석(靑石)지붕의 넓은 고풍 한옥이었다.
개성에서는 옛적에 청석지붕으로 된 집이 많았는데 보온이 잘 되어 여름에는 시원
하고 겨울에는 매우 따뜻하였다.

추리(醜李)골이란 자두골(오얏골)을 개성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은 세검정 일대와 함께 자두(오얏)나무가 즐비
하였으며 자두나무(오얏나무) 골로 내 기억에 남아 있다.
이씨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킨 이후 개성사람들은 이성계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추(醜)한 이(李, 오얏이)라고 직접 부를 수 없어 자두(오얏)를 추리(醜李)
라고 부르며 오얏이(李)를 빗대어 이성계를 욕하였다.



표지화: 지켜보는 눈동자 있어
집사람 이복희는 꽃꽂이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1977년 초가을의 작품으로 표지에서
지켜보는 눈동자가 영롱하다

고리고개에서 추리(醜李)골까지

박광현 文選集



박광현, 이복희(2004년 8월)

저의 칠순 기념으로 발간하는 이 문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글들은 제가 직접 썼으며 전문적인 작가의 손을 거치지 못하여 매끄럽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선집이 남에게 뜻이 깊고 감명을 줄 수 있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조잡하여 남에게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문선집을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감히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70년을 그리고 오랜 이산가족의 역을하고 서럽고 참담한 삶을 저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이 문선집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모든 자손들이 이 문선집을 숙독하고 오래 보관하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선집을 편집, 교정하는 과정에서 온가족이 심혈을 기울여 준 점 매우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 이복희를 위시하여 자식들 수근, 수희, 수종이, 사위 윤가원, 며느리 장혜경, 이소영 그리고 손자 태영, 준영과 손녀 서우, 서영이, 심지어 막내 손자 찬영이까지 한뭇 거들려고 하는 등 모두의 힘이 합쳐진 점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잔일이 많아 귀찮은 문선집 편집을 마다하지 않고, 이 문선집을 발간하여 주신 한국문화사의 김진수 사장님, 최은경 팀장님, 박미영, 박금숙 편집디자인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5년 1월

머리말_ 5

화 보_ 13

약 력_ 27

나의 70년 인생을 되돌아보며

출생과 가족_ 33

초기 피난시절_ 37

서울생활과 고등학교 수학_ 42

대학시절_ 49

제 1단계 사회 진출_ 64

제 2단계 사업상황_ 73

제일항역 주식회사 시대_ 78

50여 년의 이산가족 생활을 돌이켜 보며..._ 87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글 모음

개성유격대

머리말_ 102

후퇴 전후의 개성_ 104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전야_ 108
 못 잇을 첫 출전_ 113
 조량촌의 격전_ 118
 본연의 임무 다할 절호의 찬스_ 123
 중공군, 거의 무기 없이 인해진술_ 128
 성공적인 2차 작전_ 132
 제3차 출전의 장도_ 136
 감격의 고향 입성_ 140
 마지막이 된 구남골 그리고 부모 상봉_ 145
 고향을 다시 빼앗기던 날_ 149
 후퇴 당시 내가 마지막 본 내 고향_ 154

개성사람 자랑

개성사람 자랑 열 가지_ 162
 뚜렷한 주체성_ 164
 절약과 검소_ 167
 비축과 저축_ 171
 신용과 신의_ 175
 밝은 사회_ 179
 철저한 자립정신_ 182
 청교도적 결벽성_ 186

협동정신과 상호협력_ 190
 정도와 교육열_ 194
 자유주의 정신_ 197
 끝맺음_ 201

기타 신문 잡지에 게재된 박광현 글

삼을 캐면서_ 204
 내가 본 송도민보_ 210
 다시 맞는 추석의 감회_ 215
 잇을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_ 218
 족보 유감_ 223
 못가는 고향_ 229
 작가 박완서 씨의 장편소설 “미망”을 읽고_ 234
 오두산 통일전망대_ 241
 이국의 동향인 이야기-캐나다의 개성사람 _ 245
 고 전충립 씨 지은 “세월의 언덕 위에서”를 읽고_ 250
 김복영 수필집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고서_ 254
 ‘송도지 속에 스민 감회’를 기고하신 장경태 선생님께_ 259

신문 잡지에 게재된

신·송년사(新送年辭), 축사(祝辭), 조사(弔辭)

- 강운성 선생 부음을 듣고_ 265
- 임신년(壬申年, 1992년)을 보내며_ 268
- 을해년(乙亥年, 1995년)을 맞으며_ 270
- 경진년(庚辰年, 2000년) 신년사_ 273
- 신사년(辛巳年, 2001년) 신년사_ 276
- 축사- 송도지 100호 기념_ 278
- 2001년 신년사_ 280
- 2002년 신년사_ 282
- 2003년 신년사_ 284
- 2004년 신년사_ 286
- 헌신적인 지원과 공헌에 감사-이회림 회장님께_ 288

이복희(李福喜) 문선(文選) 및 보도 기사

- 내 곁에 오신 부처님_ 294
- 요리 잘 하는 주부 이복희 씨의 공개 제안_ 297

지인(知人)의 글 및 보도기사(報道記事)

- 춘파 박재청 씨를 생각한다-강운성_ 303
- 송도인 중소기업 탐방-송도지_ 306
- 송도에 있을 죽마고우 박재청 형을 상기하며-김진원_ 309
- 박광현 본회 부회장 유공도민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송도지_ 314
- 송도지 속에 스민 감회-장경태_ 318
- 본회 박광현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임되다-송도지_ 328
- 제15대 개성시 명예시장 이·취임식-송도지_ 331
- 항공 화물업계의 역사를 찾아서-카고프레스_ 333

春波 박재청(朴牙枝) 문선(文選)

- 동아일보 1927년 신춘 현상 당선시_ 345
- 어머니시여
- 시조_ 348
- 만월대/ 선죽교/ 남대문/ 부조현/ 장안도중/
경덕궁/ 홍국사/ 부산동탁족/ 서기정
- 송악산 등척기_ 357
- 정월 중 개성의 이상한 풍속_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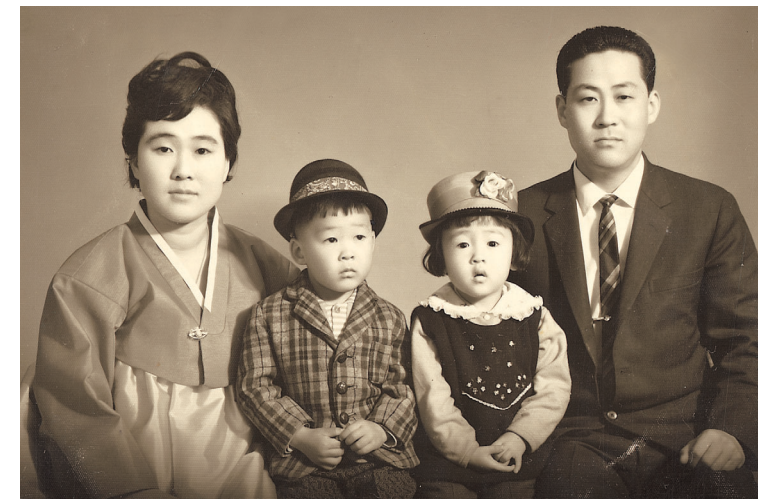
가족 사진

가족이 늘어나는 변천사를 쉽게 알기 위해 자주 가족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1961년 결혼 이후 2004년 칠순이 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변화해 온 가족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4년 1월.

장남 박수근(오른쪽)과 갓 태어난 장녀 박수희(왼쪽)가 처음으로 가족사진에 등장한다.



1966년.



1968년 10월 1일.
가운데가 막내 박수중.



1976년 3월 1일.
박수근은 영훈중학교 2학년, 박수희는 성암중학교 1학년, 박수중은 영훈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80년 4월 5일.
박수근은 대일고등학교 3학년, 박수희는 영훈고등학교 2학년, 박수중은 삼선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89년 7월 28일.
박수근이 장혜경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첫 손자 박태영을 낳은 후에 귀국하였을 때, 이때 박수희는 윤가원과 결혼하여 미국 Santa Barbara에 있었다.



1992년 8월 14일.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둘째 손자 박준영(장혜경이 안고 있음)의 돌잔치를 위해 미국 New Jersey 에서 어렵게 모두 모였다. 박수근은 New York 에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 재직 중이었고 박수희와 사위 윤가원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박수종과 며느리 이소영은 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2000년 4월 2일.
 박서영(앞줄 왼쪽), 윤서우(앞줄 오른쪽), 박태영(둘째줄 왼쪽), 박준영(둘째줄 오른쪽)이 있다.

가족, 일가와 함께



2004년 8월.
나의 칠순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앞줄 왼쪽부터 박광현, 박서영, 박찬영, 윤서우, 이복희, 박수근, 박준영, 뒷줄 왼쪽부터 박수중, 이소영, 박수희, 윤가원, 박태영, 장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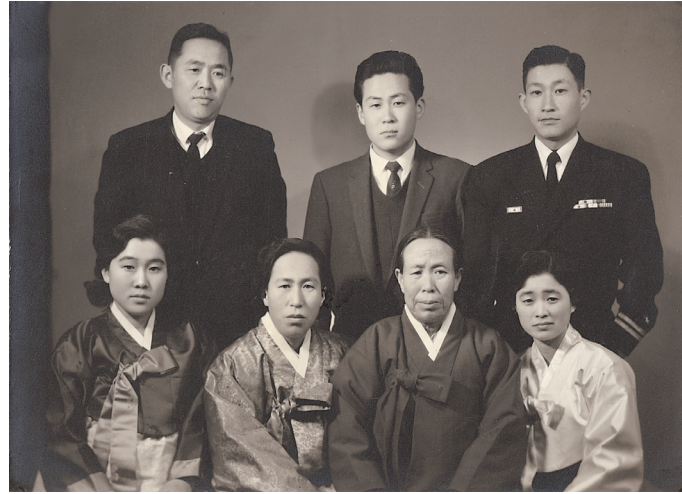
1930년. 개성에서 왼쪽-아버지(박재청)와 오른쪽-친구분(최규순).
두 분은 가장 친한 사이였지만 6.25 전란으로 일찍이 결별하였으며 최규순 어른께서는 월남하신 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1940년. 개성에서 어머니(김부임)와 5세의 나(박광현).
나는 집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던 막내로서 어머니와의 다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1933년. 개성 집에서 어머니, 형님들, 고모님들.
앞줄 왼쪽부터 김부임(어머니), 박대현(셋째 형님), 박성현(둘째 형님), 홍금복(고종사촌 누님), 박정현(첫째 형님).
뒷줄 왼쪽부터 숙모님, 작은고모님, 박놈석(고모님), 작은고모님. 어머니께서는 가장 귀한 며느리로서 집안에서 가족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다.



1962년. 고모님과 함께.
 앞줄 왼쪽부터, 나의 처 이복희, 고종사촌 누님 홍금복, 고모님 박눔석, 친형수님 임정연,
 뒷줄 왼쪽부터 고종사촌 자형 장상순, 나, 친형 박대현.



1964년 초. 형가족과 함께.
 앞줄 왼쪽부터 형의 장녀 박미경, 형수님 임정연, 나의 장남 박수근, 장녀 박수희, 나의 처
 이복희, 뒷줄 왼쪽부터 형 박대현 그리고 나.



2004년 6월 26일. 내 칠순 생일을 기념해서 신라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앞줄 왼쪽부터 박서영, 박찬영, 이소영, 나, 아내, 박수근. 뒷줄 왼쪽부터 박수중, 윤가원(사위), 윤서우, 박수희,
 홍선영(홍순택의 둘째 딸), 홍원표(홍순택의 아들), 박태영, 강혜숙(홍순택의 아내), 심유진(홍순택의 큰딸 홍현숙
 의 딸), 홍순택(고종사촌 홍종규 형님의 아들)

아내와 함께



2004년 8월. 칠순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함께 했다. 한라산 윗세오름을 가는 길목에서. 왼쪽부터 장혜경, 박준영, 박수희, 박서영, 이복희, 윤서우, 나, 박수중. 박수근은 앞선 등산 행보 때문에, 박태영은 일찍 귀경하여 그리고 박찬영은 등산하기에 너무 어려 엄마 이소영과 등산로 입구 영실에 멈추게 되어 사진 촬영에 참여치 못했다.



1992년 8월. 미국 Niagara 폭포에서 아내와 함께. 손자 박준영의 돌잔치에 온가족이 미국 New Jersey의 박수근 집에 모였으며 그때 박수중, 이소영과 함께 Niagara 폭포를 구경하였다.



1995년. 미국 Yosemite 국립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1996년 5월, 중국 백두산 천지에서 아내와 함께, 해사문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광을 했다.

생년월일 : 서기 1935년 7월 3일 (음 6월 3일)
 원 적 :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 983번지
 본 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산 32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29-44 유원빌라 4동 303호

1942.03 개성 영생유치원 이수
 1948.03 개성 고려초등학교 졸업
 1950.11 개성 송도중학교 이수
 1954.03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1958.03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

1959.01 - 1960.12 극동농산주식회사 근무
 1961.01 - 1962.02 대륙농장 경영
 1962.03 - 1971.12 극동선박주식회사 직원 및 촉탁
 1963.09 - 1969.04 합동무역주식회사 선박부장 및 전무이사

1965.07 - 1966.06	남한벽지주식회사 전무이사	2002.02 - 현재	상계제일빌딩 대표
1966.03 - 1969.04	제일무역상사 대표	2003.07 - 현재	제 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967.01 - 1969.04	제일항공화물공사 대표	2004.03 - 현재	제일항역주식회사 명예회장
1967.06 - 1969.04	제일선박화물공사 대표		
1969.05 - 1992.02	제일항역주식회사 대표이사		
1972.02 - 1972.12	사단법인 한국항공화물 주선업협회 회장		
1972.06 - 1976.08	코스모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1984.10.30	국무총리 표창장 (제 41213호)
1974.04 - 2002.02	고려농장 5인합자 경영	1994.10.09	대통령 표창장 (제 93326호)
1979.02 - 1980.02	사단법인 한국선박주선업협회 부회장	1997.04.22	6.25 참전용사 증서 (제 14-11-014119호)
1985.05 - 1987.12	재단법인 개성시민회 상무이사	2003.10.05	국민포장 (제 14514호)
1987.01 - 1989.01	안성인삼경작조합 총대	2005.01.06	한국해양대학교 자랑스러운 해대인 선정, 수상
1988.01 - 2001.05	재단법인 개성시민회 부회장		
1990.11 - 현재	First Express Inc, Los Angeles 설립		
1992.03 - 2004.02	제일항역주식회사 회장		
1992.03 - 1996.02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 이사		
1994.06 - 현재	Pt. Firsta Expressindo International, Jakarta 설립		
1997.01 - 현재	First Express International Corp, New York 설립		
1999.01 - 현재	First Express International, China 설립		
2000.03 - 2000.12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 이사		
2000.03 - 2003.02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2001.07 - 2003.06	제 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1.07 - 2004.06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 명예시장		

나의 70년 인생을 되돌아보며

박 광 현
2004년 6월

출생과 가족

초기 피난시절

서울생활과 고등학교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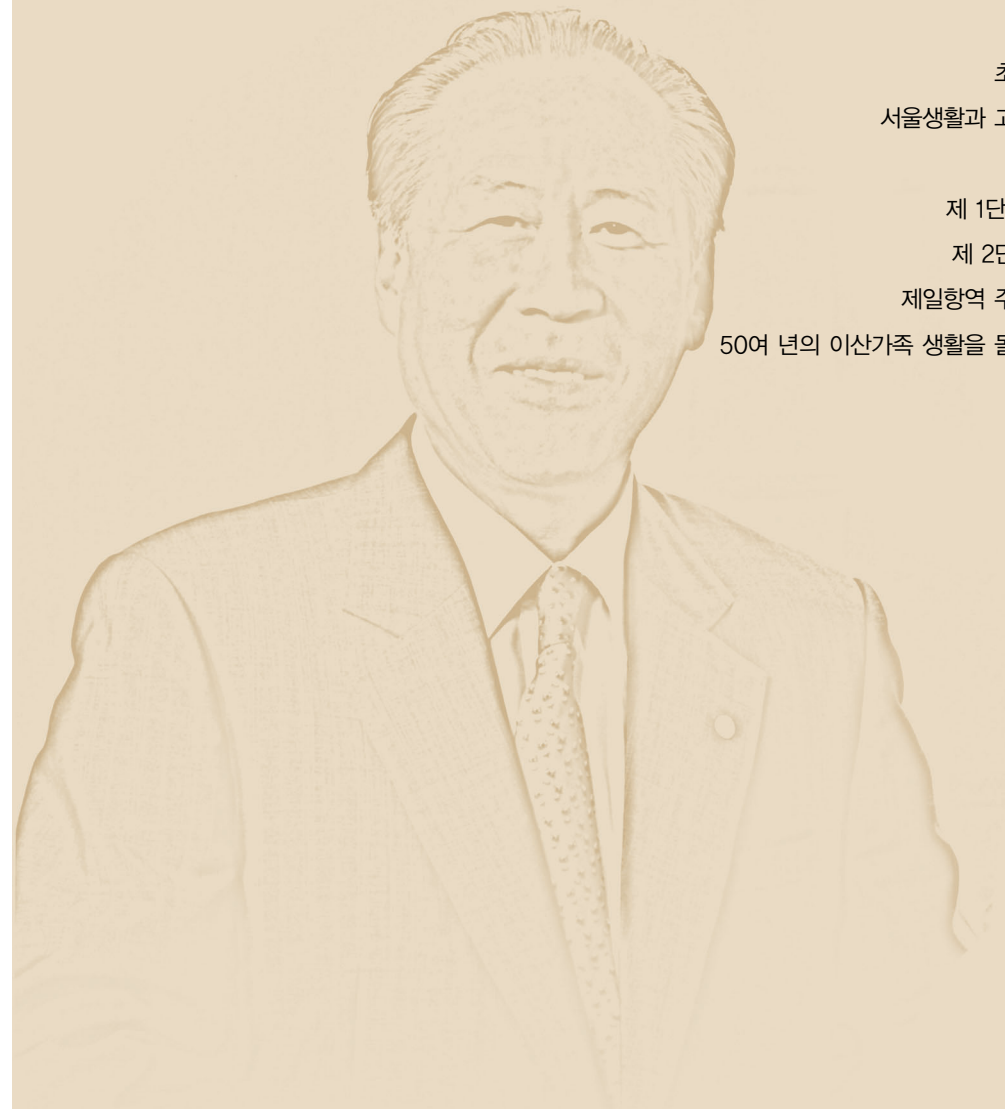
대학시절

제 1단계 사회 진출

제 2단계 사업상황

제일항역 주식회사 시대

50여 년의 이산가족 생활을 돌이켜 보며...



나는 1935년
6월 3일(음) 개
끗하고 평화로
우며 근면하고
성실한 고장으
로 유명한 경
기도 개성시의
고려동 983번
지에서 아버지
(密陽) 박재청
(朴在淸: 春波,
朴芽枝), 어머

니(淸風) 김부임(金富任)의 사남(四男, 막내)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박두혁(朴斗赫)은 내가 태어나기 직전인 1935년 3월(음)에 타계하셨으며, 착실하게 인삼을 경작하시어 상당한 부를 축적하셔서 우리 집안은 매우 풍족



개성의 고리고개집(2003년 모습)

나의 할아버지(朴斗赫)부터 아버지(朴在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집이다. 당시 고리고개 오르는 길에서는 제일 크고 집 앞마당은 매우 넓었는데, 이제는 근 백 년이 된 고옥으로 남아있고 길을 넓히느라 마당이 좁아진 듯하다. 넓은 집 앞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다섯 살 때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후 아버지께서는 우물을 묻어 버리셨으며 당시 다친 상처가 지금도 이마에 남아 있다.

하였다. 할아버지는 큰할아버지(朴元赫 박원혁), 큰할머니(李順任 이순임)과 함께 선산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대조족리 증산동(京畿道 開豐郡 鳳東面 大鳥足里 曾山洞)에 영면하고 계시다.

할머니 진재규(陳在奎)께서는 훨씬 오래 사셨으며 6.25전쟁 중인 1953년 11월에 아드님인 나의 부친을 앞세우시고 쓸쓸하고 외롭게 돌아가셨다.

아버지 춘과 박재청은 1907년 3월 20일(음)에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천재로 알려져서 이미 세 살 때 천자문을 익혔으며 붓글씨를 잘 쓰셔서 동네의 “입춘대길(立春大吉)”은 도맡아 쓰셨고 수리(數理)에도 밝아 송도부기(松都簿記)를 완성하실 정도였다. 20대 초에 이미 한문학자로 인정받았고 한시(漢詩), 시조, 수필, 소설 등 많은 작품을 남기셨다. 1927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현상 모집에서 시가(詩歌) 부문에 입선되어(1926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 1면 참조) 문단에 데뷔하신 이후 1933년에는 동호인으로 모인 개성 유지들의 일원으로 고려시보(高麗時報)를 창간하여 부장에서 주필(主筆)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을 쓰셨다. 송도부기의 해부는 물론 실제 경제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었으나 6.25 한국동란의 발발로 그 훌륭한 능력과 탁월한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시고 1953년 6월 8일에 전쟁과 이산의 한을 가슴에 품으신 채 세상을 하직하시고 홀로 개성 송악산 비둘기 성대 밑 바로 성균관 뒤에 영면(永眠)하고 계시다.

어머니 김부임은 1908년 12월 5일(음)에 태어나셨다. 미모가 출중하셨으며 개성 여자 특유의 충실한 내조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셨으나 6.25 한국동란은 우리의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였다. 첫째와 둘째 두 아들과는 북한에서 같이 지내실 수 있었으나 셋째와 막내인 나를 남쪽으로 떠나보내고 1987년 5월 30일에 세상을 떠나시며 눈을 감지 못하셨다고 전한다. 평안남도 은산군에서 장남만을 앞에 놓고 한 많은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아버님과 합장하지 못한 채 멀리 평안남도 은산군에 따로 영면하고 계시어 무척 가슴이 아프다.



개성의 외가 앞 큰 느티나무(2004년). 고옥이 된 외가가 오른쪽에 보인다.
나는 어린시절 외가를 방문하면 이 크고 우람한 느티나무 밑에서 놀곤 하였다.
한국동란 중 1.4후퇴 후 개성을 떠날 때까지 이곳 외가에서 폭격을 피하여 묵고 있었는데 자상하셨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큰형 박정현(朴正鉉)은 서울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한 수재로 한때 개성 생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개성중학교, 개성상업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6.25 한국동란을 맞았다. 부득이 인민군에 징발되었으나 무사히 생존하여 북한에서 박사 칭호를 받으며 지내다가 1994년 6월 2일 평안남도 은산군 순천시에서 타계하셨다.

둘째형 박성현(朴聖鉉)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6.25 동란 이후 개성에서 유일하게 살고 있으시다. 1996년 7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친우 차영신 군이 개성을 방문, 형을 만나 사십여 년 간 까맣게 모르던 부모님, 형제, 가족, 일가친척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형과의 서신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형 박대현(朴大鉉)은 한국 해군 사관학교 8기생으로 졸업, 해군 준장에 이르렀으며 예편 후에는 한국 선원훈련소 소장 등 중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지금은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 내가 1960년 9월부터 해군 예비원 사관 훈련을 진해 해병

6연대에서 받았는데 일요일 외출 시에는 꼭 형의 개인 숙소에 가서 묵곤 하였다. 나의 훈련기간 3개월 간 근무 중이었던 형을 거의 만날 수 없었으나 개인 숙소에서 묵을 때는 내가 피난 나온 후 처음으로 내 집같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다. 나에겐 잊을 수가 없는 곳이다.

나 박광현(朴光鉉)은

1941년에 개성 영생유치원을 다녔고,

1942년에 개성 고려초등학교를 입학, 1948년 졸업하였다.

1948년 개성 송도중학교에 입학, 3학년 초에 6.25 한국동란을 당하였으니 실제 중학교과정은 2년 수업으로 끝났고 중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어찌 그날을 잊으랴. 천인이 공노할 북한 인민군의 남침은 나의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1951년 4월에 개성에서 단신 월남하면서 나의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다. 미 8군 및 한국군 제 1사단 소속 5816 유격부대(遊擊部隊) 내의 편의대(便衣隊)에 입대하여 상당기간 중공군과 맞서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치열한 전투를 겪게 되었다. 내일을 모르는 처참한 전투 중 1951년 5월 개성에 입성하여 구남골 집에 찾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상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단신 월남 후 편의대 전투상황까지는 나의 참전기 “개성유격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5816부대 편의대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대원들에게 정식으로 현역에 편입되거나 혹은 부대를 떠나 학생으로 복귀하는 택일의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현역으로 남게 되면 미처 받지 못한中等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많은 망설임 끝에 부대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불투명한 장래를 대비하지 못한 대책 없는 결심이었다.

부대를 떠나 강화읍에 홀로 남게 되니 참으로 앞날이 막막하였다. 곧 개성 부모님의 곁으로 가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개성을 떠날 때 갖고 온 약간의 재화와 팔아 쓸 귀한 물건들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험난하고 힘든 고생의 시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귀향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우선 다급하여 강화 시골의 한 농가에 일꾼으로 들어간 것이 1951년 7월이었다. 머슴과 다름없는 고된 일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었다. 잠시의 고생이라고 생각하였고 귀중한 초년고생이라고 오히려 자위를 하였다. 개성사람 특유의 끈질긴 생활력과 인내심이 어려운 노동일을 감당하여 주었다. 노동은 참으로 힘들었다. 어려서 경험 삼아 이른 새벽 신문 배달도 해 보았지만, 여유 있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라온 나에게서는 뜨거운 여름 피약별을 쬐면서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김을 맨다는 것은 무척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논김을 매는 일은 일찍이 보지도 못하였고 해본 적도 없으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니 어느 정도 견뎌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었다.

강화읍에서 임시 피난생활을 하고 계시던 아버님의 친구이시고 양가가 각별한 사이였던 박천호(朴天鎬) 씨(漢雄, 漢傑, 英玉 씨의 부친) 가족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는 내 소식을 들으시고 고향에 갈 때까지 함께 지내자는 연락을 주셨다. 나는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즉시 노동일을 중지하고 합류하게 되었다. 셋방을 얻어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그 틈에 체면 없이 끼어들었는데 온 가족이 단 한번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고 근 한 달 간을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다.

이후 나는 고종사촌 홍종규(洪鐘奎) 형님, 홍금복(洪金福) 누님, 장상순(張相舜) 자형, 그 외 많은 일가친척, 그리고 박천호 씨 등 아버님, 어머님 친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어린 나이, 단신의 피난생활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싫은 기색 한 번 보이지 않고 도와 주셨던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후한 대접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내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다. 아버님,

어머님이 지난 날 남에게 해악을 끼친 일 없이 베풀며 사셨다는 그 공덕 때문에 내가 후덕을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생활이 안정된 이후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하나마 진심에서 남을 돕고자 항상 마음을 다지고 있다. 언젠가 나의 이 정성이 후손들에게 큰 공덕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천호 씨 가족에게 고마운 신세를 지고 있는 동안 배고픔도 면하고 잠자리도 얻어 몸은 그런 대로 편안하였으나 항상 마음은 불안하였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잠들면 악몽만을 꾸면서 불안정하게 지내고 있었다. 부산 지역으로 피난 가 계시던 홍종규 형님이 상경하셨다가 강화에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전선의 최전방인 강화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의 기쁨은 실로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듯하였다. 전쟁으로 살벌한 최전방 여행은 매우 어려운 행보였으며 넉넉하게 여비를 주면서 뒤따르라는 말만 남기고 이내 되돌아 가셨다. 강화를 떠나면서 나의 피난생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인천에서 사촌 문현(文鉉) 형 내외, 경남 김해에서 고종사촌 홍금복 누님 내외(자형 장상순), 그리고 마산에서 홍종규 형님 부부의 보호를 받으며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항상 부모님 생각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피난시절의 어려웠던 생활 탓에 남을 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였으나 나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강화, 인천, 김해, 마산을 전전하는 동안 1952년 3월에 개성에 계시던 아버님께 서 일시 월남하여 김해로 나를 찾아 오셨다. 아버님과 함께 인천으로 이동한 후 아버님은 불모로 있는 북의 가족이 걱정되어 서둘러 월북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 월북한 이유, 전쟁 중에 월남한 특별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정보기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셨다는데 지금도 석연치 않게 생각된다. 자식 안위가 걱정되어 감행하신 무모한 월남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나를 홀로 객지에 계속 남겨놓고 돌아

서시는 아버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으며, 이것이 부자 상면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미처 알았겠는가.

아버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고, 얼마 되지 않는, 갖고 계신 돈을 모두 나에게 주고 떠나셨지만 그 때는 아버님이나 나 역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곧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 피난지에서 임시 개교하게 된 송도중학교 인천 임시학교에 등록을 하고 며칠 학교에 등교하였으나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귀향할 수 없게 악화되자 나는 다시 초조하여 지기 시작하였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는 날 다시 막막한 구렁에 빠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학교에 가 앉아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인천 시장에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좌판 장사로부터 짐꾼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성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도 동참해 보려고 매일 시장 바닥을 헤매었으나 좌판 장사를 할 만한 밑천이 없었고 짐꾼으로 뛰기에는 힘이 부쳤으며 나이도 너무 어렸다.

다시 어려운 피난생활이 시작되었다. 인천에 계셨던 사촌 문현 형님 부부의 도움이 컸으며 특히 아버님 친구분들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셨다. 만날 때마다 돈을 쥐어주시던 어른, 몇 끼를 굶은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사 주시며 정신 없이 퍼먹는 나를 측은하게 쳐다보시던 그 분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

인천에서의 몇 개월은 악몽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미군 부대의 식당 노무자(KB: Kitchen Boy), 인천 역전의 양아치 생활,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생활이었다. 미군 부대의 식당 노무자 노동은 고됐으나 먹는 것은 비록 미군의 잉여 음식물 또는 먹다 남은 찌꺼기일 망정 배는 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양아치 생활은 배고프고 비참한 삶이었다. 고생 모르고 지내온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곳저곳을 헤맬 때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듯 절망적이었다. 부모를 그리는 마음은 살을 저미

고 뼈가 시리게 처절하였다. 이곳저곳에서 겨우 얻은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귀 밑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1951년 4월, 17살에 부모님 품을 떠나 살벌한 전시 하에서 타향을 헤맨지도 어언 일 년 반에 이르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 왔기에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역경에 허덕이고 있던 1952년 늦여름에 홍종구 형님으로부터 구세주의 손길과 같은 기쁜 연락이 왔다. 남쪽 피난에서 서울로 복귀한 종구 형님네와 금복 누님 부부로부터 인천에서 고생하고 있지 말고 서울로 들어오라는 기별이었다. 당시에는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한강 도강은 특별 허가가 필요한 때였다. 피난민들의 귀경을 막는 이유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투가 치열하였던 때라 서울 인구의 증가를 우려한 때문으로, 정식으로 도강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인천에 머물고 있던 고향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화물차의 조수로 가장, 한강을 건너 서울 형과 누이의 그늘로 돌아오게 된 때가 1952년 9월 말 경이었으니 악몽 같은 인천의 피난생활이 근 6개월에 이른 셈이다. 바삭 마른 몸, 새까만 얼굴에 눈만 반짝이었다.

서울생활과 고등학교 수학(修學)

고난과 참담, 방황과 불안의 초기 피난생활이 끝나고 피난생활 2기의 서울생활이 시작됐다. 1952년 9월 말에 서울로 이동한 후 먹고 자는 걱정이 없어지니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처참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경제는 제로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에서 고모님, 고종사촌 형님과 누님 밑에 얹혀 있다는 것은 염치없고 미안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삶은 눈치 한번 없이 한 가족으로 대해 줄 때마다 나도 밥값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나를 압박하였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일이 되었고 그간의 고생을 되돌아보며 어떻게든지 일을 하여 내 밥값을 하고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정릉(貞陵)의 넓은 땅 한 모퉁이에 양계장을 지어 닭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험악한 전시에 여러 면에서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장상순 자형의 자동차 부품 판매에 심부름을 하는 등 내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려 노력하였다. 비록 학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았으나 학생 신분을 내세울 수 있었고 유격대 참전 경력도 있어 나는 삼엄한 전시 체제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자유로워 거리낌 없이 나다닐 수가 있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뛰어 다니느라 잊고 지낼 수 있었으나 밤이 되면 부모

님 생각, 고향 생각,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점점 귀향길이 멀어지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하자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1952년 11월에 들어서자 거의 실의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굶지 않고 편히 잘 수 있어서 갖는 과분수였지 그 때의 상황은 거의 모든 국민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극한 상황이었다.

개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학교나 다니라고 종규 형께서 나를 데리고 경동고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는 정말로 기쁘고 이루 형언할 수 없게 감사하였다. 당시의 경동고등학교 서병성(徐丙瑋) 교장께서는 개성 출신으로 내가 전쟁 이전에 다니던 송도중학교 교편도 잡고 계신 적이 있으며 나의 아버님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즉석에서 입학을 허락하였고 나는 욕심을 내어 그 동안의 공백을 무시하고 정상 학년을 택하여 고 2에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중 3 초기에 학업을 놓은 이후 2년 여 만에 교실에 들어가니 감개가 무량하였으며 한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하늘을 날을 듯 기쁜 일이었다. 학교는 전쟁 중에 어수선하기 그지없었고 학업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부모 슬하에서 크게 손상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 받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불안한 처지의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2년 반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될 형편이었으나 밥값은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항상 쫓기는 듯 허둥대고 있던 중 12월에는 자형의 심부름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와 수금을 위하여 대전을 가게 되었다. 대전에서 김흥수(金興壽) 막내 외삼촌 내외분, 순임(順任) 막내 이모를 만나 따뜻하고 푸짐한 대우를 받았고 비록 초라한 피난 숙소였지만 포근하게 잠자리를 가졌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 분들과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물품의 판매와 수금을 무사히 끝내고 귀경하게 되었다. 아직도 한강 도강이 무

척 까다로워 영등포 버스 정류장에서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수금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금액은 요즘의 가치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상황과 그 비중을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의 양이 적지 않아 가방 가득 담고 있었다.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가방을 도난당하고 보니 하늘이 노랗게 된다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함께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말았다.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서울로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 다시 정처 없는 방황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순간도 잠시, 다시 고난의 구렁텅이에 버려진 처량한 외톨박이의 신세가 되었다. 학업은 가당치 않은 사치였고 고향에 돌아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였다. 장문의 사과 편지를 서울로 띄우고 인천에서 해마다가 수원으로 찾아가니 마침 박문현(朴文鉉) 형님이 그곳에 계셔서 많은 신세를 졌으며 김천수(金天壽) 큰 외삼촌의 도움도 받게 되었다.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구정이 다가 왔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법 활기차게 되었을 때 서울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종규 형의 기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찾아갈 면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도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뾰족한 수도 없어 체면 없이 다시 입정 하게 된 것이 1953년 초였다.

서울로 들어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를 악물고 살 결심을 하였다. 견뎌 내지 못하면 살 필요가 없으며 개선될 기미가 없는 나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였다. 그 이후 나는 겉으로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다. 후일 막내 수종이 어린 나이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을 때 울음을 참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울음은 삼키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고개를 못 들고 찾아온, 말 한 마디 없이 서있는 나에게 잃은 돈에 대하여 일언반구 물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고모님을 위시하여 종규형, 금복 누님 부부 모두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의심의 눈치 한 번 없이 아무도 나에게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실로 잊을 수 없는 배려였다. 그 이후 나는 양계장에서 열심히 일 했으며 며칠 걸려 코피를 흘려가며 죽어라 뛰었다. 새벽에는 자전거 타고 낙원시장으로, 서소문시장으로 생선 찌꺼기를 수집, 닭의 중요한 영양을 보급 하였고, 자형의 일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자형을 대신하여 지방 출장 시 대구를 가게 되었는데 피난살이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김조형(金祖炯) 군의 작은 방에서 그 식구들 틈에 끼어 잤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조형 군의 부친 소죽(素竹) 김진원(金鎭元) 씨는 나의 아버님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양가는 아주 가깝게 지냈고 학우 조형 군의 자당은 우리 집에서 혜화동 이모님으로 호칭하고 있을 정도로 내내 각별한 왕래로 지내왔다.

어려운 역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동분서주하면서 때때로 떠오르는 옛 일, 단란했던 부모, 형들과의 가정생활, 행복했던 추억들, 보고 싶고 미치게 가고 싶은 나의 고향 등 과거의 회상은 나를 비타협적이고 반항적으로 만들어 갔다. 짜증을 잘 내고, 심통을 잘 부렸으며 며칠이 되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습관까지 생겼다. 고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경계하며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 주의하였고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다. 이러한 병적인 비타협과 반항심은 결혼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아 집사람이나 처갓집 그리고 자식들,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하였고, 무척 괴롭히기도 하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부모, 형제, 자매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대하면 공연히 심통이 나고 더욱 속상해 했으며 내 성질에 못 견뎌 시비를 걸기도 하였다. 그 때부터 동물들에 정을 쏟으며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생업으로 기르던 닭은 물론 개, 토끼 심지어

어는 원숭이까지 데리고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곤 하였다. 그러나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되자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게 되었다. 요즘 동물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부족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은 부족하고 외로움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취미를 찾아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학년이 되었다. 한번 학교에 가서 복학을 신청해 보라는 종규형의 독려에 따라 학교에 가서 당시 고 3 담임 김용집(金容集) 선생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고 3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 커다란 행운이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내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특히 김용집 선생님께서는 내 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혼란한 사회에서 선생님들은 규율을 잡으려 무척 엄하게 학생들을 다루셨으나 내게는 항상 스스로 행



1953년 가을, 경동고등학교 재학 중 나의 어려운 고교생활에 크게 힘이 되어준 절친한 친구와 함께.
왼쪽부터 원창연, 김태섭, 그리고 나. 고교시절의 유일한 사진이다.

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공부는 계속해야 되겠고 공부를 계속하려면 대학에 들어가야 했다. 대학 입학시험이 약 반년 남은 시점에서 기초가 없는 나에게는 학교수업이 큰 의미가 없었다. 내 몫을 감당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여유가 될 때마다 도서관(종로 도서관, 남대문 도서관)을 찾아 나는 중 3, 고 1, 고 2 교과서를 대충 훑으며 대입 시험에 열중하였다. 너무 힘들어 몸은 바싹 여위었으나 굴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공부하였으며, 전기불도 없이 밤늦게까지 호롱불 밑에서 노력하였으나 고 2 과정에 있던 독일어는 손도 못 대고 영어는 기초가 부실하여 진전이 되지 않았다. 수학만은 거의 완벽하게 이수하여 졸업시험에서 전 학년 1등을 하여 수학 담당 김용집 선생님의 특별한 칭찬도 받았고 이후 모든 시험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중학교 2년, 고등학교 약 8개월을 다니고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정규 6년을 공부한 경쟁자와 겨루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독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당시 특차 입학시험은 3군 사관학교와 해양대학이었는데 이들은 관비였기 때문에 많은 수재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특차로 해양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시험을 치를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해양대학교는 영어, 수학, 논문 시험이 모두 주관식 출제였는데 영어 시험은 만족할 만 하지 못했으나 논문은 그런대로 치뤘고 수학은 4문제 출제에 3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 후에 알려지기로는 수학 3문제를 맞춘 사람은 몇 명 되지 아니하였고 나는 당당히 24등으로 합격하였다. 특차에, 특히 해양대학에서 낙방된 수험생들이 많이 서울대학교 법대, 상대에 무난히 입학한 것을 보면 특차에 모인 수험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해양대학에 특차로 합격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루었다.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 되었고 이틀에 나누어 시험을 보았다. 첫 날 시험을 무난하게 치르고 차분히 생각해 보니 의과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었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

는 것이 희망이었으나 해양대학이 의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입학금, 등록금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식은 친척,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입학금, 등록금 장만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미련을 버리고 의과대학의 이틀째 시험을 포기, 한국해양대학 진학을 결심하기에는 많은 고뇌와 망설임이 없지 않았으나 그 때 그 결정은 잘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당시 나를 끄찍이 도와주고 있던 중규 형님의 형편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어 나의 해양대학 행은 참 잘한 결심이었다. 다만 나의 대학진학이 나의 당시 형편에 무모한 망상이 아니었나 무척 두렵고 불안하였다.

대학 시절이라고 제목을 적고 보니 매우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나의 대학 생활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고 피난생활의 연장이었다. 1954년 4월, 드디어 한국해양대학교 제 10기 기관과(機關科)에 입학하였으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은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워 한국해양대학은 아직 변변한 교사(校舍)도 갖추지 못하였고 기숙사도 없었다. 부산 거제리 철도관사 단지 내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받고 식사는 천막 식당에서 제공되는 등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다. 외복(外服)과 식사, 교과서는 무료 제공,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였지만, 3군 사관학교식 완전 관비와는 달리, 숙소는 각자 준비하여야 하며, 내복, 개인 용돈도 본인이 장만하여야 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미처 몰랐고, 그래서 또 다시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울의 형님과 누님에게 손을 벌려야 될 형편이 다시 되고 말았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고심 끝에, 학업이 뒤지는 여유 있는 동급생을 찾아 서로 돕고 사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당시 해양대학에는 집안이 곤궁하여 국비에 의존하여 취학한 수재들과 마도로스를 동경하여 모인 활량들이 섞여 있어서 내가 필요한 동급생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약간의 학비와 숙소 그리고 용돈만 구할 수 있다면 학교생활은 나에게서는 외로움

도 떨치고 안정된 자세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바다의 사나이 양성에 필수적이라는 절도 있고 엄격한 학교 교육은 무척 힘든 기압과 훈련을 요구하여, 많은 생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나는 그와 같은 생활에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롭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공부할 수 있는 이 해양대학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은 차츰 익숙해지고 재미까지 느끼게 되었다. 남에게는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 항상 여유 있게 행동하여 아무도 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부산에 살고 계시던 선임(善任) 이모 부부의 도움 또한 잊을 수 없는 나의 고난의 구원자였다. 가끔 일요일에 찾아가면 항상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고 도움도 아끼지 않으셔서 한결 힘이 되곤 하였다. 내가 배를 내리고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부산 4년 생활에 선임 이모와 이승빈(李承彬) 이모부의 따뜻한 지원은 나의 힘든 학교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그 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용돈을 얻으면 그 돈을 아껴서 두고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교내 친구들에게 푸짐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나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동료로 알고 있었다.

가급적 서울 방문을 삼가고 방학 때는 급우의 시골집에 같이 가서 기숙하며 친구의 부족한 학업을 도왔고, 그의 시골 가족 모두는 나를 선생으로 대우하여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다만 부모님 생각에 외로운 밤이 많았으나 전에 강화, 인천, 수원에서 방황할 때보다는 매우 편안하고 흡족한 생활이었다.

중, 고등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로서는 공부를 따라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공학공부가 많은 기관과(機關科) 과목에는 독일어 단어, 기초 과학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전혀 배우지 못한 독일어 실력과 기초 과학 실력 부족으로 기계 공학, 전기 공학에서는 항상 고전하였고, 배운 기간이 매우 짧은 영어

실력도 큰 난제였다. 입학시 과 12등이었던 것이 1 학년을 8등으로 2 학년을 4등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겨우 갖춘 나의 수학 실력과 부단히 노력한 공부 때문이었다. 해양대학 1, 2 학년 생활은 나의 대학 생활과 수학(修學)의 절정이었다.

나는 1, 2 학년을 보내면서 모두 참석하는 해양 훈련(즐거운 소풍과 비슷한) 한 번 못 따라 갔고, 모두 배우는 교내 댄스교습 한 번 받지 아니하였다. 이 모두가 학비를 줄여야 하고 남몰래 학업 진도를 따라 잡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행동하여 나의 그러한 처지를 제대로 아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많은 급우들은 나를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잘 하지 않는, 우등생이 못 되는 전형적인 마도로스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나의 모교인 송도중학 출신이 상당수 해양대학을 졸업하였다. 멀리 위치한 개성 출신이 바다로 많이 진출하였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개성상인들이 일찍이 중국과 교역을 시작했으며 넓은 시야와 활동력을 갖추고 있어 바다에 대한, 또 세계적인 안목이 남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송도중학 출신이 매기 마다 여러 명씩 있어서 나의 학교생활 그리고 승선 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이 또한 나에게서 큰 행운이었다.

3 학년이 되면서 1 학기에는 8분대 분대장으로 활동하며 그런대로 무난하게 지냈다. 당시 전교생을 8개 분대로 나누어 각 분대에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있어 많은 생활을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학기가 되면서 다시 어려운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가 거제리 천막 교사(校舍)에서 새로이 신축된 동삼동(東三洞) 교사로 옮겼을 때에는 새 건물에서 공부하고 새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어 희망과 기쁨에 들떠 있었으나 나에게서 새로운 고난이 닥치고 있었다.

4 학년 생은 모두 실습 승선하게 되어 있어 3 학년이 교내에서는 최고 상급생이 되어 학교생활과 기숙사 일과가 매우 자유로웠고 한결 지내기가 편해졌다. 그러나 나에게서 2학기에 접어들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문제는 앞으로



1955년. 한국해양대학시절.
한국해양대학 2학년 재학시 외출복 차림으로 인재혁 선배와 함께.
왼쪽 분(9기생이고 고향 개성 분으로 송도중학교 선배이기도 함)과 함께, 오른쪽이 나.



1955년. 한국해양대학시절.
한국해양대학 2학년 재학시 당직사 근무 중.
당직사관(가운데 분 9기생 유도형 선배-경동고
등학교 선배이기도 함), 부당직 사관과 함께,
오른쪽이 나.



1956년. 한국해양대학시절 3학년 여름.
해상훈련 중 동기생과 함께. 왼쪽부터 박영복, 나, 그리고
이성호.

등록금이 학생 부담이 된다는 놀라운 발표였다. 근근이 지내온 나로서는 등록금 낼 능력이 없어 크게 낙심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관급에 등록금도 필요 없는 사관학교에 진작 가지 않고 해양대학에 온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문제는 폐결핵 진행 중이라는 신체검사 결과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등록금 마련도 되지 않을 것이고 몸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도 못했으니 정말 앞 일이 캄캄하였다.

학교를 창립하시고 그간 어렵사리 유지해 오시던 이시형(李時亨) 학장님이 역을 하계 물러나시고, 국무총리 서리, 국방장관 등을 역임하셨고 해운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큰 별이신 신성모(申性模) 신임 학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억지로 물러나신 이 학장님을 동경하며 신 학장님의 부임을 반대하기에 이르렀고, 등록금 학생 부담 반대까지 겸하여, 학업 거부, 식사 거부 등 완강한 저항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처지에다가 자포자기가 된 나는 앞장서서 등록금 반대와 신 학장 취임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 와중에 나는 외박을 자주하여 서울에도 무단으로 가는 등 교칙을 위반하면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무단이탈에 미귀환이 적용되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선원들에게 시간관념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며 귀환 시간을 못 지킨 미귀환은 선원생활에 있을 수 없는 중죄에 속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무기정학 중에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으나 어려운 처지를 누구에게 말할 염치가 없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치료를 서두를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이우천 군과 함께.

이우천 군은 나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제일 친한 어릴적 친구로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졸업하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한국동란 이후 전연 소식을 모르던 나를 만나러 한국해양대학교로 찾아왔으나 무기정학 중인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 무기정학 중에 두 가지 특기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장래 향방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참으로 알곳은 운명이랄까, 나의 장래가 이 때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첫째 상황은 무기정학 중 나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 이우천(李愚天) 군이 한국동란 이후 처음으로 나를 만나러 해양대학을 방문한 사실이다. 그는 당시 육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그의 작은 아버지를 만나러 부산에 왔다가 학교로 나를 찾아 온 것이다. 당시 그의 작은 아버지는 대한해운공사 부산지점 이한영(李漢永) 지점장으로서 대한해운공사는 한국의 유일한 대형 해운회사로서 그 막강한 지점장이 나의 확실한 후원자가 되었다면 나로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취직도 거뜬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사에 쉽게 취직이 되었다면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쉽게 선원이 되

어 해운계의 종사자로 평생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우천 군이 학교에 왔던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후일 그가 대한해운공사 부산지점 1호 승용차를 타고 나를 만나러 왔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연락할 길도 없었고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끊겨 버렸다.

둘째 상황은 내가 무기정학 중 방황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학교 기숙사에 몰래 숨어들어 와 있었는데 눈치를 채신 중규 형께서 학교를 찾아온 사실이다. 여행이 쉽지 않은 당시에 서울에서 일부러 부산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형은 특별한 인연으로 정계에서 막강한 자리에 계실 때부터 신 학장과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다. 학장실에서는 급기야 나를 찾게 되었고, 기숙사에 몰래 묵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마중빈(馬鍾斌) 학생감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마 학생감은 개성 송도중학교 선배이며 해양대학의 5기 선배이다. 학장실에 들어서는 나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배척했던 학장은 중규형과 막연한 사이인데다 학장께서는 많은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기 때문이었다. 신 학장의 배척운동도 이미 식어 있었고 신 학장의 취임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정착되고 있어 학교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형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학장님의 무기정학 해지 지시는 나의 좌절되어 있던 기분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었다. 해상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선원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겠다고 항상 생각하여 온 나는 해양계통의 육상근무가 희망사항이었다. 해상 근무를 오래하게 되면 일반 사회와 거리를 두게 되고 장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고려할 때 당치 않은 욕심이었으나 신 학장님과 같은 후원자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무기정학은 끝나고 즉시 복교되었으며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었다. 학업을 계속하고 살기 위해서는 결핵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중빈 학생감님의 부인께서는 해군 간호장교 출신으로 나의 결핵 치료, 마이신 주사 시술을 도맡아 주

셨다. 오후에 생기는 미열로 입맛이 전혀 없었으나 결사적으로 안 넘어가는 음식을 씹고 또 씹으며 억지로 삼키곤 하였다. 자연히 식사 시간이 매우 길어 후배 식사 당번들은 홀로 늦게까지 식사하고 있는 나를 무척 원망하고 미워하였을 것이다. 천신만고로 병마와 싸우며 삼학년을 마치게 되었다.

4학년은 실습 승선 과정으로 국내 외항 선박에 실습 사관(apprentice, 선내에선 압부로 호칭됨)으로 4명씩 배치되어 승선 실습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우천 군의 작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대형 선박회사 대한해운공사의 부산지점장으로 계셨기에 나는 좋은 선박에 배치될 수 있었겠지만 우천 군과 연락이 끊겨 있어 순번대로 배치되어 첫 6개월은 동남아 정기선 제주호, 후반 6개월은 일본 정기선 울고랩호에서 실습 승선 근무를 하였다. 역시 마도로스 생활은 남자다운 직업이었다. 끈질긴 노력으로 병마도 어느 정도 물러났고 뱃멀미도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여, 승선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많은 항구를 드나들며 좋은 구경을 하였고 국제적인 식견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습근무 보수도 선사에서 받았고 적지 않은 용돈도 생겨 내가 부모님 슬하를 떠난 이후 가장 여유 있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신바람 나는 마도로스 생활은 지금까지 겪어온 그 많은 고생들을 까맣게 잊게 만들 정도로 화려하였다. 항구마다 술과 놀이로 그리고 부산 광복동에서의 활보 등 실로 세상이 모두 나의 것이 된 듯 신바람 나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시련은 미진했던지 실습이 끝나가는 1957년 11월 경 나를 다시 절망에 빠트리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 쓰지 않고 아끼고 아낀 승선 중의 수입금과 남에게 지불해야 할 돈까지 몽땅 가방 채 택시에 놓고 내리는 불운을 저지르고 말았다. 어찌하여 나에게서는 이런 악운이 계속되는지, 죽어라 죽어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또 다시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 때가 실습하고 있던 울고랩호가 일본행 무연탄을 싣기 위해 부산항에서 묵호항으로 출항할 즈음으로서 이 항해가 나의 마지막 실습 항해였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하여 부산 출항 선

박에 승선도 포기하였으니 이는 선원으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미귀(未歸)라는 중죄를 실습 중에 저지르게 되었다. 죄과가 알려진다면 졸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고 앞으로 나쁜 기록으로 해운계에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과실이었다. 사전에 양해나 허락 없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던 중 나는 그 간의 고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뇌리를 스치자 당황하여 배를 만나기 위하여 묵호로 향하였다.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한 당시의 묵호 행은 부산에서 출발 태백산을 걸어서 넘어야 했다. 눈 덮인 태백산을 천신만고 끝에 넘어 묵호항에서 무연탄 선적을 하고 있는 배를 찾아가, 사죄 사죄 끝에 무사히 없었던 일로 무마할 수 있었지만 전 재산의 분실은 나에게 큰 타격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줄 돈을 주지 못하여 신용은 크게 실추하였다. 후일 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는 못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갚고자 노력하였으며 항상 무거운 짐이 되었다.

졸업식도 변변히 치르지 못하고 실습을 종료하자마자 나는 서울로 떠나버려 졸업장, 공학사 학위증, 갑종 2등 기관사 면허증도 챙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대학교육을 마쳤다는 안도는 나를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1952년 말에 경동고등학교에 편입하여 1958년 초에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지난 5년여는 악몽과 같은 세월이었다. 그 간 나는 고교에서 1회, 대학에서 2회 위기를 맞이하여 거의 학업 중단 상태에 까지 이르렀으나 어려운 고비를 용케 극복하였다. 이 모두가 나의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행운이었고 조상의 음덕(陰德), 부모님의 인덕(仁德) 그리고 주위의 후덕(厚德)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셨던 홍종규 고종사촌 형님의 도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향 부모 슬하를 17살의 나이로 떠나 이제 24살이 되었다. 지난 7년간 험한 세월을 보내며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산 너머 산인 고난과 역경 속에 꽃다운 소년기를 낭만도 모르는 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외로움을 달래느라 밤잠 못 이루던 시절도 지나고 앞으로의 보람 있는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부모님 생각이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어렵게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였다. 무수한 천재들과 어깨를 겨루며 결사적으로 공부하였다. 정말 어렵게 지낸 대학생활이었다. 무기정학이라는 불명예가 나의 기록부에 오점이 되어 사회생활 초기에는 불이익도 적지 않았으나, 여하튼 나의 대학 수료는 자랑스러웠고 내가 다니고 졸업한 한국해양대학은 항상 고맙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학교에 대한 나의 애착은 무엇에 비유할 수 없게 컸고 더욱 발전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였다. 2000년부터 3년간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아 내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일하였던 것도 나의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엄두도 못 낼 대학에 입학하여 어렵게 졸업한 한풀이였을 지도 모른다.



1960년 9월.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후 해군 예비원 장교 훈련 중. 뒷줄 왼쪽이 대대장 이항복, 오른쪽이 중대장 허일, 앞줄에 있는 나는 중대장이었고 당시 극동농산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었다.



1960년 11월. 해군 예비원 장교 훈련 3개월 과정을 끝내고 해군예비원 소위로 임관된 후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 친형 박대현과 기념 촬영. 진해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나는 형의 진해 숙소에서 주말을 보냈다. 고향의 부모님 슬하를 떠난 이후 가장 편하게 내 집같이 쉴 수 있었다.

2005년 1월 6일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제 5회 “자랑스러운 해대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나의 인생에 뜻깊은 자취를 남기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05년 1월 6일. “자랑스러운 해대인” 선정 증서를 받고 있다.



2005년 1월 6일. “자랑스러운 해대인” 상패 수상



“자랑스러운 해대인” 상패



제 12 호



자랑스러운 해대인 선정 증서

박 광 현 회장
1935년 7월 3일생

회장님께서서는 우리대학교 기관학과를 제10회로 졸업하시고 국내 최초로 항공해운주선업을 개척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 분야를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제8대 총동창회장의 직책을 맡아 체육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총동창회의 약진에 팔목할만한 기여를 하여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그 활동과 업적이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제5회「자랑스러운 해대인」으로 선정하여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합니다.

The Distinguished Alumnus Award Korea Maritime University

President Kwang-Hyun Park, after your graduation from Korea Maritime University as a tenth term student of marine system department, opened the new field of Forwarding Industry in Korea, did your best to promote the field on the international basis, and especiall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both drawing various supports from the National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50th anniversary building as the 8th chairman of KMU alumni association. Furthermore, you have earned an exceptional honor as a man of great accomplishment by enhancing the reputation of Korea all over the world.
In recognition of your outstanding accomplishments as a model alumnus, Korea Maritime University hereby honors you as the fifth recipient of the "Distinguished Alumnus award".

2005년 1월 6일

한국해양대학교 총 장 김 순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장 김 병



“자랑스러운 해대인” 선정 증서



자랑스러운 해대인 공적조서

박 광 현 회장

회장님께서서는 1958년에 우리대학 기관학과를 제10기로 졸업하시고 평생토록 '항공해운주선업'이란 특화된 산업에 투신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해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공로자이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59년 3월 극동해운주식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회장님께서서는 당시 미국의 원조 원자재 집하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이 회사를 사직한 뒤에도 특별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영업 마케팅분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셨습니다.

1966년 제일항역주식회사 -최초엔 제일무역상사로 시작하여 제일항공화물공사, 제일선박화물공사 등으로 이름이 바뀔- 를 설립하여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항공해운주선업 -현재는 Forwarding 업으로 부르고 있음- 을 국내 최초로 개척,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유의 끈기로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1960년대는 항공운송업의 태동기로서 수많은 개선사항들이 발견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회장님께서서는 이러한 점을 익히 체험하시고 교통부와 협의하여 항공법을 개정, 항공화물의 혼재행위 (Air Cargo Consolidation)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인 활약을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또한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태동한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을 본게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정식 면허를 발급도 록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해대인" 공적조서



개인적으로 회장님께서서는 미수복 경기도 개성출신으로 1980년대 부터 개성시민회의의 수많은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개성시의 명예시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서는 모교를 졸업하신 후에도 모교에 대한 사랑 이 끊이지 않아 '국내 우수 대학보다도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모인 최고 대학교'라는 자긍심을 가슴속 깊이 새겨 생활하셨으며 늘 모교를 자 랑스러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아끼셨습니다.

특히 정부 체육부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후배들에게 많 은 장학금을 쾌척하는가하면 1995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한 기념회 관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총동창 회의 약진에 평생토록 온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회장님의 많은 공적과 업적을 이루 다 소개할 수 없어 이상과 같이 간략하나마 제5회 「자랑스러운 해대인」선정 공적조서에 갈음합니다.

2005년 1월 6일

한국해양대학교 총 장 김 순 갑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장 김 병 춘



"자랑스러운 해대인" 공적조서

제 1단계 사회 진출

나의 장래를 위하여 승선만은 피하고 어떻게든지 육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지난 마도로스 생활, 그 신나던 기분은 싹 없어지고 갖고 있던 돈도 다 잃고 무일푼으로 어깨는 축 처져서 힘없이 상경하였다.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많은 동기생들은 해군, 해병대 장교 또는 해양경찰 간부로 진출하였으나 나는 과감히 승선 근무를 포기하였다. 한 때는 선원으로 취직이라도 할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목표대로 육상 근무만 고집하였다. 그 때 만약 선원이 되었다면 나의 인생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 해운계의 육상 근무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였다. 찬 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사회에 진출해야 했지만 그러나 쉽게 취직자리가 나를 기다려 주지는 않았다.

그 후 근 일 년 동안 정릉 종규 형님네 집에 얹혀서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꼭 참고 때를 기다렸다. 정릉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에서 대학 들어가기 전과 같이 열심히 일했으며 한편으로는 장상순 자형의 자동차 부품 판매를 돕고 금복 누님의 석고인형 생산 판매도 거들면서 취직이나 자립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규 형님께서 한국해양대학 신 학장님께 부탁하여 좋은 육상 근무처 한 자리 얻게 되기를 영똥하게 기대하며 기다리던 중 1959년 1월에 드디어, 한국에서 가장 크고 착실한 개인 소유의 해운회사 극동해운(極東海運) 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인 극동농산(極東農産) 주식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신 학장님의 자제이신 신명구(申明求) 씨로 이 기회는 종규 형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나의 사회 진출 첫 걸음이었다.

해양대학을 졸업한 해운 전공자가 농산(農産)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리 탐탁하지 않다고도 생각되었으나, 해운계의 육상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다할 입장은 아니었으며 그간 양계장 운영을 경험한 나로서는 농업 경영에 대하여 아주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 해운계의 육상 근무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내가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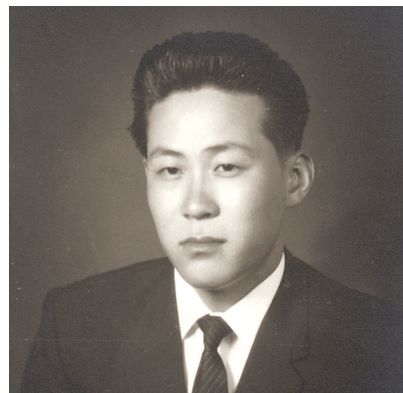
극동농산은 갓 설립된 회사로서 구성원은 대표이사과 나, 그리고 제주공항 옆에 있던 극동농장(極東農場) 현장에 농장장 한 분이 전부였으며 제주 극동농장에서 생산하는 청정소채(Fresh Vegetable)를 미 8군에 납품하는 미군납회사였다. 청정소채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미숙성 퇴비, 인분을 주지 않으며 또 오랫동안 주지 않은 깨끗한 토지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요즈음 인기 있는 유기농산물과 흡사한 것이다. 미 8군 구매처와 연간 청정소채 공급계약을 맺고, 재배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외화 획득의 차원에서 그리고 주한 외국 군인의 부식물 공급을 국내 조달로 충당해야 된다는 국가의 중대 시책에 부응되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극동해운의 남궁련(南宮練) 사장님도 공감하여 특별 지시에 의하여 시작된 사업이었다. 나는 이 때부터 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품은 국산 사용, 서비스도 국내용역 이용, 외환 낭비를 금하는 절제된 생각과 행동이 몸에 배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 뿐으로 나는 무척 바쁘게 뛰어 다녔다. 신사장님을 대신하여 미 8군 구매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림부와 접촉, 상의하여 한국산 생산품을 더 많이 조달,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시로 제주도의 제주 농장을 방문, 농사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소채를 미군에 무사히 납품하는 등 있는 힘을 다하여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주공항 옆 극동(極東) 제 1 농장에 이어 서귀포에 제 2 농장을 조성,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미군 채소 공급에 나서게 되었다. 신 사장님과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나는 일약 중진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본사인 극동해운의 남궁 사장님과 직접 접촉 협의하는 등 나로서는 단시일 내에 그룹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또 미 8군 구매처와 농림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반년 동안에 납품 실적은 아주 좋았고 사업도 확장되어 직원이 여러 명 증원되었다. 농산물 선별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안국동 본사에 있지 못하고 서울 남대문 앞에 있는 제일여관에 장기 숙소를 정하여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의 또 하나의 커다란 인생여정의 획을 그리게 된 것이 이곳 제일여관에서 이루어졌다. 제일여관 주인의 큰 따님과 의자매를 맺고 이 곳을 자



1960년, 결혼 전 이복희 사진



1960년, 결혼 전 박광현 사진

주 방문하던 현 우리 집사람, 이복희(李福喜)를 만나게 된 것이 1959년 말이었고 일 년여의 교제 끝에 1961년 10월 1일 결혼하였다.

단기간에 잘 나가던 회사가 주춤하게 된 것은 1959년 9월에 닥친 강력한 “사라”호 때문이었다. 미군이나 농림부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서귀포 제 2 농장이 사라호 태풍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다. 수확 직전의 채소들은 완전히 그 모습을 날려버렸고 남은 것은 멀리서 날아온 자갈뿐이었다. 회사로서는 치명적이고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자 점점 시들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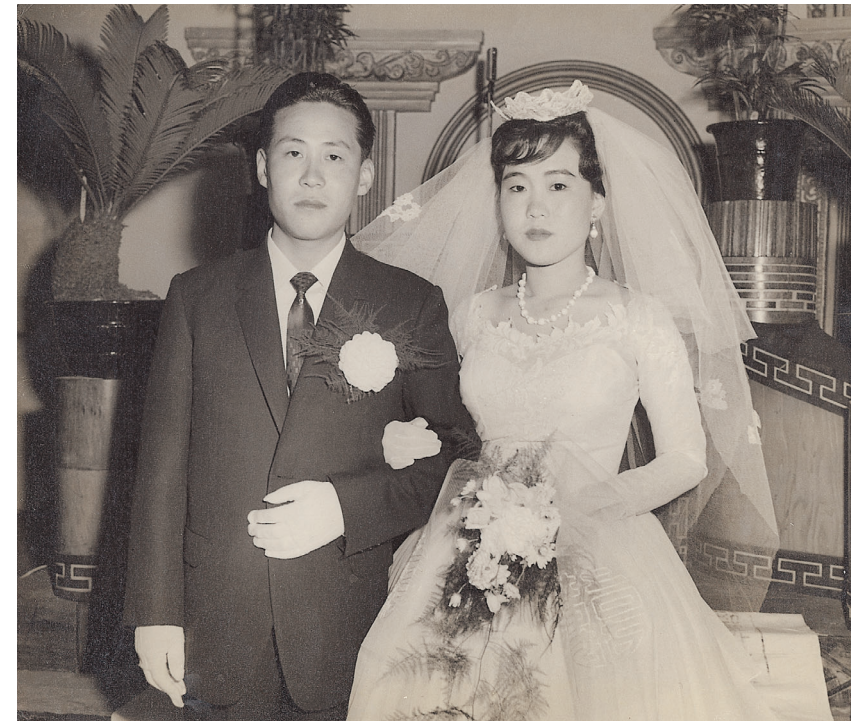
나는 중단 없이 신명을 다하여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좀처럼 재기되지 않았다. 그런 대로 생산, 납품은 계속되었다. 일하는 한편 실력 보충에도 열을 올렸다. 중·고등 수업의 부실과 대학에서 전문 과목의 집중으로 소홀히 넘어간 영어 실력은 너무나 빈약하였고 영어 실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대학 졸업 직후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제 1차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영어 시험에서 it ... that 용법도 모를 정도의 실력이었고 낙방하여 큰 창피를 당하였다. 당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초대 회장은 종규 형님의 장인이신 공진항(孔鎭恒) 장관님(전 농림부 장관)으로서 나의 시험 결과가 웬만하였으면 합격되었을 것이다. 미 8군 구매처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빈번한 영어 회화와 많은 영어 서류를 취급하면서 더욱 영어 실력의 아쉬움을 느끼게 되어, 시간 날 때마다 새벽의 학원 수업,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일이었다.

겨우 겨우 운영되던 극동농산은 결국 청산하게 되었고 나는 극동해운의 또 하나의 방계회사 극동선박(極東船舶)으로 전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생각 끝에 이것이 기회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직접 청정소채를 재배, 미 8군에 납품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미 8군 구매처는 물론 농림부 그리고 청정소채 군납업 협회까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감안, 과감하게 납품업을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황당한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경기도 포천에 과거 군용지로 사용하던 밭 2만 평을 종규형님을 설득하여 투자하시도록 하고 구 화폐로 일천만 원에 구입, 종규형님의 직접 명명(命名)으로 대룡농장(大龍農場)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미 8군의 납품계약도 뜻대로 맺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고향을 떠나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 첫 번째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 때가 1961년 초로, 1961년도 분 납품계약은 파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여 한참 신이 났었다. 포천군 신북면, 국도변 개천을 끼고 위치한 2만 평 크기의 반듯한 농장은 내 눈에는 광활하고 웅장하고 자랑스럽게만 보였다. 3월에는 해토가 되기가 바쁘게 불도저를 이용하여 농토를 재 조성, 본격적인 채소 재배에 착수하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농토의 지력을 키우기 위하여 완전하게 부패된 계분을 여러 트럭 풀었으며 정성껏 채소를 가꾸었으나 미처 지력이 살아나지 않아 첫 해의 작황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나는 10월 1일에 집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농장의 자금은 부족하고 5.16 군사혁명 이후 돈 구하기는 무척 어렵고 앞 일이 막막하였다. 십 분의 일로 평가 절하된 화폐개혁 이후 돈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력만 있으면 틀림없이 성공할 사업이었으나 하루하루 넘기기도 쉽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매일같이 독촉이 빗발치고 수중에 한 푼도 없어 종로에 있는 결혼식장인 종로예식장에 갈 차비도 없을 정도였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납품업 경쟁자를 찾아가 사정사정하여 몇 푼 돈을 꾸어 결혼식을 치르고, 남은 돈을 갖고 온양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으로 흔히 가는 온양관광호텔에 묵지 못하고 문화여관이라는 조출한 숙소에서 행복해야 할 허니문을 보내게 되었다. 묵지는 못한 온양관광호텔을 찾아가 베이비 골프를 치며 폼을 찢던 일을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이 절로 나며 요사이 부부동반하여 골프장에 가게 되면 그 때 생각이 문득 문득 떠오른다.

그 때의 그 절박한 어려움을 주위에서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였다. 도저히 운



1961년 10월 1일.
나(박광현)와 아내(이복희)의 결혼사진



1961년 10월 2일, 신혼여행.
결혼식 후 온양으로 신혼여행가서 숙박비가 저렴한 여관에 묵고 있으면서 온양 관광호텔을 방문하여 기념 사진을 찍었다. 촬영일이 4294. 9. 29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진사의 오기였다.



1961년 10월 2일, 신혼여행.
온양관광호텔에서 베이비 골프를 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다. 요즘 골프로 주말을 즐기며 당시의 베이비 골프의 분위기 상황과 지금의 골프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1992년, 1992년 New Jersey 포코노 골프장, 장남 수근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골프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는 1991년부터 골프를 처음 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에서 치던 베이비 골프와 재미있게 대비된다.



영할 능력이 없음을 자각한 나는 아끼던 대룡농장을 미 8군 납품 계약, 포천 소재 농장을 포함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두 합쳐 일천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화폐개혁 전으로 환산하면 일억 원이었고 매매가 이루어진 때가 1962년 초였으니 까 일 년여 만에 십 배의 값을 받은 셈이 되었다. 모든 빚과 경비를 제하고 약 팔백만 원이 남아 종규형님과 내가 삼백만 원씩 나누고, 이백만 원은 극동해운과 극동농산 관련인 그리고 대룡농장 직원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장 직원들에게 만족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대룡농장에서의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 후일담이지만 농지에 쏟아 부은 계분의 효과가 후에 나타나 이 농장을 인수한 후임자는 매우 재미를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씩씩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일 년여 만의 사업 이익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 같았지만 혼란기일수록 노력하면 이익이 많이 날 사업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양계장 운영을 해본 경험과 대룡농장을 경영한 이후 나는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정반대인 해운분야를 공부하였지만 개성인 고유의 인삼 재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열심히 인삼 재배를 하고 계시는 종규 형님을 졸라서 인삼 공동 경작의 한 몫을 얻게 되었다. 한국인은 동업을 잘못한다고들 말하지만 개성 사람들은 서로 믿고 협조를 잘하여 인삼 공동 경작을 아무 불화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75칸(칸은 인삼 경작량 단위로 평(坪)과 비슷한 넓이)을 심었는데 이는 매우 적은 경작 면적이었다. 손바닥만한 적은 면적이었으나 나는 이 베이비 삼포(蔘圃)가 너무 대견해, 이것이 위치한 강화를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가을 때마다 매우 기쁘고 사랑스러웠다. 투자는 총 7만 5천 원에 6년 후 수확 총 수입은 8십만 원이었으니, 6년 만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당시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입은 못되었다. 그러나 나의 할아버님,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의 연속이라 생각하며 매우 뿌듯하였다.

인삼 재배는 같은 땅에서 연작이 불가능하여 (수확 후 10년 이상 이후에나 재 재

배 가능) 농토를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는 것이 통상이다. 강화에서 75칸 경작을 시작한 이후 점차 그 경작 면적을 확장하며 경기도 포천 지역으로 옮겼다가 경기도 화성군 발안에 정착할 때는 5인 동업으로 6만여 평의 넓은 농토를 구입, 대형 인삼포가 되었다. 이 고려농장은 전국 인삼농장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인삼포였다. 인삼 재배로 큰 수익을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후일 인삼 경작을 끝내고 토지개발공사에 이 농토를 매도하였을 때는 적지 않은 목돈을 손에 넣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대릉농장을 넘기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었으나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보니 그리고 자본 부족으로 고생했던 지난 일을 생각하니 소심해져 새로 사업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피난생활 중의 고난의 연속도 역시 과감한 사업추진을 저지하는 요인이었던 듯하다. 실패하면 모처럼 이룬 내 가정도 타격을 입게 되고 곧 태어날 자식들의 안위도 염려되어 조심스럽기만 하였다. 만약 그 때 과감하게 사업을 밀어붙여서, 잘 났으면 큰 기업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고 잘 안됐으면 가족들도 크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취직하는 편을 택한 나는 환영하며 흔쾌히 받아주는 극동선박주식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고 이 곳에서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때가 1962년 봄이었다. 장남인 수근(洙根)이가 태어날 즈음이었다. 극동선박은 선박 대리점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은 한국 초일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반도호텔 2층에 있었고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선사, Lykes Line, United States Line 등의 한국 대리점이었다. 미국 선사들은 한국에 보내는 미국 원조 물자의 수송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특히 내 취급하던 화물은 미국 잉여 농산물 중의 하나인 원면(Raw Cotton)이었으며 Lykes Line이 미국 Gulf 지역에서 운송하고 있었다.

한국 행 원면을 운송하는 선사는 세 Lines이었는데 내가 영업을 시작하고는 2위였던 Lykes Line을 1위로 부상시켜서 나의 집하(Solicitation Sales)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후일 Lykes Line이 대리점을 타 회사(현재의 한진해운)로 옮기려 할 때에 태도를 바꾸어 그대로 남기로 결정하게 된 큰 동기가 나의 실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나는 극동선박을 사직한 후에도 다시 촉탁으로 남아 월급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63년 9월에 극동선박을 사직한 후 1971년 12월까지 촉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극동그룹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원면 화물을 취급하다 보니 많은 미국 원면 수출업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들로 부터 원면 판매 대리점(오파상) 제의를 자주 받게 되었다. 처가의 일가 되는 신문교(辛文敎) 씨가 운영하던 합동무역주식회사가 한 미국 원면 수출업자의 대리점을 맡고 있었는데 실적이 거의 없으니 함께 일해 보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극동선박을



1978년, 미국 California Fresno 근교의 목화 밭에서 원면 수확 직전

사직하고 합동무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합동무역은 선박화물 주선도 하고 있어 이 업무도 겸하였다.

원면 오파업을 시작해 보니 수입도 상당하여 차츰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수희(洙姬)를 수근에 이어 연년생으로 갖게 되었으며 오파상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문화촌에 어엿한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그간 겪은 고생의 보람으로 내 집을 갖게 되니 문이고, 담이고, 천장, 마루 모두가 예쁘고, 조그만 마당에 핀 꽃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두 아이가 마당에서, 문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모른다. 부모를 떠나 홀홀 단신으로 방황하던 그 때가 아득한 옛일로 잊어가고 사람 사는 세상이 내 앞에 전개된 듯하였다. 뒤이어 차남인 수중(洙琮)이가 태어나서, 아늑하고 포근한 나의 집에 식구 하나가 더 늘었다. 산모와 새 아기를 집에 두고 수근, 수희를 앞세워 국제 극장에 영화 관람을 가게 되었다. 국민가수 이미자 씨의 히트곡을 주제로 한, 아동관람 가능한 “섬마을 선생”을 관람한 후 근처 중국집에서 물만두를 먹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다.

1966년 초에 제일무역상사(第一貿易商社)라는 나의 회사를 충무로에 차림으로써 처음으로 나 자신의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오파상이란 것이 사무실과 전화만 있고 상대 공급사만 잘 잡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면 수입도 많았다. 그래서 실은 이 당시의 인기업종은 오파상이었고 많은 대기업들도 오파상부터 시작하였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양곡, 비료, 원당의 오파업을 하여 착실히 회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오파상이라는 업종의 속성은 중요한 시점에 잠시 바쁠 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낮에는 당구나 화투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술판을 벌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의 원면 오파는 순조로워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허송하며 불건전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세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뭔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했다. 크게 자랑할 만하

지 못한 오판업을 운영하여 오판상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러 분야의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업종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본 능력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돈 안 드는 업종만을 찾다 보니 신통한 분야가 쉽게 띄지 않았다. 많은 업종을 철저히 검토하며 새로운 사업의 진출에 몰두하였다.

당시 수출이 활발하였던 갈포벽지의 생산 수출을 목표로, 1965년에 3인 동업으로 남한(南韓)벽지(주)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준의 수출과 수익도 올리며 장래성도 기대하였으나 2인 동업자의 알력으로 회사가 파경에 이르러 실패로 끝났다. 역시 동업의 어려움을 절감하였으며 동업 잘하는 개성인의 특성이 새삼스럽게 자랑스러웠다.

제일항공화물공사(第一航空貨物公社)를 설립하여 국제 항공화물 취급을 꾀하였으며 제일선박화물공사(第一船舶貨物公社)도 설립, 대형선박회사 소유 선박에 선용품(船用品, Ship Chandler) 납품, 선박 화물 주선들을 취급하며 해운 연관업의 진출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큰 자본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으로 오판업종과 유사하며 지면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쉽게 시작하였다. 나의 꿈은 선박을 소유하고 해운회사를 갖는 것이었으나 막대한 자금 차입이 요청되는 이 해운업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후일 재벌의 반열에 오른 많은 기업들의 경우와 같이 나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나 무리한 자금 차입의 위험 가능성을 염려하여 무리한 확장과 불안한 업종 선택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은 제 분수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개성인 특유의 소심함은 항상 나를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어렵게 지낸 피난생활, 힘들었던 학업 이후 겨우 가꾸게 된 단란한 가정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어떤 모험도 감행할 수가 없었다.

장차 유망업종인 전자산업에 흥미를 갖고 코스모전자(주)를 설립, 구미 전자 공업단지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자 제품용 소형 변압기(Transformer)를 생산, 수출을 시도하였다. 부품은 거의 전부 수입하여(10% 이하의 국산 부품 이용) 조립, 수출하는 순전히 노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조립 가공업이었다. 일기예보

전문 라디오를 국산 부품 50% 이상으로 조립하여 수출도 해 보았다. 그러나 품질 불량률이 너무 높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당시의 공인들이 지닌 한국인 고질병인 적당주의로 인해 조립을 철저히 하지 못해 외국 수입상의 진동검사에서 80% 이상이 불합격되는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근로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당시는 수출품이 반품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반품된 물건을 쳐다보며 눈물 흘리던 노무자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당시 수준을 한탄할 뿐이었다. 가능한 많은 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이익도 늘려 보려 노력했으나 품질 불량으로 claim(배상의 청구)을 받기 십상이었다. 결국 상당한 손실만 입고 코스모전자(주)를 문 닫게 되었다. 여유 있는 자본력으로 장기안목을 보며 꾸준히 개선하여 갔다면 전연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울분을 삼키며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 구미전자 공업단지에 보유했던 공장부지도 속절없이 반환하였다.



1973년 10월 5일, 코스모전자(주) 임원과 여공 모두 함께 기념 촬영. 의자에 앉은 임원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정실(처남), 가운데에 내가 있다.

제일항역주식회사 시대

제일무역상사, 제일항공화물공사, 제일선박화물공사의 3개 개인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오판상 쪽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선박 관련업은 그런 대로 유지된 반면 항공화물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하나로 묶어 이익과 손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항공화물, 선박화물이 좋은 수익을 올린 해도 없지 않았으나 총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적자까지도 발생하는 간판업종에 불과하여 왔다.

1969년 5월에 이 3개 개인 업체를 묶어 항해(航海), 항공(航空), 무역(貿易)의 뜻을 합성하여 제일항역주식회사(第一航易株式會社)라는 이름의 법인체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세상에 몇몇한 법인체를 갖게 되었고 이 법인체가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나의 간판으로 사회 인정을 받는 부끄럽지 아니한 회사로 평생을 나와 함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68년 10월 문화촌 집에서 수유리로 이사하였는데 수유리 새 집은 대지가 160평에 집도 대형이어서 일약 부자가 된 듯 온 가족들은 신이 났고 집안은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항공화물업의 계속 되는 적자는 제일항역을 점차 어려운 고비에 들어서게 만들었다.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자 어려움은 견잡을 수 없



수유리 집에서(1970년).
우리 소유의 수유리 집은 당시로는 대형 집으로 대지가 160평이어서 마당도 매우 넓었고 호화 주택이었으나 사업의 실패로 오래 살지 못했다.

였으며 옆친 데 덮치 듯이 처가쪽 일가의 한 사람이 나에게서 차입한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떠났고 또 남의 빚보증을 섰던 채무를 부득이 변제하게 되어 자금 압박이 극심하였고 사채(私債)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망하는구나 눈앞이 캄캄하였다. 수유리 큰집을 겨우 일 년 반 동안 살고 황급히 처분하여 급한 사채를 갚고 미아동 조그만 한옥집으로 옮겼다. 마당도 없는 작은 집에 이사한 후 모든 식구가 의기소침하여 있는 중, 네 살 된 수종이의 변화가 특히 심각하였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 했다. 가정의 급격한 기울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나에게 닥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집 안에서만 엉기고 있던 수종이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좁은 공간에서 붐비다가 발생한 사고로 수종이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고 온 가족의 가슴 속에 피멍을 들게 하였다. 고독하고 어려웠던 피난생활을 견디기 위하여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 때 살을 파내는 혹독한 치료를 받으며 울부짖는 수종이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종이가 그 지긋지긋한 주사를 수없이 맞으며 간호사에게 시원하다며 참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핵대를 즐라매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 무진 애를 썼으나 무척 취약한 항공화물업에다가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아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때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기도 하여 겨우 겨우 넘겼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궤도로 이끌 수 있었던 계기는 미국 서해안 부두하역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항공화물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규 항공화물업 면허 제한과 꾸준히 유지된 원면 오판 수입 덕이었다.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 산업을 강타하였고 그 때마다 어려움은 계속 닦쳤지만 꾸준한 노력과 비상한 절제로 겨우 겨우 위기를 넘겼다. 1978년부터 우리

나라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제일항역도 또 다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계속되는 적자로 그 동안 꾸준히 늘려온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고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적자만 내던 항공화물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하더니 선박화물 쪽이 많은 적자를 내어 견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부평에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 둔 500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황급히 처분하여 어려운 회사사정을 모면하였으며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기에 접어든 1980년대 초에 겨우 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 한국 면방업의 확장으로 원면 오판업도 잘 되고 업체 등록 제한으로 항공화물과 선박화물이 제 구실을 하면서 회사는 안정되고 탄탄하게 되었다.

회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자 나는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세



1973년, 스위스 Danzas 사무실 방문.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수십 년간 무척 많은 해외 출장을 갔다. 세계 각 곳을 누볐으며 심지어 일본은 당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마음이 항상 쫓기는 여행이어서 기록될 만한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

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택배업을 장래의 유망업종으로 확신하고 First Courier 라는 브랜드로 한국적 택배회사를 운영하여 보았으나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역시 자금력의 부족과 외국기업 기피증이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외국의 대형 택배회사에 종속되어 운영하였더라면 승산도 없지 않았으나 나의 반(反)외국기업 방침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외국기업에 종속하여 안주하고 그들에게 사업의 생사를 맡기는 회사 운영보다는, 외국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휴하여 경영하는 방법이, 꼭 실패만 거듭하는 잘못된 회사 경영이었다고 생각지 않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제일항역이 굳건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요즘은 많은 외국 택배회사가 한국에 진출하였고 국내에서도 대형 택배회사가 많이 생기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당시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단, 실패로 끝난 것은 못내 아쉽게 생각된다.

택배업이 실패로 끝나자 이후 나는 제일항역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경쟁자에 앞서서 양산에 대지 4,000평, 건평 1,500평의 보세창고를 1989년에 건립,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부러움을 받았다. 외국으로의 진출도 서둘러 미국의



1985년, 제일항역(주) 대표이사로 사무실에서 근무 중



1989년 11월 19일, 제일항역(주)의 양산보세장치장 준공식.



제일항역(주)의 양산보세창고 조감도와 정면 모습(오른쪽 아래 삽입 사진)



제일항역(주)의 양산보세장치장 준공식 후 임직원 모두와 함께. 준공식에는 미국 지점을 위시하여 모든 지점에서 두루 참석하여 본사 임직원과 함께 회사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보세창고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거대한 자체 보세창고의 소유는 동종 업계에서는 드문 일로 언론은 물론 모두가 극찬과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Los Angeles와 New York에 일찌감치 지점을 설치하였고 뒤이어 인도네시아의 Jakarta, 베트남의 Hanoi, Hochiminh, 중국의 Shanghai, Qingdao, Dalian, Beijing, Tianjin, 중앙아시아의 Tashkent에 사무소를 개장하면서 국제적인 대형 업자와 어깨를 겨뤄보려 노력하였다. 새로이 개항한 인천공항의 항공화물지역에 250평 규모의 보세창고를 신축하는 등 회사를 착실하고 내실 있게 확장하였다.

항공화물, 선박화물, 창고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종, Forwarding은 장래가 있어 보이는 유망 종목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다. 적어도 한국 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적 Forwarders에게는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적인 초대형 Forwarders들과 견주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도 시도했고 국내 내실화도 꾀하여 보았으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대단히 커, 총 지출의 60~80%를 차지할 정도인데 특이한 한국인 기질로는 직원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정상적인 영업으로 요즘 매우 낮은 은행 금리를 벌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은 냄비와 같이 들쭉날쭉하여 영업을 좀 잘 되면 이익이 나다가 영업을 조금만 안 되면 즉시 적자가 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외국 대형 Forwarders가 부침을 거듭하고 이합집산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화 함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업체의 등록을 규제하며 경쟁을 보호해 주던 때는 좋았으나 국내외적으로 완전 개방되자 수백 배로 늘어난 국내 경쟁자들의 과당경쟁으로 도산업자가 속출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몸만 가지고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너도 나도 약간의 경험만 있으면 일을 벌이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의 대형 업자가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으니 앞으로 회사 진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 면방업도

이제는 사양화하고 있어 전성기의 근 삼 분의 일로 줄고 있으니 원면 오판업도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내가 작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한 사업은 남도 쉽게 시작하게 된다. 결국 경쟁자가 들끓는 업종에서 허덕이게 되었고 어려운 고비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업종을 떠나지 못하였다. 소극적 사업 추진과 조심스러운 경영이 안전은 보장하였으나 후세에 물려줄 든든하고 번듯한 기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 못내 후세에게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한다. 이것이 나의 한계였던 듯하다. 남들처럼 든든한 기반을 물려주어 자식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무리한 사업 운영으로 파탄에 빠지고 가족들이 비참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기업인이 되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자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자위도 하게 된다.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근 50년간 사업을 해오고 제일항역주식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나에게서는 뚜렷한 신념과 변함없는 신조가 있었고 확고한 방침이 있었다. 사회 첫 출발부터 외화 획득 사업을 하게 되어 외화의 중요성과 외화 낭비의 배척이 몸에 배게 되었다. 외화 낭비가 아쉬워 그 흔한 외국 관광도 한번 제대로 못했고 외화 낭비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게 보아왔다.

한국적 선사인 극동해운에서 한국적 선박 미스코리아호, 신라호, 서라벌호의 집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경쟁을 하다보니 외국 선사에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고 외국 기업의 한국 영업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외국 기업에 종속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였으며 대등한 제휴만을 고집하여 외국 기업으로부터 Anti Foreigner로 지목 받기도 하였다. 이것이 사업상의 큰 장애였지만 안전하고 지속적인 회사운영에는 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과는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였으나 크게 비난 받지는 않았다고 자신한다.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직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느낀다. 인간적으로 직원들을 대하여 막말, 반말을 가급적 삼가하였다. 특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주중에는 사적인 골프는 절대 삼가하였다. 이는 나의 사업의 철칙이고 생활의 신조였다.

항상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였고 하루 종일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으며, 근면과 절약은 나의 불변의 철학이었다. 특히 신용에 관한 한 수시로 나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던진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반추하여, 신용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왔다. 나의 이야기는 보증수표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나를 중심으로 사리를 판단하기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처리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고객의 사정을 참고하여 일을 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중시하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제일항역이 앞으로 나 나의 이 마음가짐이 힘이 되어 올바른, 주체가 뚜렷한 모두의 회사로 번성하기를 기원한다.

개성 부모님 품을 떠나 차고도 매서운 세파에 홀로 던져진 지난 50여 년.

혈기 왕성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황금시기를 절망과 좌절로 보내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 왔다. 부모님의 생사나 북에 계신 두 형님의 안부를 전혀 모르는 답답하고 캄캄한 세월들을 보냈다. 지구 어느 구석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외국 친구들은 오히려 나의 녀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한다. 나는 다행히도 캐나다에 이민 간 친우, 차영신(車英信) 군의 도움으로 1996년 7월에 개성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51년 4월에 개성을 떠난 이후 근 45년 만에 부모님, 형님들 가족과 일가친척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간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지금도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고 나 자신을 위로한다.

지난 50여 년은 꿈만 같다. 내가 오늘날 어엿한 가족을 거느리고 의젓하게, 욕되지 않게 살고 있음이 실로 꿈만 같다. 그 어려웠던 피난 초기의 방향, 부모님을 그리며 홀로 울던 어린 피난생활, 굶고 헐벗고, 몸에는 극성스러운 이가 득실득실하고,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던 그 시절이 악몽과 같다. 위기 때마다 사력을 다한 노력으로 다시 기회를 맞게 되고 한숨 돌리기 수십 차례였다. 어려울 때마다 어김

없이 도와주신 고모님, 홍종규 형님, 장상순 자형, 홍금복 누님, 그 외 친척 여러분 그리고 많은 아버님, 어머님 친구분들, 나의 주위에 있어 온 많은 지인과 나의 친구들의 배려에, 도움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실로 많은 은혜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나의 모든 것이 이 분들의 덕택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받은 만큼 갚지 못하고 있어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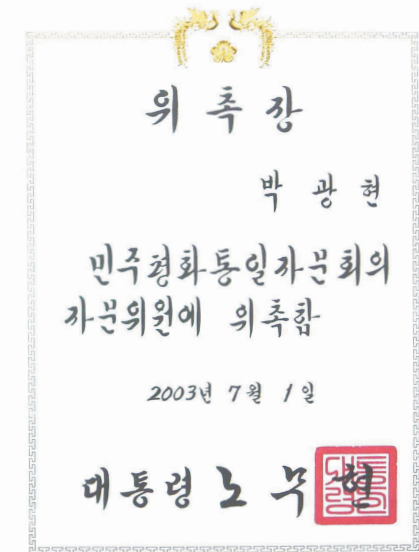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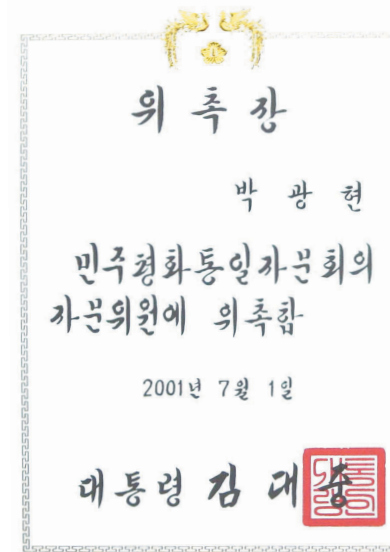
나는 부모님의 인덕을 잇을 수가 없다.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아니하셨던 그 쌓이고 쌓였던 공덕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왔다. 모든 분들은 나를 도우며 낯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각박했던 그 시절, 모두가 어려움에 허덕이며 살고 있던 그 때의 도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다. 나도 나의 자손들을 위하여 덕을 베푸는데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항상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고 반성하여야 된다고 다짐한다.

최근 유명한 작가 조정래 씨의 대하 장편 소설 “한강” 10권을 읽고 매우 씁쓸한 기분이었다. 최근세를 무대로 하고 있는 한강은 주로 군사 독재 정권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나 또한 군사 독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6.25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 정권에 대한 비판도 곁들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군사 정권을 북한 권력자보다 비하한다면 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연좌제에 억매인 등장인물들의 고통을 파헤친 것은 나도 충분히 동감하지만 근세의 또 다른 피해자, 아니 그 비교가 안 되게 슬프고 애달픈 이산가족의 기막힌 이야기는 10권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산가족의 그 억울함은 연좌제에 고통 받던 피해자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산가족들의 편견일까? 한강에 등장하는 월남 이북 출신은 고작 군납업자 남편과 교회 집사이며 달려 장사꾼인 부인으로 많은 사람의 돈을 사기 쳐 움켜쥐고 미국 도피 이민 간 것이 전부였다.

최근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중에서 이산가족의 설움을 다룬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산가족들의 피 맺힌 한을 풀어 주고 전쟁 도발로 인한 무수한 가정파탄을 다룸으로써 김일성 정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아니했어야 했다. 생사를 모른 채 수십 년 간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월남 북한 출신들, 북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 납북자 가족들 그리고 탈북자들, 이 사람들 고통을 이해하고 털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정치권에도 심지어 지식인, 예술인들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나 이산가족인 나의 설움을 이해해 줄 뿐일까. 부모를 그리던 그 눈물겨운 심정, 겪어 보지 못한 행복한 사람들은 잘 모르나 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듯하여 매우 서글퍼지고 있다.

보수다, 개혁이다, 혁신이다하는 요즘 세대의 편 가르기에 짜증이 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과거의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개혁하고, 더 심하게 나



통일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과 주장을 갖고 있는 나는 2001년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의 원에 위촉되어 많은 이산가족들의 한결같은 생각이 모두에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혁신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화합될 터인데. 6.25 전쟁은 용서될 수 없는 북한 공산주의자가 저질렀으며 많은 파괴와 인명을 살상하였고 나와 같은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와 같은 이산가족들은 외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친공이나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 나이 이제 황혼의 칠순이 되었다. 살만큼 산 나이다. 앞으로 의미 없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잠시나마 올바르게, 지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남은 세월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로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꿈속에서마저 잊혀져 가는 고향에 언제나 가 볼 수 있을까. 따로 따로 쓸쓸히 영면하고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성묘는 언제나 할 수 있을까. 언제나 두 분을 편안하게 합장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홀홀 단신으로 피난 나와 이제는 어엿한 나의 그림자들이 생겨 13명의 식구가 되었다. 가족 모두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생성 과정을 충분히 참고하여 작고 또 작더라도 진심으로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건 없이 돕는 화목한 가풍이 되기를 특별히 부탁하며 반목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래와 같은 흐뭇한 가정 구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지난 세월을 기록으로 엮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다.

가족구성

박광현 이복희 1961년 결혼

이복희(李福姬) 1939년 3월 7일(음) 출생

- 박수근(朴洙權) 1962년 3월 10일 출생

- 박수희(朴洙姬) 1963년 8월 26일 출생

- 박수중(朴洙琮) 1967년 4월 7일 출생

박수근 장혜경 1985년 결혼

장혜경(張惠京) 1962년 8월 24일 출생

- 박태영(朴泰榮) 1987년 8월 24일 출생

- 박준영(朴俊榮) 1991년 8월 14일 출생

박수희 윤가원 1988년 결혼

윤가원(尹佳源) 1962년 7월 8일 출생

- 윤서우(尹瑞佑) 1993년 4월 6일 출생

박수중 이소영 1991년 결혼

이소영(李昭姪) 1967년 8월 15일 출생

- 박서영(朴瑞榮) 1994년 8월 4일 출생

- 박찬영(朴贊榮) 2001년 5월 6일 출생



1963년 3월. 아들 박수근 돌사진.
효창동 전세 집에서 태어났다.



1968년 4월. 아들 박수중 돌사진.
문화촌 우리 첫 소유의 집에서 태어났다.



1964년 8월. 딸 박수희 돌사진.
원효로 전세 집에서 태어났다.



1988년 8월. 손자 박태영 돌사진.
미국 New Jersey 에서 태어났다.



1992년 8월. 손자 박준영 돌사진.
미국 New Jersey에서 태어났다.



1994년 6월, 외손녀 윤서우의 돌사진
미국 California에서 태어났다.



1995년 5월 서울 롯데호텔, 손녀 박서영의 돌사진.
미국 Texas에서 태어났다.
박수종과 이소영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과정 중에 돌잔치를 기념하기 위해 귀국했다.



2002년 5월, 손자 찬영이의 돌사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5년 4월 3일. 박수근, 장혜경 결혼식에 참석한 양가 가족 기념사진



1988년 12월 21일. 윤가원, 박수희 결혼식에 참석한 양가 가족 기념사진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글 모음

-
-
-

개성유격대

개성사람 자랑

기타 신문 잡지에 게재된 박광현 글



1991년 6월 22일. 박수중, 이소영 결혼식에 참석한 양가 가족 기념사진

개성유격대(開城遊擊隊)

박 광 현
1982년 4월

군번(軍番) 없는 용사(勇士)들, 파문힌 전사(戰史)
- 17세 때 겪은 강화(江華) 5816부대(部隊) 참전비화(參戰秘話)

머리말

후퇴 전후의 개성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전야

못 잊을 첫 출전

조랑촌의 격전

본연의 임무 다할 절호의 찬스

중공군, 거의 무기 없이 인해전술

성공적인 2차 작전

제3차 출전의 장도

감격의 고향 입성

마지막이 된 구남골 그리고 부모 상봉

고향을 다시 빼앗기던 날

후퇴 당시 내가 마지막 본 내 고향

머리말

-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이름 없이 사라진 원혼을 달래며

6·25 한국동란은 40대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그 비참하고 뼈저린 기억을 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남북(南北)으로 이산(離散)된 북한출신들은 더욱 더 비통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회한(悔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고향을 등진 지 30여 년에 바로 눈앞의 고향을 두고 오고가지도 못하는 실향민 개성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들의 망향(望鄕)은 어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남북분계선(南北分界線)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6.25 이듬해인 1951년 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척에 고향을 두고 괴뢰군과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던 당시 많은 개성사람들은 귀향할 날을 학수고대하였고 고향에서 가장 가깝고 빨리 건너다 볼 수 있는 강화도로 몰려들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매일 거리로 헤매었고 심지어는 산으로 올라 고향을 바라보며 귀향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젊은 청년 심지어 어린 소년들까지도 총을 들고 귀향의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 피를 흘렸던 것이다.

그 때 강화도에는 여러 유격부대(遊擊部隊)가 있었다.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활

약하던 미8군(美八軍) 소속 “5816부대(部隊)”인 유격대는 그 중의 하나였으며 많은 개성, 개풍군 젊은이들이 참전하고 있었다.

나도 당시 나이 어린 몸으로 이 유격대에 입대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고향을 눈앞에 두고 괴뢰군과 유격전을 하였었다. 나는 당시의 그 용맹하던 유격대에 몸담고 있던 실전(實戰) 체험담을 쓰기에 앞서 두려움이 앞선다. 워낙이 어렸고 또 기록으로 남길만한 것을 적어둘 경황도 없었기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정확한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부대(部隊)의 당시 작전(作戰)상황, 일시(日時), 지명(地名), 인명(人名), 부대명(部隊名) 등에서 많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 왜곡되거나 혹 어떤 분께 누를 끼치게 되거나 않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에 앞서 강화를 답사하며 기억도 더듬고 확인도 하려고 애썼으며 알만한 분을 찾아 묻기도 하였지만 혹시 정정할 것이나 잘못된 것 또는 사실을 알려주실 분이 계시면 고맙겠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데는 당시의 정확한 사실과 나의 체험담을 밝히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비롯된 개성사람들의 피맺힌 망향과 군번도 없이 오직 고향을 찾는다는 일념으로 총을 들고 일어섰던 많은 애국애향 청소년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채 지금도 절규하고 있을 그 원혼들의 넋을 찬양하고 위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개성유격대”는 송도민보 1981년 5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연재되었던 기사를 다시 편집한 글임을 밝힌다.

후퇴(後退) 전후(前後)의 개성(開城)

유격대의 당시 활동 및 전투 상황을 쓰기에 앞서 개성사람들이 6·25를 어떻게 겪었으며 또 어떻게 고향을 등지게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천인이 공노할 6·25 남침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개성은 심한 총포성과 함께 들어닥친 괴뢰군에 의하여 줄지에 세상이 바뀌었다. 거의 모든 개성사람은 피난을 할 겨를이 없이 그대로 앉아서 당하고 말았다.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38선상에서의 충돌 정도로 생각했던 개성사람들이 괴뢰군의 남침을 알았을 때는 이미 괴뢰군의 주력(主力)은 개성을 지나가버린 후였다. 당시 나는 송도중학교 3학년생, 나이는 16살이었다.

나는 이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나중에 성장하여 외국을 다니게 되면서 북괴의 왜곡된 선전에 의하여 6·25는 우리 국군(國軍)의 북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 많은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겪었던 당시를 예로 들며 올바르게 알리려 노력하여 왔다.

꼼짝없이 당한 개성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백 일 간의 적치하(赤治下) 생활은 참담하였으나 드디어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은 우리의 개성도 수복시켜 주었다. 서울을 중심(中心)으로 말하는 9·28 수복은 개성에서는 10월 초에 이루어졌다. 나는

개성의 수복을 10월 2일경으로, 갈망의 38선 돌파는 10월 7일로 기억하고 있다. 양양지구에서는 10월 1일에 돌파한 것으로 전사에 남아 있지만 개성지구는 10월 7일로 기억된다.

38선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할 당시 송도중학교 소운동장(송도소학교 앞)에 유엔군이 포대를 설치하고 쏘아대던 포성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며 신나는 일이었다. 파죽지세로 진격을 거듭하여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에 도달하였다는 기쁜 승전소식도 잠시, 중공군의 참전과 북한 지대의 흑한으로 작전상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후퇴는 서울이남 지대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비극의 1·4 후퇴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 1·4 후퇴는 개성에서는 일찍 12월 말에 이루어졌다.

우리 군의 후퇴가 확인하여 졌을 때 개성사람들은 피난을 갈 것인가 망설였고 시가지는 일부 떠나는 사람들과 망설이는 사람들로 우왕좌왕하였다. 거의 모든 이북사람들이 과단성 있게 피난길에 오른 반면 개성사람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재수복이 되리라는 자신 있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피난길에서의 고된 생활과 적치하(赤治下)에서 잠시의 고생을 저울질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여기서 감히 개성사람들의 특성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으나 과감히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것은 개성인(開城人) 특질(特質)에 연유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셈이 바르고 신용 있고 알뜰하다는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 개성사람의 특질은 착실하나 과단성이 없고 알차지만 적극성이 없으며 야망보다는 안존(安存)을 바라는 소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인지... 많은 사람들은 1·4 후퇴 때 그대로 개성에 머물렀으며 하루 빨리 재수복 되기를 학수고대하였다.

우리의 군대와 관청은 이미 철수하였으며 떠날 사람은 모두 떠난 개성의 연말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조용하였으며 거리는 무서운 고요와 불안으로 휩싸여 있었

다. 약탈하였던 괴뢰군의 재침입을 생각할 때 그 공포는 마치 단죄전의 심정과 비슷하였으리라. 괴뢰군이 언제 들이닥칠까 조마조마하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당시의 개성사람의 좌불안석은 가히 처절하였다. 이 공포 분위기는 여러 날을 끌었다.

나도 이 개성사람의 한 사람으로 부모님과 함께 개성에 그대로 남았었다. 12월 28일경이라 생각된다. 아침에 제일착으로 나타난 괴뢰군은 소위 저들이 말하는 대흥산(大興山)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천마산(天摩山) 빨치산”이었다. 이들은 주로 개성 출신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비행기 공습을 피하기 위한 눈과 같은 하얀색 누비옷을 입고 있었고 파발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 이후 많은 중공군(中共軍)들이 개성을 통과하여 남하(南下)하기 시작하였으나 인민군(人民軍)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적치하(赤治下)에서의 공포와 고난의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공군의 폭격은 연일 계속되었고 심지어 톤급 이상의 대형시계 폭탄도 투하되는 등 폭격의 공포와 잔인한 인민군에 대한 두려움은 참으로 인간(人間) 종말을 겪는 듯하였으나 재수복의 날을 확신하는 개성사람들은 용케 북한괴뢰에 협조도 않고 접근도 안 하며 초연하게 참고 견디었다. 당시 개성 사람은 적치하(赤治下)에서 그들의 돈을 사용치 않고 본래의 우리 화폐를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반공정신(反共精神)이 투철하였는지 알 수 있다.

겨울의 혹한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한 이듬해 3월 초(月初)부터 희망의 소식은 구전(口伝)되기 시작하였고 폭격은 더욱 격렬하여지는 중에 서울 수복 소식과 함께 간간(間間)히 들리는 포성이 가까와지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밤이면 북으로 북으로 쫓겨 가고 있었다. 폭격으로 남서부는 거의 폐허가 되었고 간신히 북부와 동부만이 폐허는 면하고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용감한 국군의 입성을 기다리는 개성사람에게 드디어 소총소리도 들리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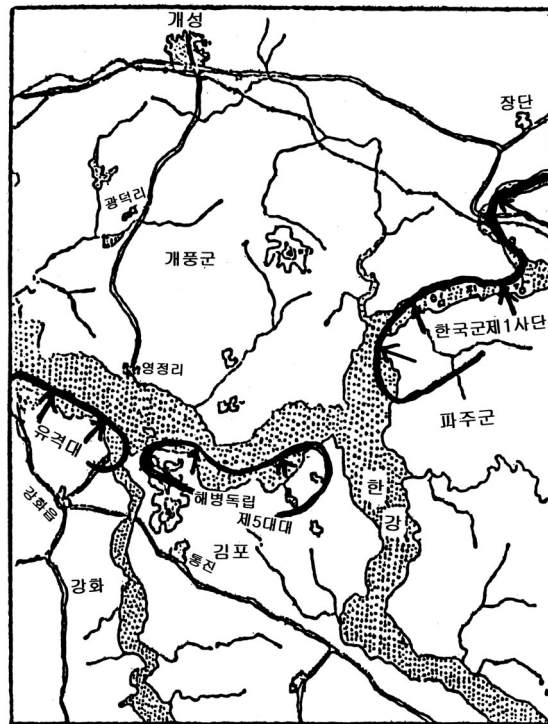
4월 12일로 기억된다. 드디어 소총 소리는 지척에서 울려 왔으며 13일 아침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군이 개성에 입성하였다. 정규군이 아니고 유격대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괴뢰군의 재침입이 빨치산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재수복도 유격대에 의하였다.

이 때 입성한 유격대를 “강화유격대(江華遊擊隊)”라고 모두들 불렀지만 이미 피난을 떠났다가 서울 수복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귀향하려고 강화도에 몰려있었던 개성사람들 중 젊은이들이 많이 입대하였으며 개성 근교 일대에서 활약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의 제목과 같이 이 유격대를 “개성(開城)유격대”라고 부르고 싶다.

중공군(中共軍) 제1차 춘계공세전야(春季攻勢前夜)

1951년 4월 13일. 개성(開城)에 유격대가 입성하였을 당시의 유격대에 관하여 그리고 주변의 전황 및 아군(我軍)의 전투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아군 위치도 참조). 3월 15일에 서울을 재차 수복한 한국군(韓國) 제1사단(軍第1師團)은 미(美) 제1군단(第1軍團)의 좌익을 담당하여 그 여세를 몰아 파주군으로 진격하였다. 3월 24일에는 임진강 하류의 남안(南岸)을 완전 장악하기에 이르렀



◇1951년 4월초 我軍位置

으며 3월 31일에는 임진강을 도강하여 동파리(東波里)에 있는 191고지(高地) 일월봉(日月峰)을 기습하였다. 그러나 이 기습은 적정(敵情)탐색에 그쳤으며 두 번째로 4월 7일에 일월봉 기습에 이어 4월 13일에는 자지포(紫芝浦) 북쪽 91고지(高地)를 공격하였다.

개성시민의 애타는 고대에도 불구하고 북진(北進)의 개성군은 임진강에 머무르고 다만 수색 및 탐색전만을 행하였다. 한편 제1사단(第1師團)에 배속된 한국해병독립(韓國海兵獨立) 제5대대(第5大隊)는 제1사단의 좌일선(左一線)을 맡아 김포(金浦)반도에 진격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김포(金浦)반도를 완전장악, 반도 북안(北岸)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 있었다. 강화도에는 제8군 예하의 미(美) 제1군단(第1軍團)과 한국군(韓國軍)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격대가 있었다. 해병대는 이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격포 소대를 파견하였고 유격대는 이에 힘입어 개풍군 일대에서 유격전을 강화하였다. 이 유격대는 해병 박격포 소대의 지원 하에 3월 31일 개풍군(開豐郡) 대성면(大聖面) 해창리(海倉里)에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고 4월 2일에는 광덕리(光德里)까지 진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저녁 때 철수, 강화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 2차 수복 이후 아군(我軍)은 개성 근처까지 일찍 진격하였으나 더 이상의 전진이 없이 수색 및 유격전만을 하고 있었다. 이 때가 피난 못하고 개성에 머무르고 있던 많은 시민이 수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때이다.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는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퇴각하는 적군이 다시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1차 수복시의 북괴군 만행은 모두들 겪었듯이 가히 천인이 공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갈망하던 아군(我軍)은 입성하였다. 개성사람 모두는 안도와 환희로 들떠 있었다. 이제는 살았다고……. 시내에 입성(入城)하여 활약하던 유격대의 주력은 제5816부대로 기억된다. 유격부대의 대장(隊長)은 안일채(安日彩) 중

위(中尉)였으며 부대의 본거지는 교동(喬桐)이었다. 4월 2일 교동에 상륙한 한국 해병독립(韓國海兵獨立) 제41중대(第41中隊)로부터 해병대가 경인(京仁)작전에서 노획한 무기를 지원받고 강화로 옮긴 것은 4월 초순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강화로 옮겨서 본부를 현읍내(現邑內) 한일은행 강화지점 옆 남궁의원 자리에 있던 큰 한옥 집에 정하고 그 이후 개풍군을 무대로 유격활동을 하고 있었다. 개성(開城)에 입성(入城)한 4월 13일에는 임시로 본부를 청교면으로 옮겼다. 백여 일을 끈 적치하생활(赤治下生活)은 지긋지긋하였으나 마침 같이 개성(開城)에 남게 되었던 김홍달(金洪達) 군(君)(현재 산업은행 근무)과 몇몇 친우(親友)들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용케 이 난국을 넘기었다. 모든 개성사람은 하루 빨리 아군주력(我軍主力)이 입성(入城)하고 행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격대가 첫날 입성한 이후 청교면을 본거지로 들며 날며 하는 것이 차츰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주력의 입성이 늦어질까. 혹시 개성(開城) 일대가 주전장(主戰場)이 되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시간이 걸릴 바에는 앉아서 당하느니 총을 들고 참여하자고 생각하고 유격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 때 옆집에 살던 안광일(安光一) 군도 이 5816유격대에 입대하였다. 나도 입대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극력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즈음 중공군의 대공세와 유격대의 철수가 풍문에 들려왔다. 다시 개성시민들은 망설이게 되었다. 피난을 갈 것인가, 또는 다시 남아 참고 견딜 것인가. 드디어 중공군(中共和軍)의 소위 춘계1차공세(春季1次攻勢)가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유격대도 이날 아침에는 완전히 개성을 철수하고 만 것이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인가.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중공군 공세는 주로 중부전선에서 치열하였고 일부 병력은 임진강 연안(沿岸)의 한국군 제1사단에 가해졌으며 개성 일대는 그대로 진공상태로 방치되었다. 나는 철수한 유격대를 따라가 입대(入隊)하겠다고 하루 종일 부모님을 졸랐으나 결국 이웃인 박현종(朴顯鍾)

형(兄)의 가족과의 동행을 조건으로 피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4월 23일 이른 아침 박 형 부모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안경선(安慶善) 양(광일 군(光一君)의 자(姉)이며 당시(當時)를 기준으로 양(孃)이라 부름을 양해바람)과 개성(開城)을 떠날 때는 참으로 그 누군가 오랜 이산가족의 운명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잠시 피난, 문자 그대로 피난으로 생각하였다.

눈물이 많은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노자와 노자가 될 만한 물건을 주실 때는 뭔가 불안을 느꼈었다. 그러나 곧 귀향하게 된다는 생각에 간단히 부모님을 하직하고 우리는 유격대의 퇴각로를 재촉하였다. 많은 피난민 대열은 줄을 이었고 임진강 연안에서의 치열한 중공군의 공세와는 대조적으로 개성 남(南)쪽 일대는 적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피난 가는 우리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영정리(領井里)에 이르니 마침 우리 유격대의 일부가 남아 있어 검문검색은 엄하였으나 피난민의 도강을 돕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유격전과 피난민 보호가 유격대의 임무였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든든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기에 나도 입대(入隊)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다.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그 때 입대(入隊)하지 아니하고 우리 일행은 강화 산이포에서 일박 후 박현종(朴顯鍾) 형(兄)의 친척이 계시는 인천(仁川)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다.

인천(仁川)에서 머무는 며칠간 나는 인천(仁川)에 계시던 박현종 형의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父母任)에게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다. 인천에는 개성 피난민이 많이 모여 있었으며 귀향(歸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근교까지 침투하였던 중공군의 대공세(大攻勢)가 용맹한 아군의 반격으로 무위로 끝나고 다시 아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에 우리는 곧 귀향할 것으로 가슴 부풀었다.

고향이 가까운 강화로 가는 사람들이 늘게 되자 나도 4월 29일 박현종 형 일가를 하직하고 귀향하는 가벼운 기분으로 강화로 향(向)하였다. 우연히 동행(同行)이

못 잊을 첫 출전(出戰)

-1951년 5월 3일

된 박 형(이름은 기억이 안 남)과 도보로 부평 김포읍(金浦邑)을 거쳐 첫날은 김포군(金浦郡) 진사리(進沙里)에 머물렀다. 이 박 형(朴兄)이라는 분은 개성(開城) 분으로 당시 나이는 27~28세(歲)였으며 키는 작으나 자상하였고 나를 의제(義弟)와 같이 보살펴 주셨다. 방위군에 있다 귀향길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진사리(進沙里)에서는 많은 피난민이 동숙(同宿)하였으며 가히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튿날 강화까지의 그 지역은 최전방의 포연과 포성이 그치지 않았다. 검문도 피난 나올 때와는 판이하게 매우 엄하였고 전방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진땀을 흘렸다. 성동나루 못미처 군하리 통진중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영연방(英聯邦)사단 제29여단은 중공군(中共軍) 공세시(攻勢時) 동두천(東豆川) 북방(北方)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김포반도로 철수, 한국군 제1사단 예하에 있던 해병(海兵) 독립(獨立) 제5대대를 휘하로 편입시켜 한숨 돌리며 김포(金浦)반도를 방어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여단 앞을 지나며 전쟁의 무서움을 실감하였다. 강화읍에 도착하니 마치 개성(開城) 일부를 옮겨 놓은 듯 개성(開城)사람 천지였다. 모두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귀향을 초조히 기다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곧 귀향하게 될 듯하면서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중 마침 5816부대(部隊)에서 편의대(便衣隊)를 새로 만들어 모병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부대에 용감히 입대한 것은 5월 1일이었으며 이로써 내 나이 17세의 어린 몸으로 내가 당초 원하던 유격대원의 꿈은 이루어졌다.

내가 1951년 5월 1일에 입대(入隊)한 편의대(便衣隊)는 문자 그대로 편의(便衣)로 무장한 유격부대였다. 구성인원은 약 30여 명으로서 거의 모두가 개성(開城), 개풍(開豐) 출신(出身)이었다.

부대본부(部隊本部)는 지금의 강화읍내 농협중앙회 강화지부 뒤뜰로서 선원(仙源) 김 선생(金先生) 순의비(殉義碑) 바로 건너편이 된다. 당시 그 곳에는 큰 왜식집이 있었으며 문 옆 담장 앞에 그 순의비(殉義碑)가 있었고 현재(現在)의 비(碑)자리에는 구성지(舊城址)로 옮긴 종각이 있었다. 대장(隊長)은 전씨(全氏)였으나 그분의 이름은 기억에 없다. 다만 그는 작은 키에 다부지고 날카로운 분으로 말수가 적었던 것만 기억된다. 본부가 있었던 그 왜식집에는 서너 개의 널찍한 다다미방이 있어 대원(隊員)의 숙식에 안성맞춤이었고 뜰은 널찍하여 취사나 대원들의 빨래 등 허드레 일에 불편이 없었다. 그 때의 정황으로 좋은 식사는 있을 수 없었다. 반찬 하나에 수북한 밥 한 그릇 또는 주먹밥은 한창 나이에 꿀과 같았으며 항상 부족하였다. 미군(美軍)의 예속 부대답게 담배는 “럭키스트라이크” 양담배를 지급 받았으며 당시의 어린 나이로 담배를 아직 안 피우던 나는 이 양담배를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낙(樂)이었다.

5월 1일 저녁에 우리는 무기를 지급받아 무장을 서두르게 되었다. 우리에게 지급된 소총은 해병대의 경인(京仁) 작전에서 북괴군으로부터 노획한 (아식보총(亞式步銃), 소총(小銃))과 방망이 수류탄 그리고 미군(美軍)에서 보급된 MK2 세열수류탄이었다. 나에게는 수십 발의 탄환과 함께 아식소총 1정, 그리고 2개의 세열수류탄이 배당되었다. 세열수류탄은 당시 성능이 좋은 수류탄이었으나, 아식소총은 일제(日製) 구구식(九九式) 소총과 유사하여 단발식이어서 실전에는 매우 불편한 무기이다. 우리 편의대(便衣隊)에는 방위군 출신이 많아 그분들은 간단한 총기 다루는 법 등은 익히고 있었으나 나와 같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원(隊員)에게는 무기 사용에 대하여 완전히 백지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기를 지급받자 즉시 소총의 분해소제로부터 사용법 특히 무기의 중요성, 오발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5월 2일에는 하루 종일 모여앉아 유격전에 대한 설명과 준수하여야 할 지침 그리고 암호 등 실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받았다.

부대가 편성되면서부터 본부 정문 앞에는 입초를 유경험자부터 1명씩 4시간 교대로 서고 있었다. 나의 차례는 5월 2일의 교육이 끝난 저녁 때였다. 학교 때 학도호국단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나 나로서는 입초라는 것부터 총을 들고 있다는 것 등 참으로 생소한 일이었다. 단발식일 망정 실총(實銃)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고 어색하게 걸어가는 것 등은 나에게 이상야릇한 긴장감과 우울감을 갖게 하였다. 편의대(便衣隊) 뜻 그대로 평복인 나는 학생복(學生服)에 총(銃)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용감한 유격대원이 된 듯 우쭐하였던 것이다. 이미 소식을 들은 동향인(同鄉人) 몇 분은 벌써 문 앞에서 기웃기웃하며 “언제쯤 개성(開城)에 들어가게 되느냐?”고 묻고 있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귀향의 소식이라. 나 같은 초입대원(初入隊員)이 무엇을 알겠느냐마는 나는 “군비(軍秘)를 어떻게 말하느냐?”

며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기실(其實) 나도 그분들과 똑같이 귀향의 날만을 고대하는 입장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벌써 인적은 끊어지고 있었다. 최전방인 이곳은 초저녁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되었다. 많은 고향 분들이 망향에 젖어 거리를 헤매다 협소한 속소로 돌아가 애타는 마음을 서로 달래며 모여앉아 있을 초저녁 그 시간에 나는 홀로 인적 끊긴 거리를 주시하며 간혹 지나가는 군(軍)관계인들의 검문과 암호 확인을 하는 것은 지극히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누구냐! 암호!” 호기 있게 소리치는 나의 목소리는 죽은 듯 조용한 밤공기를 뚫고 메아리치는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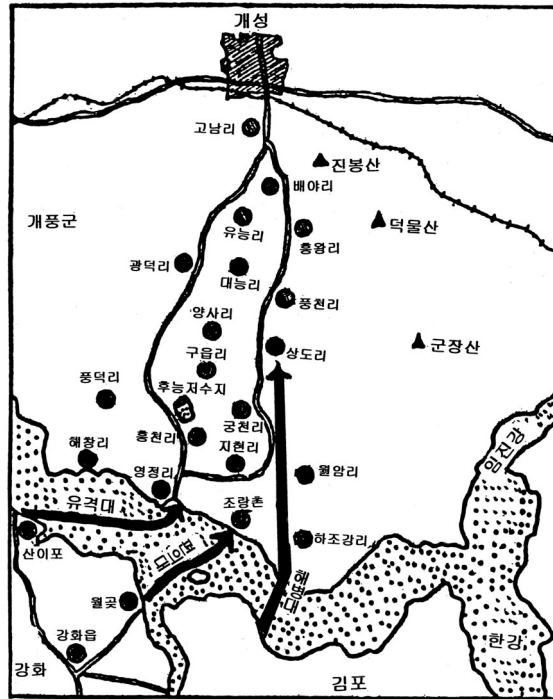
이튿날인 5월 3일 드디어 아침부터 부대 내(部隊內)는 술렁거리고 있었다. 꼴맞 같은 밥 한 덩어리에 찐지 몇 쪽으로 아침을 끝마치고 못 피우는 양담배 몇 갑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때 전원대기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무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나이 어린 나로서는 출전 준비를 의미하는 대기 명령은 실로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반공과 귀향의 일전은 불안보다는 의기충전이 앞섰다. 미숙한 전투는 능히 열의로서 감당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마저 갖게 하였다. 대기 상태에서 총기를 몇 차례나 손질하며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도 이제나 저제나 출동명령만을 기다리며 선배 대원들의 지도를 받았다. 초조함과 무료함을 달래며 문 앞을 나가보니 많은 고향 어른들이 종각 옆에 모여 앉아 혹시 귀향의 소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부대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셨다. 그 분들 중(中)에는 나의 모교(母校) 송도중학(松都中學)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왕호, 박영래 선생님(先生任)도 계셨다. 아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드릴 수 없는 나는 주머니에 넣어둔 양담배를 나눠드리고 그러나 고향에 남보다 먼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호뭇함을 마음으로 혼자 되새겼다.

저녁을 주먹밥으로 든든히 채우고 난 후, 어둠이 깃든 늦저녁에 우리는 드디어 본부(本部)의 앞마당에 집합하였다. 조용하면서 날카로운 전 대장님(全隊長任)의

간단한 출동명령을 들은 후 우리가 본부를 출발한 것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거리에는 인적도 끊긴 9시 경이었다.

천진난만한 어린시절 부모님과 형님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고이 자란 내가 불운의 전란에 쌓이게 되었고 아직 때도 벗지 못한 어린 나이에 총을 메고 유격대에 뛰어들어 처음 출전하는 이 시각이야말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편의대(便衣隊)의 편성이 엇그제로 이 출전이야말로 나나 또는 우리 대(隊)의 제1차 출전이였다. 각양각색의 편의에 무장을 한 우리는 강화읍을 옆으로 향도의 뒤를 따라 삼삼오오 어디로인가 전진하고 있었다. 목적지와 우리의 임무 및 이 작전에 관한 설명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오직 인적이 끊긴 시골길을 앞서사람의 그림자만을 따라 전진하였다. 짐총자세로 총을 들고 허리에는 실탄을 찻으며 멜빵에는 두 개의 수류탄을 걸고 있었다. 칠혹 같은 그믐밤, 삼라만상이 다 쥐죽은 듯 조용한 밤, 오직 증오의 대상인 공산군의 잔인한 눈빛만이 어디에선가 번득이는 듯하였다.

우리가 당도한 곳은 강화의 동북(東北)에 위치하는 월곶(月串)이었다. 이곳에 집결한 우리는 이번 작전의 개요와 임무 그리고 주의사항을 지시받았다. 적지의 탐색과 후방교란이 목적(目的)이며 우리는 곧 건너편의 개



1951년 5월 3일 아군진격도

풍군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수류탄의 사용은 위급한 경우를 빼고는 일체불허하고 총도 발포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금지되었다.

폭풍전야와 같은 포구에는 몇 척의 어선이 죽은 듯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 중(中)의 한 척에 우리가 승선을 완료하였을 때는 평화 시(時)의 초저녁밖에 안 된 10시(時)를 넘어선 시각이었다. 긴장과 초조함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앞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구나 생각하고 또 용감히 싸우고 싶은 흥분에 오그라지는 듯한 몸을 곧추세우고 있는 순간에 어선은 미끄러지듯 포구를 떠나고 있었다. 입이 딱딱 부딪치는 떨림은 찬 밤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서움 때문도 아니었다. 긴장이 지나친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조랑촌의 격전(激戰)

노 젓는 소리만을 들으며 그렇게도 긴 듯이 느껴지는 시각이 지난 후, 우리는 마치 귀지(鬼地)와 같은 검은 육지가 떠오를 때까지 아무런 적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배는 서서히 흥교면(興教面) 조랑촌(또는 조랭이라고도 함) 갯가에 접근하고 있었다.

우리 편의대(便衣隊)가 조랭이에 접근하고 있는 이 시각에 김포 주둔 해병독립(海兵獨立) 제5대대(大隊)의 일개(一個)분대는 하조강리에 상륙하고 있었고 우리 유격대 주력(主力)의 일부는 영정리(領井里)로 진격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운 칠혹 같은 어둠 속 마침 만조에서 썰물이 한창인 때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해변 독에 올랐다. 개흙 속을 진창으로 뚫고 온 우리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이슬이 내리는 해변 독은 축축하였다. 여기에 스며드는 바닷바람은 몹시 한기를 느끼게 하였다.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떠난 척후병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해변 독에 엎드려 있는 우리는 긴장과 추위로 무척 긴 시간인 듯 지루하였다. 나는 이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었는지 지금 생각하여도 한심한 일이었다. 척후에 의하여 전방에 적이 없음을 확인한 우리 부대는 해변 독에서 조용히 조랑촌 마을 쪽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주위의 웅성거림에 눈을 뜬 나는 이미 전

진을 시작한 대원의 검은 그림자를 따라잡기 위하여 허둥지둥 전진하면서 소지한 무기들을 확인하여보니 수류탄 하나가 없지 아니한가. ‘아차’ 하고 당황하였으나 다시 돌아서 수류탄을 찾아볼 경향이 없었다. 아마 해변 독에서 깜박하는 사이 떨어뜨린 모양이다. 무기를 아껴야 된다는 수없는 주의를 받은 터라 이의 변명을 어찌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하였다. 적전에서의 전쟁 공포보다는 이 수류탄 분실 건이 더욱 걱정되었으니 정말 철부지였다.

조랭이 마을에 침투를 완료한 우리는 이곳을 임시 거점으로 확보하고 교대로 경비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경비를 맡은 나는 잠시 마을의 한 사랑방에서 눈을 부치고는 적전(敵前) 경비에 임하게 되었다. 마을 북쪽 논이 끝나는 곳에 얇은 산등성이 잡목 속에 몸을 숨기고 다른 한 대원(隊員)과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하고 가끔 하늘에는 유성(流星)만이 고향 하늘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 둘은 교대로 주위로 이동하며 이상유무(異常有無)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점점 마음이 느긋해 졌다.

나는 혼자서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다. 어두운 저 멀리를 살피며 논두렁 길을 낮은 자세로 지나고 있을 때 수풀 속에서 담뱃불을 발견하였다. 순간 나의 피는 멎는 듯 숨은 끊어지는 듯 놀라움에 바짝 긴장하였다.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긴장 속에 “누구냐!” 하고 소리를 치고는 총을 겨누었다. 나의 다급한 수하에 아랑곳없이 대답도 없이 담뱃불은 유유히 앞으로 오고 있지 아니한가. 조급히 재차 “누구냐!” 하고 소리쳤으나 아무 반응은 없었으며 점점 담뱃불은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는 무아무중이 되어 방아쇠를 당겼다.

조용한 밤공기 속으로 그리고 살벌한 적지(敵地) 속으로 요란한 총성은 울려 퍼졌다. 총기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총을 발사한 나는 총의 반동으로 논두렁에 뒤로 나가떨어졌다. 얼마나 우스운 꼴이란 말인가. 마침 논에 고여 있는 물로 흙탕을 뒤집어 쓴 채 다급히 일어나 논두렁에 엎드려 내가 쏜 전방(前方)을 살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담뱃불은 거침없이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담뱃불로 착각하였던 그 빛이 한밤중을 누비는 “반딧불”이었던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나의 실수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자책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은밀히 적지에 침투한 우리 편의대(便衣隊)로서는 이 일발의 총성으로 적에 노출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함께 경비를 보던 동료 대원이 뛰어오고 마을에서 쉬고 있던 전 대원(全隊員)은 비상이 걸려 모두 마을 밖으로 나왔으며 해변 독으로 집결,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주위를 살피며 한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서서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모두에게 미안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나에게 대장(隊長) 이하(以下) 모든 대원들은 크게 야단치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도 나이 어린 나에게의 특별한 배려였을 것이다.

돌연 총성과 함께 탄알이 비 오듯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첫새벽 즈음이었다. 우리가 잠복하고 있던 해변 독 왼편 언덕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즉각 이에 응사하였지만 적은 포까지 곁들인 공격을 가해와 우리 측엔 불리하였다. 한동안의 교전 후 우리가 타고 왔던 배로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그 때의 물때는 썰물에서 밀물로 바뀐 때여서 배는 멀리 해상(海上)에 떠있었으며 우리가 배까지 가려면 긴 개흙밭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자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었다. 적의 포화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흙 속으로 뛰어들었다. 적의 위치가 그다지 가깝지 아니하여 우리는 물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철수하였으나 총알은 쉴 사이 없이 날아왔다.

배는 멀리 해상(海上)에 떠있고 곧 배에 오를 수가 없어 우리는 개흙에 엎디어 적에 응사하고 있었으나 밀물은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었다. 특히 배를 목표로 쏘아대는 적의 포화로 배는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 주위에서 포탄의 폭발로 생기는 물기둥들을 쳐다보며 한편 적과 응사하고 있을 때 벌써 물은

무릎께를 지나 허리에 차고 있었다. 엎드려 있을 수 없어 일어서서 응사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적의 탄환이 일으키는 물줄기가 수없었으며 탄환의 비음(飛音)이 끊이지 않았다. 물이 가슴께에 차게 되자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응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총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불어나는 물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배는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밀물은 곧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이 있는 독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밀이 고르지 못한 개흙바닥에서 언제 웅덩이로 빠질지 모르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적의 탄환에 더욱 난처하였다. 거센 밀물의 물살에 휘말리면 이 또한 살아남기 힘들었다. 참으로 처참하였다. 이 상황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랴. 옆에서 동료 대원(隊員)이 적탄에 맞았는지 물살에 휘말렸는지 물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나의 실수에 의한 희생이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고 어린 몸에 감당키 어려운 적탄과 물살 속에서 나는 이미 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때 나는 분명히 보았다. 햇살이 내려 쪼이는 해상 위에서 나의 조부(祖父)님을 보았다.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박두혁(朴斗赫)의 얼굴 모습을 알 턱이 없는 나였지만 그 분은 틀림없는 나의 할아버님으로 생각되었다. 할아버님께서는 나에게 손짓을 하시며 물살을 따라 강(江)쪽으로 오라고 하시지 않는가. 나는 허겁지겁 할아버님이 손짓하시는 위쪽으로 밀물을 따라 올라가니 물은 알아지고 총알은 용케 나를 피하고 있었다. 마침 그 때 김포 쪽에서 해병대(海兵隊)의 상륙정 3척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고 우리가 구출되어 해상(海上)에서 다시 어선으로 옮겨 댕을 때에야 나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주위에서 물기둥을 일으키는 포탄을 뚫고 강화 월곳으로 돌아가는 중 우리는 동료 2, 3명을 잃은 것을 알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비통하였고 자책에 몸 둘 바를 몰랐다. 개풍 앞바다에서 사라진 전우(戰友)여, 고이 잠드소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영정리(領井里)에 상륙(上陸)한 유격대 주력(主力)도 완강한 적의 항거로 강화 산이포로 철수하였으나 하조강리에 상륙(上陸)한 해병대(海兵隊)는 우리를 공격하던 적의 후방(後方)을 차단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월암리(月峇里) 상도리(上道里)까지 진격하였다가 우리가 모두 귀환한 후(後) 퇴각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실수에 의한 발사는 결과적으로 적의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에 돌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시(不時)의 공격을 피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하여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나는 얼굴도 빈 적이 없는 할아버님의 가호 아래 살아남았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도 나는 할아버님의 이 도우심을 잊을 수 없어 명절 때마다 지내는 차례(茶禮)에서 아직도 생사(生死)를 모르는 아버님(春波 朴在淸)과 더불어 할아버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 편의대(便衣隊)의 제1차 전투가 이리하여 성과 없이 끝나고 다음의 복수를 이를 갈며 기다리게 되었다.

땀땀한 성과(成果)없이 제1차 출전(出戰)을 끝마친 우리 편의대(便衣隊)는 아픈 상처를 만지며 복수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화 산이포까지의 야간 행군(夜間行軍) 등으로 훈련을 쌓고 있는 중 며칠 후인 1951년 5월 10일, 드디어 제2차 출전이 있게 되었다. 전 전선(全戰線)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은 그들의 제2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때였다.

제5816부대(第5816部隊) 유격대의 주력(主力)이 산이포를 출발 개풍군(開豐郡) 해창리(海倉里)로 향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편의대(便衣隊)는 월곶(月串)을 떠나 조랑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도 제1차 출전 때와 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아무 저항 없이 조랑촌에 상륙한 우리는 이 곳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인 5월 11일에는 상도리(上道里) 쪽으로 진격하였으나 역시 적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상도리의 한 마을을 거점으로 확보한 우리는 우선 주변정찰에 임하였다. 우리가 머물게 된 마을부터 살살이 뒤지고 있는 나에게 전쟁 속 양민(良民)의 뼈저린 서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적군(敵軍)과 아군(我軍)이 수시로 뒤바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들 마을사람들은 불쾌할 정도로 무감각하였다. 우리의 수색작업에 협조도 반항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아군(我軍)의

조속한 완전수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대한 식사 제공에서 나는 확실히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결코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 검색을 늦추려 애썼으며 그들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섞여 있을 진짜 빨갱이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들은 몰래 적군(敵軍)과 내통할 것이며 우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과 주위의 수색 정찰을 마친 후 나는 한 대원(隊員)과 조(組)가 되어 전방(前方) 수색에 나서게 되었다. 척후병이 된 것이다. 상도리(上道里)의 서쪽 군장산(軍葬山) 쪽을 맡은 우리 척후 조는 산기슭과 논두렁을 타며 서쪽으로 향하였다. 한 과수원을 돌아가니 앞은 탁 트인 논밭으로 더 이상 전진하면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아카시아 울타리에 가려진 작은 개천 독에 엎드려 멀리 전방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그 때 국군(國軍) 복장에 무장한 두 명의 군인(軍人)이 낮은 자세로 과수원 울타리를 돌아 우리가 숨어있는 쪽으로 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여기에서도 또 다시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말았다. 국군(國軍) 복장이 반가운 나머지 숨었던 곳에서 반갑게 이들을 맞이하려 뛰어나왔던 것이다.

당시의 수색 작전에는 변장한 척후병이 많았으므로 국군 복장에 안심할 때가 아니었다. 또 나의 복장도 문제였다. 새까만 학생복에 소련제(劑) 아식소총(亞式小銃)으로 무장한 나를 누가 아군(我軍)으로 인정하겠는가. 반갑게 뛰어나온 나에게 놀란 이들은 총을 들이대는 것이었다. 그들과 우리가 아군(我軍)이라는 것을 해명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나 서로 석연치 않게 헤어졌다. 그들은 임진강을 건너와 정찰 중이던 한국군 제1사단의 척후병이었다. 나는 정찰 중 적의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상도리(上道里)로 돌아왔다. 다른 척후병들도 역시 적의 동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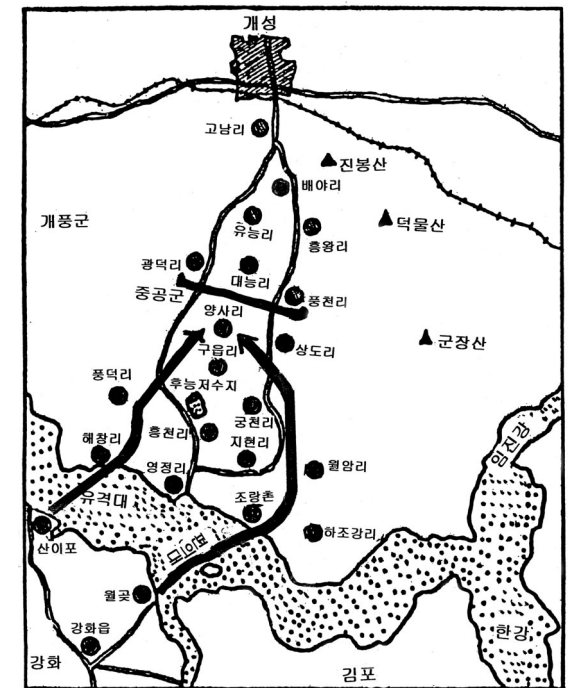
이튿날, 그러니까 5월(月) 12일(日)이 된다. 이른 새벽 우리 대(隊)는 마을의 한 마당에 집합하였다. 나는 이 때 호된 추궁과 심한 기합을 받았다. 서로 분명치 못

하게 헤어진 한국군 제1사단의 척후병 보고에 의하여 제1사단에서는 우리 대에 우리의 척후 활동을 확인하여 왔으며 나의 어리석고 경솔한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때의 꾸중을 잊을 수가 없다. 만약 이후 또 실수를 하면 즉결 처단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대열로 돌아올 때는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주먹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현지에서 합류한 향도의 안내로 우리 대(隊)는 진군(進軍)을 시작하였다. 상도리를 떠나서 좌회(左回)하여 양사리의 우거진 산림(山林)으로 들어섰을 때 해창리(海倉里)를 거쳐 북상하고 있는 유격대 주력(主力)과 만나게 되었다. 유격대 주력은 박격포 소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영국군(英國軍) 군사고문을 대동하고, 유엔군 공군기(空軍機)와의 연락을 위한 항공표시도 갖고 있었다. 나는 이 때 처음으로 우리 유격대의 실력에 우쭐하였으며 군력(軍力)을 실감하였다.

유능리 벌판에서 다수(多數)의 적군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에 접하자 우리 유격대의 주력은 양사리 왼쪽의 구릉으로 그리고 편의대(便衣隊)는 오른쪽 산(山)으로 올라 포진하였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은 나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산 밑에 펼쳐진 들판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주보이는 산은 조으는 듯 길게 뻗어 있었다. 우



1951년 5월 12일 전투도

리는 부산한 전령의 연락을 받으며 길게 퍼져서 적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총만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봄에 취할만한 한가한 시골 풍경이었다. 그러나 불을 켜고 노리고 있는 눈동자와 총구(銃口)는 평화로운 풍경에 살기를 품게 하였다.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드디어 적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한 아군(我軍)의 박격포가 포문을 열었다. 앞산에는 우리가 쏘아대는 포탄이 수없이 작렬하고 있었으며 마주보이는 앞산은 포연과 먼지로 뒤덮여지고 있었다. 이제 곧 진격 명령이 떨어지리라고 총을 굳게 잡고 앞산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적의 포가 날라 오기 시작한 것이다. 피아간에 포격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화력은 적 쪽이 우세하게 느껴졌다. 우리 유격대의 주력이 있는 왼쪽 산등성이에 포탄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어이없게 쳐다보고 있는 중 날카로운 포탄의 비음(飛音)이 우리를 향하여 날라 오고 있지 않은가. 적의 포구(砲口)는 우리 편의대(便衣隊)가 있는 산 쪽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멀리 앞쪽에서 터지던 포탄이 서서히 우리가 있는 산등성이로 올라오고 있었다.

과연 저들의 화력은 우리 유격대보다는 우세하였다. 5월 16일부터 시작한 중공군(中共軍) 제2차 공세(攻勢)를 위하여 서부전선(西部戰線)으로 이동 중이던 중공군 대부대(大部隊)의 일부인 대대병력(大隊兵力)과 우리 유격대가 조우한 것이었다. 제1차 공세가 아군(我軍)의 용맹으로 무위로 끝나자 전력을 재정비하여 호시탐탐 제2차 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이들 중공군과의 조우는 우리 유격대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 유격대의 본연의 임무일진데 이 전투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절호의 찬스였다. 아군(我軍)의 박격포도 질세라 불을 뿜고 있는 중 적의 포탄은 바로 우리 편의대(便衣隊)의 앞을 강타하고 있었다. 무섭게 들려오는 포탄의 비음(飛音), 귀를 찢는 폭발음(音), 나는 그 외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납작하게 엎드려 눈으로 주위를 더듬으니 약 10m 옆쪽의 동료대원이 아는 체를 하여준다. 먼지로 뒤덮

인 희미한 시야에 이 응답은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였다.

마침 그 때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비음(飛音)을 듣고, 이는 나를 향한 직격탄이란 것을 느끼었다. 그와 동시에 낮은 위치로 뒹구는 순간 귀청을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과 온몸이 불을 품고 들이 닥치는 폭풍에 휩싸인 듯한 아득한 느낌 속에 코를 쓰는 화약 냄새를 맡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중공군(中共軍), 거의 무기(武器) 없이 인해전술(人海戰術)

- 팽과리, 북, 나팔, 피리 불며 쏟아져 내려와

적의 직격포탄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아직 진한 화약 냄새와 뜨거운 주위 공기, 그리고 미처 사라지지 않은 먼지 등으로 보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으리라. 순간이었는지 몇 분 후이었는지 또는 10여 분이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적 포탄은 날아오고 있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소위 잡자리비행기라고 부르는 아군(我軍) 정찰기가 유유히 돌고 있었다. 이 정찰기의 나타남이 적의 포격을 침묵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주위는 조용하다.

가만히 주위에 있었던 동료 대원(隊員)들을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적의 포격권을 피하여 어디로인지 모두 이동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살펴보니 앞서 서로 눈으로 격려하던 대원이 잠든 듯 엎드려 있다. 나는 다시 그분을 향하여 불러보았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으며 대답도 없다. 기어가다시피 하여 그에게로 다가간 나는 그분을 흔들며 보았다. 아! 그러나 그는 이미 전사(戰死)한 것이었다. 나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엎드려 있었던 그는 바로 내 옆에서 폭발한 포탄의 파편에 급소인 가슴을 맞았던 것이다. 가까이 있었던 나는 무사하였으나 멀리 있었던 그분은 희생된 것이었다.

주위에는 그분과 나를 빼고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 빨리 이 곳을 피하여 나의 대(隊)를 찾아가야겠다고 불현듯 생각하였으나 잠자는 듯 엎드려 있는 이 동료를 놓고 갈 수는 없었다. 아직 체온도 식지 않은 나의 동료를 버리고 나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으며 자다가 곧 깨어나서 아는 체를 할 것 같다. 나는 그의 총(銃)과 나의 총(銃)을 어깨에 걸러 메고 그의 수류탄을 내 가슴의 멜빵에 걸고 그를 들쳐 업었다. 그분은 장대한 체격이었다. 실로 초능력의 힘이었다. 어리고 빈약했던 당시의 내 체격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등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는 그분의 피가 곧 나의 심장으로 그리고 혈관으로 흘러들어오는 듯, 그리고 그 피가 아마 나에게 힘을 솟게 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그분을 들쳐 업고 산(山)을 내려왔다. 산 밑 후미진 곳에 빈 민가(民家)가 몇 채 있었고 거기에 우리 대원(隊員)들이 모여 있었다. 어떻게 뛰어내려왔는지, 그 육중한 전우(戰友)를 어떻게 업고 지탱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동료 대원(隊員)들을 만나는 순간 주저앉고 쓰러지고 말았다. 내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고 얼굴도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으리라…….

침통해하는 동료에게 이미 유명을 달리한 전우를 넘겨주었을 때 나는 새삼스럽게 먼저 간 전우를 생각하며 애통해하였다. 그분은 개성 서부(開城西部)에 살던 분으로 당시 나이 25, 6세(歲), 그리고 체격은 우람하였으나 촌사람 같이 순박하였다. 지금은 그분의 성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박하게 웃던 모습은 생생하게 기억된다.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양지바른 곳에 즉시 묻혀졌겠지만 낮은 흙시 아직도 고향 주위에서 망향(望鄉)을 외치며 방황하고나 있지 않으신지……. 다행히 동작동 무명용사 묘소나 또는 강화도 유격대 위령탑에서 고이 잠드셨는지……. 귀향의 꿈을 저버리고 고향의 문턱에서 타계하신 전우(戰友)여… 방황하지 마시고 고이 잠드소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마음으로 당신과 벗하여 함께 귀향할 날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큰 실수를 저질러 왔던 나에게는 이번 일로 체면을 지킬 수가 있었다. 전사한 전우를 버리지 않았고 총기를 소중히 간수한 나에게 모두들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어린 나를 대견해 해주셨다. 그러나 가신 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함께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무엇이 자랑스럽고 어찌 기쁠 수가 있으랴.

우리 편 의대(便衣隊)와 유격대는 한 고지(高地)를 물러나 다시 전투 자세를 정비 하였다. 벌써 해는 오정을 넘어선 지 오래다. 얼마 전부터 아군의 썩썩이가 적진을 시원하게 강타하고는 유유히 다음 공격목표로 날아가고 있다. 정찰기가 한가히 하늘을 맴돌고 있는 중에 적은 어느 틈에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와 맞선 고지(高地)에 모여든다. 오전 때의 대치보다 훨씬 피아의 고지(高地) 거리가 가깝다. 잠시의 침묵 속에 재전투(再戰鬪)의 움직임으로 서로가 부산하다.

왼쪽 고지에 있는 유격대 주력 부대 중 일부가 드디어 적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낮은 자세로 눈두렁과 발두렁을 끼고 적진에 접근하고 있다.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뚫어지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쥐고 있는 총신에도 땀이 뻘뻘다. 우리 편 의대(便衣隊)는 엄호 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지(高地)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전진하고 있는 유격대원 중에는 영국군(英國軍) 고문관의 모습도 보였다. 적의 고지로 오르기 시작하자 적은 총격을 가하여 왔다. 엄폐물에 의지하며 전진하는 유격대를 보고만 있자니 못 견디게 답답하다.

완강한 적의 총탄에 전진하던 유격대가 멈칫하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적진에서 팽과리, 나팔, 북, 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소위 중공군(中共軍) 인해(人海)전술의 전주곡이다. 듣기에 여간 기분 나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소리에 맞추어 중공군이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팽과리, 나팔, 북 소리는 더욱 요란해지고 무수한 적군은 정신없이 뛰어 내려온다. 아군은 서서히 퇴각하고 있었다. 뛰어오는 적군은 그리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다. 이들은 거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려오는 중공군이 우리의 사정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신나게 총을 쏘아댔다. 유격대에 입대(入隊)한 이래 처음으로 마음껏 쏘아보는 순간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총은 단발식 소련제(蘇聯製) 아식보총(亞式步銃)이었기 때문에 한 발 쏘고는 장전하고 또 한 발 쏘고는 장전하는 아주 불편한 비능률적인 것이었으나 한 발 한 발 조준하며 신명나게 쏘아댔다. 한두 명씩 쓰러지는 것이 보였으나 계속 다가온다. 총은 뜨겁게 과열되고 총신에 선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다. 너무 총이 뜨거워지면 탄환의 위력이 약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급히 총신에 소변(小便)을 보았다.

성공적인 2차 작전(作戰)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 순간에 어이없는 행동이었으나 이를 어찌하랴. 다급한 중에 소변(小便)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으나 겨우 충기를 식혀서 다시 계속 적을 향하여 무차별하게 탄환을 퍼부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중공군(中共軍)의 전진이 늦어지더니 슬그머니 이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의 등을 향(向)해 계속 총을 쏘아붙였다.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적은 무수한 사상자를 버려둔 채 물러가고 있다.

신나게 싸대던 나의 소총(小銃)에 말뚝이 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너무 총신이 과열한 탓으로 쏘고 난 탄피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탄피가 빠지지를 않으니 만약 적이 계속 다가왔더라면 나는 무기 없이 다만 갖고 있던 수류탄만으로 대적할 뻔 하였다.

물러가는 적을 쳐다보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우리의 전투를 내려다보고 있던 아군 정찰기가 그 특유의 잠자리 비행을 하며 멀리 사라져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적의 포가 다시 날아오기 시작한다. 아마 우리의 완강한 반격에 대한 보복인가 보다. 나는 앞서 혼이 난 터이라 포 소리가 몹시 두려웠다. 우리의 박격포도 적을 향해 날고 있다. 벌써 해는 서산(西山)에 걸쳐있고 하루 온종일

의 전투에 사방은 전진(戰塵)으로 희미하다. 온몸은 하루 온종일의 죽고 죽이는 전투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계속되는 적 포화 속에 퇴각 명령이 하달되었다. 나는 고장 난 소총을 어깨에 걸러 메고 옷을 단단히 조이고 서서히 하산(下山) 준비를 하였다. 적진은 날아오는 포탄 이외는 움직이지 않는다.

완만한 구릉을 적 포탄과 포탄의 간격을 이용하며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불유쾌한 포탄의 비음(飛音)이 내 머리 위를 지나고 있는 속을 재빠른 동작으로 어느 산소를 향하여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앞서 맞았던 직격탄의 비음(飛音)과 같은 포 소리를 직감하였다. 참으로 찰나의 순간이었다. 나는 몸을 날려 산소의 봉우리 뒤로 뛰어드는 순간 내가 있던 곳에서 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직격탄이 바로 수미터 뒤에서 작열한 것이었다. 흙먼지를 털며 일어서 보니 역시 몸에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어느 분이 잠드신 산소인지 모르지만 이 산소는 나를 적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 이 고마운 산소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을 무시하는 적치하(赤治下)에서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자손들은 무사하여 참배들이나 하고 있는지, 혹은 잡초 우거진 고분이나 되지 아니하였는지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

날은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적도 우리의 공격에 지쳤는지 잠잠해지고 있다. 우리 편의대(便衣隊)는 전사한 전우를 땅 속에 놓아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영정포로 향하였다. 이미 사방은 캄캄한 속에 구웁리를 지나니 오른쪽에 검게 깔려있는 후능저수지가 나타난다. 냉(冷)전 짙질하는 곳이 불현듯 옛일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아마 내가 소학교(高麗初等學校) 1, 2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정 하(倭政下)의 핍박한 때였으나 무더운 여름날 부모님을 따라서 후능저수지에 쉬러 왔던 적이 있다. 개성(開城) 차부를 떠나 영정포를 향하는 짐짝 같은 버스는 초만원이었으며 자동차 멀미를 심하게 하시던 어머니가 거의 녹초가 되셔서야 털털거리던 버스는 저수지 옆에 우리를 부려 놓았다.

그 때 보던 저수지는 너무도 시원하였다. 물 옆에서 갖고 온 점심을 먹던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동행하셨던 내종사촌형님(內從四寸兄任)인 홍종규(洪鍾奎) 형님이(현재 인삼 경작을 하고 계심) 당시 청년 나이로 저수지를 가로질러 시원하게 헤엄쳐 건너가실 때 나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느꼈는지 새삼 그 때 추억이 새로워진다. 혹시 물에 빠지셔서 무슨 변이 나지 않을까 어린 마음을 졸이던 나도 이제 중년(中年)이 되었고 형님도 벌써 환갑이 가까우시니, 이렇듯 오랫동안 그리운 고향에 못 가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저녁에 늦게 도착하신 아버님(春波 朴在淸)과 냉(冷)전 근처 민가에서 재미있게 지내던 그 때가 못내 잊혀지지 않는다.

여자들 몸에 좋다는 냉(冷)전에 어머니는 몸 담그고 누워 계시고 아버님은 친구 분들과 마작을 즐기시는데 모기와 밤벌레는 왜 그리 극성이었는지. 개성 여자 분들이 즐기시던 그 냉(冷)전, 타지방(他地方)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쯤이나 일가 친구들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냉(冷)전에 갈 날이 있을 것이며 이를 모르는 여자들에게 냉전 맛을 보여 주게 될 것인가. 고향에 남아 계신 그 아버님, 어머니는 지금 어느 하늘 밑에 생존(生存)해 계신지, 혹은 벌써 타계(他界)하셔 어디에 외롭게 영민하고 계신지…….

저수지의 검은 물을 저다보며 총(銃)을 질질 끌고 걸어가는 나는 한없이 복귀를 저주하였다. 영정리를 거쳐, 강화 산이포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자정이 훨씬 지난 때였다. 그 밤을 산이포에서 지내고 아침나절에 우리는 강화읍으로 향(向)하였다. 강화에서 방황하며 귀향의 날만을 기다리던 많은 고향 분들은 이십 리가 넘는 우리의 귀로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어제 온종일의 전투와 밤새의 행군으로 지친 우리에게서 고향 소식을 알아내고자 애쓰시던 그 분들. 우리들의 지친 모습과 차(車)로 후송되는 부상병들을 보고 개성을 탈환하지 못하였음을 이미 직감하고 계시면서도 궁금증에 못 견디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그 분들께 속

시원한 말씀을 못 드리는 우리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로써 우리 편의대(便衣隊)의 제2차 작전(第2次作戰)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끝마쳤으나 적치하(赤治下)의 고향을 해방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헤아릴 수 없었다. 개풍 땅에 묻고 온 전우의 빈자리는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였고 값진 그들의 죽음에 보답코자 반드시 고향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몰려드는 고향 분들에게 중공군 대(大) 부대를 괴롭혔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나는 재출전(再出戰)의 날만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고향에 입성(入城)하여 이 방황하시는 개성(開城)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였다.

전전선(全戰線)의 일진일퇴는 중공군(中共軍)의 춘계 제2차 공세(春季第2次攻勢)로 다시 치열한 전투로 바뀌었다. 1951년 5월 16일부터 시작된 제2차 공세는 마치 최후 발악과도 같았다. 무수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저들은 인해전술로 죽자 사자 달려들었다. 임진강을 넘어선 중공군은 결사적인 공세를 가하여 왔으나 우리의 한국군 제1사단은 용감하게 서울을 지키고 있었다. 중부(中部)와 동부전선(東部戰線)에서도 무모한 저들의 공세를 우리 UN군(軍)은 용서 없이 격퇴시키고 있었다. 이 공세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수그러지기 시작한 5월 20일, 드디어 우리 편의대(便衣隊)의 제3차 출전 명령이 우리를 흥분시켰던 것이다.

제 3차 출전(出戰)의 장도(壯途)

1951년 5월 20일, 드디어 우리는 편의대(便衣隊)의 제 3차 출전의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만은 틀림없이 고향을 찾겠다는 결의도 드높게 늦은 저녁 강화읍 본부(本部)를 떠난 우리 편의대가 전과 동일한 진로로 강화 월곶이를 거쳐 바다 건너 개풍군 조랑촌에 상륙하였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캄캄한 한밤중이었다.

조랑촌 일대의 지리에 익숙한 우리가 이 곳에서 별 탈 없이 그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인 5월 21일 이른 아침에 진군(進軍)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는 사기가 매우 충천하여 있었다. 우리가 진군을 시작하는 같은 시각에 강화 산이포를 거쳐 개풍군 해창리에 상륙한 유격대 주력도 개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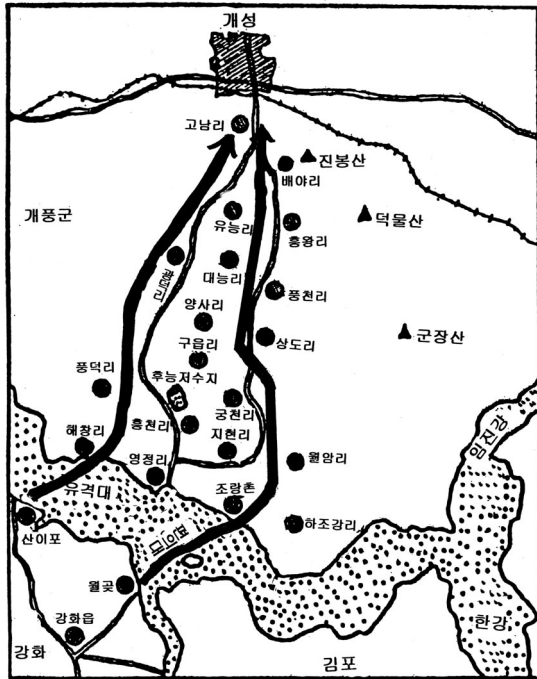
두 차례의 전(前)번 전투에서 경험을 쌓은 우리 편의대는 치밀하게 전방탐색을 하며 서서히 전진하였다. 지현리 궁전리를 지나고 후능저수지 옆 수풀 속을 헤칠 때 저수지 시퍼런 물은 우리를 아는 체 하는 듯 하였다. 전방(前方)에는 아직 적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첩후의 보고를 받고 계속 구읍리로 향한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밝게 빛나는 태양은 이슬에 젖은 옷을 말려주고 있다. 긴장과 살기로 몸에 열기가 솟고 땀까지 옷 속에 방울진다. 전번 전지(戰地)에 다가가니 그 때의 치열했던 전투는 벌써 잊은 듯 산천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포연(砲煙)과 콩 볶듯

쏘아대던 총성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언제 전투가 있었더냐 싶게 아지랑이만 피어 오른다. 그 때 잃은 전우 생각에 새삼스럽게 가슴이 메어온다. 다정하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틀림없이 우리의 장도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든든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꺾은 우리 대(隊)는 상도리를 휩쓸고 일로(一路) 개성(開城)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한다. 개성(開城)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번에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게 된다는 예감에 자못 흥분된다. 묵묵히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우리들의 집총(執銃)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다. 풍천리도 지나고 홍왕리도 지난다. 잔솔이 무성한 작은 산(山) 사이로 뚫린 달구지 길이 꾸불꾸불 끝이 없다. 부모님과 함께 후능저수지에서 여름 휴양을 즐기고 귀로는 이 길을 택하여 도보로 귀가하였던 생각이 새삼 새로워진다. 아픈 다리에 어리광부리던 나를 지나 는 달구지에 올려놓으시던 부모님 생각에 잠시 전쟁을 잊게 한다.

배야리에 가까워지니 왼쪽에 진봉산의 예쁜 봉우리가 우리를 알아본다. 이제 우리는 고향의 지척에 당도한 것이다. 하루 온종일의 긴장된 행군이 몹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배야리를 지나며 우리는 더욱 경계를 강화하였다. 수시로 알려오는 첩후의 보고는 역시 '전방 적정 없음'이다. 해는 점점 서산(西山)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개성(開城)까지 진입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고남리 못 미처서 행군을 멈추었고 해창리로 건너와 풍덕과 광덕을 휩쓸고 진격하여 온 유격대와 합류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 곳에서 일단 전세와 적군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고 야영하기로 결정되었다. 고남문 고개 좌우로 전방 경비 초소를 구축하고 교대 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물론 동서(東西)쪽과 후방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임진강을 도강하여 결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중공군(中공軍) 춘계 제2차 공세(春季第2次攻勢)도 5월 21일인 이 날을 기하여 참패로 끝나고 있었고 이로써 당황하여 퇴각하는 적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예기할 수 없었기



1951년 5월 20일 진격도

때문이었다.

우리 편의대(便衣隊) 2차 출전 시(出戰時)의 나의 조그마한 공적으로 나는 그동안 대내(隊內)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았었고 특히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이 날따라 야간 교대 경비를 면하여 주셨다. 최전방에서 배급된 주먹밥은 긴장된 속에서도 꿀맛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는 고남리에 집결하여 있는 유격대로 연락차 가게 되었다. 땅거미

가 지는 저녁, 전(前)청교 지서(支署) 주위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촌가(村家)에도 어둠이 깃든다. 길가 집들이 폭격 맞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외에 무척 한가롭다.

나는 불현듯 몇 년 전(前) 일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고려초등학교(高麗初等學校) 6학년인가 송도중학 1학년 때인가 아마 여름방학이었다. 당시 청교지서에 계시던 사촌 박문현(朴文鉉) 형님(현재 화성군 발안 고려농장에 계심)에게 놀러갔던 적이 있다. 형님택(宅)에서 맛있는 과일과 점심을 먹고 곤충 채집한답시고 이곳 일대를 온통 뛰어다니며 놀던 일이 어제 같다. 지서(支署) 근처에는 화초가 곱게 피어 있었고 나비와 잠자리는 나를 놀리며 좀체로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전진에 휩싸여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말았다. 내가 뛰놀던 이 곳에 총을 메고 다시 찾아 들었다니 슬프

기 한이 없다. 정중동(正中動) 조용한 어둠 속에 긴장된 눈빛들이 번뜩인다.

이곳 평화롭던 내 고향에서 포광(砲光)이 번쩍번쩍 밤하늘을 밝히고 포성(砲聲)이 끊이지 않는 속에 간간히 들리는 소총 소리는 내 달콤했던 추억을 밀어붙이고 현실에 몰아넣는다. 그렇다. 나는 흉악한 공산군(共產軍)과 싸우고 있고 바로 그리던 고향 앞에 도달하여 있다. 밤하늘 찬 공간에 마음껏 숨을 뱉어 내며 쥐고 있는 소총에 힘을 준다. 이제는 고향 땅을 약탈한 적으로부터 탈환하게 되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고향 분들에게 다시 평화를 안겨드리게 되겠지.

그 날 밤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낸 우리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5월 22일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개성(開城) 입성에 앞서 진입방향과 주의사항을 듣는 등 마는 등 흥분할 대로 흥분한 우리는 아침도 먹고 싶지 않고 빨리 진격하고만 싶었다. 척후의 보고와 전방 경비초소의 판단으로 보아 개성 시내(開城市內)는 현재 적군이 없는 진공상태로 추정되었으나 방심은 금물이었다. 한두 사람씩 촌가(村家)에서 나온 민간인들이 애타게 승리를 기원하여 준다. 순박한 이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쟁취해 줄 책무가 우리들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다.

드디어 유격대 주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삼삼오오 산개(散開)하여 고남문 고개를 오르고 있다. 모두들 온몸에 풀과 나뭇가지로 위장하고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어디서 나는지 확실치 않은 소총소리는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였다. 과감히 적의 후방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유격대 주력(主力)의 뒤를 따라 우리도 이동을 시작하였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간다는 흥분에 취하여 그리던 부모님이 계신 우리의 집으로 향하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는 전진하였다.

감격의 고향(故鄉) 입성(入城)

유격대 주력(主力)이 남대문(南大門)을 향하여 직선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휩쓸며 입성(入城)하는 중 우리 편의대(便衣隊)는 동쪽을 맡게 되어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남문 고개를 넘어서니 아늑하게 분지에 싸여있는 개성 시가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아담하게 솟아있는 자남산이 멀리서 우리를 반긴다. 폐허가 된 남부(南部)는 처참하다. 고개를 내려오면서 널려있는 채전밭에는 가꾸지 않아 잡초가 시푸르다. 평화시에는 푸성귀가 한참 자랄 이 5월의 좋은 계절에 잡초만이 자라고 있다니…….

앞서 가는 유격대가 우리의 진로를 안전하게 하고 있어 우리는 한결 긴장을 풀고 전진하였다. 왼쪽에 경덕궁 담을 쳐다보며 구름다리 못 미쳐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며 경의선 철로(京義線鐵路)를 넘어섰다. 앞에 펼쳐진 폐허(廢墟)에는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인다. 다만 멀리 움직이는 아군(我軍)의 총부리가 햇볕에 번득일 뿐이다.

드디어 우리 조(組)는 야다리에 이르렀다. 그 옛날 어린시절 이 다리를 무척 건너다녔다. 아버지와 친렵 가느라 여름이면 다리를 건넜다. 코흘리개 친구인 이우천 군(현재 육군 장성)과 김홍달 군(현재 산업은행 근무), 그리고 나는 겨울이면 개

성중학(開城中學) 앞 논바닥에 스케이트 타러 이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저주스러운 적을 찾아 살기찬 눈초리로 이 다리를 훑어보다니…….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을 의식하면서 조용히 흐르는 개울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니 옆에 선죽초등학교가 나타난다. 개다리 쪽도 조용하다. 무성한 나무들에 싸인 선죽교 저쪽으로 동대문 다리로 향하는 길이 쪽 뻗어있다. 이 곳에서부터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한다. 동대문 다리 건너 쪽에 적이 있을 듯한 예감에 방심할 수가 없다. 내 고향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회상에 잠기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길 옆으로 바짝 붙어가면서 선죽교에 다다르니 예전과 변함없는 선죽교가 의연히 남아 있다. 무서운 폭격도 정포은 선생님의 고귀한 정절은 피하였는가 보다.

이 곳까지 오는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백 리(百里) 안에 닭소리도 없었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전쟁의 참상을 표현한 그 말을 지금 이 곳 나의 고향에서 실감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정말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간혹 들려오는 소총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포성 소리 외에 너무도 조용하다. 불안한 고요 바로 그것이다.

선죽교 앞에서 나는 마침 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미친 듯이 날뛰는 두 마리의 족제비를 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두 마리가 엉켜서 날뛰는 이 족제비. 집에 기르는 닭을 밤이면 괴롭혔고 물고 가던 그 알뭍고 껌뭍한 족제비. 빠르기가 비호같고 줌처럼 눈에 띄지 않던 그 족제비가 지금 눈 앞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모르고 미쳐 날뛰고 있다. 현대전에서 폭음에 의하여 미쳐버리는 가축들은 무서운 존재라는 말을 기억하며 이들도 폭격의 부산물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싫어하던 족제비가 이렇게 변하여 내 눈 앞에서 날뛰다니. 정말 전쟁의 비참함을 다시금 실감한다.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동료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실탄을 이들에게 발사하였으나 날뛰는 이들은 용케도 총에 맞지 않았다. 생물학적으로 족

제비가 청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총도 아랑곳없이 날뛰더니 성스러운 선죽교 쪽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전쟁도 잇고 닢 없이 사라지는 이들을 쳐다 보았다.

동대문 다리 쪽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 조(組)는 왼쪽으로 꺾이여 자남산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송양서원과 박물관을 향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산을 올라갔다. 멀리 동료 전우들이 낮은 자세로 자남산을 올라가고 있다. 무사히 산에 오르니 이미 도착된 동료 대원들이 꾸불꾸불 길게 뻗은 참호에 집결하여 북쪽을 주시하고 있다. 이 참호는 6·25 전(前) 우리 국군(國軍)이 38선 경계의 제2 방어선으로 파놓은 것이다. 나도 우리 대(隊)에 합류, 참호로 뛰어 들었다. 왼쪽에는 유격대의 일부가 역시 집결하고 있다.

개성 중앙에 위치한 자남산을 장악하고 보니 이제 고향을 탈환하였다는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정이 훨씬 기운 때이라 시장기를 느껴 주먹밥을 입에 넣으니 내 집 앞에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그리 달갑지가 않다. 곧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기도 잊게 하였다. 산 아래 나의 집이 있는 고려동(高麗洞) 쪽을 내려다보니 시가전의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아 쥐죽은 듯 조용하다. 폭격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이곳은 남부(南部)와 비교하여 아늑한 감을 풍긴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고갯길이 바로 고리고개다. 내가 태어나고 놀며 자란 곳이 바로 여기다. 노적봉이 보인다. 연 날리며 놀던 곳이다. 노적봉을 위시하여 고리고개, 채석장 그리고 정화여학교를 거쳐 자남산 위까지 어느 한 곳 친구들과 쏘다니며 놀지 않은 곳이 없다. 이 감회가 깃든 정든 나의 고향땅을 누구에게 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으랴. 나는 지금 총(銃)을 들고 자남산 위에서 큰 숨을 들이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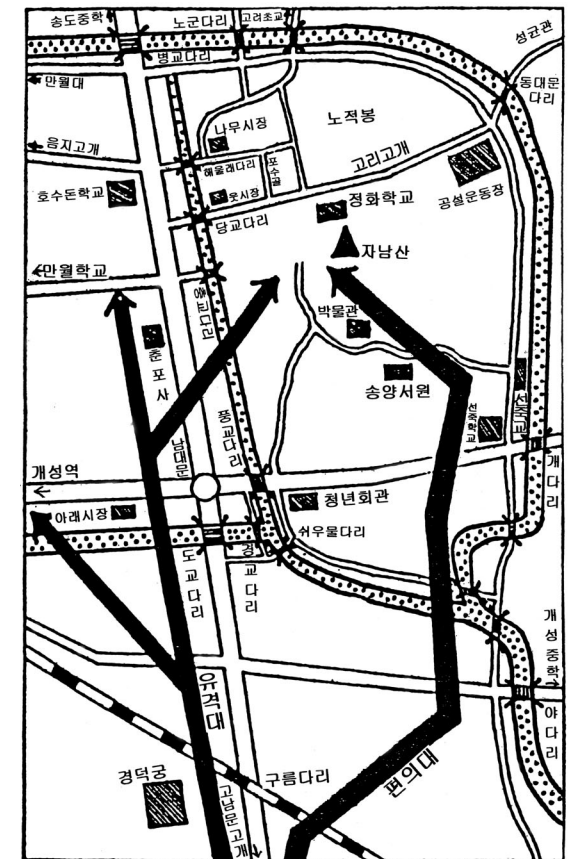
유격대가 남대문 서쪽 개성 정거장까지 장악하였다는 연락이 왔다. 잠시 숨을 돌린 후 3시경이었다. 이 때는 이미 유격대가 병교 다리로부터 동대문 다리에 이

르는 개울 남쪽을 완전히 장악한 후였다. 우리 조(組)에 내린 지시는 오늘밤을 호수돈학교에서 경비 근무를 하라는 것이었다. 시내가 평온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는 집에 잠깐 들를 수 있는 허락을 대장(隊長)에게서 얻어내고 곧 우리의 위치로 가게 되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나는 두 분 조원(組員)과 같이 자남산을 하산(下山)하여 정화여학교 앞을 지나 '포수골'로 접어들었으며 '구남골'로 꺾이여 내 집 앞에 이르렀다.

골목길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조는 듯한 오후의 태양만이 눈부실 뿐이다. 같은 일행 조원(組員)을 먼저 근무위치인 호수돈학교로 보내고 집에 들어섰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돌아오는 듯 서먹서먹하다. 그리고 총을 메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집을 떠날 때는 학생복에 괴나리봇짐이었다. 학생복에는 변함이 없으나 봇짐 대신 총이라니.



개성시가지 유격대 진입로
1951. 5. 22.

〈추이(追而)〉
당시(當時) 입성(入城)한

코스를 중심으로 개성(開城)시까지 약도를 그려보았다. 지명(地名), 다리 이름 등(等)이 틀렸을까 걱정된다. 잘못이 있더라도 고쳐 읽어주시면 좋겠다.

지난 정월 초삼일(正月初三日)에 고려초등학교(高麗初等學校) 제6회 효조(孝組) 동문(同門) 여러분이 나의 집에서 망향(望鄕)을 달래며 헤어진 부모형제, 친척에의 간절함을 서로 위로하며 모여 놀았다. 여기에는 삼십(三十)여 년 만에 만나 뵈는 우리의 고려초등학교 5, 6학년 담임이셨던 권오성(權五成) 은사님도 모셨었으며 은사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망향(望鄕)의 노래를 부르셨다. 참으로 감회 깊은 정초(正初)였다. 이 날 모인 친구들이 머리를 짜내며 지도 위에 지명(地名)들을 더듬었으나 어릴 때의 기억이라 정확하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이 날 모였던 고려 6회 효조(孝組) 동문(同門)은 이우천, 김홍달, 임원철, 유한문, 김명식, 임진호, 이근표 제군(諸君)이었다.

마지막이 된 구남골 그리고 부모(父母) 상봉(相逢)

내가 집에 들
른 것이 1951년
5월 22일 오후
4시경이었으며
우리 집이 있는
구남골은 큰 피
해 없이 전과
다름 없었으나
사람 한명 안 보
이는 을씨년스
러운 골목이었
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레 놀라시면서 눈물부터 흘리시던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마지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뵈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어머니가 무척이나 반갑게 맞으신다. “충을 메고 있다니 이것이 웬일이냐... 아직 어린



개성의 구남골집 (2003년 모습. 앞 오른쪽의 대문이 보이는 집).

내가 1951년 고향을 떠날 때 살던 집 그리고 유격대 일원으로 잠시 귀가했던 집이다. 이 집에서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 그 후 주위의 집들은 깨끗이 재 단장되었으나 우리 집은 아무도 손질을 안한 듯하다. 내가 유격대원으로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5월 봄 별을 찢으며 마루에 걸터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이 고옥과 겹쳐진다.

네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루에 걸터앉아 계시던 아버지, 어깨가 구부정하신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시며 반갑게 격려하여 주신다. 한창 봄 날씨에 저녁나절이 무척 쌀렁하고 전쟁으로 시달린 주위가 매우 싸늘하게 느껴진다. 아버지 옆에 걸터앉은 나에게는 이 싸늘함이 봄눈 녹듯이 훈훈하여 진다.

이제 집에 돌아왔고 다시는 안 떠나게 되겠지..... 나에게는 총이 들려있고 우리의 뒤에는 정의(正義)의 군(軍)이 버티고 있다. 나의 고향 개성은 탈환되었고 누구에게도 다시는 내어줄 수 없는 우리 개성인(開城人)의 보금자리이다. 한 달 동안이나 입고 다니던 내복과 학생복을 깨끗한 새 것으로 갈아입으니 날아갈 것 같다. 그렇게 득실거리던 이까지 합쳐서 땃국에 절은 옷을 어머니에게 벗어드렸다. 정성스레 차려주시는 새 옷을 입어본 지도 어언 30년이 넘는다. 챙겨주시는 옷 속에 스며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언제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때가 한창 딸기 철이었다. 개성 주변 과수원가에 많이 심어있던 딸기는 재래종(在來種)으로 맛이 일품이었다. 이 전쟁 중(戰爭中)에도 어디서 장만하셨는지 딸기를 주신다. 딸기에 곁들여 당시 몹시 귀하던 설탕까지 주신다. 역시 개성(開城) 사람의 알뜰함이 설탕에도 배어 있다. 맛있게, 정말 한가하게 아버지, 어머니와 딸기를 먹으며 지난 1개월 간(個月間)의 피난생활을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무척 흡족해 하시고 어머니는 눈물만 글썽거리신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들른다고 말씀드리며 집을 떠나 나의 위치인 호수돈으로 향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다시 들를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30년이나 다시는 갈 수 없었던 이 곳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다니 원통하기 그지없다. 그 누구도 이것이 마지막일 줄이야..... 나의 집과 내가 놀던 골목의 흙들을 마지막 밟아 보는 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구남골을 나와 나무장 앞을 지나 해올래 다리 건너 호수돈 학교로 올라갔다. 먼

저 도착하여 있는 조원(組員)들은 운동장 입구에 경비에 임하기 좋은 자리를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 멀리 병교 다리 쪽과 음지고개 쪽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학교로 올라오는 길도 잘 보이는 경비에 적절한 위치에서 야간 경비를 서둘렀다. 우리 편 의대로서는 최전방이 되는 이 곳이 매우 중요한 경계초소였다. 우리 3명은 방위를 담당하여 뚫어지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여 으스스한 적막 속에 원인을 모르는 총성(銃聲)만이 간간히 들려온다. 과연 적이 나타날 것인지 또는 이대로 안전하게 개성이 수복될 것인지 매우 초조하다.

9시경이 되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하다. 오직 우리의 반짝이는 눈동자만이 주위를 꿰뚫어 보고 있다. 남부(南部) 쪽에서 가끔 신호탄이 별 속으로 날고 있다.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긴박감이 온몸을 긴장시킨다. 나이 지긋하신 두 분 조원(組員)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으나 나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이가 어려 죽는 것이 무엇인지 미처 몰랐는지 혹은 용감하여 그랬는지는 지금에 와서 무엇이랴 말 할 수는 없었으나 여하튼 나는 태연하였다.

마침 그 때였다. 학교를 올라오는 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우리는 바짝 귀를 기울였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니 3명의 검은 그림자가 유유히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올라온다. 그 소리는 우리말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특유의 왁자한 중국말이다. 이들은 중공군(中共軍)이었던 것이다. 전일까지 중공군 부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낙오병이었던 모양이다.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고 다만 자기들의 신분을 저희 군(軍)에게 알리기 위하여 크게 떠들며 올라왔던 모양이다. 우리는 꺾속말로 상의하였다. 포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살 할 것인가를. 장소와 때를 감안, 도저히 포로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지은 우리는 연장(年長)인 조원(組員)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맡았다. 나는 오른쪽에 있는 자를 겨냥하였다. 딱 쥔 소총에 힘을 주며 그의 가슴을 겨냥하였다. 아직도 이들은 떠들며 유유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무엇인가 이상

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우리의 약 20미터 전방에서 멈칫하며 사방을 둘러본다. 그 순간 우리 대원(隊員)의 한 분이 “누구나!”하고 소리쳤다. 재차 “누구나!” 소리치는 순간 그들은 몸을 숨기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식소총(亞式小銃)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괴상하게 뛰어 솟는 자(者)와 맥없이 넘어지는 자(者)에게 다시 우리 소총(小銃)은 공기를 갈라놓는 듯한 총성(銃聲)을 발(發)하였다. 한 분이 다시 근접하여 사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발사가 있기까지는 참으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이로써 나는 편의대(便衣隊)에 몸담은 이래 직접 확인된 적 사살 제1호를 기록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주먹밥을 전달하러 온 연락 대원(隊員)에게 즉시 그 상황과 적 사살을 자남산 본부(子男山本部)에 보고하도록 부탁한지 약 한 시간 후 우리는 자남산 본부(子男山本部)로 이동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 때는 거의 10시가 넘어서였다. 비록 낙오병이었으나 중공군 부대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암시하여 주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아군(我軍)의 전투기 때문에 낮을 피하고 밤에만 활동하던 중공군의 야습을 전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호수돈학교의 임시 초소를 철수하고 자남산(子男山)으로 향하였다. 피내음 풍기는 중공군 시체를 버려두고 순식간에 학교를 내려와 아메리카 빵집 옆을 지나 개천을 건너 옷시장 앞으로 올라섰다. B-29가 투하한 톤급 시계폭탄에 아메리카 빵집 근처는 많이 파괴되어 있었으며 개울에는 여기저기 큰 우물같이 패인 물웅덩이가 있었다. 옷시장에서 당교다리 옆을 거쳐 충교다리 앞에까지 오는데 아무 상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역시 사방(四方)은 칠흑 같이 캄캄할 뿐 우리의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충교에서 왼쪽으로 꺾여 한옥이 즐비한 골목길로 익숙하게 들어서 단숨에 자남산(子男山)에 오르니 대원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준다. 우리 3명 조(組)가 참호 속 경비장소에 배치된 것은 거의 11시가 다 되었을 때였다.

1951년 5월 22일 밤 11시경, 자남산(子男山) 참호에서 전방(前方) 경비에 임하게 되니 흐르는 땀에 금세 봄밤의 찬 공기가 찾아든다.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앞을 내다보니 고려동(高麗洞) 일대는 물에 잠긴 듯 어두움만이 앞을 가로막는다. 은은한 별빛에 노적봉 일대가 허여끄름하게 보일 뿐이다. 찬이슬이 참호 속에도 축축하게 스며든다.

휴식을 교대로 정하였다. 두 시간씩 교대로 한 명은 책임경비, 또 한 명은 휴식하며 보조경비, 나머지 한 명은 완전 휴식을 취하기로 정하였다. 새벽 한 시까지 경비에 임하고는 보조경비로 교대되어 참호 속에 기대 앉아 있으니 찬이슬 속에서도 눈이 자꾸 무거워진다. 지난 하루가 순서대로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찬 공기 속에서도 낮에 입혀주신 내복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훈훈하게 몸을 덥혀준다.

보조경비자도 자면 안 된다. 나는 잠을 쫓기 위하여 참호 속에서 섰다 앉았다 하고 경비자와 잡담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시경이었다. 참호에 앉아 잠을 쫓으며 쉬고 있을 때였다. 경비하던 동료가 황급히 나를 발길로 차며 다급하게 앞을 가리킨다. 별떡 일어나 앞을 내다보는 순간, 나는 참호로 깜짝 놀랐다. 보라. 저 시커먼 군상(群像)들을……. 개미떼 처럼 무리지어 우리가 있는 산으로 기어오르

고 있는 중공군(中共軍)들을……. 무수한 적군들이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하여 돌진하여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무모한 인해전술이었던 것이다.

사방에서 아군의 소총이 콩 볶듯 불을 뿜어대는 속에 나도 미친 듯이 총을 쏘았다. 적군은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계속 기어오르고 있다. 참으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쓰러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위를 넘어 몰려오는 적군에 나는 우리 무기의 빈약함을 통분할 뿐이다. 기관총이라도 있으면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한발 한발 쏘야 하는 구식 소총을 가지고 어찌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적을 섬멸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참호는 시시각각으로 위협하여 진다. 많은 적들을 사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총성 속에서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휴식 중인 동료 대원(隊員)을 발길로 힘껏 찼다. 그가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무엇이냐고 물으며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나는 둔탁한 물건이 바로 참호 앞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껌싸게 참호 속으로 목을 움츠리며 그의 몸을 잡아 끌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눈앞이 번쩍하며 수류탄이 작렬(炸裂)하자 밖을 내다보려던 동료 대원(隊員)이 소리 없이 주저앉았고 나는 뜨거운 흙더미를 뒤집어 썼다. 물밀 듯 밀려오는 저들이 이미 수류탄 투척 거리까지 접근하였다. 우리의 무기로는 도저히 이들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 주위를 살펴보니 아군(我軍)은 후퇴 중이었다. 주저앉은 동료를 더듬으니 이미 반응이 없고 손에는 뜨거운 피만이 잡힌다. 아… 나는 또 다시 정다웠던 그리고 생사를 같이하던 전우(戰友)를 잃었구나. 그러나 어찌하랴. 전(前)과 같이 전사자(戰死者)를 업고 갈 여유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를 더듬어 내 손을 따뜻한 그의 피로 적시며 이별의 인사를 하고 마음 속으로 꼭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며 이 곳을 떠났다.

몰려오는 적군의 옆 방향(方向)으로 참호를 따라 뛰었다. 얼마를 달리다 밖을 내다보니 내가 있었던 곳에는 무수한 그림자가 돌진하고 있었으나 내 전면(前面)에는 적이 보이지 않는다. 참호를 뛰어나온 나는 청년회관(青年會館)을 향하여 달려

내려갔다. 신궁자리를 오르는 길을 따라 뛰어가는 많은 아군(我軍)이 눈에 띈다. 산을 기어오르던 인해전술(人海戰術)의 중공군은 무기도 없는 적의 소모품이었던지 총알도 날아오지 않는다. 폭격에 파괴된 청년회관의 화강암 돌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나는 뛰어 들었다.

큰 돌 하나를 의지하고 남대문(南大門)쪽을 쳐다보니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둠 속에 피아(彼我)를 분별하며 적이라 판단되는 그림자를 향(向)하여 총을 쏘았다. 이곳저곳에 산재한 아군(我軍)들의 총알이 쉬지 않고 날고 있다. 남대문에 몰려있는 무리는 중공군이었다. 폭격에 주저앉은 남대문 앞에 있는 그들도 응사하기 시작했다. 경기관총을 둘러멘 놈이 남(南)쪽을 향하여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 뻔히 건너다보인다. 자남산(子南山) 쪽에서 직사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한다.



2004년. 개성의 남대문.

앞에 계신 분은 둘째 형님(박성현). 내가 유격대원으로 1951년 5월 중공군과 시가전시 남대문을 거점으로 맹공격하던 중공군과 대치하면서 쳐다보던 심하게 파괴된 문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보수, 개조되어 수려한 자태가 되었다.

나는 재빨리 풍교다리 및 개울로 뛰어들어 다시 남대문쪽 중공군에게 소총 사격을 가하였다. 청년회관 쪽에서 폭발하던 포탄이 서서히 내가 있는 개울 쪽으로 이동하는 듯 느껴져 나는 쉬우물다리 쪽으로 뛰어갔다. 개천 위 길에 한 방의 포탄이 터진다. 용케도 나는 포탄을 피하고 있었다. 아니 포탄이 나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 조상(祖上)님의 공덕과 고향을 탈환하려는 어린 정성에 신이 나를 보호하여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콩 볶는 듯한 총성과 귀청을 찢는 포성 속에 나는 계속 개울 속을 뛰어 야다리 쪽으로 달려갔다. 개울물을 침범이면서 가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 많은 동료 유격대원이 용감하게 시가전을 치르고 작전상 후퇴 중이었던 것이다.

고남문 밖에 집결하라는 전달이 구전되었던 터이라 나는 야다리 못 미처서 개울 밖으로 뛰어 나왔다. 폐허가 된 이 곳을 지나며 살펴보니 다 쓰러지고 담벼락만 남아 있는 폐허에 그 담벼락에 의지하여 움막을 짓고 기거하고 있는 잔류 개성사람이 움막에서 기어 나온다. 끊이지 않는 총성의 이수라장에 놀란 듯 나를 보고 묻는다. 어찌된 일이냐고. 나는 곧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고남문으로 달렸다.

고남문을 넘어서니 날이 밝아온다. 한숨을 돌리며 아군(我軍)의 집결 장소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는다. 후퇴하여 오는 많은 대원들도 시내에서의 백병전(白兵戰)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고남리 남(南)쪽 광덕면 쪽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직감으로 이 일대에도 이미 중공군이 물려있다고 느껴진다.

고남리에서 오래 머무를 계제(階梯)가 못되어 나는 몇몇 대원과 상도리로 빠지는 달구지 길로 들어섰다. 이 길이 바로 그저께 개성으로 진격하여 왔던 길이다. 대장(隊長)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유격대 주력(主力)은 어디에서 집결하고 있는지 전연 알 길이 없다. 명령을 받을 길이 전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다시 재정비하여 개성(開城)으로 진격하고 싶으나 현재로서는 중과부적이다. 일단 후퇴하며 집결지를 찾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계속 상도리로 향하였다.

아직도 멀리 광덕리 쪽에서는 총성이 그치지 않는다.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난밤은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먹은 기억이 없다. 몹시 갈증을 느끼나 변변히 물 먹을 곳이 없다. 마침 길옆 논두렁에 물이 고여 있다. 나는 허겁지겁 논두렁에 뛰어 들었다. 내가 뛰어드니 흙탕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나는 이 물을 맛있게 마셨다. 얼굴을 흙탕물에 들이밀고서.

후퇴 당시(後退當時) 내가 마지막 본 내 고향

개성시내(開城市內)에서 밤새 백병전을 치르고 무거운 몸을 끌고서 고남문을 넘어 상도리로 향(向)하여 조심조심 후퇴하여 오는 동안 벌써 해는 중천에 떠있다. 꼬박 밤을 넘기었으니 이 날이 1951년 5월 23일이 된다. 타는 목을 논두렁의 흙탕물로 적시고 나니 이제 시장기가 온몸을 나른하게 한다. 밤새 뛰어다녔고 아침을 걸렀으니 배가 고프는 당연한 일이다. 지난 밤의 격렬했던 전투가 먼 옛날 일과 같이 가물거린다. 삼삼오오 우리 대원들이 주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듯 외롭기만 하다.

잔솔이 양쪽으로 가득 찬 달구지 길을 벗어나니 오른쪽은 산이 계속되나 왼쪽은 탁 트인 벌판이다. 배야리 홍왕리를 지나 풍천리에 들어섰나 보다. 길은 오른쪽 산 옆을 지나고 있으나 나는 아무래도 산이 마음에 걸렸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길에서 떨어지고 산에서 먼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따라가는 대원(隊員)도 있고 나의 논두렁길로 오는 사람도 있다.

한참을 논두렁길로 가고 있는데 돌연 산 속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총알이 날아왔다. 재빨리 논두렁에 엎디며 산 쪽을 바라보니 길을 따라 가던 아군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산속에서 중공군(中共軍)이 매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들은 산 속에

서 계속 총알을 쏘아대며 일부는 뛰어나와 아군(我軍)을 생포하려 한다. 논두렁에 있는 우리는 이들을 격퇴시키려 서둘러 응사하였다. 용감한 아군(我軍)은 육탄전으로 중공군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엄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밤새 총을 쏘던 후 탄환 보급을 못 받은 터이라 이제 탄환도 거의 바닥이 났다.

마침 그 때였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유엔군 전투기 ‘그라망’이 저공으로 나타났다. 연신 아래를 내려다보는 조종사가 손에 잡힐 듯 반갑다. 중공군들은 산속으로 도망 들어갔으나 조종사들은 피아를 구분하기가 힘든 모양이다. 우리 바로 위를 저공비행으로 왔다갔다 하더니 우리가 지나온 고남문 쪽을 강타하기 시작한다. 이 때를 이용하여 중공군(中共軍)의 공격을 피하여 상도리 쪽으로 달리었다. ‘그라망’ 전투기를 교대하여 나타난 ‘썩썩이’도 우리를 철저히 엄호하여 계속 후방을 기관포와 로켓포로 차단하여 주어 우리는 이 이후 안전하게 후퇴할 수가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쳤으나 강행을 계속하여 오후 늦게는 조랑촌에 도착하였다. 이미 많은 대원(隊員)이 이 곳에 집결하여 있었으며 내가 도착한 이후에도 용감하게 싸우며 후퇴하여 오는 대원(隊員)이 계속 집결하였다. 조랑촌 해변가에는 김포(金浦) 주둔 한국군(韓國軍) 해병대의 상륙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조랑촌에 집결한 우리들 외에 다른 대원(隊員)들은 영정리 해창리로 집결하였고 또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한국군 제1사단으로도 후퇴하였다.

이로써 우리 유격대 및 편의대(便衣隊)의 개성(開城) 점령은 단 하루에도 못 미쳤으나 미약한 장비와 강력한 후방 지원 없이 수행한 작전으로는 큰 전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싶다. 당시 중공군(中共軍)이 그들의 춘계 2차(春季二次) 공세를 실패로 끝내고도 물러가지 않고 머뭇거리며 미련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유격대는 그들의 후방에 깊게 침투하였기 때문에 중공군(中共軍)은 서둘러 후퇴를 시작하였으며 이 퇴각하는 중공군 대부대(中共軍大部隊)가 개성 시내(開城市內) 및 개풍군 일

대에서 우리 유격대와 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인해전술은 우리 유격대에 의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나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전우를 잃게 하였다.

한국군 해병대의 상륙정에 몸을 싣고 강화로 귀환하는 중 나는 지난 하루가 주마등 같이 내 머리를 스쳐간다. 나의 집에 들러 부모님을 만났던 일, 자남산(子男山)에서부터 남대문을 거치는 동안의 중공군과의 시가전, 풍천리에서의 접전, 서로 아끼고 격려하던 전우의 죽음, 전사한 동료들 적지에 두고 온 서러움, 이 모두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 더욱이 손에 잡았던 고향을 도로 내놓고 오는 이 분통함, 지금쯤 고향에 계신 고향 분들이 몹시 실망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다. 특히 나의 부모님, 아침에 다시 들르겠다며 훌쩍 떠난 후 밤새껏 시가전의 총포성은 끊이지 않았으니 자식의 생사를 얼마나 걱정하셨겠는가. 필시 많은 중공군 시체 속에서 혹시나 하시며 나를 찾고 계시지나 않으셨는지.

이제 강화로 향하며, 이 길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마지막 길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며, 그러나 내가 마지막 들렀던 마지막 보았던 나의 개성(開城)을 머릿속에 더듬어 본다.

12월 말에 아군(我軍)이 개성을 철수한 이래 맹렬한 폭격으로 남부(南部)는 거의 폐허화되었으나 동부(東部)와 북부(北部)는 비교적 피해를 적게 입었다. 그러나 학교(學校)들은 거의 파괴되었다. 고려초등학교(高麗初等學校)가 깨끗하였고 송도중학교(松都中學校)가 과학관과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B29가 지나가며 투하한 톤급 시계 폭탄은 만월대 옆 백삼장에서 시작하여 당교다리를 지나 청년회관(青年會館)을 거쳤는데 이 선상(線上)은 무참하게 파괴된 것은 물론 우물과 같은 큰 웅덩이가 열(列)을 이었다. 이 폭탄을 바로 맞은 청년회관(青年會館)은 완전히 파괴되어 그 화강암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선죽교는 멀쩡하였으나 남대문(南大門)은 파괴되어 인경이 돌무덤 위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으며 쇠가 녹아 보기 흉하였다. <정감록>에 인경꼭지가 말랑말랑해지도록 전화를 입을 것이

란 말이 맞아 떨어진 모양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격에도 시장(市場)은 꾸준히 섰으며 폭격이 뜸한 오전에는 정상에 가깝게 시장이 문을 열었다. 특히 옷 시장이 활발하였으며 상인(商人)은 그런 대로 장사를 유지하였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갖고 있는 패물, 옷감, 재봉틀 그 외 장롱 깊숙이 장만하여 두었던 물건들을 팔아 연명하였다. 특기할 일은 공산치하(共產治下)가 된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유통 화폐는 엄연히 주로 한국은행권이였다. 북괴가 이를 막으려 별 수단을 다 썼으나 민간거래에서의 한국은행권 사용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부득이 북괴 화폐도 통용되었으나 거의 모든 개성사람들은 이를 기피하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개성을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우리의 한국은행권을 사용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왜정시대에 일본인 상인(日本人商人)이 개성(開城)에서는 발붙이지 못하였 듯이 이 때라고 예외는 아니었으니 얼마나 개성사람이 철저하다는 것이 이 한국은행권 사용만 보아도 증명된다.

당시의 잔류 개성사람은 반드시 아군(我軍)이 진격하여 들어와 적치하(赤治下)를 면할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반공시민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치하(赤治下)에 그대로 묶여 있다니. 이 비참한 앞날을 당시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이 원통하고 분한 사실을 그 누가 알아 줄 것이며 보상하여 줄 것인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강화로 돌아온 후 유격대는 재편하게 되었으며 편의대(便衣隊)는 해산, 유격대에 편입되었다. 나는 어리다는 이유로 자의(自意)에 맡겨졌고 그 후 총을 놓게 되었다. 그 동안의 유격전을 돌이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잃었다. 지금도 유격대 생활을 더듬어보고 혼자 한숨짓고 있다. 당시 전사(戰死)한 전우들 군번 없는 용사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졸필에다가 부정확한 기억을 나열하여 혹 불쾌감을 주지 않았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많은 사실과 조연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이 이후의 유격대 활동을 계속 집필하여 주실 분을 열망한다. 왜

나하면 내가 유격대를 떠난 후에도 용감한 유격대는 계속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을 괴롭혔고 많은 개성 분을 구출하여 피난길을 도왔던 것이다.



강화도의 강화 유격대(개성유격대) 기념탑



강화도의 강화 유격대 전적비. 나의 이름 석자도 새겨 있다.

이 글을 끝맺으며 나는 이것만은 재삼 부르짖고 싶다. 나는 개성(開城)에서 낳고 개성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혹 개성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나는 개성사람이고 개성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이 내세우고 싶다. 개성사람임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되고 개성을 잊을 수도 없다. 이 곳이 바로 나의 뿌리이니까. 개성(開城)이니 송도(松都)니 심지어 고려(高麗), 선죽(善竹), 만월(滿月), 용수산 등(等)의 이름은 항시 나를 불렀으며 나는 대포 한 잔이라도 이 이름의 음식점에서 마시고 싶은 것을 되놈 근성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많은 어린 소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

으며 타향 여자와 결혼도 하여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혹시 뿌리를 잊고 송도(松都)의 자랑스러운 관습을 잊었으며 그 훌륭한 자세를 잃은 사람은 없는지. 타향 여자와 결혼하여 자기의 뿌리를 잊고 처가(妻家)와 치마폭에 휩싸여 우리 개성의 얼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향수에 시들어 가시는 골수의 노인(老人)인 부모님들, 또는 뼈에 사무쳐 고집부리는 일가친척을 외면하는 얼빠진 젊은이들은 혹 없는지. 나는 크게 부르짖고 싶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우리 개성의 얼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하며 언젠가 귀향할 때까지 이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잊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잘 읊지도 못하는 주제에 두서없는 시조(時調) 몇 수가 붓을 놓으려는 나의 앞에 아물거린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 여기에 적어본다.

망향유제(望鄉有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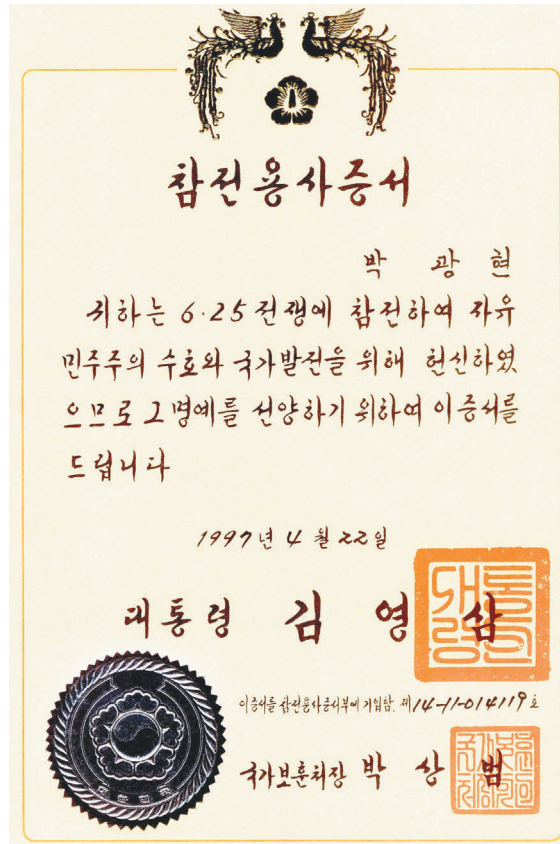
몸 못가는 고향땅에 꿈에라도 가고 싶어
아무리 모질어도 몽중귀향(夢中歸鄉) 못 막으리
꿈에나 고향 하늘을 끌고루 날고 싶어

북에는 만월대요 남에는 남대문이
동에는 선죽교요 서쪽에 두문동이
꿈에 본 나의 고향이 한없이 그림고나.

조상을 모르면서 자라는 자식들이
언제나 제 뿌리를 몸 깊이 알 것인가
나 또한 더 잊어가니 이 무슨 불효(不孝)인가

며느리 시집살이 어디서 한단말가
 시부모 조석공양 하고파 한다지만
 누가 이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으리

뿌리를 잊고 있고 근본을 버리고서
 저무는 석양빛에 무엇을 바라겠소
 나머지 그 세월 속에 일어나 찾아야지



1997년 4월 22일. 참전용사 증서.

개성사람 자랑

박 광 현
 1990년 8월

개성사람 자랑 열 가지

- 뚜렷한 주체성
- 절약과 검소
- 비축과 저축
- 신용과 신의
- 밝은 사회
- 철저한 자립정신
- 청교도적 결벽성
- 협동정신과 상호협력
- 정도와 교육열
- 자유주의 정신
- 끝맺음

개성사람 자랑 열가지

- | | |
|-----------------|----------------|
| (1) 뚜렷한 주체성 | (2) 절약과 검소 |
| (3) 비축과 저축 | (4) 신용과 신의 |
| (5) 밝은 사리 | (6) 철저한 자립정신 |
| (7) 청교도적 결벽성 | (8) 협동정신과 상호협력 |
| (9) 정도(正道)와 교육열 | (10) 자유주의 정신 |

나의 부모님은 순 개성사람이며 나는 개성에서 태어났고 개성에서 자랐다. 어떤 개성출신이 되지 못한 일본말을 써가며 “가이쵸”(개성의 일본식 발음)라면 이가 갈린다는 말을 듣고 분개한 적도 있지만 나는 정말로 개성사람인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작은 땅덩이 안에서 어느 지방을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일지 모르나, 개성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이 곳에서 낳고 자란 개성사람은 그 자질과 특성에 있어 너무나도 유별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전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황해도에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그 곳과 유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임진강과 예성강의 사이에 위치한 개성은 경계에 성을 쌓아 독특한 개성과 특이한 본질을 독립적으로 지켜왔다. 일찍이 장사에 눈을 돌려 국내 방방곡곡을 누비었고 예성강을 관문으로 하여 그 세력을 중국에까지 뻗치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 넘보아 왔다. 국내 곳곳을 다니고 외국과 거래하는 중에 개성사람들은 각지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을 가려내어 어느 지방 사람보다도 앞선 훌륭한 자질을 기르고 특성을 살려왔던 것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중국인들의 근면 성실한 성품과 일본인들의 깔끔하고 확실한 마음가짐을 우리 개성사람은 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절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국제경제상황에서일지라도 바로 우리의 개성인 정신과 자세로 대처한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것을. 왜정 때 일본인이 개성에 발을 못 붙인 점, 절약하고 검소하고 또 비축하는 습관 등, 이러한 개성인 특성을 온 국민이 배운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자랑스러운 우리 개성사람의 특성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나 스스로 우월감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공감도 바라면서 더욱 자랑스러운 개성 출신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10회에 걸쳐 개성사람의 자랑 열 가지를 열거해 볼까 한다. 나의 부족한 지식과 식견 때문에 엮어가는 글 중에서 혹시 결례가 된다거나 부정확하다거나 또는 개성사람 본질에 누가 되더라도 본심은 아니니 깊이 관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뚜렷한 주체성(主體性)

개성사람의 주체성이야말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개성사람의 자랑이다. 외국에 나가있는 화교들이 꼭 저희 나라 사람이 팔고 있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성질과 일본인이 박래품(舶來品)이라고 말하는 소위 수입품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 뚜렷하고 강인한 주체성을 개성사람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힘만 믿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였고 전국의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었을 때도 개성사람의 강한 주체성은 꺾지 못하였으며 개성에서의 상권은 빼지 못하였다. 내노라하는 애국자들이 입으로만 조국을 부르짖고 있을 때 개성사람은 무언의 행동으로 외세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으며 모여서 증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 개성인의 대쪽같은 주체성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그 많은 외채를 짊어졌으나 근래의 국제적인 호조건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저력 그리고 지나치다고까지 평가했던 교육열에 의한 능력 배양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막대한 외채로 숨 막힐 듯이 지내다가 이제 겨우 빛을 갚아갈 수 있게 되자 봄에 돌아나는 싹을 발로 밟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국내시장 개방에 온갖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그들대로 안간힘을 써가며 이에 대처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

다. 지식인과 언론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필설로 크게 거론하고 있고 은근히 상대방을 원망하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은 섭섭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랫동안 흑자국으로 많은 흑자를 비축하여 온 일본이나 이미 외채국이 아닌 대만과 이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세계 4대(四大) 외채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를 똑같이 취급하다니 섭섭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란 비정한 것이다.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식자들은 수입개방 압력에 즈음하여 한국 상품의 수입 저항력이 어떻고 품질의 경쟁력은 어찌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스스로를 자성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수입품 저항력에 관하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기른다는 논리는 알면서 정신적인 대응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듯하다. 모든 지성인,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우리 개성인 주체성을 배워 간다면 이 난관의 극복은 아주 간단한 일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것을 마스크 등을 이용한 계몽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윗사람이 솔선하여 외풍(外風)을 외면하고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발휘할 때 모든 사람은 자연히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원리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 자기네가 생산하는 국산을 애용하자고 침을 튀기며 떠드는 재벌이 원료는 외국에서만 사다가 (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사 온 기계로 (역시 부득이한 경우가 많겠지만) 외국 계통의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외국 배나 비행기에 짐을 실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국적회사(國籍會社)가 아닌 외국 진출 업체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외국인 진출 업체나 그 합작 회사 및 외국의 대리점을 더 좋아하고 국내 순수 국적회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꼬부랑 글씨의 상표를

얻어다 붙인 상품을 더 좋아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때야말로 우리 개성사람의 그 자랑스러운 주체성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돈의 떡도 크고 싸야 사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우리 민족의 단점을 표현한 것이다. 언제부터 생긴 속담인지 모르나 우리 개성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개성사람 속성에는 전연 맞지 않는 말이다. 사돈의 떡이 좀 적더라도 비싸더라도 사 먹고 사돈은 이에 보답하여 빨리 힘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남의 떡보다 월등히 큰 떡을 싼 값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성인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돈의 작은 떡이라도 사주는 개성인의 내향성(内向性)과 적은 것을 사 주면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개성인의 성실성, 이것이 바로 우리 개성사람의 자랑스러운 개성(個性)인 것이다.

가능한 한 고향 사람의 물건을 사 주려는 마음가짐, “개성식당”이라면 간판만 보고도 들어가는 그 근성, 누가 알아주건 말건 개성인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급적 이용하려는 그 정성, 바로 이것이 온 국민에게 하나같이 된다면 한국 상품의 수입 저항력을 운운하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어 아무리 시장을 개방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 국민 모두는 개성인의 이 철저한 주체성을 본받아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울러 개성사람의 뚜렷한 주체성을 자랑하는 바이다.

개성사람의 자랑 중 두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뭐니 뭐니해도 절약과 검소한 생활태도이며 이를 기본으로 한 자연스러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다. 개성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절약과 검소를 “깍쟁이(깍정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이 깍쟁이란 부름 뒤끝에 절약과 검소를 은연중에 칭찬하는 여운을 남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지나친 낭비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성사람들은 검소하게 살면서 아끼고 저축하며 분수껏 살고 있다. 낭비만을 일삼아서 곤궁하게 된 사람들은 절약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을 헐뜯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들이야말로 우리의 개성인 기질을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미에서 몰아닥친 자본주의 물결에 적응하느라 숨 돌릴 여유 없이 지난 40여 년을 지내왔다. 새로운 모방과 힘겨운 창조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민족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실시하기란 어려움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재빨리 움켜잡은 미군정의 줄에 매달려 적산을 물려받은 약삭빠른 사람들, 정치 권력에 부착하여 정상배가 된 사람들이 소위 경제인 또는 재벌이라고 큰소리 쳐왔다. 전자(前者)에는 고난 속에 지내온 애국지사들보다

는 친밀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후자(後者)에는 엉터리들이 착실한 사람보다도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자본형성을 살펴보면,

첫째, 앞뒤 가리지 않고 대의명분도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배짱으로 권력과 술수를 있는 대로 동원한 경우이다. 근년에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보다는 사리사욕이 앞섰으며 요행 잘 되면 일약 재벌이 되고 잘 안되어도 챙긴 돈으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첫째 방법과 유사하나 그래도 사명감은 있어 회사와 함께 망하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꾸려온 경우로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산업경제발전에 일조를 한 경우이다.

셋째,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쌓아가며 회사를 키워가는 경우이다. 큰 규모의 회사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착실한 성장을 다져서 모든 분야의 굳건한 받침대가 되어왔다.

이 셋째 경우가 바로 개성사람식의 절약과 검소에 바탕을 둔 착실한 회사 형성인 것이다. 대형 경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이며 우리 개성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하나하나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벽돌쌓기식의 개성사람 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소위 잘 살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다반사로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느닷없는 졸부가 활개 치며 살고 있고 사치와 낭비가 그들의 전유물로 되면서 빈부의 차는 격심해지고 소외된 계층 중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발전과정에서의 부득이한 부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어찌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절약하는 정신과 검소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놀림감이 되었고 일확천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말할 것도 없이 지도급 인사들이 솔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부가 된 사람들의 사무실에 가 보면 아주 희한한 좌석 배치를 보게 된다. 조그만 사무실에 삼 분의 이는 사장실로서 그 안에는 온갖 치장을 다해 놓고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그러나 십여 명 직원은 나머지 삼 분의 일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사무를 보고 있어, 이를 본 어느 외국인이 흥보는 것을 듣고 매우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 물론 사장실이 손님 응접으로 또는 회의실로 이용된다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발상이 곧 검소하지 못한데서 연유된 것이고 국민위화감을 조장한 장본인인 것이다.

개성사람의 절약은 개인의 치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몸에 배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절약과 검소의 마음가짐은 대국적으로 모두의 이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적인 정신자세이다. 전에 어떤 사람이 개성사람을 홍보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 것이 생각난다. 집에서 목욕을 하면 천 원어치의 기름과 물로 충분하는데도 타산이 지나치고 좁쌀스러워서 천 원을 내고 공중목욕탕에 간다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개성사람들의 깊은 뜻을 모르는 한심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다. 공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같은 돈으로 자원이 절약되고 목욕탕 주인에게는 이익을 주어 국가적으로는 자원 절약, 남에게는 이익을 주는 일석이조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 개성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모두 집에서 천 원어치의 기름과 물을 써 버릴 때 그 국가적인 낭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칠십 년대의 국제기름과동을 잊고 요즘 낭비와 환락이 우려되는 선까지 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 우리 개성사람들의 그 심오한 절약정신과 검소한 생활태도를 거울삼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자원절약 정신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르는 국제자원파동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먼 장래의 우리나라

라와 후손을 위한 값있는 유산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 모두가 우리 개성인 정신을 거울삼아 아끼고 허황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사는 슬기를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번이고 되풀이 해 자랑하고 싶은 개성사람의 절약과 검소함은 온 국민이 본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개성사람의 자랑을 늘어 놓다보니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가이쵸”라면 창피해 못 견디겠다던 그런 분들, 또는 누구든지 나의 자랑에 반론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개성사람들 모두 그 반박을 귀담아 들어 반성하고 시정하면 좋겠다. 그런 반론이 송도지에 게재되기를 제의한다.

전(前)문에서 절약과 검소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검소하게 살면서 절약하다 보면 자연히 여력이 생기고, 이 여력은 곧 저축과 연결된다. 저축하는 생활 패턴과 개성사람이 불가분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개성사람의 저축정신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득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푼 두푼 모은 돈이 큰 돈이 되고 이것이 나라 발전의 목돈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패전한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것이나 본토를 잃고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 정부가 크게 재기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국민의 저축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하였는가? 해방 후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민족자본의 부족과 미미한 은행저축은 우리 경제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다. 무서운 인플레이션은 이 나라에서 저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말살하였다. 더욱이 경제의 무리한 성장에 뒤따른 일확천금사상은 저축이라는 단어를 바보, 무능으로 동일시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중에도 개성인들은 본연의 저축정신을 조금도 잊지 않았고, 시세에 적응하

며 저축하여 왔으니 이 저축정신이야말로 개성사람의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인 것이다. 저축이 화폐가치의 지나친 하락으로 아무 보람이 없게 되자 개성인들은 슬기롭게 대응하였다. 고향 전래의 인삼 재배는 장기적인 투자형이라 수확 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하여 주었으며 남은 여력은 부동산에 묻어두는 편법으로 재력의 비축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숨은 저력인 교육에 힘입어 왔다. 그러나 부족한 자본형성은 부득이 외채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무작정 끌어오는 외채에 뒤따라 힘 안들이고 벌어들이는 불로 부당 수입원은 도처에서 부패를 낳게 하였다. 소득의 불균형에 과중한 외채는 농어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무역의 집중적인 지원은 농정의 소홀을 초래하였다. 농어민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그 구매력에 의한 내수산업의 발전을 꾀하였고, 결국은 국제경쟁도 강화되어 골고루 잘 살게 된 일본의 전후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만을 남기게 하는 농어민 저소득층을 방치하여 왔던 것이다.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국민 위화감은 현재의 큰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였더라면 농어촌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우리 개성사람의 비축정신을 예로 들어야겠다. 오랜 옛날부터 개성사람은 특유의 비축에 익숙하여 왔다. 생산이 많은 시기에 일 년 사용분을 싼 값에 사서 보관 사용하였다. 쌀의 수확기에 일 년 분을 사서 쌀 뒤횈에 넣어 두는 초보적인 비축으로부터 생선의 어획기에 소금에 저리고 말려 두는, 그리고 장작은 겨울되기 전에 미리 사서 재둔다는 등, 과일 등은 수확 시에 접 단위로 사서 광에 넣어두고 온 식구가 실컷 먹는 등, 적기 구매와 비축에 능숙하였다.

그래서 개성집에서는 광, 벽장, 뒤횈 등이 필수적이었고 그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었다.

아련히 떠오르는 개성에서의 어린시절, 장마가 닥쳐오면서 보슬비가 질척이는

데 농군아저씨의 구루마엔 차미(참외)가 가득하다. 대문 앞에 세워놓고 비 맞으며 “하나에다 둘이요 둘에설랑에 셋이요”하며 다섯 개씩을 세어 넘길 때 나는 그 주위를 맴돌며 얼마나 즐거워 했었던가! 참외를 들이는 날, 군침을 삼켜가며 신나게 수를 세는 구루마 주위를 쾅쾅쾅 뛰다가 비에 옷 젖는다고 어머니의 꾸중을 듣던 기억이 생생하다.

장작을 마루 밑 그리고 추녀 밑에 가득 쌓아 재 놓는다. 벽장에는 마른 음식들이, 광에는 푸짐한 농산물, 뒤횈에는 일 년 양식이 꽉 채워진다. 양지바른 마당에는 민어, 조기를 말리며 뒤횈에는 새우젓, 명란젓이 담겨진다. 푸른 가을하늘 아래엔 채소 말리는 일이 한창이고 갖가지 곡물이 광으로 들어간다.

농산물의 성수기에, 수산물의 어획기에, 장작 등 월동물의 수매적기에 연중 가장 저렴한 값으로 사서 저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경제에도 이득이 되지만 광의로 볼 때 생산자를 크게 돕고 물가, 물량 유통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개성사람은 이와 같은 유통구조에 관하여 깊이 알고 있었으며 농어민을 이해하고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격이 싸지고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분산하여 비축하는 것은 여러모로 값있는 협조이다. 성수기의 폭락과 과잉생산에서의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는 데는 저장 및 가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방만한 농협이나 수협이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며 시종 전시효과와 과대 선전에 열은 올렸어도 장기적이고 원대한 설계는 부족하였다. 조그마한 융자금으로 농어민을 돕는 것보다는 농수산물의 저장 비축 또는 가공을 연구하며 주기적으로 밀어닥치는 과잉생산에서 파생되는 생산자들의 파산을 막고 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신장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창고와 가공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본에는 시골 구석구석에 농산물 창고가 즐비하고, 미국의 농촌에는 맘모스 창고와 현대화된 가공시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선진국일수록 그들은 농민을 위한 저장 가공에 심혈을 기울여 과잉생산에서 오는 농어민의 파탄을 막는 것은 물론 생산물의 적정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어제는 어떠하였는가? 잘 살게 되었고 소득이 수천 달러라고 하는데 돼지파동이다, 밀값이 퐁값이다, 배추는 수확하는 것보다는 밭에서 얼려버리는 것이 낫다는 등 농민을 더욱 곤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해괴하다.

우리 개성사람은 이러한 해괴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남을, 크게는 나라를 위하는 일들을 묵묵히 뒤에서 하여 왔다. 아끼고 저축하여 정당한 부를 이루어 왔으며 자본을 형성하여 왔다. 비축의 심오한 원리를 이미 터득하여 생산자의 어려움을 돕고 경제의 순리를 실행하여 왔던 것이다. 비닐재배다, 특수재배다 하여 생산시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비축과 저장은 고생하는 농어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주장하며 우리 개성사람의 비축과 저축의 특성을 자랑하여 보았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원만하고 착실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용이 가장 큰 재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작게는 시간 약속에서부터 크게는 상호 협조에 이르기까지 신용 있는 지킴은 원만하고 짜임새 있는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잘 알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신용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왔다. 약속 시간에서 좀 늦는 것에 무신경하여 ‘코리아 타임’이란 말이 생겨났으며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져들었다. 경제사회에서는 약속 불이행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도를 연발하여 치부하는 부도덕한 재벌들이 활개 치는 사회가 되어도 개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미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로 미국교포 사회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미국 주재 한국은행의 돈을 떼어 먹지 않은 사람은 사업가 축에 못 낀다고 한단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은행돈을 끌어내어 잘 되면 재벌이요, 안 되면 뒤로 챙긴 돈이 있다는 오늘의 일부 경제풍토에서 볼 때 개성인의 신용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경영을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잘 안 되면 회사와 함께 죽으려는 그 철저한 신용이 바로 개성인의 신용인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개성인의 신용은 오랜 옛날부터 변치 않아 왔고 이는 자랑 중의 자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말 한 마디, 약속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고 꼭 지키는 관계에서는 법이니 계약서니 하는 것들이 무색해진다. 주위에서 나를 보고 개성사람이라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줄 때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개성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정말 신용있는 사람이 되도록 반성하고 채찍질하게 된다. 확실한 피난생활의 대비 없이 일시의 피난이란 생각으로 빈손으로 고향을 떠난 많은 개성사람들이 오늘날의 안정된 기반에 이른 것은 바로 이 신용과 신의의 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제무역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대금을 지불하고 받는데 L/C라는 것이 있다. 이 L/C를 우리는 신용장이라고 하면서 국제거래에서도 항상 신용을 앞장 세운다. 법과 계약서만을 주장하는 각박한 거래보다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사회는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동업을 경원하여 왔다. 동업을 하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꼭 서로 싸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웅졸한 생각인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을 못하는 것일까? 두말할 것 없이 이는 신용이 부족하고 신의가 없는 우리의 결점 때문이다. 자기 위주의 생각, 좁은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니 어찌 순조롭고 화합할 것인가?

그러나 개성사람은 다르다. 착실하고 신용있게 일을 하며 남을 믿고 의리를 지키는 개성사람이 동업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서로를 믿고 신용있게 상대하는 것이 곧 뽕치는 지름길인 것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송상의 형성, 상호거래, 신용, 신의를 보면 개성사람의 신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신용과 연결되는 신의의 깊은 뜻은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자랑이다. 미국사회에서 신용을 잃으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 정신과 상통된다.

개성사람은 남에게 믿음을 주는 것 외에도 의리 또한 대단하다. 서로를 믿고 돕는 데는 남다른 데가 있다. 나의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으며 남의 은혜 또한 소홀

히 넘기지 아니한다.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나 또한 이러한 개성사람의 따뜻한 정리로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나 자신의 개성인 정신에 힘을 넣어준 많은 개성분들이 나의 굳건한 지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다. 열일곱의 철부지가 부모 곁을 떠나 피난길에 나선 이후 앞이 캄캄하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수없이 좌절하였었지만 그 때 그 때 베풀어 주신 주위의 고향어른들 또 일가친척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은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개성인의 끈끈한 정이요, 신의인 것이다.

개성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선을 넘어와 유격대에서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이후 강화도에서의 생활은 참담하고 앞길이 막막하였다. 이 때 따뜻하게 보살펴준 박한걸 군 가족은 고마운 분들이었다. 강화에서 유격대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어 어느 강화 농가의 머슴살이를 하다가 힘에 붙여 못 견디고 있을 때 한 달 넘게 한 가족같이 먹여주고 재워주신 박한걸 군(박천호 어른 맥) 가족들의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다. 단칸 조그만 피난방에서의 객식구는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에서 김조형 군(소죽 김진원 맥)의 피난 방에서 묵은 이틀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님(춘파 박재청) 친구분들이 베풀어준 은혜는 지금도 생생하다. 강철순 군의 부친 강운성 씨, 공진영 군의 부친 등 여러분들께서는 친구의 자식인 나에게 용돈을 주고 격려하여 주셨다.

더욱이 친척에 이르러서는 이루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종사촌 홍종규 형님, 장상순 자형, 박문현 사촌형님, 그리고 선임 이모댁, 이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기에 이 기회에 깊게 깊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개성사람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정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평생을 잊지 않으려 한다.

개성사람의 신용과 신의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자랑이며 타의 본보기이다.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실언을 하지 않는다, 틀림없다, 금전거래가 명확하다 등등

열거하면 끝이 없다. 동업을 원만히 잘 하며 남을 도울 때는 믿고 돕는다는 송도상인의 신용거래는 경제인의 귀감이다.

우리 개성사람은 이 자랑스러운 신용과 신의를 더욱 공고히 하여 더욱 자랑스러운 대명사로 남아야 할 것이다.

흔히 개성사람은 경우가 밝고 사리가 명확하다고들 한다. 엉터리 짓을 안 하고, 앞뒤가 깨끗하고 이치에 맞게 일을 처리한다. 경우에 밝고 사리에 밝아 분별이 틀림없으니, 신세를 지면 잊지 않고 갚고 이유 없이 신세를 지지 않는다. 필자는 개성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듯 경우와 사리에서 밝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물 맑고 공기 깨끗하며 그 흙 또한 깔끔한, 송악산의 청신한 정기가 솔 냄새에 얹혀서 뻗어 내려오는 그곳 송도의 고고한 기운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어린 시절 백삼포에서 지내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어른거린다. 도도히 뻗어있는 송악산을 등에 두고 황량하지만 옛 영화를 품은 듯한 만월대를 옆에, 그리고 맑은 개천을 앞에 안고 놓여 있는 백삼장은 가을 한철 바쁜 일손이 움직이게 된다. 여유가 있는 집안이건 없는 집안이건 가릴 것 없이 백의(白衣)의 안방식구와 아해들은 하루의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돈도 벌 수 있는 백삼장으로 모인다. 한편에서는 수삼을 씻고 아낙네들은 삼피를 꺾는다. 아해들은 깎은 삼을 채반에 담아 날라 가서 넓고 넓은 별판에 가지런히 진열하여 밝고 깨끗한 태양별에 마르게 한다. 개성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이러한 정경을 나도 잊을 리가 없다. 일요일이 되면 반에서 배급받은 일표(票)를 가지고 백삼장으로 달려간다. 빠질 새라 한

숨에 달려가서 일단 백삼장 안으로 들어가면 일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작업은 깔끔하게 벌어지며 삼을 말리는 채반은 별판을 뒤덮게 된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흙, 송악산의 정기와 만월대의 송고한 지조는 일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으로 스며들었고 질서정연한 몸놀림은 바로 사람들의 몸에 밝은 사리와 경우를 붙여넣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이 끝나고 돈 한 닢을 품삼으로 받아 손아귀에 꼭 쥐고 집으로 뛰어 오던 일이 엇그제 같다. 꼭 쥐 손 속에서는 개성인의 자립정신 뿐 아니라 밝은 사리도 자라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개성사람은 틀림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신용과 신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와 경우에 밝다는 말이다. 사리는 곧 수리에 밝게 해주고 이는 신용과 신의와도 연관되니 지금까지 늘어놓은 자랑들이 모두 종횡으로 연결된다. 인간사회에는 분쟁도 많고 시비도 많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분별하는 데는 같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정반대인 때도 허다하다. 사람들이 언쟁을 할 때 보면 모두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사안에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란 참으로 묘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검은 것은 모두에게 검게 보이고 흰 것은 희게 보이는데 왜 한 가지 일을 놓고 의견을 달리 갖게 되는 것일까. 다수결이란 것이 이래서 생겼겠지만 옳고 그름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자기가 보는 면만을 가지고 편견을 갖는 것은 사리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래 뜻 깊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지역 감정이니 지방색이니 하여 우려되는 편견이 판을 쳤고 이해에 따라서 가볍게 주어진 권리들을 팽개쳤다. 분명한 사리판단이 절실히 요청되었으나 많은 사람의 무분별은 사리 밝은 개성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깊은 사려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둔 파고다 공원의 노인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였을까. 듣기로는 거기에서도 모이면 서로 의견을 달리고 열 올려 토론하셨다

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나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남을 설득해 보았지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영향을 미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개개인 간에는 현격한 시각 차이가 있으니 사리와 경우의 밝고 그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는 사리와 수리에 밝은 개성에서 태어나 자랐다. 주위에서 집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바로 개성사람들의 그 깨끗하고 곧은 자세를 나도 모르게 익혀왔을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산술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수리에 밝은 두뇌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나 우리 개성인의 몸에는 그 맑은 송악산의 정기가 몸에 축적되어 선천적으로 수리에 밝은 것이리라. 사리에 밝고 경우가 뚜렷하게 되었나 보다. 나쁜 짓이나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보지 않으며 바라지 않는 경우 바른 사람으로 자란 것이다.

나의 세 아이들, 수근(洙欮), 수희(洙姬), 수종(洙琮)이는 모두 서울에서 태어났고 개성 물도 못 마셨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보면 우리 개성인의 깔끔하고 사리 밝은 행동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하며 흐뭇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쩌다 식탁에 모여앉아 세상사를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개성인 후예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미국에 있는 손자놈 태영(泰榮)이의 돌이 얼마 전에 지났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있지만 틀림없이 경우 밝고 사리 있는 또 하나의 개성인 후예가 되리라 확신한다. 틀림없이 똑똑이 태영이에게도 개성인의 특질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송도인이 되리라고, 사리에 밝고 수리에 능하고 경우가 있는 개성인 후예가 되리라고…….

철저한 자립정신

어린시절 나는 개성에서 신문배달을 한 적이 있었다. 북부 당성다리 옆 옷시장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다보면 자남산을 오른쪽으로 올려다보면서 고개를 오르게 되는데 이 고개가 고리고개다. 우리 집은 이 고리고개 못미처에 있었고 신문 보급소는 남대문 옆 각골에서 시청 쪽으로 가다가 대문 앞마당이 널찍한 왜식집에 있었다.

그 때는 봄의 문턱이어서 아침에 무척 추웠다. 새벽의 찬 공기에 뺨과 귀를 얼리고 또 송악산을 내리 쓸어온 찬바람이 북부 대행길로 몰리며 나를 웅크리게 하던 그 북부길을 달려 각골을 접어들 때는 제법 땀이 몸에 배었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옷 속으로 스며드는 추위는 어쩔 수 없이 매서웠다. 캄캄한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서서는 한달음에 신문 보급소에 가면 신문을 분배받기 위하여 추녀 밑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땀이 식어 으스스해지고 발이 얼어 동동 구르게 된다. 그러나 일단 배당받으면 그 신문을 옆에 끼고 신나게 달리게 되고 “신문이요”하고 소리치며 신문을 대문 안에 밀어 넣을 때는 제법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고 신바람도 났다.

나의 배달지역은 만월동의 일부와 자남동(지정-池町)의 일부였다. 남대문에서

북부로 되돌아 오르다 왼편쪽의 만월동을 휩쓸고는 골목을 빠져 나오면 당성다리가 된다. 당성다리를 건너서자마자 나갯줄을 따라 왼쪽의 자남동에 신문을 배달하고는 구 정화학교(구군정) 뒤로 돌아 골목길을 샅샅이 헤매고는 신정화학교 앞으로 빠져나오면 고리고개길과 만나게 되고 바로 나의 집 앞이 된다. 이 때 신문배달을 하면서 북부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다 보니 그곳 지리에 밝게 되었으며 훗날 유격대 대원으로 개성에 입성하였을 때 거침없이 자남산과 호수돈 사이를 누볐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언 손을 비비며 굳게 닫힌 아담하고, 단정하며 야트막한 대문 밑으로 신문을 밀어 넣을 때 가숫물을 길에 뿌리려 대문을 여는 아주머니, 누나 또는 노 할머니와 가끔 마주쳤다. 날도 밝지 않은 꼭두새벽에 놀라는 분들도 있었고, 불려 세워 따뜻한 전병떡을 손에 쥐어 주는 다정한 분들도 계셨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분들이 한결같이 새벽 배달하는 어린아이를 동정어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손을 어루 만져주며 손이 터졌다고 걱정은 해 주셨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은냐는 말씀들은 결코 하지 않으셨다. 당연히 밟아야 하는 코스를 밟고 있다는 듯이…….

실은 나의 집안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신문배달은 가당치 않았다. 손등이 터진 것도 무슨 어려운 고생살이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서 손을 잘 씻지 않아 그랬던 것이다. 새벽이면 집을 빠져 나왔다가 등교시간에 임박하여 되돌아오는 나를 집안에서 전연 모를 리가 없었으리라. 아버님은 물론 어머니도 전연 내색하지 않으셨다. 코피가 터지고 몸살이 나게 되니까 차츰 집에서 아는 척 하시게 되었으며 급기야 아버님께서 이른 새벽에 신문 보급소에 달려오시게 되었다. 결국 오래 못가서 그 신문배달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지만 그 때 흐뭇해하시던 아버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신문배달을 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만나던 그 개성사람들의 분위기에서 나는 확연한 자립정신과 어떻게 하여 몸에 자립정신이 정착하게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정

말 개성사람의 자립정신은 자랑스럽다. 개성의 모든 환경과 정신이 자립하는 마음을 갖도록 키운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주위 사람들의 모든 관습이 자립하는 정신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끝나면 남의 상점이나 사랑방에 심부름꾼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자립정신의 교육이 시작된다. 마치 동물들의 세계에서 어린 새끼가 커지면 여러 가지 험한 교육으로 무서운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 살아가는 슬기와 힘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개성사람들은 자식들을 밑바닥 생활로 내몰았다. 여기서 어려운 인생살이의 쓴맛 단맛을 경험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깔끔하고 수리에 밝으며 신의에 바탕을 둔 상술도 익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장사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타심도 없게 되어 사막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의지도 키우게 되고 더 나아가 남의 어려움을 잘 알게 되어 도움은 받지 않되 남을 돕는 아름다운 인간미도 갖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릴 적 신문배달 할 때에 만났던 새벽의 그 아주머니들과 부모님들이 못 본 척, 무관심한 척 하시던 바로 그것이 개성사람의 자립정신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전연 안면이 없는 한 이웃집이 하도 깔끔하고 조금도 남에게 부담도 안 주며 신세도 지지 않으려 하길래 이분들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 어찌면 우리 동향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였다.

6·25가 터지고 휴전이 되면서 개성이 이북(以北) 아닌 이북(以北)이 되었다. 잠시 피난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간단히 집을 떠났으니 몸에 지닌 것이 많았을 리 없다. 적수공권으로 타향에 던져졌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물려받은 자립 의지력으로 인해 모두가 자리를 잘 잡았고,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개성인의 뼈 속 깊이 굳건히 박혀있는 자랑스러운 자립 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이권(利權)에 따라다니는 더러운 파리 떼 노릇도 결코 하지 않았고, 엉터리 일확

천금의 꿈도 꾸지 않았으며 남을 괴롭히거나 밟아가면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더럽고 부도덕한 돈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흔한 ‘뺨’도 없었으며 지역출신으로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람도 또 그러한 사람을 이용하여 뭔가 큰 득을 얻으려는 허황된 꿈도 안 꾸면서 오로지 개성인의 자립정신 그 하나만을 갖고 오늘에 이른 전 개성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을 크게 자랑하고자 한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떳떳하고 깨끗한 우리 개성사람을 높이 추켜올리며.

청교도적 결벽성(潔癖性)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장점이 많지만 반면 시급히 고쳐야 될 단점도 적지 않다. 그 단점 중에는 “과거를 잘 망각하고 현실을 중시하는” 단점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상에 오르려고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도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용서받지 못해 그 자리를 물러났으며 어느 부통령은 과거에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을 받게 되었다던가. 과거의 부도덕한 행위에 일고의 재고도 있을 수 없는 철저한 청교도적 결벽성은 그 사회와 국가를 깨끗하게 지탱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가. 과거는 어떠한지 현재만을 중시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상에 올랐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여 유명인이 되었건, 어떤 수단을 써서 돈을 긁어 모았건, 현재 정상에 올라있고, 유명인이 되어, 재벌이라면 무조건 대우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나쁜 것을 잊어주는 것이 불교의 자비와 예수교의 사랑에서 비롯된 너그러움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유독 개성사람들은 이러한 과거 일을 잘 잊지 않는 결벽성이 있다. 어쩌다 개성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다보면 지나치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 옹고집이 있다. 아무개는 전에 어떤 짓을 하던 자가 지금은 내노라 하고 떠든다고 빼죽한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무슨 낮으로 뻔뻔스럽게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심하게 힐책한다. 나는 이러한 개성사람의 청교도적 결벽성을 크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부정과 부패 속에서 크게 치부한 자가 청렴하게 살아온 가난한 사람의 위에 서서 큰 소리 치는 세상, 못된 짓을 떡먹듯이 저지르며 정상에 오른 또는 올랐던 못된 인간이, 더러움을 피하여 은거하고 자중하며 깨끗하게 지내온 사람보다 더욱 대우를 받는 세상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세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의 개 같이란 말이 어떤 못된 짓도 관계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개성사람들의 개미 같은 노력과 굶은 일을 마다않는 그러한 정신을 일컫는 것이다.

얼마 전에 지리산 암자에서 수도하는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지리산 기슭에 있는 아담한 마을에 정도가 비슷한 두 집이 오랜 동안 이웃하여 살아 왔다고 한다. 한 집은 일제 하에서 왜정에 동조하여 집안은 점점 융성해지고 자식들은 모두 고등교육까지 받으며 잘 살았다. 한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으며 또 다른 자식은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옆집은 일본의 침략에 반항하였으며 망국의 한을 품고 만주,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항상 왜경과 그 한국인 앞잡이의 매서운 감시 하에서 나머지 식구들은 오금을 못 펴며 살았고 가세는 기울어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드디어 광복(光復)이 왔다. 양가(兩家)의 형세가 바뀌는 듯 하였으나 이것도 잠시뿐, 변한 것이 없었다.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친 독립운동가는 중국에서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으며 공부 못한 자식들은 노동으로 연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경 앞잡이었던 자는 경찰이 되어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친일하던 집안의 유학한

아들은 군정청에 취직하여 소위 엘리트로 인정받아 승승장구하였고 일본사관학교를 나온 자식은 군에 입대하여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다.

해방된 지도 어언 40년이 지난 오늘에 양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스님은 현황을 알리며 깊은 한숨과 비통한 눈물을 비치는 것이었다. 친일하던 집안에서는 그 후 장관과 준장성이 나와 집안이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 본인들은 물론 집안식구들까지 어디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아 우러러 받들어진 반면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은 노동을 생업으로 하는 몰락한 가세가 되어 근근이 원호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나쁜 자가 잘 되고 대우받는 반면 나라 위해 몸 바친 집안은 몰락하는 사회에서 그 누가 내 몸 바쳐, 내 집안 희생시키며 애국하고 좋은 일을 하겠는가?

무조건 과거를 용서하지 말자는 인정 없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과거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의 그 희생과 공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개성사람의 청교도적 결벽성을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정도만을 걷고 관의 지나친 이권을 멀리하며 모리에 탐닉하지 않으니 개성사람들은 크게 되지는 못하였지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유명인이라고, 관록이 있다고, 과거야 어떻든, 모임이나 행사에서 상좌에 앉으려는 저속한 자를 미워하는 결벽성이야말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개성인의 기개인 것이다. 이 정신이야말로 정의로움을 퇴색시키고 부정을 조장하는 어떤 사회도 배격하게 될 것이다.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과거의 공과를 엄격히 하는 사회는 곧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간 여러 회에 걸쳐 개성사람 자랑을 열거하며 나 자신 개성사람임에 긍지를 갖고, 만에 하나라도 개성사람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이 글을 쓰며 내 뒤를 돌아보고 내 집안을 살피고 있다. 개성 출신이 아닌 나의 집사람도 이제는

거의 개성사람이 되었고, 항상 송도지를 애독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며느리 혜경(惠京)이도 개성인이 아니면서 개성사람이 되어가는데 대하여 몹시 감사하고 있다.

개성시민회를 통하여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를 보내신 안경선(安慶善) 씨는 안순원(安淳元) 씨(나의 아버지 친구분)의 큰 따님이며 내가 살던 구남골 집 바로 옆집에 사셨던 분이다. 6·25의 적 치하에서 그리고 1·4후퇴 이후에 그대로 개성에 남아 있었던 동안에 서로 이웃하여 담에 샛문을 터놓고 돕고 지낸 혈육과 같은 이웃이다. 개성유격대에서 함께 분투하다 중공군 제 2차 공세 때의 분전 중 행방불명된 광일(光一) 군의 누님이시다. 편지를 받고 친누이의 소식을 들은 듯 반가웠다. 그 옛날 연일의 폭격 속에서 쪽다기와 면사기를 돌리던 무료함과 두려움을 달래던 일이 엇그제 같다. 1951년 4월 부모님께 가볍게 인사하고 개성을 떠날 때도 이분과 함께 강화를 거쳐 인천으로 건너 왔으며 이것이 부모님과 마지막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인천에서 이분의 사촌인 박현중(朴顯鍾) 형 친척댁인 내동(內洞)집에서 며칠 신세를 진 점을 이미 “개성유격대”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전란 중 그리고 이산가족이 된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중의 한 분이시다.

안경선 씨가 서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며, 최근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송도지를 보고 무척 반가웠다는 말씀을 하시며 절절히 고향을 그리는 글을 보내오신 것이다. 남다른 개성사람의 애향심이 그 편지에 넘쳤으며 한편 전 세계를 누비는 송도지의 활약에 새삼 놀라움과 보람을 느꼈다. 송도지를 만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민회 여러분께 새삼 감사드리며 그 수고의 보람을 확인하여 드린다.

자랑스러운 개성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한 둘이 아니다. 어려운 타향살이가 이제는 몸에 배었다. 함께 개성사람의 긍지를 갖고 더욱 가슴 펴고 떳떳하게 개성사람임을 외쳐 보자.

협동정신과 상호협력

우리는 흔히 단결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한탄한다. 전에 어느 정치인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단결을 역설하였지만 그는 자기 중심으로 뭉치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크게 호응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 우리 민족의 부족한 단결력, 즉 협동정신의 결여는 시급히 고쳐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자타가 부인하지 않는데 합쳐보면 집중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단점이 우리 개성사람에게는 예외이니 이 또한 어찌 개성사람 자랑에서 빼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개성사람은 협동정신이 뚜렷하며 상호협력은 더욱 뛰어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이라는 것을 잘 못한다. 잘 되면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잘 안 되면 서로 먼저 빠져 나오려고 아웅다웅한다. 남을 의심하기 잘하며 양보나 너그러움이 없다. 동업을 하며 마치 투쟁을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니 그 동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있겠는가.

일본인들의 동업은 그들 특유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중국인들의 동업은 몸과 마음을 듬뿍 믿어 주는 신의에서 시작된다. 또한 서구인의 동업은 철저한 명문

화로 유지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개성사람들은 예외이다. 뚜렷한 주체성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에, 대화로 풀어가는 것은 일본인의 회의 방식과 비슷하며, 믿고 밀어주고 양보하는 미덕은 중국인의 신의에 못지 않다. 비록 명문화 하지는 않지만 조목조목 미리 따져주는 치밀성은 서구의 명문화에 손색이 없다. 옛날 송상(松商)들의 신용거래, 그리고 상호 협조하고 서로 밀어주던 관습은 가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랑거리이다. 자기 지방 물건만 사주고 써주며 자기 지방 사람의 식당만 찾아다니는 개성인 기질이 좀 폐쇄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곧 상호협력에 기인된 것이니 이를 바탕으로 한 정신자세는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 고장의 명산물인 인삼을 재배함에 있어 개성사람들은 동업의 형태인 합동포(合同圃)를 많이 운영한다. 이 합동포를 운영하면서 그 협동과 협력은 가히 완벽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말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영성해 보이는 합동포의 경리장부가 신의와 믿음으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번잡한 과정보다는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개성인 특유의 사무운영은 일품이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곁을 떠난 이래 나도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던 인삼 경작에 남달리 애착을 느꼈다. 사촌이신 홍종규 형님의 도움을 입어 인삼 경작을 시작한 것이 1965년에 강화에서였다. 물론 시작부터 합동포의 한 형태인 병작(並作)이었으며 나의 몫은 겨우 75칸이었다. 처음 75칸에 대한 투자는 75,000원이었고 6년 후 수입이 800,000원이었으니 당시의 무서운 인플레이를 감안할 때 대단한 수익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때의 호뭇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여하튼 이것도 철저한 개성인의 협동정신과 상호협력에 기초를 둔 병작이었다.

이 때의 병작은 이미 작고하신 김영도(金永燾) 씨와의 합동이었으며 그 이후 강

화에서, 포천에서 또 화성군 발안에서 병작과 합동포를 운영하는데 한 구성인으로 있으면서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것을 체험하여 왔다. 홍종규 형님을 위시하여 고인이 되신 김영도 씨, 최교식(崔教植) 씨 그리고 지금도 자주 만나 뵈고 있는 유영준(劉永駿) 씨, 우형균(禹滢均) 씨, 조우제(趙羽濟) 씨, 이중섭(李重燮) 씨, 박문현(朴文鉉) 형님 제씨들과 함께 합동포를 운영하여 오는데 추호의 말썽이 없었다는 것은 개성인의 독특한 기질을 증명하는 것이라 자랑하고 싶다.

얼마 전 이북출신을 중심으로 하여 동화은행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주(株)를 공모할 때 이북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많은 부분을 재이북(在以北) 시, 도, 군, 면민회(面民會)에 할당하였다. 다른 회(會)에서는 이 할당된 주(株)의 처리를 놓고 부끄러울 정도로 시끄러웠으며 분규도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성시민회는 어떠하였는가. 여기에서 우리 개성사람 특유의 협동정신과 상호협력이 다시 한 번 과시되었다. 우리의 개성시민회에는 거금 이억 원 액면의 주(株)가 할당되었다.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시민회의 일억 원 기금으로 이를 인수하면 나머지 일억 원의 주가 남게 된다. 나는 욕심이 나서 그간 매달 시민회 운영경비를 일부 분담하여온 임원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분할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회 기금을 추가 모금하여 이 나머지도 시민회 이름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실향 시민회의 규모와 그 업무를 착실히 다지는 것은 물론, 훗날 귀향하게 될 때 고향을 위한 큰 힘이 되고 후손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여력을 다지자는 깊고 큰 뜻을 모아 이를 결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에 이르기까지 견인차 역할을 한 존경스러운 개성인 한 분을 소개하여 개성인의 자랑인 협동과 상호협력을 실증하고자 한다.

현재 시민회에서 재무이사일을 맡고 계신 조동일(趙東一) 씨께서는 남들이 머뭇머뭇 그 나머지 일억 원에 대한 처리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기금 추가를 주장하시며 선뜻 일천만 원의 거금을 남보다 먼저 내놓으신 것이다. 나는 그 분의 장한 행

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후 이회림(李會林) 회장님을 위시하여 임광정(林光廷), 우상기(禹相琦), 양창갑(梁昌甲), 이회삼(李會森), 백승민(白承敏), 윤장섭(尹章燮) 제씨께서 흔쾌히 조동일(趙東一) 씨에 호응하여 순식간에 일억 원 이상이 추가, 총 이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흐뭇하고 장한 일인가. 다른 회원들이 서로 개인 이득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개성인은 힘을 합하여, 공동의 힘을 위하여 개인의 주머니에서 거금을 내놓았으니 참으로 장하고 장한 일이다.

개성시민회는 이회림 회장님의 정성어린 열성과, 우본연(禹本淵), 우형균(禹滢均), 이문호(李文鎬) 등 제씨들의 부단한 노고로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 조동일(趙東一) 씨의 숨은 공로 또한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민회 발족시에는 그분의 사무실이 산실이 되었으며, 오는 손님들의 차 대접 등 그 외 여러 가지 지출을 자비로 부담하여 왔다. 시민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찬조금을 출선하여 내놓아 모금에 활력소가 되어 오셨고 시민회 재정을 맡아 알뜰하게 살림을 관장하고 계시다.

혹자는 찬조금이나 기금을 잘 내는 사람을 가리켜 돈이 많고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막노동꾼도 아껴가며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일 호의호식하고 외국 유람을 자랑으로 여기며 나들이 하는 사람이 회사할 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돈 많은 재벌의 기만금의 기부가 강제적으로 또는 어떤 혜택이나 바라는 정경유착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었지만 순수한 우리 시민회의 기금 회사는 진실로 사심이 없는 깨끗한 성의임을 묵과하여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조동일(趙東一) 씨의 그 고마움을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우리 개성인의 협동정신과 상호협력을 실증하는 바이다.

정도(正道)와 교육열(教育熱)

올바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요즈음의 우리 세대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엉터리 짓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일삼으며 불법을 자행하여 크게 치부하고 유명인이 되는가 하면, 끈고 깨끗하게 삶으로써 집안이 쪼들리고 생활이 곤궁해진 사람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출세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하고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도(正道)를 가는 사람을 앞서게 될 때, 이는 곧 부도덕한 사회로 빚나가는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백의민족이라고, 깨끗하고 맑은 민족이라고 온 세계에 자랑하던 때는 언제이고 더럽고 추한, 부도덕한 환경으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실상을 과연 모두가 팔짱만 끼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실제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한심하고 크게 개탄할 일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개성사람은 깨끗한 길만을 택하여 걸어왔으니 이것 또한 우리의 자랑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며, 곁들여 후세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교육열

이 진작부터 대단하여, 지방학교로 그치지 않는 전국적인 명성의 학원들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옳지 않은 길은 아예 들어서지 아니하며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에는 근접도 하지 않는 깔끔한 개성인 정신은, 송악산 정기가 엄숙하게 뻗치고 있는 깨끗한 시가지의 백토와 주위를 포근하게 감싼 산야에서 끈고 배양되고 솟아났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잘되고, 훌륭한 일, 나라를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반면, 엉터리와 부도덕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성사람의 정도(正道)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확신한다. 하루 속히 모든 국민이 개성인을 본받아 정도(正道)만을 걸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동방예의지국을 소리 높여 온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값지고 찬란한 고려문화의 유산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개성박물관을 머리 위에 받들고 있고, 교육의 요람이었던 성균관을 등에 업고, 맑고 청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송도의 기개는 가히 사람들을 정도(正道)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왔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끄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일찍부터 전국적인 유수한 학원들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오늘날의 과잉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해방 이후의 국가 재건과 발전에 있어 교육이 기여한 바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대열 가까이 갈 수 있던 것을 정치에 힘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의 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높은 교육열에 의하여 다져진 실력에 토대를 두고 이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육열의 발상지가 바로 우리의 개성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까? 송상(松商)들의 자체 내 교육에서 시작된 후손 기르기는 타지방이 몽매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을 때 앞서서 신교육의 터전을 과감하게 닦아 나갔던 것이다.

벌써 80년의 세월을 넘기는 유구한 송도(松都)중학, 전국 방방곡곡, 제주도, 울릉도에서 북쪽 함경도 끝까지 수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던 송도중학을 위시하여, 일찍부터 빛을 내던 여성교육의 선구자인 호수돈, 개성상업(開城商業)은 송상(松商)의 본거지에 걸맞게 전국 상업학교의 으뜸이었으며 아담하고 청결한 정화(貞和)학교는 신식여성을 기르는 첫걸음을 가꾸는 데 손색이 없었다. 엘리트만을 키워낸 개성중학 그리고 개성여고, 늦게 문을 열었으나 유명하기는 마찬가지인 개성사범(開城師範), 개성공업(開城工業) 등 준비한 명문교들은 개성인의 철저한 교육열에 바탕을 두고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길고 긴 80년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발간한 “송도학원(松都學園) 80년사”를 읽어보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교육열에 불타던 선각자들의 면면을 그리게 되고 그 분들의 선견지명과 그 남기신 업적에 크게 감명하게 된다.

눈을 감고 멀리 두고 온 학교의 모습들을 그려본다. 내가 다니던 송도중학의 본관, 신관, 우천체육관, 식물관, 미술관, 과학관, 강당 등. 겨울이면 스케이트 타러 다니던 야다리 밖 논바닥에서 올라다보던 개성(開城)중학, 나의 형님(朴正鉉)이 교사로 계셔서 자주 들렀던 개성상업(開城商業), 어릴 때 다니던 영생(永生)유치원 때문에 자주 오르내린 호수돈, 내가 살던 곳에서 가까워 저녁이면 놀러가던 정화학교(貞和學校), 그 어느 것 하나 잊을 수 없으며 눈에 선한, 훌륭한 우리 고향의 배움터에서 몸과 마음을 닦아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송도인 그리고 이 후예들이 혼탁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청량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해 무한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개성사람 특유의 정도(正道)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열,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특수한 기질인 것이다.

미국 서부의 개척정신이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었듯이 송도인(松都人)의 상인(商人)정신도 역시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려조(高麗朝)가 이씨 조선(李氏朝鮮)에 의하여 멸망하자 송도인들은 새로운 조정에 비협조적인 반면 자유인(自由人)으로서의 위치를 택하였고, 권력을 멀리하고 자유분방한 중에 독특한 생활영역과 행동규범을 만들고 지켜왔던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보부상으로 송상(松商)의 명성을 드높였으며 국내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멀리 중국으로, 일본으로 뻗어 나가는 자유주의적 개척정신은 장사에서 비롯하여 만몽(滿蒙)회사의 설립주체자와 같은 만주개척의 선구자까지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관직을 마다하고 권력을 멀리하였으며 관준사상을 배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운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해바라기같은 간사한 정상배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권력을 추구하는 치사한 사람도 없어 초개와 같은 깨끗한 인품이 몸에 배게 되었다. 독창적인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깨끗한 선비들이 준비하였고 자유직이나 전문인이 많이 생겨났다.

멋들어진 황진이(黃眞伊)의 자유분방, 해박하고 청렴한 서화담(徐花潭)의 독보적인 도학(道學)이 다 우리 송도(松都)의 자랑이듯이, 그 이후 유명한 학자, 예술

인, 체육인이 자랑스럽게 꼬리를 이었다.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벼슬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서화담이 독자적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도학(道學)의 대가가 되었듯이, 학자들은 스스로 연구를 즐겨하여 세계적인 과학자, 조류학자, 곤충박사, 고고학자가 되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인물이 수없이 배출되었다. 음악인, 미술가 등 예술가도 명성을 떨쳤으며 많은 체육인 또한 우리 송도의 힘을 널리 과시하였다.

개성에는 옛부터 사랑방 생활이 발달하여 이곳에서 상담(商談)이 오가고, 상도(商道)가 제정되고 또 청순한 선비들의 연구, 발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는 양반 사회에서의 사랑방과는 판이한 것으로서 송도인의 자유주의 생활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자남산에 위치한 관덕정에서의 활쏘기는 한량들의 무료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만끽이었으며 풍류의 절정이었다. 여기에서 송도인의 다음 단계 도약의 받침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릴 적에 아버님(春波 朴在淸)을 따라서, 또는 심부름을 받들어, 여러 사랑방(박이현, 최구순 제 어른댁)을 찾아 다녔으며, 관덕정의 활 쏘는 데도 가 보았다. 여름이면 아버님께서 친구 분들과 가시는 천렵에도 따라 다녔다. 해박하고 유식한, 특정 방면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또는 활을 쏘면서, 천렵을 즐기시며 토론하시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특히 천렵은 나의 지워지지 않는 즐거운 추억들이다. 북부 술도가에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의 임무가 시작된다. 나는 이 심부름이 가장 신이 났다. 여러 가지 천렵국 재료가 준비되면 아버님 일행은 야다리를 지나 봉동역을 멀리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일로 삼댁, 취죽교 혹은 멀리 널문이다리(板門橋)로 향한다. 삼댁은 얇고 깨끗한 모래천(川)으로서 개성사람이면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곳이다. 특히 나는 큰할아버님, 큰할머님 그리고 친할아버지의 산소가 이곳에서(널문이) 멀지 않아

더욱 잊을 수 없는 곳이다.

깨끗한 모래 위를 흐르는 맑은 물은 가히 송도인의 때 없는 품성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강(姜)씨라고 하시던 키 큰 아저씨는 투망이 일품이었고 양(梁)씨라는 분은 천렵국을 잘 끓이셨다. 강씨 아저씨께서 맑은 물에 물러가는 고기떼를 향하여 또는 고인 물 깊은 곳에 투망을 던져 걸어 올리면 망에서는 고기가 팔딱거린다. 망에 달려 붙어 물고기를 주워 올리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임무였다. 울긋불긋한 불거지, 매끈한 세천어, 모래빛갈의 모래무지, 국에 기름을 뚝뚝 뜨게 해주는 붕어, 심지어는 쏘가리까지 걸려 올라온다. 많은 고기를 낚은 후 깻잎을 남의 밭에서 슬쩍 실레하고 밀가루 반죽을 뜯어 넣어가며 천렵국을 끓이는 양씨 아저씨의 보조원 노릇을 할 때면 오늘의 물놀이가 더욱 무르익어 간다. 아버님이 모이신 친구들과 시국이야기, 전문 분야의 토론 등 고담준론을 한 차례 끝내시면 모래밭에 둘러앉아 천렵국을 먹는 것으로 천렵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참으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

예술분야에서 독창적인 개발은 학교에서부터 활발하였다. 문예회다, 연극회다, 중학교에서는 재미있는 행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체육회 등 경기는 더욱 열기가 있어 그 함성은 송악산에까지 울려 퍼졌다. 내가 송도중학 재학시 송도의 “영길이” 연극은 장안에서 유명하였고, 나의 형님(朴正鉉)이 교사로 계셔서 따라가서 관람하였던 개상(開商)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극도 참 재미있었다. 송도중학과 개성중학의 운동경기는 멋들어진 라이벌 경기로 송도의 기개를 한껏 드높였다.

송도인이 일찍이 남보다 앞서 해외로 뻗어 나간 것은 상업 및 개척에서 뿐 아니라 학문에서도 두드러졌다. 일찍부터 많은 수재들을 외국에 유학 보냈고 이들이 돌아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단히 활약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자유인으로 남기를 원해 관직보다는 연구활동,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송도인의 자유주의는 참으로 깨끗하고 고귀한 것이었다. 관 출신을 우러러 보지

않으며 초야의 청렴한 선비들을 인정하는 그 정신은 어느 면에서 두문동의 정신에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누구에게 구속됨을 기피하고 자유직으로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인으로 뜻있게 활동하는 개성인 기질은 골수에 깊이 박혀있는 자유주의 정신에 기인되었다고 생각하여 자량의 하나로 열거하였다.

그간 10회에 걸쳐 개성인 자량을 하는 중에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개성사람이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량을 늘어놓은 듯하다. 개성은 하나의 크지 않은 고장, 그러나 별나고 특별한 곳이며 이 곳의 사람들 또한 유별나다. 음식에서부터 생활양식, 생각과 행동들이 특이하고 특출난 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을 깊이 생각할 때 늦기는 했어도 정계도, 경제계도, 학계도 또 모든 분야에서 개성정신으로 마음가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성정신이야말로 유일한 민족정신의 정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개성인 자랑”을 끝맺으며 다시 한 번 외친다. 개성인으로 태어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개성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1990년 8월

기타 신문 잡지에 게재된 박광현 글

삼(蔘)을 캐면서

내가 본 송도민보

다시 맞는 추석의 감회

잊을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족보 유감

못가는 고향

작가 박완서 씨의 장편소설 “미망”을 읽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국의 동향인 이야기-캐나다의 개성사람

고 전총림 씨 지은 “세월의 언덕 위에서”를 읽고

김복영 수필집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고서

“송도지 속에 스민 감회”를 기고하신 장경태 선생님께

삼(蔘)을 캐면서

인삼 재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개성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 인삼 재배이다. 고려 인삼하면 즉 개성이요, 개성하면 곧 인삼을 연상하게 되도록 개성과 인삼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얼마 전에 TV에 소개된 “개성상인”에서도 인삼포는 줄곧 이야기 줄거리의 핵을 이루었으며 인삼 재배에 얽힌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오랜 실향의 세월 속에 망각으로 빠져가는 송도의 얼이 이 인삼 재배로 연명되고 있다고 말하면 과연 지나친 생각일까. 오래 전 휴전으로 완전히 고향을 잃은 많은 송도 분들이 아직도 선조 전래의 인삼을 재배하고 계시다.

자랑스러운 혼이 깃든 고향을, 아름답고 깨끗한 그 곳을 등진 지도 어언 30여 년. 그 많은 실향 송도인(失鄉松都人), 뽕뽕이 흩어져 입신양명(立身揚名)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분들 중에 고향을 잊고 그 혼을 뒤로 한 사람들이 많은 듯 하여 못내 섭섭하다. 특히 피난 이후 타향 여자(他鄉女子)와 혼인한 후 마치 처가(妻家)가 본향(本鄉)인 양 자신의 뿌리를 뿌리치는 사람들에게 연면히 이어가는 전래의 인삼 재배지(人蔘栽培地)를 보여주어 다시 우리의 혼을 되찾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송도민보(松都民報)에 연재된 줄필(拙筆) “개성유격대”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



강화도에서 고려인삼포를 경작하던 1970년대에 삼포에서 불일을 보고 강화 전등사를 방문하였다. 왼쪽 첫 번째에 계신 분이 홍종규 형님. 다섯 번째가 나. 6.25 전란 이후 가장 가깝게 그리고 꾸준히 나를 도와준 고종사촌 홍종규 형님은 사진찍기를 싫어하셔서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되지 않는다.



1981년 11월. 발안의 인삼농장에서 삼포 일을 끝내고 인삼재배에 참여하였던 일가친척 모두와 함께. 앞줄 왼쪽부터 박기태(박대현 막내아들), 홍순철(홍중범 장남), 박문현(朴文鉉) 형님, 다섯 번째 박인성(朴仁成) 형님, 뒷줄 왼쪽부터 박영 아들, 박수중, 박영 남편, 나, 박완 처, 홍중규 형님, 박완, 박영, 박대현(朴大鉉) 형님, 홍중범.

이 나는 유격대를 떠난 후 30여 년 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하염없는 눈물로 망향을 달래 왔다. 특히 나의 할아버님 그리고 아버님(春波 朴在淸)이 피땀을 쏟아 오셨던 그 삼포(蔘圃)를 나는 망향(望鄕)을 달래는데 적절하게 이용하여 왔다. 삼포간(間) 옆에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잊지 못하는 아버님 옆에 있는 듯 따스함을 느끼곤 하였다. 내가 그 동안 인삼 재배(人蔘栽培)에 연연하여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처음 재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1966년이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항상 나를 키워 보살펴 주시는 내종사촌 홍중규(洪鍾奎)형님의 주선으로 강화(江華)에 75칸(間)의 병작 삼포를 갖게 된 이래, 나는 매년 적으나 많으나 삼(蔘)을 심어왔다. 많은 분들이 생업(生業)으로 또는 나와 같은 연유로든지 우리 동향인(同鄕人)들은 고향을 잃은 후에도 즐곤 남한(南韓)에서 우리의 혼을 심어왔던 것이다. 성냥개비 굵기의 종삼(種蔘)을 심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의 대견함, 일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며 차분히 자라는 생산의 기쁨, 오근(五根), 육근(六根)의 무성한 우죽 밑에 깊이 뻗어 있는 뿌리를 캐낼 때의 흡족함은 이루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이 즐거운 것이다.

경기도 화성군 발안에 홍중규(洪鍾奎) 형님, 유영준(劉永駿) 형님(고려인삼흥업(高麗人蔘興業) 부사장(副社長)), 최교식(崔教植) 씨(대한약업사(大韓藥業社)) 등이 분들과 함께 삼포(蔘圃)를 가꾼 지, 그리고 고려농장(高麗農場)(박문현 형님 상주) 이라고 이름붙인 지 어언 6, 7년이 되었다. 금년이 이곳에서의 첫 번째 수확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검붉은 흙에서 풍기는 흙 내음 속에 삼(蔘) 냄새까지 섞여 있다. 시퍼런 쇠스랑에 걸리어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삼(蔘) 뿌리에 체운이 통하는 듯하다. 한 뿌리, 한 뿌리가 캐어지고 박스 속에 채워질 때, 그리고 한 박스, 두 박스씩 포장될 때마다 대견함을 넘어 흡족함에 도취한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며 특히 개성(開城) 사람들이 삼(蔘) 경작에 정성을 쏟는가보다. 고향의 많은 옛 어른들 그리고 나의 할아버님 아버님이 도취하여 아끼시던 인삼(人蔘) 경작에 나 또한 몸담고 있으니 마치 고향을 다시 가보는 듯, 고향에 안주하고 있는 듯 아늑함을 느낀다. 다정한 우리 조상님들의 품 속에서, 우리를 낳고 키워준 우리 개성(開城)의 보금자리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듯 착각한다. 포장된 삼(蔘)이 트럭에 실려 떠나는 때, 저녁노을은 붉게 물들고 마치 옛날 삼(蔘) 실은 달구지를 떠나보내시던 옛 어른들이 옆에 계신 듯 환상 속에 빠져든다.

그래서 나는 올해도 인삼을 심었으며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심을 것이다. 조금도 잊지 못하는 고향 송도(松都)를, 그리고 생이별한 지 30여 년 동안 한시도 잊지 못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하여 인삼 경작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을, 그 자랑스러운 뿌리를 잊어가는 동향(同鄉) 여러분! 인삼(人蔘)을 보면서 삼포(蔘圃)를 살피며 개성인(開城人)으로 환원합시다. 조상과 뿌리를 다시 찾읍시다. 이제는 뵈고 싶어도 못 뵈는 나의 아버님(春波 朴在淸). 나는 그 분의 아들이라는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 옛날 어느 어른께서 장단(長湍)에서 인삼을 수확하신 후 읊으셨던 시조(時調)를 되새겨본다.

1982년 10월

채삼(採蔘) 일일(一日)

(출처: 고려시보 1933년 11월 16일 자에서)
지은이는 동인(同人)으로만 알려졌고 실제 이름은 모름

6년의 긴 동안이 기다리며 더딜 것을
농업(農業)의 굳은 정신(精身) 꾸준이도 참았도다

한 뿌리 캐일 때마다 진땀저저 뵈더라

가래로 곁을치고 호미로 밑을 파서
뽕족한 나무 끝으로 찢러서 찢기다가
한다리(蔘尾) 우지직하면 매운 눈물 나더라

한 칸(間) 두 칸(間)하야 어느덧 다 캐었다.
일천팔백칸(一千八百間)에 쉬흔 닷섬 채웠구나
짐꾼아 어서실어라 길점을까 하노라

내가 본 송도민보(松都民報)

이번 달(6月)로 송도민보가 벌써 만 7세가 된다니 참으로 대견할 뿐이다. 그리고 그간 이를 키워온 신문사측이나 이를 성원하여 온 동향인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그지없다. 뼈저린 실향의 설움을, 피맺힌 망향(望鄕)의 갈망을, 그리고 한 많은 방랑의 한(恨)에 항상 밝은 등불과 따스한 위로로 우리를 어루만져 온 송도민보가 그 임무를 다하며 7년이란 세월을 지내왔다니 참으로 흐뭇하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우리의 송도(松都),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은 많은 긍지와 자랑을 갖고 있다. 남달리 개화(開化)가 빨랐으며, 신 문명(新文明)을 소화시켰던 송도의 어른들은 신문(新聞)에서도 뛰어났으니 우리의 향토지 고려시보(高麗時報)는 그 어느 지방지보다도 앞섰던 것이다.

지금부터 50년 전 1933년 4월 15일에 열 분이 동인지로 창간하였던 고려시보(高麗時報)는 실로 한국(韓國) 신문사(新聞史)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향토지이다. 당시 10인 동인(同人)이셨던 선각자들을 살펴보면 (이하 감히 경칭은 생략합니다) 거화(炬火) 공진항(孔鎭恒), 청농(靑農) 김학형(金鶴炯), 범사초(凡斯超) 김재은(金在殷), 포영(抱永) 고한승(高漢承), 하성(霞城) 이선근(李瑄根), 송은(松隱) 김영의(金永義), 일봉(一峯) 박일봉(朴一奉), 김구(金龜) 김병하(金秉河), 마공(馬公) 마태영(馬泰榮), 그리고 필자(筆者)의 아버님이신 춘파(春波) 박재청(朴在

淸) 제 어른들이셨다. 당시 이 분들의 노고와 희생은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동인제(同人制)로 출발하였던 고려시보(高麗時報)는 2년 후인 1935년 6월에 주식회사(株式會社)로 진일보하였으니 발기인(發起人)은 34명에 이르렀다. 억만금을 후손에게 전함을 자랑으로 알 것이 아니라 한 정신, 한 마음을 전함을 자랑으로 알자며 발기하신 34명 어른들의 면면을 보면, 김정호(金正浩), 김기영(金基永), 박봉진(朴鳳鎭), 여운형(呂運亨), 황중현(黃中顯), 최인용(崔仁鏞), 이상순(禹相淳), 윤영선(尹永善), 김학형(金鶴炯), 김천호(金天浩), 하규항(河奎杭), 공진항(孔鎭恒), 박영균(朴永均), 박광진(朴廣鎭), 임한조(林漢祖), 김재은(金在殷), 고한승(高漢承), 최선익(崔善益), 장희순(張熙淳), 이윤수(李允秀), 박상우(朴尙愚), 홍이표(洪利杓), 이선근(李瑄根), 이세환(李世煥), 김병하(金秉河), 이근태(李根泰), 진호섭(秦豪燮), 김진원(金鎭元), 마태영(馬泰榮), 박상유(朴尙裕), 김희정(金喜正), 박상순(朴尙舜), 김동표(金東杓), 그리고 박재청(朴在淸)이었다.

실로 우리 개성(開城)의 선구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으니 지방 신문으로의 명맥 유지가 아니라 전국적인 신문으로 발돋움하였던 것이다. 1941년 4월 일제(日帝)의 탄압으로 폐간될 때까지 손봉상(孫鳳祥), 공성학(孔聖學) 두 분 원로를 고문으로 모시고 마해송(馬海松), 서병성(徐丙瑄), 박병호(朴柄浩) 등 많은 분들의 기고(寄稿) 및 참여로 자랑스럽게 맥을 유지하였다. 해방 이후 및 실향(失鄕)한 6·25 이후에도 민관식, 강운성 씨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성(開城)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명을 이어왔으니 우리 향토지의 강인함은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이다. 비록 신문의 이름은 바꾸어 왔으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향토지일진대 그 연륜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송도민보(松都民報)가 7주년이 아닌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주장은 협조하지도 못한 형편을 고려하건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염려된다.

여하튼 나에게서는 우리의 송도민보는 자랑스럽고 고마운, 그리고 친숙한 벗임에



1935년 7월, 고려시보 창립총회.
 원래 고려시보는 1933년 4월에 10인 동인(아버님 춘파 박재청 포함)이 중심이 되어 창립 창간호를 발행하여 활발히 운영되어 오다가 1935년 7월에 주식회사로 재편되어 재 창립되었다. 중간줄 왼쪽 두 번째가 아버님 춘파 박재청, 세 번째가 소죽 김진원 씨, 앞줄 왼쪽 두 번째가 거화 공진항 씨(홍순택 외할아버지)



1938년, 고려시보(주) 제3회 정기 주주총회.
 앞줄 오른쪽 첫 번째가 아버님 춘파 박재청, 두 번째가 거화 공진항 씨, 뒷줄 오른쪽 세 번째가 소죽 김진원 씨.

틀림없다. 배달될 때마다 항상 구석구석까지 읽어왔으니 개성(開城)이란-또는 송도(松都)-심지어는 고려(高麗), 선죽(善竹)이란 자구(字句)만 봐도 반갑고 눈물겨워 되읽어왔던 것이다. 지면이 빈약하면 마음 아팠으며 동향인들의 미온적인 협조 태도에는 울분도 느껴왔다. 우리 다같이 뿌리를 잊지 않고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개성인이 되고 우리의 가냘픈 등불인 송도민보에 작은 관심이라도 기울여 송도혼(松都魂)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개성사람이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게 모조록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고생하고 계시는 신문사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많은 동향인들의 호응을 받도록 노력하고, 혹 근분을 잊어가는 분, 고향을 무시하고 욕하는 분, 또는 소홀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고향과 연관되는 또는 송도인(松都人)의 소식 등에 기사를 집중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음은 고려시보(高麗時報)가 처음 출발할 때 채택하였던 동인제(同人制)에 가미(加味)하여 가급적 많은 분이 참여하는 신문 운영위원회를 구성, 각자 여러 분야를 분담,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좋을 듯하다. 지나친 유명 인사나 재벌을 망라하려는 노력보다는 한 삽의 흙이라도 파주려는 성의와 애향심이 있는 분들에게 호소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송도인(松都人)이 긍지를 갖고 송도민보를 돕고 키움으로써 고향도 모르는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전하여 주자고 제의하는 바이다.

송도민보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하고 사기(社旗)를 고향 하늘에 휘날릴 그 때를 기다리며…….

1983년 5월 31일

다시 맞는 추석(秋夕)의 감회

-부럽기만 한 이산(離散)가족 재회(再會) 열풍(熱風) 속

곧 추석이 다가온다. 달이 점점 차 오르고 있다. 다음 보름은 매년 찾아오는 추석임에 틀림없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니 이를 조상에게 먼저 올리고, 높푸른 하늘에 걸려 있는 중추 큰 달 밑에서 하루를 즐기는 우리 전래의 명절을 어느 누구도 모를 리 없으며 모두 함께 느끼는 감회는 크게 틀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을 억지로 고향을 등진 채 맞이하는 우리들 실향민에게는 또 다른 감회와 연고가 있다. 기나긴 반평생의 30여 년 동안 시름과 주름은 늘어왔건만 추석 대보름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찾아와 1년, 1년 망향의 설움만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연일 열정을 더해가 보고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준다. 기막힌 사연들이 묻혀있는 생이별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재회할 때마다 온 국민은 눈물로 그들을 축하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이산가족찾기 운동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더 뼈뺀 이산가족들은 그 누가 찾아줄 것인지, 가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는 남북(南北) 이산가족들의 눈에 이들은 한껏 부러운 비극이며 시기스러운 재회이다. 그 분들에게는 재회의 희망과 기대가 있으나 우리들 남북(南北) 이산가족에게는 희망도 기대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흰칠한 추석 대보름 달은 올해도 우리를 찾아오고 또 북쪽 고향의 부모 형제자매의 머리 위를 비칠 것

인지. 똑같은 보름달은 쳐다볼 수 있는데 서로를 만나볼 수 없다니 이 기막힌 사연을 누가 풀어 줄 것인지 한탄 뱉는다.

남들은 제사를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들 부모의 생사(生死)도 모르는 불효자(不孝子)들은 어찌하는 것이 옳으며 어떻게 조상님들을 모셔야 하는지 인륜(人倫)마저 끊어지고 있다. 사치한 기분으로 조상들께 차례를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기는 복 받은 남(南)쪽 출신이 이 피맺힌 설움을 안고 있는 남북(南北) 이산가족의 심정을 과연 얼마나 알아줄까. 이들이 북(北)에 갇혀 계신 어른들의 며느리, 손주며느리가 되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실향민 일세(一世)들은 주의 깊게 살피고 설득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침울한 슬픔과 살을 에는 망향을 그들은 좁은 소견으로 불쾌하게 생각하지나 않는지.

공자께서도 혼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제사나 차례를 지낸다는 것은 제수의 다과가 아니라 효(孝)하는 마음의 표시이고 뿌리를 자식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내는 차례는 이런 면에서 남보다 더욱 정성 드려야 할 것이며 허례나 단견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달리 조상을 위하는 우리 개성인(開城人), 그 실향민에게는 이번 추석은 더욱 뼈아픈 추석이 되고 있다. 많은 이북출신 이산가족들이 재회하거나 재회의 희망을 안고 있다. 특히 황해도 출신이 많다고 한다. 고향이 지척인 우리 개성(開城)사람 에겐 너무 대조적으로 재회의 희망과 기대마저 없다. 유명무실했던 서울 개성인(開城人) 모임인 개성시민회가 오랜만에 다시 활성화하였고 열의가 많은 유지(有志) 어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한편 오랫동안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공헌하여 오신 유신영(劉信榮) 씨께서는 그 동안의 빛나는 업적과 함께 명예 개성시장(開城市長) 자리를 발랄한 다음 세대(世代)에게 물려주셨다는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갖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짧지 않은 7년간, 많은 역경을 넘고 넘으며 개성인(開城人)의 등불로 크게 역할하여 온 “송도민보”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의연히 뻗혀오고 있음도 크게 다행한 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헤어진 지 오랜 부모 형제 친척을 찾을 길은 없지만 이 세 개의 갈래를 잃을 수는 없다. 이들의 삼위일체(三位一體)는 곧 우리의 고향, 잃어가는 송도(松都)의 지주(支柱)가 될 것이며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혹자는 우리 개성(開城)사람들이 썬에는 밝지만 웅졸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행동으로 반증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오해와 괴로움 속에서 싹튼 아집을 버리고 오직 이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깃발 아래 모여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을 유지하고 찾는데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향을 모르는 2세, 3세에게 자랑스러운 고향의 이미지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사심(私心)을 버리고 뭉쳐야 한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개성(開城)과 조상의 얼을 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겠지만 뿌리를 잃지 않고 있는 동향인들은 방법의 차이, 하찮은 이견, 대수롭지 않은 오해를 과감히 묵살하고 이해하면서 자랑스러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개성(開城)을, 그리고 실향민의 마음을 이끌어주도록 흔쾌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모두 마음을 합쳐 돌아갈 날, 이산가족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편협한 생각, 아집, 오해는 모두 훨훨 버리고 추석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경건한 정성과 조상에 대한 효심(孝心), 그리고 뼈아픈 망향을 되짚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개성(開城)을 욕되지 않게, 더욱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되리라 생각한다. 개성시민회(開城市民會), 명예 개성시장(開城市長) 그리고 송도민보(松都民報)는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타향에서 또 다시 맞는 추석에 즈음하여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

1983년 8월 31일

잊을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개성사람으로 개성 고려동에서 태어났다. 고리고개 바로 아래 동네에서 태어나 고향을 잃을 때까지 동문안 예배당 뒤, 관암모 옆 그리고 구남골에서 살았다.

고향에서 쫓겨나 부모를 생이별해야 했던 이산가족이 어디 나 하나뿐이라. 십대의 소년으로 부모 곁을 떠난 지가 엇그제 같건만 벌써 나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50대에 이르렀다. 아버지, 어머니의 숨소리도 생생하고 고향산천이 지금도 눈에 선하건만 한 해, 한 해 타향에서 속절없는 나날을 헤일 수 없이 보내고 있다.

모 일간경제지에 연일 기재되고 있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늘어놓고 있다. 이를 읽다보면 부러운 생각이 앞서며 이에 더하여 심사가 날 때도 많다. 일찍이 생이별한 처지에 한 번 써 보고 싶어도 쓸 입장은 못 되고 그렇다고 읽고 있기만 하니 속이 상한다. 가물거리는 기억도 더듬고, 들리는 듯한 그 분들의 숨소리도 재확인할 겸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관하여 적어보고자 한다.

부모를 생이별한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 함께 이해해 주고 서글픈 마음을 나누며

성원하여 주시길 바랄 뿐이다.

나의 아버지(朴在淸)는 춘파(春波)라는 호를 즐겨 쓰셨으며 박아지(朴芽枝)란 필명도 자주 쓰셔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재미있는 이름이라는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에게서 자주 들은 바로는 서너 살 되셨을 때 이미 글-천자문 등(千字文等)을 깨우쳐 큰할아버지 등에 얹어서서 동네를 다니며 입춘대길(立春大吉) 등을 써 주셨다니 가히 재동 및 천재로 불리울만 하셨던 듯하다.

한문고서(漢文古書)를 항상 옆에 하셨고 방에는 옛 책들이 가득하였던 기억이 난다. 글과 시를 많이 쓰셨으며 우리나라 문예의 선구지인 개벽(開闢)에도 글을 실으셨다는 말을 들었고 1927년 동아일보 신춘현상에 시가(詩歌)에도 입선한 바 있으시다. 개화의 물결이 고루하였던 조선조의 폐쇄성을 타파하고자 용솟음치던 근세에 개성(開城)은 어느 지방보다도 먼저 모든 분야에서 앞장섰다. 옛 영화의 영광을 잃은 우리의 개성은 반항과 배타심이 짙게 깔려 있고 강직과 청렴이 몸에 배어 있는 반면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에 남보다 앞서 남다른 발달을 이룩하였다.

여기에 신문 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그 노력이 잠시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1930년대에 이미 고려시보(高麗時報)라는 향토지가 지방지로서는 월등하게, 전국 규모의 신문 못지않게 알차게 발간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10인 동인(同人)의 일원으로 고려시보 창간에 힘쓰셨으니 그 때가 20대의 약관이셨다. 당시의 10인 동인으로는 거화(炬火) 공진항(孔鎭恒), 청농(靑農) 김학형(金鶴炯), 범사초(凡斯超) 김재은(金在殷), 포영(抱永) 고한승(高漢承), 하성(霞城) 이선근(李瑄根), 송은(松隱) 김영의(金永義), 일봉(一峯) 박일봉(朴一奉), 김구(金龜) 김병하(金秉河), 마공(馬公) 마태영(馬泰榮) 그리고 나의 아버지 춘파(春波) 박재청(朴在淸) 열 분이 있었다. 이 분들이 1933년 4월 15일에 고려시보를 창간하였다. 아버지께서는 고려시보에 많은 시조 외에 즉흥수필, 익살스러운 “개성 인간기”(開城人間記)를 쓰셨다. 특히 “송도시변소론”(松都時邊小論), “금강산 관참기”

(金剛山觀參記)는 장기 연재물로서 흥미있고 유익하다고 하여 널리 애독되었다.

친우인 삼우프라스틱의 임원철(林原喆) 사장은 나의 아버지를 회고할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한복 차림하신 선비이시라고 말한다. 옛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께서는 한결같이 그 다재하심과 호방하심을 입을 모아 칭찬하신다.

생사도 확인 못하고 있지만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그 분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무능하고 무재함으로 인해 올바른 일을 지나침으로써 훌륭한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있다. 현세에 아부하지 않으시고 초연하셨으며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으셨던 그 큰 뜻을 따르려 나는 반성하고 숙고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 계신지 혹은 이미 유명을 달리 하셨는지, 그러나 언제나 옆에 계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듯 착각할 때도 있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려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金富任), 만월대 옆, 전형적인 개성 농가의 장녀로 태어나셔서 어린 나이에 박씨(朴氏)가에 출가하셨다. 아들만 넷을 낳으셨으니 모두에게서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셨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장성하기 전(前)에 생이별로 잃으셨으니 그 슬픔이 어떠하였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남들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미인에 아주 여성다우셨다고 한다. 고개는 항상 숙이고 계셨으며 행동은 곱고 깔끔하셔서 그 미모와 함께 시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른 새벽 삼포밭에 가실 때는 며느리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이 애처러워 몰래 일어나 도망가듯 나가셨다고 한다. 혹시 며느리가 미리 알고 이른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 화내시고 일부러 진지도 안 드셨단다.

눈물이 남보다 많으셨던 어머니, 자식 잃고 얼마나 울으셨을까? 모시지 못하고 사는 한을 풀 길이 없다.

나는 막내로 태어나 아직도 응석 부릴 나이인 열일곱에 생이별로 부모를 잃었

다. 다시 만나 모실 기약이 없는 이 비극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그러나 나와 같은 처지의 모든 동향인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 하고 원망스러운 이산의 비극을 함께 통곡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글을 읽다가 불현듯 부러움과 시기심이 생겨 두서없는 사설을 늘어놓았다. 혹시 비위에 거슬리는 하소연이나 과장된 자랑이 있더라도 현세의 조국분단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으로 들어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도 어느 곳, 어느 하늘 밑에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지, 아버님의 친구분들을 만나볼 때는 정말 만나 뵙고 싶고, 모시고 싶은 생각에 꿈속에서까지도 해매고 있다. 마음은 간절하나 가 뵙지 못하는 다동(茶洞) 소재 송도(松都) 실향 노인 '만남의 사랑방'은 나에게 매우 뜻 깊은 곳이고 그 곳에 모이시는 어른들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다. 힘 자라는 한 모시고 싶고 기쁘게 해 드리고 싶으나 마음뿐이다.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온 송도의 실향민 여러분, 무진년 새해를 맞아 고향 하늘을 향하여 큰 절을 드립시다. 차례상을 차려 놓고 생사를 확인 못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며 정성껏 절을 올립시다. 벗지 못할 우리의 불효를 빌면서.

부모님을 생이별하고 개성을 떠나 온 동향인 여러분의 행운을, 그리고 더 좋은 일만이 새해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따스한 모임 개성 시민회와 그 횃불인 "송도지"의 앞날에도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아버님께서 1933년 6월에 지으신 시조 "선죽교"를 손자인 나의 막내 수종(洙琮)이가 서투른 붓글씨로 써서 액자를 만들어 거실에 걸어 놓았다. 아버님을 만나 뵙지도 못한 며느리 그리고 손자 수근(洙槿), 손자며느리, 손녀 수희(洙姬)는 오늘도 액자를 자랑스럽게 올려보고 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어 본다.

1988년 무진(戊辰) 새아침

선죽교

오백 년 끼치신 피 상기들에 붙었는데
거룩한 입의 뜻은 본받는 이 바이없어
교화에 애끓는 유수 목 메이어 울터라

춘파(春波) 1933년 6월

족보 유감(族譜有感)

6·25 동란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심대한 것이었다. 이루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비극을 남기었다. 무수한 사람이 죽어 가면서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가정마다 가족을 잃은 눈물겨운 일들을 당했으며 강토의 모든 것은 파괴되었고 없어졌다.

아침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40년이 넘도록 근접도 못하는 달나라보다도 멀고 먼 곳이 되었고 함께 다정하게 살던 가족은 서로 헤어져 오랫동안 소식 한 번 못 듣는 별다른 세계의 사이가 되어 버렸다. 당해보지 못한 외국 사람들은 조금도 이해 못하는 이 비극, 나는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비극을 겪어 왔던 것이다. 뗏뗏이 있었던 집안의 족보를 못 갖고 나온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더라도, 송두리째 뿌리를 못 찾게 되었으니 6·25는 나를 아주 근본도 없는 막된 집안의 후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참 갈팡질팡 허덕이던 50년대에야 분단이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므로 뿌리에 관하여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첫아이를 낳고 나니 앞이 캄캄하였다. 우선 향렬을 알아야 애 이름을 지을 것이 아닌가. 생각다 못하여 전화번호 책을 뒤져 보았다. 첫애를 낳았던 1960년대 초에는 개인집에 개인 명의

로 된 전화는 그리 흔치 않았지만 마침 박씨로서 이름 끝 자가 나의 향렬인 “현(鉉)”자를 갖는 분의 이름을 찾아 전화로 물어 보았다. 본관(本貫)을 물어 나와 같은 밀양(密陽)이면 그 분의 다음 향렬이 무엇인지 여쭙어 보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전화번호부에는 세 분이 “현(鉉)”자를 갖고 있었다. 한 분은 정원수 농장으로 유명한 보록원 주인으로 나와 이름이 똑같았는데 나의 사정을 듣고는 무척 안타까워하였으며 다른 한 분은 전화한 나를 경계하는지라 입장을 설명하는데 진땀을 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마침 본관이 달랐다. 이와 같이 수소문하여 향렬을 내 마음대로 “鉉”자 다음에 “수(洙)”자를 결정하였으니 웃어넘길 수도 없는 기막힌 사연이 아니겠는가.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 때까지는 원(原) 족보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 하여 그를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파(派)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 일은 남대문에서 김 서방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난감한 일이 닥쳐왔다. 손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향렬은 또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듣직하여 항상 아끼고 있는 며느리 혜경(惠京)이 “향렬도 없는 아이 낳게 됐다.”는 말을 농담삼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들렸다. 사촌인 문현(文鉉) 형님과 인척이 되는 인성(仁成) 형님께 부탁드려 밀양(密陽)을 다녀오시게 하였으나 족보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실날같은 단서도 알아낼 길이 없었다.

손자의 향렬은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길밖에 없었으니 金水木火土의 순서에 따라 “영(榮)”자를 향렬로 정한 것은 순전히 집안 식구들의 심사숙고에 의한 것이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며 한편으로는 우스운 일인가. 장바닥에서 물건 고르듯 골라잡을 수 있는 것이 향렬 자(字)란 말인가?

나는 계속 족보 찾기에 노력하여 박(朴)씨 종친회 또는 족보 관계의 전문가를 찾아보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곳에서는 돈을 내면 멋지게 족보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도 있었다. 유명한 이름으로 엉터리 족보를 만든 사람이 많다면 감쪽같이 줄을 이어 그럴 듯하게 갖추어 주겠다는 은밀한 제의인 것이었다. 가짜 족보라도 갖추려는 한심한 사람들이 없지 않기에 이와 같은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족보나 가짜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니 더욱 그들의 제의에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족보 찾기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종사촌 홍종규(洪鐘奎) 형님도 백방으로 도와주시고 있다. 얼마 전에는 족보도서관이라는 곳을 찾아 가셔서 1930년대에 개성에 살던 밀양(密陽) 박(朴)씨의 줄기를 찾아 주셨다. 당시에 개성에는 밀양(密陽) 박(朴)씨로는 공간공파(恭簡公派)가 살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게 되었으며 그 파(派)의 향렬자도 알게 되었는데 나의 자식 대(代)의 “수(洙)”자(字)는 정확하게 맞았고 손자 대(代)의 “영(榮)”자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크게 안심하게 되었다. 아버님 대가 69세손이시며 향렬이 “재(在)”자임이 확인되었으나(아버님 함자는 在淸임) 원본 족보(原本族譜)를 찾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듯 하다.

뿌리 찾는 것이 무엇인지? 왜 뿌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집념은 변할 수 없고 찾게 된다면 쉽게 아물 수 없는 6·25의 비극 중 일부나마 치유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족보를 찾게 될 것인가 골몰하고 있다.

월남하지 못하신 정현(正鉉), 성현(聖鉉) 두 형님은 지금 어찌 되셨는지 부모님의 생사를 생각할 적마다 함께 떠오르는 그리운 분들이다. 6·25 당시 정현 형님은 개성상업학교 교사로 계셨으나 북의 점령 하에서 강제의용군에 끌려가신 후 소식을 알 수 없다. 극렬한 좌익부역자였고 나의 형을 의용군으로 몰아 보냈던 형님의 친구가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 착하고 말이 적으며 실력이 남달랐던 형님을 생각하며 새삼 북괴의 전

쟁도발을 저주하게 된다.

훌륭한 두 형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나의 집사람은 생사를 모르는 시아주버니의 안녕을 절에 갈 적마다 빌고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사진 한 장 제대로 없지만 집의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큰아버지들이라고 항상 알려주어 왔다. 정현(正鉉) 형님은 해방 전 개성중학(開城中學)을 졸업하시고 경도제국대학(京都帝大)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셨다. 그러나 패망이 임박한 일본에서의 수학이 여의치 못하자 귀국 후 경성제대(京城帝大)에 전학, 지금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성현(聖鉉) 형님은 서울대학교 농대(農大)를 졸업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집안임을 은근히 자랑하여 왔고 우월감을 갖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명확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여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던 중 나의 막내 수종(洙琮)이가 아주 오래된 서울대학교 졸업생 명부와 학적부를 뒤져서 큰아버지의 명단을 찾아낸 것이다. 서울대학교 1949년도(졸업년도가 더 빠른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공과대학(工科大學) 화학공학과(化學工學科) 졸업생 명부에 경기도(京畿道) 출신으로 된 이름 석 자가 엄연히 기록되어 있었다. 크게 부각되어 보이는 이름 석 자, 참으로 반갑고 자랑스럽게 대하고 보니 마치 형님(兄任)을 만난 듯 그리고 족보를 찾은 듯 기뻐다. 수종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도 다 핏줄이 시킨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족보 없는 자식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타향에서 일가를 이루게 된 것도 다 조상님들의, 못 나오신 부모님과 두 분 형님의 가호와 은덕이 아닌가 믿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추석에 조상님들, 생사도 알 수 없는 부모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의 큰아버지들께 정성껏 절을 올리며 나의 족보에 얽힌 사연을 적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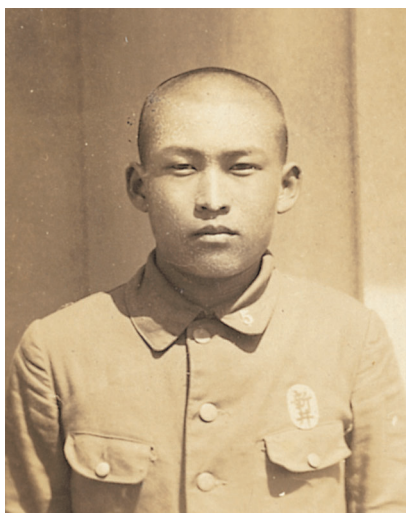
1989년 9월

〈후기〉 정현 형님의 추가 소식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계신 최재민(崔濟旻) 선생님께서 개성시민회(開城市民會)를 통하여 서신을 받은 지 오래 되었다. 서신을 받고 너무 감동하여 곧 난서(亂書)로 회신하였으니 결례한 듯하다.

최재민 선생님은 개성 북부(開城北部)에 있는 영생(永生)유치원, 초등학교는 만원(滿月) 30회를 거쳐 개성중학(開城中學)을 1945년에 졸업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필자가 전에 송도지(松都誌)에 기고한 “족보유감(族譜有感)” 말미에 기술한 저의 큰 형님(朴正鉉)에 관하여, 미처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 오셨다. 형님(兄任)과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서울대학교 공과대학)까지도 동기동창이시라는 선생(先生)의 생생한 옛 소식 및 저의 형님에 관한 명세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욱이 1945년도 개성중학(開城中學) 졸업사진을 지금도 잘 보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무척 고향을 그리고 아끼시는 분으로 흠모하게 된다.

우리 송도인(松都人) 모두와 함께 하루 속히 잊지 못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갈망하며 최 선생님(崔先生任)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1945년 초, 박정현 형님의 중학교 졸업사진.
최재민 선생님께서 후에 보내주셨다.
일제 시대에 창씨 개명을 하여 당시 형님의 이름
은 아라이 마사오(新井正雄)였다.

추석 연휴에 대하여 나라 안이 유난히 떠들썩하다. 귀향길의 교통상황은 어떨 것이며 예상하는 교통 혼잡을 피한 귀향은 이리이러하게 하여야 한다는 방안 제시 등 온통 시끌벅적하다. 이 모두가 도시 나에게는 아무 연관도 없는 것들이며 시큰둥한 시끄러움이다. 이는 나만이 아닌 모든 실향민의 한결같은 심정일 게다. 더욱이 나와 같은 그리고 우리 개성(開城)사람들 같이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못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서러움일 것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시시각각 귀향길 교통 상황이 숨 넘어 가고 있는데 무로히 의자를 꿰어 차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심사가 말할 수 없이 뒤틀린다. 에라하고 집사람을 옆에 태우고 차를 몰고 나섰으나 고작 갈 곳이라고는 고향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임진각이나 강화뿐이다. 송악산이라도 먼발치로 한 번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강화로 목적지를 정하여 떠난 것이 10월 1일 아침 열 시경이었다.

김포평야를 달리면서 문득 40년 전 생각이 눈앞에 떠오른다.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잠시 인천(仁川)에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답시고 강화로 돌아오던 때가 1951년 4월 말경, 터벅터벅 걸어서 부평을 거쳐 김포

읍에 이르니 새벽같이 인천(仁川)을 떠났는데도 벌써 석양의 해가 기운다. 읍을 지나 부지런히 걸어서 하룻밤을 많은 피난민과 함께 보낸 곳이 도사리(道沙里)인데 이 곳까지 오늘 자동차로 달려와 보니 순식간이다. 그 때 도사리(道沙里) 민가(民家)에서 얻어먹은 저녁밥 한 그릇은 꿀맛이었는데 오늘은 아직 아침밥도 내려가지 않았다.

당시 영국군(英國軍) 연방사단 제29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군하리 통진 중학교(中學校)를 지나서 단숨에 언덕을 오르니 강화가 흰히 보이고 성동나루 앞의 강 같은 바다가 눈앞에 들어온다. 강화를 찾던 그 때 이 언덕에 올라서서 뻗히 보이는 강화를 쳐다보며 마치 고향에 오는 듯이 반겼던 생각, 그리고 성동나루를 나룻배로 건너던 옛 일이 이제는 까마득한데, 오늘은 시원스럽게 바람을 가르며 강화교를 순식간에 건너갔다.

총을 메고 분주하게 왔다갔다 했던 강화읍을 가로질러, 선원(仙源) 김선생(金先生) 순의비(殉義碑) 건너편에 위치했던 내가 소속하여 있던 유격부대 편의대 본부 앞을 지나서 북문(北門)으로 올라갔다. 옆으로 고려궁지(高麗宮址)를 끼고 돌아 올라가면 북문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고려(高麗)라는 글자를 보니 마치 고향 송도(松都)에 온 듯 착각하게 된다.

북문(北門)에는 오래 전부터 망원경을 빌려주는 노인이 계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곳에 계신다. 백 원을 지불하고 멀리 내려다보이는 개풍군을 휘둘러 본 다음 송악산이 위치한 곳을 주시하여 보니 오늘따라 운무에 싸인 북녘 땅이 선명치 못하고 송악산은 희미하게나마도 보이지 않는다.

섭섭한 마음을 뒤에 하고 우리는 송해면(松海面) 하도리(下道里)에 있는 반공 유격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였다. 제5816 유격대 전우회의 임원학 회장(林元學會長), 임수(林壽) 총무와 모든 회원들의 정성이 깃들여 있는 이 위령탑과 기타 묘비들이 새삼 나의 편의대 시절을 회상케 하며 당시 무명으로 전사하신 분들의 명

복을 진심으로 빌게 된다. 17세 뺨뺨머리로 힘겨운 총을 메고 전투에 참가했던 일과 눈 앞에서 혹은 옆에서 쓰러져 가신 옛 전우들을 생각하며 미여지는 가슴을 달랠 수가 없었다.

송악산을 못보고 가게 되어 아무래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포에 위치한 애기봉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통진중학교가 있는 군하리를 옆에 하고 시골길로 접어드니 한적하고 평화스러운 풍경이 전방(前方)임을 의식할 수가 없다. 김문소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으면서야 비로소 전방(前方)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애기봉에 오르니 북측의 요란한 방송소리에 차츰 긴장을 하게 되고 흰히 내려다보이는 곳이 전혀 갈 수 없는 북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곳이 바로 최전방임을 실감하였다. 한참 신나게 떠들고 있는 북측 대남방송이 바람결에 잘 들리다가 멀어지곤 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었지만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 듯 하였다.

뻗히 내려다보이는 북녘땅 바로 아래가 하조강리 그 옆에 조랑촌(조랭이)이 조그만 포구를 이루고 자리하고 있다. 내가 편의대에 있을 때 여러 번 야간 침투하였던 곳이 바로 이 조랑촌으로서 머릿속에 항상 그려보곤 하였던 지형이 지금 내 눈앞에 선명하게 놓여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한 광활한 강이자 곧 바다인 이 곳에 그림같이 놓여있는 조랑촌 앞은 서해안 특유의 흙탕물에 넓은 개흙밭을 이루고 있고, 밀·쌀물 시에는 그 물살이 대단하다.

그 때 야간 전투 중 우리 전 대원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은 밀물로 만수가 되었다가 쌀물로 바뀌고 또 밀물이 되어 그 물살은 사나웠으며 적의 총탄은 빗발치고 간간히 날아오는 포탄은 바다에 물기둥을 일으키고 있었다. 적의 총포탄도 문제였지만 밀쌀물에 대응하여 움직일 때 더욱 위험한 것은 바닥에 패어 있는 골창이에 빠질 경우인 것이다. 바다 속 골창이에 빠지면 거의 헤어나기가 어려운데 개흙물 속을 분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적의 공격은 가중되어 한 발짝이라도

육지에서 멀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옆에서 발을 헛디뎈 물속으로 사라지는 전우를 애타게 건너보면서 속수무책이었던 위급한 때에 나는 틀림없이 보았다. 나의 할아버지인 듯한 노인이 막막한 바다 위에서 손짓하시는 것을. 나는 허둥지둥 손짓하시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바다 깊이는 얇고 육지에서의 거리는 먼 안전지대로 갈 수 있었으며 곧이어 달려온 해병대 상륙정에 무사히 오를 수가 있었다. 당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할아버지가 계시던 조랑촌 앞바다가 지금은 무심히 그리고 한가하게 내 눈 앞에 있는 것이다.

조랑촌 옆으로 멀리 영정리가 보이고 그 너머 구릉들에 묻혀있는 후능저수지를 어름하여 본다. 더운 여름철 부모님과 홍종규 형님네와 함께 놀이를 가서 쉬던 곳이다. 어머니는 버스 차부에서부터 멀미를 유난히 해서 애타하였으며 도착하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홍종규 형님의 수영은 일품이었고 헤엄쳐 건너실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밤에는 아버님께서 친구들과 마작으로 무더운 여름밤을 즐기셨고 어머니는 뽕 속까지 얼리는 냉전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모기의 극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곳, 밤이면 모닥불로 모기를 쫓았다. 더욱 눈에 선한 것은 유격대에 있을 때 이 곳을 여러 번 지나쳤으며 그 때마다 다시 돌아보곤 하였던 일이다.

후능저수지 넘어 저기는 청교면, 박문현 형님이 근무하시던 곳이며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새들이 우저지는 아래 한가히 지나던 달구지가 머리에 그려진다. 그 너머가 바로 고향, 개성(開城) 시가지겠지. 개성(開城)하늘이 손에 잡힐 듯하고 목청껏 부르던 대답하여 올 듯한 고향을 우리는 왜 못 간단 말인가. 아! 아득한 하늘 아래 송악산이 보인다. 그 옛날 개성 시내에서 올라다보던 송악산과 지금 내가 희미하게 바라보이는 송악산을 겹쳐보니 꿈에도 잊지 못하는 틀림없는 진산(鎭山), 송악산이 보인다. 아버님(春波 朴在淸)께서 송악산을 예찬하는 글을 써 고려시보(高麗時報)에 실으셨는데 그 글을 생각하며 다시금 송악산을 바라보았다.

떨어지지 않는 발을 달래며 애기봉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매우 가

볍고 편안하였으며 나도 고향을 다녀왔다는 착각에 젖게 하였다.

모레가 추석이다. 추석날 아침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할아버지를 위시한 조상님에게 정성껏 인사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집에 들어서는 몸가짐이 한결 아늑하였다.

언제나 그 날이 올지, 내가 직접 신나게 차를 몰고, 전연 생소할 집사람,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태우고 봉동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고 개성 시가지로 들어설 날,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친척들이 반겨주며, 산천도 아는 체, 인심도 우리를 포근히 받아 줄 그 날이. 그 날 나의 눈은 눈물로 아무 것도 못 보겠지만.

1990년 10월 1일 서울 동송동(東崇洞)에서

작가(作家) 박완서(朴婉緒) 씨의 장편소설 “미망(未忘)”을 읽고

친우, 한독약품의 대표이사 김조형(金祖炯) 군(君)의 격찬과 권고가 있어 장편소설 “미망(未忘)”을 읽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처음 몇 시간은 대충 읽어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 페이지, 한 줄 속독하였다. 내용이 너무 감명 깊었고 상세히 설명되는 역사적이고 향토적인 기록들에 매료되었다. 더욱이 고향 개성에 관한 것이었기에 나는 이 주제넘은 독후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출생지인 개풍군 청교면에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고향산천 및 미망의 세월에 대한 내용을 붓에다 쏟아 부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독자로서 잊혀져 가는 고향의 모습과 그 흙 내음을 되살려 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모래땅이 빛나는 깨끗한 개성 시가지,
- 신선하고 상쾌한 송악산 바람이 충만한 이 동네 저 동네들,
- 작가가 태어난 청교면을 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남문 고개,

- 그 옆에 그려지는 용수산의 자태.

소설 속에 나오는 지명들이 너무나 친숙하다.

동해랑, 서해랑, 가주물다리, 사직단, 황학정, 인삼장, 부산동, 자하동, 채화동, 백수동, 천동, 남성병원 등이 나를 소설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동네 이름들이 희미한 기억 속에 뒤를 잇는다.

고리고개, 노적봉, 구남골, 보수골, 당성다리, 노군다리, 음지고개 등 끝이 없다.

삼포가 많았다는 셋골이 청교면의 어디쯤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린시절 부모님을 따라 여름 피서지, 후능을 갈 때 지나던 고남문 고개 너머 첫 마을, 나의 사촌형님(박문현, 朴文鉉)께서 해방 후 근무하시던 청교지서가 있던 곳, 유격대의 일원으로 개성 수복을 바라며 총 메고 분전하던 1951년 5월, 시내 진군 직전 머물던 중대본부가 위치하였던 그 곳이 셋골이 아닐까, 아니면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구정 초나 추석 때 나는 문산의 임진각, 강화의 북문, 김포의 애기봉을 찾아가곤 하였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향땅, 조상이 묻혀있는 그 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참배도 하고, 먼발치로 송악산도 쳐다보고 향수도 달랠 겸해서.

그러나 나는 이 책 미망(未忘)에서 더욱 가깝게 고향땅에 접할 수 있었고 향수도 달랠 수 있었다. 미처 몰랐던 사실(事實), 사실(史實)들을 이 소설 속에서 알게 되었으며 작가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감하였다.

- 개성사람은 흰쌀(白米)을 이(李)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 서울로 내려가고 개성으로 올라온다는 개성사람의 철저한 고집,

-개성전기주식회사는 전국에서 일본인이 개입하지 아니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전기회사였다는 사실,

-해방 직후 미·소군이 진주하던 초기에는 미·소의 점령경계가 아다리였다는 것,

-개성여인들은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민다는 특이한 관습,

-별다른 개성의 혼인예식과 큰머리, 머리어멈에 관한 설명,

-아이를 낳으면 인줄은 걸지 않고 아들인 경우는 유산경기부정(有産慶忌不淨), 딸인 경우 유산기부정(有産忌不淨)이라고 대문에 써 붙인다는 사실.

작가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가 전부 특성상 개성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나도 이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작가는 실명 또는 유사한 가명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우리에게 더욱 실감나게 한다. 개성의 거인이셨던 공성학(孔聖學) 그리고 공진항(孔鎭恒) 부자(父子)와 그들이 설립하신 만몽산업주식회사(滿蒙産業株式會社), (1936년 설립)에 관한 역사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개성의 옛 혼인예식에 대한 흥미 있는 소개를 읽으면서 50년 전 친구식으로 올리던 내종사촌(內從四寸兄) 홍종규(洪鍾奎) 형님(공진항 씨 사위) 결혼식과 집안잔치 광경이 아련히 기억 속에 떠오른다.

기차가 개통된 후 개성에서 서울까지의 기차여행 이야기 중 역 이름이 나열된다.

개성 봉동 장단 문산 금촌 일산 능곡 수색 신촌 서울,

큰 형님(朴正鉉)께서 서울대학교를 매일 통학하시던 그 가까운 곳이 40여 년 동안이나 갈 수 없는 먼 곳이 되었다니. 소학생시절 친구 이우천(李愚天)과 처음 서

울 나들이 하던 때 지나던 정거장들, 아버님(春波 朴在淸)께서 1930년대에 고려시보(高麗時報)에 연재한 금강산관참기(金剛山觀參記)에서 개성을 떠나 지나는 기차역들의 모습을 그리셨는데 거기에도 이 정거장들이 생생히 열거되었다.

서울 행 기차 속에서의 순박한 시골 분들의 개화기 대화도 감명 깊게 한다.

“저 양반 저승도 기차 타고 가라면 얼씨구 가겠네.”

“두고 보시구려. 머지않아 상여도 기계로 끄는 세상이 올 테니.”

상여를 기계로 끄는 영구차를 예언한 것이 되었다. 아버님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935년에 처음으로 개성에서 영구차를 썼다는 옛 이야기가 생각난다.

개성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특수한 용어들이 이 소설에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대화가 순수한 개성사투리로 이어지고 있다.

나갓줄(小川, 작은 개천), 오락지(桴), 보꼭(천정), “있겠시니까” “그러시니까” “그랬시다 그러” “어드렇게 허라구요” “이랬시다요”.

한중 속에서 부르는 관암 소리도 생생한 고향소리임에 틀림없다.

나는 몇 년 전 송도지(松都誌)에 다음과 같은 “개성(開城)사람 자랑” 열 가지를 열거한 적이 있다.

1. 뚜렷한 주체성(主體性)
2. 절약과 검소
3. 비축과 저축

4. 신용과 신의
5. 밝은 사리
6. 철저한 자립정신
7. 청교도적 결벽성
8. 협동정신과 상호협력
9. 정도(正道)와 교육열(教育熱)
10. 자유주의(自由主義) 정신(精神)

작가는 소설 속에서 개성인(開城人)을 묘사하고 부각시키는데 나의 개성인 자랑과 많은 부분 부합되었다.

삼포와 장삿길을 설명하면서 특이한 기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개성인의 생활 특성을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외빈내부(外賓內富)의 개성인, 안채는 기와 집 바깥채(사랑채)는 초가로, 잔치는 풍요하게, 상하 구별 없고 귀찮은 격식 없는 화목한 잔치 풍경, 있는 집안 살림의 알뜰함과 드난살이의 끈은 행동거지, 개성여자의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안방살림, 나는 요새도 개성여자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면 항상 으쓱한다. 장 닦고 집 잘 치는 내성적인 여인상을 그리는 한편 남편을 타향으로 장사 보내놓고 큰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가는 강인한 정신력 및 고생하는 남편을 보필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수리에 밝은 여장부상의 개성여자가 크게 부각된다. 작가가 소망하는 개성 여인상인 듯도 하지만.

일본인 상품과 불매운동이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 없이 합심된 작품이었다던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원하던 개성인의 독립운동, 친일로 위장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아낌없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방 후 공치사 한 번 아니하고 오히려 친일파란 수모까지 감수하는 개성인 기질,

개성사람중에는 역사에 부끄러울 철저한 친일 반민족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나도 동감하고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사실들이다.

조합이라는 집합체의 형성과 활동, 삼포의 운영방식 등 개성인의 신의 있는 협조정신을 이 소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자본과 타협하거나 또는 종속되면 서까지 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그다지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개성상인의 주장이 곧 나의 지론이며 지표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성인의 자랑스러운 결벽성이며 요즘의 난국이 배워야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왕국(高麗王國)이 멸망한 후 개성사람들은 관을 멀리하고 오직 상(商)에만 전념하였다. 그 특성은 오늘날까지 후예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도 아니하고 편승하지도 않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깔끔한 상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6·25 이후 어렵게 종삼(種蔘)을 월남시키는 내용 또한 이 소설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옮겨진 종삼은 송도 전래의 특산물을 끊이지 않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 곳곳에서 더욱 발전되어 고된 피난살이를 극복케 하여 주었고 재력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 화단을 가꾸고 화초를 키우는 개성 가정의 아름다운 정경, 나는 어린 옛적, 화사하던 나의 집 화초들을 그려본다. 매화나무, 석류, 유도화, 치자나무, 무화과 곱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화단.

옛날부터 자식 가르치는 복잡한 송방(松房)의 관습, 이렇게 단련되고 성장한 다음 세대들의 틀림없는 답습 또한 소설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한영서원을 위시한 신교육기관의 설립과 이 곳에서 다른 지방보다 앞서 애국심, 독립운동, 배일사상 및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개성사람들의 결점도 준열하게 지적하고 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또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결벽성이 지나쳐 아집이 되고 타협을 모르게 만든다.

이것저것 재는 것이 지나쳐 사회에 기여되고 보람 있는 사업보다는 소규모의 알찬 금융업, 부동산에 치중한다는 점, 사회활동의 지나친 자제로 적극적인 사회진

출이 없다. 적극적인 일반인 독립운동이 다른 고장에 못 미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다는 지나친 자존심과 그에 의한 고립은 결국 인간미를 상실하였다. 절약이 지나쳐 구두쇠가 되었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였다. “구두쇠가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 보다는 아껴 벌면서 살아 생전에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소실을 두는 이중 살림이 지나쳤다. 소설에서도 이 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는데, 개성사람은 첩을 잘 둔다는 농담을 들을 때 매우 수치심을 느낀다. 이유와 핑계는 많겠지만 미신을 섬기고 믿는 것이 개성에서는 매우 극성이었다.

이 결점들은 옥에 티가 되었다. 박완서(朴婉緒) 씨의 “미망(未忘)”을 읽고 장광설의 독후감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지적의 고향을 가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개성사람들에게 향수를 달래고자 이 책을 권하고 싶어 이렇게 긴 말을 하게 되었다. 나만 이 책을 읽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임신년(壬申年) 구정(舊正)도 지나고 있다. 새삼스럽게 그려보는 고향산천, 가까운 곳이면서 가족 일가친척도 못 만나 보는, 조상님이 묻힌 그 곳을 더욱 간절하게 그리는 이 때에 이 “미망(未忘)”을 여러 동향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다. 동병상련을 함께 달래보자는 일념에서.

1992년 2월 서울 동숭동

“눈에 선한 송악산, 꿈에도 잊지 못하는 나의 고향, 개성(開城)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나…….”

한참 무더운 날씨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온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금년에도 잊지 않고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귀성차량이 줄을 잇고 도로를 꽉 메우고 마스크가 교통 혼잡을 전쟁과 비유하여 숨 넘어가게 떠들기 시작하면, 갈 곳 없는 실향민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게 된다.

고향을 떠난 지 어언 41년,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사십여 년이 되며 올해로 41번째의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옛된 소년의 몸으로 고향을 떠났고, 부모형제, 친척을 이별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 앉은 초로가 되었다니. 그 긴 세월 남들처럼 귀성이다, 성묘다 하고 들떠 보지도 못하였는데 언제쯤에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런지 기약할 수가 없구나.

그간 추석이 되면 고모님(洪鍾奎氏 자당) 묘소를 찾기도 하였고, 임진각, 강화 북문, 김포 애기봉에 가기도 하였다. 멀리 건너다보이는 고향산천을 향하여 생사

를 알 수 없는 부모님, 형님들을 불러보고, 조부님을 위시하여 여러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곤 하였다.

금년엔 마침 새로 자유로를 개통하고 통일전망대를 임진강변에 조성하였다 하여 이 곳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성묘길 교통이 대단하리라 예상하여 새벽같이 도착하여 두 내외가 쓸쓸히 차례를 끝낸 때가 아직도 이른 아침나절이었다.

성산대교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서 난지도 앞을 지나 그 유명한 행주산성을 옆으로 끼고 행주대교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은 드라이브 기분이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변으로 올라서니 막 개통된 널찍하고 시원한 자유로가 우리를 맞이한다. 한강 하류의 북단을 달리는 이 강변도로는 넓은 강변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공간에 자리하여 여유 있게 뻗어 있다.

신나게 한강 하류 강변을 달리면서 나는 문득 그 옛날 중공군 대부대의 일부를 조우하였던 개성 시내 시가전을 회상하게 한다. 1951년 5월 중순, 중공군 춘기 제 2차 공세가 시작되어 소강상태이던 전선은 물밀듯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아군이 일보 일보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 중공군이 서울에 최근접으로 침투하였던 곳이 마포에서 약 이십 리 떨어진 이곳 한강 하류였다. 아군의 필사적인 방어와 용감한 반격으로 이곳에서 퇴각하던 중공군이 개성에 입성하여 있던 유격대와 시내에서 조우하여 치열한 시가전을 전개하였던 때가 5월 23일로 기억된다.

그 때 그 숨 가빴던 일진일퇴의 전투를 회상하며 달리던 우리는 곧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한강 건너편은 김포군으로 우리 땅이며 임진강 건너는 북녘 땅이었다. 자유로가 끝나는 곳에 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오두산, 그 위에 아담하게 전망대가 세워져 있다. 이 곳이 새로이 개설된 경기도(京畿道) 파주군(坡州郡) 탄현면(炭縣面) 성동리(城東里) 오두산 통일전망대이다.

전망대에 올라 한 눈에 들어오는 강 건너를 바라보니 착잡한 생각을 어떻게 표

현하여야 할 지 알 수 없다.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들어가니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서부터가 바다인지 구분이 어렵다. 큰 강 왼쪽에 김포반도가 아늑하게 보이며 애기봉 위에 우뚝 서 있는 전망대가 새로 지은 오두산 전망대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마침 밀물 때라 시커먼 개흙벌이 흥측하게 드러나 있다. 저 곳이 유격대 대원이었을 때 죽느냐, 사느냐 싸우던 곳이라 다시 한 번 그 때의 전투를 회상하게 한다.

강 오른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은 능선들, 골짜기들이 줄을 잇고 있고 임진강 상류 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곳, 이 곳이 미망의 동토 북쪽 땅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 곳을 저들은 판문군(板門郡)이라 개명하였다지만 친숙한 옛 지명은 개풍군(開豐郡) 임한면(臨漢面) 사동리(仕洞里)이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송악산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다. 눈에 선한 송악산, 꿈에도 잊지 못하는 나의 고향, 개성(開城)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나. 이 곳까지 단숨에 왔고 고향이 지척이라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가. 남들은 힘든 교통전쟁이라고 엄살을 떨면서도 즐거움에 겨워하는 귀향길에 오르는데 우리네 실향민은 가까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남들이 이 실향민의 서러움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나의 조부님과 큰 조부모님이 묻혀 계신 산소가 개풍군(開豐郡) 봉동면(鳳東面) 대조족리(大鳥足里) 증산동(曾山洞)에 있다. 바로 건너 보이는 곳이 임한면(臨漢面)이고 그 곳에서 봉동면(鳳東面)이 그리 멀지 않으니 저기 보이는 구름 너머가 그 분들의 산소이리라. 생사도 알 수 없는 부모님들이 계신 곳은 기늙도 할 수 없다.

멀리 조부모님 산소를 향하여 절을 올린다. 유격대 시절 죽을 고비에서 나를 활로로 이끌어 주시던 할아버지 지금도 나를, 그리고 늘어난 나의 식구들인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 이 후손들을 계속 비호하여 주시는 할아버지와 모든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배례 드리고 있다. 언젠가 나도 성묘할 수 있는 세월이 올 때

추석날 오손도손 차례를 올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자유로를 달려서 임진강을 단숨에 건너 널문이 다리를 지나 봉동 산소를 찾으리라. 성묘 후 일로 개성 시내로 달려간다. 야다리를 거치고 남대문을 돌아서 북부길로 접어들어 고리고개를 찾게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인산인해를 이룬 전망대 참관객의 많은 분들이 관광에 들떠서 혼잡하기 이를 데 없다. 슬픈 사연의 실향민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끄럽기 그지없고, 망배단도 형식뿐이다. 그러나 멀리 북녘 땅을 뉘를 잃고 쳐다보고 있는 실향민들 사이에 끼여 나는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 형제와 단란하게 살던 그리고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그 곳을 응시하며 이 곳을 떠나지 못하였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절을 올리며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1992년 9월 11일 중추절(仲秋節)에 서울 동숭동(東崇洞)에서

캐나다 쪽의 사업이 부진하여 한번 시장도 알아 볼 겸, 또 사돈되는 한국 외환은행 현지법인 장명선(張明善) 행장이 부임한 지 근 2년이 되는데 한 번 다녀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서 집사람과 함께 캐나다 땅을 처음 밟아 보게 되었다.

아직도 머무적거리는 늦겨울(이른 봄)의 찬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내린 것이 늦은 저녁시간이었다. 어릴 적 고향친구인 차영신(車永信) 군 내외분이 사돈 내외분과 함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지난밤을 잠 못 이루며 흥분하여 있었다는 부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차(車) 군은 토론토에서 나를 맞이하게 된 것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반가워하였다. 캐나다에 이민 온 이후 고향의 어릴 적 친구를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특별한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반기는 것이었다.

차(車) 군은 나와 같이 고려초등학교 6회생으로 입학하여 2학년까지 한 반에서 공부하다가 선죽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송도중학교에서였으며 6·25사변으로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재 상봉하게 된 것이 이삼 년 전 서울에서였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세워서라도 이야기 하자는 그의 간절함에 끌리어 한 식당에서 청주 잔을 앞에 놓고 모두 모여 앉게 되

자 이야기꽃은 끝이 없이 이어졌다.

고려초등학교의 일·이학년 때의 담임 여선생님 이야기, 초등학교 동기인 임원철(林原喆) 군과 어울려 다니던 일, 송도중학교 때는 몇 반에 속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은 누구누구였다고, 반장은 누구였으며, 아무개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느냐는 등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는 줄 몰랐다.

다음날은 차 군의 집을 방문하였다. 아담한 주택이 알뜰하게 정돈되어 있다. 고향이 다른 그의 부인이 말하듯 부군의 영향 하에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개성인 특성이 그 집에서 금세 눈에 띈다. 아끼고 살뜰하게 살고 있음이 완연하였다. 음료수 및 모든 생필품이 비축되어 있는 여유 있는 삶, 자식교육은 철저하면서 한편으론 자유스럽게, 어디 한 군데 개성사람 기질이 아닌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송되는 송도지(松都誌)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받자마자 시작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으며, 특히 우리의 친우 김조형(金祖炯) 군의 부친이신 김진원(金鎭元) 씨와 졸작인 나의 글은 제일 재미있게 읽고 있다고 한다. 정성 들여 발행하고 있는 개성시민회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게 한다.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아들 네 형제, 예쁜 첫째 며느리, 귀여운 손자들에 둘러 쌓인 차 군 내외, 흐뭇한 표정 속에 다복함이 충만하다. 유난히도 고향을 좋아하고 개성을 자랑하고 있는 차(車) 군은 토론토에 살고 있는 개성출신 여러분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나를 환영하고 함께 고향을 생각하며 옛 이야기를 하여 보자는 뜻에서였다. 그래서 조출한 중국식당에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최재민(崔濟旻) 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서 우수 두뇌로 활약하다 20여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왔다. 나의 맏형인 정현(正鉉) 형님과 호수둔유

치원(후에 영생유치원)의 동기로 시작하여, 만월초등학교, 개성중학교(2회)에서 계속 함께 공부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까지 비록과는 달랐지만 같은 학년도에 같이 수학을 한 분이다. 6·25 생이별 이후 생사도 모르고 있는 정현(正鉉) 형님을 만나 뵙는 듯하여 각별한 정을 느꼈다.

왕정옥(王晶玉) 씨

최재민 씨의 부인으로 전형적인 개성 마님의 품위가 온몸에 넘치는 분이다. 일찍이 금융계에 계시던 부친을 따라 외지로 다녀서 개성에 살던 기간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외모에서 풍기는 빈틈없는 정숙함은 골수 개성분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나의 송도중학교 동기인 김종기(金鍾基) 군이나 절친한 친구인 김종석(金鍾奭) 군과 인척이 된다니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최의영(崔義英) 씨

최재민 씨의 매씨(妹氏)로서 나의 송도중학교 동기이며 아주 가까운 친구 이영호(李永鎬) 군과는 피난길에서 안면이 있었다고 한다. 6·25 당시는 선죽초등학교를 다녔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온 부군 허종수(許宗守) 씨(부산 출신)와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허종수(許宗守) 씨는 차(車) 군과 각별한 사이이며, 화술과 위트로 모임을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 만능 달변가이다. 시종 차(車) 군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좌중을 웃겨 주는 허 선생(許先生)은 부인과 차 군의 영향을 받아 준 개성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다. 나의 송도중학교 동기인 이세장(李世璋) 군과는 대학 동기 동문으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 마치 고향친구를 대하는 듯 친밀감이 든다.

개성출신이 아니면서 많이 동화된 차(車) 군의 부인, 나의 집사람을 위시하여 나의 가장 가깝고 친숙한 사돈, 캐나다에서 한국 금융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명선(張明善) 행장부부. 이 분들이 이날 저녁 즐거운 모임의 면면이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옛 개성에 관한 회고였다. 차(車) 군이 고려초등학교 일·이학년 코흘리개 시절, 나와 동대문 다리 밑 얼음이 언 개천에서 놀던 추억, 내가 게 잡았다(얼음에 빠졌다)는 얼음구멍을 들여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또 나올까 눈이 빠지게 지켜보았다는 이야기, 송도중학교 시절 연극반에 가입한 차(車) 군이 설 재희 씨(당시의 유명한 영길이)와 함께 “가거라 삼팔선”이라는 연극에 출연하여 열연하였다는 자랑, 나의 큰 형님에 관한 생생한 기억을 말해주는 최재민 씨. 내가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 더욱 값진 모임이 되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화제의 초점은 개성사람 자랑으로 모아졌다. 이역만리 외국에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살아온 이 분들의 자랑스러운 이민사. 고향을 결코 잊지 않아 왔으며, 선조들의 강인한 개성상인 정신, 정확한 수리와 기민한 정세 판단, 절약과 검소, 협동과 협력으로 살아 왔다는 이야기는 반복하여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개성사람들은 개성사람끼리만 결혼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개성사람끼리는 거의 사돈에 팔촌이 되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6·25 덕택으로 개성사람과 결혼하게 된 타 지역 사람들(특히 그 자리에 함께한), 행운이 닳아갈수록 들어온 행운의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하자 모인 모두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재미있고 유익한 화제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지루한 줄 모르게 떠들면서 앉아있는 이 캐나다의 개성인들을 새삼 유심히 돌아보았다.

장거리 여행에 버르고 별리 탐독하게 된 오세영 씨 작 장편소설 “베니스의 개성상인”, 그 속의 주인공 “안토니오 꼬레아”, 작가는 실존인물이었다고 추측되는 이

분을 개성사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17세기 초, 임진왜란 직후의 인물로 이태리에 건너가서 역경에 역경 속에 개성상인의 철두철미한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는 안토니오와 현세의 어느 대기업 회사의 유능한 개성출신 경영인, 유명훈을 비교 등장시킨 이 소설, 나는 “안토니오 꼬레아”와 이 캐나다의 개성사람들을 비교, 연결시켜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꾀꾀하고 사리에 밝은 이민생활의 성공담을 높이 평가하여 보고 싶다. 멀고 먼 미지의 세계에 알몸으로 뛰어 들어 훌륭하게 개척하여 온 이 개성사람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언젠가 모두가 꿈에도 그리는 고향에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빌어본다.

끝으로 우리 부부가 토론토 체류 중 따뜻하게 환대하여 준 사돈 내외분, 차(車) 군 그리고 동향인, 만나 뵈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깊이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개성사람들의 훌륭한 삶과 성공담이 앞으로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1994년 4월 2일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고 전총림 씨 지은 “세월의 언덕 위에서”를 읽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 이십여 년, 수천 명의 남과 북 이산가족을 찾아 주신 고 전총림 씨. 그가 이산가족을 찾아 주면서 실제 목격하고 체험한 감동 어린 사연들을 엮어 펴낸 “이 세월의 언덕 위에서”를 읽게 된 것은 캐나다 토론토 거주 친우인 차영신 군과 많은 이산가족들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서둘러 서점에서 구입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을 손에서 떼어 놓 수 없게 된 나는 그 감동어린 사연들에 빠져 들었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슬픈 사연에 눈물을 뿌렸고 감격어린 만남에 함께 기뻐하곤 하였다.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사상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다만 많은 이산가족의 구구절절한 슬픈 사연들을 모두 함께 생각하며 이산가족이 서로 오랜 끊임에서 연락이 되고 재회하게 된 값진 결과들을 재평가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이 모두 남의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내 사연과 똑같은 것들이기에 나는 이 책을 더욱 감사하며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다.

전에 전총림 씨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 분의 깊은 뜻을 미처 몰랐었다. 이산가족 찾아주기 운동에서 보여준 그 분의 열정은 정치, 사상적인 면보다는 인간 사랑에 바탕을 둔 민족애가 더욱 돋보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

분이 처음 북한을 방문한 1979년, 북한 방문을 모두 마치고 북한을 떠나며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의 노력으로 북한의 문호가 활짝 열려지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북의 개방을 인간 사랑에 근거하여 주장한 것만 보아도 그 분을 정치, 사상적으로 잘못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 분의 인간애와 값진 활동들에 찬사를 아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된다.

수룩되어 있는 이산가족들의 슬픈 사연들, 뼈에 사무치는 기나긴 눈물의 세월들, 혈육을 끊어 놓은 비정한 우리 민족의 운명, 지척의 거리에서 생사 안부를 전연 모르는 가족들의 이야기, 그러한 속에서 이산가족 소식을 찾아 주고 못 만났던 이산가족을 만나게 주선하여 주는 사례들을 읽으며 끝까지 책을 놓지 못하였다. 사연 사연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아 남 보기가 무척 민망하였다. 그 분은 말씀하셨다. “이산가족 찾기 사업은 귀찮고 성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세상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준 소중한 일이었다”고.

스스로가 이산가족으로서 누림과의 재회를 눈물겹게 슬회하면서 모든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몸소 체험한 입장에서 상세하고 적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수록된 이산가족들의 여러 가지 경우와 재회의 감격스러운 장면을 일일이 기술하므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사실 그대로, 이산가족 재회 혹은 상호서신 왕래, 소식전달이 얼마나 절실하고 갈망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갈파하였다.

이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6·25전쟁 중, 폭격의 혼란 속에서의 이별, 잠시의 피난에 의한 헤어짐, 남북 군인의 출전에 의한 이별, 전쟁을 전후한 사상적인 결별, 피난 중 서로의 잃음 등등 여러 경우가 있었다. 이산은 가족 간에 여러 경우의 단절을 만들었다. 부모 자식의 이별, 부부 간의 이별, 형제 자매 간의 이별, 친척 간의 이별, 그 이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 개성사람들의 이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현 휴전선의 바로 지척에 위치한 개성은 당시 전쟁 종식이 임박하여 남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잠시 피신의 목적으로 헤어진 경우가 거의 전부였다. 자식은, 아버지는, 남편은, 형은 잠시의 피난 이후 곧 다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고 헤어진 그 간단한 이별이 이같이 길고 긴 세월이 되고 말았다니. 개성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되고 말았다.

학생이었던 자식을 무심하게 떠나보낸 부모들, 사랑하는 처와 어린 자식을 놓고 떠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적적하시다고 자식 하나를 집에 남겨 놓고 떠난 가족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가까운 개성에서 왜 부모와 헤어졌느냐고,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한숨만 앞세웠다. 어느 누가 그 때 이 같은 오랜 이별을 상상이나 하였을 것인가. 이 비극,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이산가족들의 슬픔, 오랜 단절에 우수 같이 흘러가는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하겠지. 이미 사별이 되어 버린 이산가족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을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이 이 상상도 못할 이산가족의 참상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육친의 생사 소식조차 모르는 수십 년, 뼈를 깎아 내는 듯 괴롭고 아픈 세월을 수없이 보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말고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눈물로 이 책을 읽으며 한을 품고 타계하신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며 누가 이 한을 풀어 줄 것인지, 가슴 에이는 슬픔에 젖는다. 나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이다. 고향을 떠난 지 어언 46년. 부모형제, 친척과 헤어진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엎드리면 코가 닿을 지척에 내내 찾아가지 못하다니.

그 분의 따뜻한 배려로 알게 된 고향 소식, 아버님(春波 朴在淸)은 1953년에 너무나 일찍 타계하셨고 어머니는 87년에, 큰 형님(正鉉)은 94년에 한 많은 생을 마치셨다고 알려왔다. 어머니께서 운명하시면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록 목이 메어진다.

사십여 년 전 헤어질 때의 모습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이산가족들, 헤어진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거나, 사진을 보게 될 때의 그 허망함과 놀라움, 이미 옛 모습이 아닌 늙음, 억울한 긴 세월을 흘려버리고 주름살만 남아 있는, 통한의 그림자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십여 년 간 수천 이산가족에게 서로 찾아 주기, 소식 전하여 주기, 상봉을 주선하여 주는 등 동분서주한 고 전총림 씨, 이산가족으로서, 덕분에 오랜 갈망의 소원을 풀은 수혜자로서 그 분 생전의 보람 있고 훌륭한 업적에 깊이 머리 숙이며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득이한 글과 내용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고 방편이라면 깊은 이해가 뒤따라야 되리라 생각한다. 망망대해에서 방황하는 난파선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와 같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편 인도적인 감상과 이산가족의 비애에서 헤어나며 항상 간직하여온 변함없는 나의 주장을 다시 되뇌어 본다. “통일은 절실한 소망이지만 어떤 형태로라도의 통일은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친공적인 통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97년 1월 어느 잠 못 이루는 밤에

김복영 수필집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고서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대하역사소설과 수필을 더 좋아한다. 수필은 간결하면서 깊은 뜻을 간직하고 있으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작가와 함께 공감도 하며, 마음 속으로 반론도 제기해 보는 등, 수필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수필집이 손에 들어 왔을 때, 슬프게 가슴에 와 닿는 제목에 이끌리어 빨리 읽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산가족의 절규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읽기 시작한 나는 한 편 두 편 넘기면서 만사를 제쳐놓게 되었고 완전히 이 수필집에 빠져 탐독하게 되었다.

편안하고 쉬운 문장들, 지나친 가식이 없는 부담 없는 표현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내용 전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흔히 수필하면 설명전개식이고 전문용어의 나열로 생각되는데, 이 선생의 수필들은 단순하면서 재미있고 순박한 듯 하면서, 간단한 듯 하면서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암울하였던 왜정시대로부터 혼란과 비참이 극에 달했던 해방 이후 6.25 전란 중, 그 후의 잘 살아 보려는 몸부림시대를 총망라하여, 작가의 주위를 무대삼아 재

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 수필을 썼다. 작가가 집필에 쏟은 각고의 노력을 생각하여 나는 열심히 읽어 보답하고 있으며, 특별히 감명 받은 책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독후감을 쓰곤 하였다.

김복영 선생의 수필집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고나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슬픈 이산가족의 애절한 편지, 전달될 수 없음을 알면서 쓴 편지로 시작된 수필집은, 무대의 거의 전부가 이제는 갈 수 없는 작가와 나의 고향 개성이다. 못 가고 못 오는, 가깝고도 아주 아주 먼 우리의 간절한 고향이야기가 이 책 속에 가득하다.

이산가족이 되기 전에는 선생과 나는 한동네 살았다. 십이 년의 연령 차이는 고향에서 가까이 모실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양가는 각별한 사이였다. 이제 억지로 떠밀린 세상에 가장 슬픈 이산가족이 함께 됐으니 선생의 구구절절 사무치는 사연들은 마치 나의 일 같고 모든 실향민의 자서전과도 같다. 구수하면서도 가슴 아픈 친구분들 이야기는 멀리 헤어진 나의 친구들을 회상하게 한다.

낮익은 고향 이름들이 등장할 때마다 눈을 감고 옛날 위치들을 그려 보았으며 그 곳에서 있었던 일들로 나의 수필을 만들어 보았다. 수필집에 거명된 추억의 이름들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고 싶다.

선죽교, 만월대, 남대문, 태조릉, 안화사

박연폭포, 서사정, 개성박물관, 관덕정, 호정, 개성역, 철도공원, 송양서원, 안쏘롱 수원지, 송고목장, 사슴목장, 백삼포, 미삼장, 선일공업사, 송고실업장

송도중학교, 고려초등학교, 송악학원, 호수둔(명덕여고), 송도소학교, 정화여학교, 만월 학교, 개성상업학교, 선죽학교, 개성중학교, 궁정학교

가

송악산, 성거산, 천마산, 자남산, 만수산, 진봉산, 덕물산, 용수산, 국사봉

당성다리, 병교다리, 노군다리, 이수교, 채하교, 동대문다리, 충교다리, 입암교

고리고개, 선바위, 소년형무소, 대추모랭이, 신관(성군관), 비둘기성재, 북부기르마골, 백수동, 공설운동장, 광문바위, 쌍폭동, 채석장, 고남문고개, 용아무지, 배우계, 옥우물골, 야다리, 모락재, 오정문, 각골, 동해랑, 서해랑, 반구정, 노적봉, 헬레, 떡적골, 음지고개, 되차리고개, 개바위, 헬레나무장거리, 유람도로

조랭이 떡, 유린관, 청년회관, 개성소방서, 공설운동장 스케이트장, 개성좌, 고려병원, 동문안예배당, 중앙교회, 아메리카 빵집, 남성병원, 서흥동 전매청, 북부유치원, 고려동, 청교면, 임한면, 봉동면

몇 만 번 들어도 싫지 않은 이름들, 수필의 문장 속에 섞여 나오는 이 다정한 이름들, 이 수필집이야말로 개성을 드러 내주는, 고향을 그리는 우리들을 감싸주는 주옥같은 책이다.

개성사람들은 예로부터 장사에 귀재이고 신용의 화신이라고 한다. 문화, 교육면에서도 전국에서 선구자로 평가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에도 힘을 쏟았으니 인삼재배가 그 하나의 독특한 개성인의 자랑이었고, 허허벌판 미개척의 만주벌판에 진출한 만몽산업주식회사가 다음으로 자랑할 만한 업적이었다.

선생은 일찍이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난관과 흑한과 싸우며 만주벌판을 누비던 독립애국지사와 그 곳을 헤매던 이농 방황동포들을 돕고 있던 만주 농장에서의 일들을 수필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매 편의 내용들은 감동적이며 한편 재미있다. 그러나 슬픈 이산가족의 부르짖음으로 가슴에 와 닿는, 못 보낼 줄 알면서 쓴 편지나, 확실치 못한 청취에도 불구하고 띄운 전파편지는 제일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문득 밖을 내다보니 때 아닌 남동풍에 구름이 북으로 날고 있다. 제갈공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남동풍을 보내주어 편지를 북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인가. 보낼 수 없는 편지인 줄 알면서 쓰고 또 쓰고 있는 이산가족이 이 하늘아래 얼마나 많은지, 가지 못하고 쌓이는 편지 아닌 하소연 일기들은 누가 읽어 줄 것인가.

나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차영신 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북한에 살고계신 형님과 조카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으니. 근 반세기 동안 깜깜하게 모르던 소식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무릇 고향 개성을 그리는 실향 이산가족들에게 이 수필집을 권하고 싶다. 잠시나마 향수에 젖어,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이고 감미로운 귀향과 이산가족 상봉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수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성인의 강인한 난관 돌파 의지와 특출한 애국애족 정신에 대하여 한 번 깊이 생각하여 보자. 요즘 당하고 있는 경제파동은 우리 모두의 과소비, 무절제에서 비롯되었다. 무조건 외제 선호로 인해 우리경제는 멎들어 왔다.

“송도지(松都誌) 속에 스민 감회(感懷)”를
송도지 87호에 기고하신 장경태(張慶泰) 선생님께

싸도 일본상점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고, 사돈 떡이 작어도 사 줌으로써 후일 큰 떡을 싸게 팔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입 이상의 지출은 엄두도 안 내고 지출을 줄여 비축하는 개성인 기질이 온 국민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지경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무슨 이유와 핑계로 외화를 낭비하며 해외여행을 즐기던 이 국민에게 외화과동은 필연적이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개성인 기질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무리 외국기업 외국제품이 물밀 듯 밀려와도 끄떡없을 것이란 점을 나는 이 수필들을 숙독하며 다시 한 번 확신한다.

끝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을 모든 이산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특히 이 수필을 정성들여 쓰고 수필집을 예쁘게 만든 김복영 선생께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머지않은 날에 선생과 우리 이산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귀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1997년을 보내고 1998년 신년을 맞이하며

초면에 직접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실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망설이던 중 용기를 내어 지상을 통하여 편지 올리려 감히 붓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멀리 캐나다에 살고 계시며 특히 고향을 무척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지극하신 것으로 느껴 왔습니다. 송도지(松都誌)에 그간 기고하여 오신 많은 글들을 저는 대단히 감명 깊게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최근 기고하신 “송도지(松都誌) 속에 스민 감회(感懷)”는 저를 더욱 감격하게 하여,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절실한 공감감이 저의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체념하고 지내왔으나 생이별한 부모님에 대한 회한의 그리움과 떠나온 정다운 고향에 대한 애절한 향수가 새롭게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퇴색되고 있던 그리움이 다시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메아리 쳐오지 않는 공허 속에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보던 부모님, 내 고향 송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선생님의 “송도지(松都誌) 속에 스민 감회(感懷)”에서 조기 두렵이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엮어나가듯 송도지(松都誌)의 시작부터 끝까지 섭렵한 품평과 망향의

부추김은 저를 다시금 격동시켰습니다.

그 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자랑, 향토지에 대한 애정이 다시 활발하게 저의 마음 가득히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가족들을 지척에 두고 못 찾아가는 애절한 실향민 개성사람들에게 확실한 표현과 간절한 묘사로 잘 알리시고 있는 선생님의 글은 우리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밀하고 풍부한 문장들은 제 마음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졸필 “개성유격대”를 과분하게 읽어주시고 그 때의 정황과 사연을 깊이 이해해 주신 선생님의 관대한 배려에 존경을 금치 못하며 감사의 뜻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박했던 전황에다 짧은 소견의 어린 나이였기에, 그 때의 모든 것을 충분히 기록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못내 아쉬워했는데, 정확한 이해와 예리한 해독으로 제 뜻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독하여 주신 점, 매우 황감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특별한 경로를 통하여 부모님의 생생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재회를 갈망하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아버님, 在字 淸字(호 春波)는 이미 아주 아주 오래전 1953년 6월 8일에 별세하셨고, 제일 보고싶고 열망하던 어머니는 1987년 5월 30일에 평안도 순천의 큰 형님(正鉉)댁에서 영면하셨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유격대원으로 개성에 들른 후, 겨우 2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다 다음날 피아간의 전사자 시체들을 헤치며 저를 찾아 헤매셨고 운명 직전까지 저를 찾으시며 눈을 못 감으셨다는 어머니 소식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비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개성 비둘기 성대 넘어 야산, 조약한 묘지에 모신 듯하고 어머니는 순천에 모신 듯하며, 외딴 곳에 따로 따로 누워계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합니다. 꼭 합장으로 모셔야겠는데 언제나 이루어질 지, 이제 남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무 제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같은 비극이 어디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모든 실향민 이산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설움이지요.

송도지(松都誌)에 대한 깊은 관심, 개성시민회에 대한 열렬한 성원을 보내시는 선생님 뵙기가 무척 죄송합니다. 멀리 계신 선생님의 열정에 가까이 있는 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우리의 고향 내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족 재상봉, 귀향의 간절한 소망에 항상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는 송도(松都) 실향민의 등대, 송도지(松都誌)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어린 염려와 제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향, 그 곳에서 배출된 훌륭한 송도인(松都人)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미수복 경기, 강원도는 물론 실향 이북 5도민회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향토지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숙독하시고 매우 아끼시는 선생님과 같은 여러 고향분들을 위하여서라도 송도지(松都誌)는 사명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존재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향을 빼앗기고 타향에서 방황하고 있는 개성인들의 향도인 개성시민회와 송도지(松都誌)에 그 동안 소홀하였던 우리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팔을 걷어 부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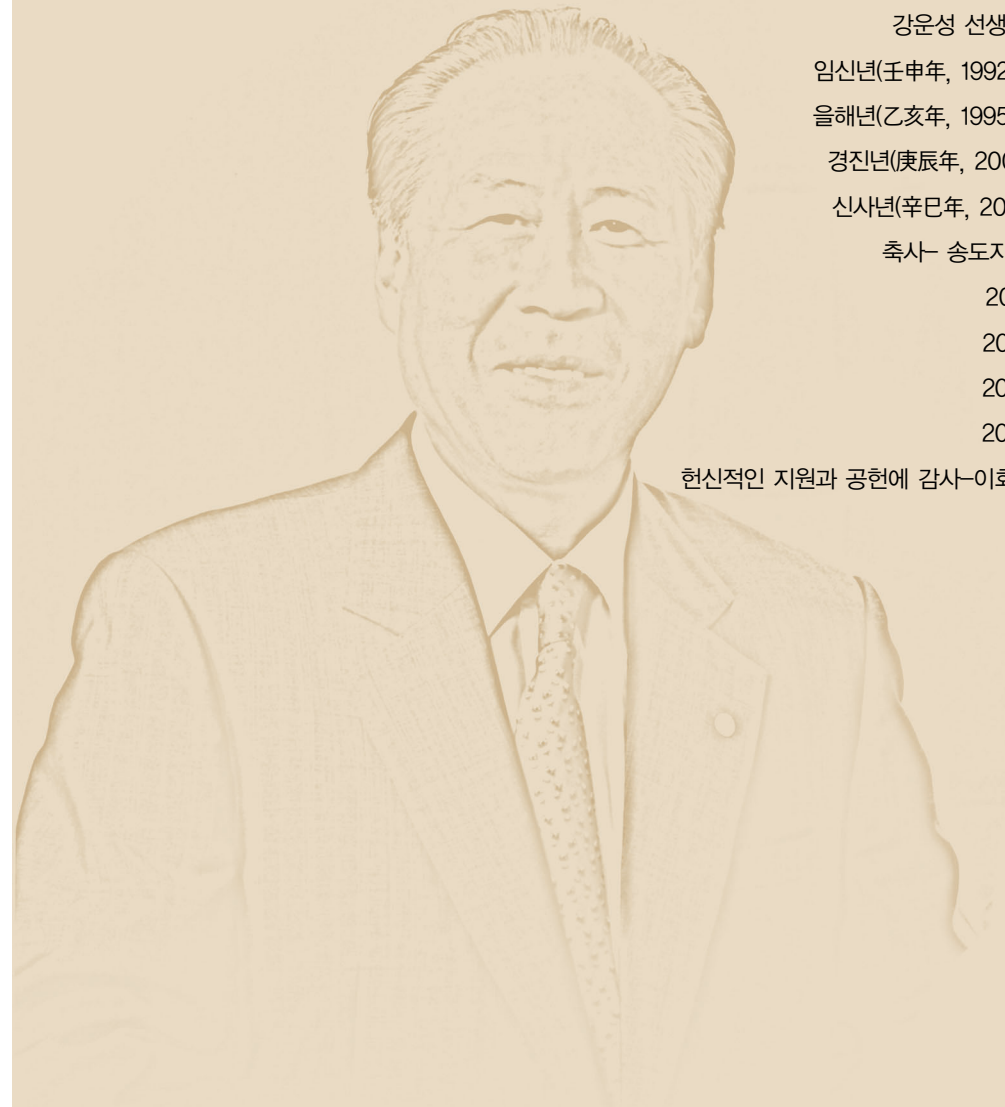
개성시민회의 활성화와 송도지(松都誌)의 무궁한 발전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유지되도록 미력이나마 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잃었던 고향으로 모두 함께 귀향하는 그 날이 꼭,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6월 23일 박광현 드림

신문 잡지에 게재된 신·송년사(新送年辭), 축사(祝辭), 조사(弔辭)

강운성 선생 부음을 듣고
임신년(壬申年, 1992년)을 보내며
을해년(乙亥年, 1995년)을 맞으며
경진년(庚辰年, 2000년) 신년사
신사년(辛巳年, 2001년) 신년사
축사- 송도지 100호 기념
2001년 신년사
2002년 신년사
2003년 신년사
2004년 신년사
헌신적인 지원과 공헌에 감사-이회림 회장님께



지난 송도민보(松都民報) 10월호에서 강운성(姜雲聲) 어른의 별세(別世)를 알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정든 고향을 떠나신 후(後) 또 한번 고국마저 떠나시어 멀리 이국인 미국(美國)에서 세상(世上)을 하직하셨다니……. 우리의 애향(愛鄉) 송도(松都)의 몇 분 남지 않은 기둥이셨으며 자랑스러운 선구자의 한 분이셨던 어른이 가셨다니 인생(人生)의 무상함 이전(以前)에 실향(失鄉)의 설움을 더해 준다. 흰 칠하신 키에 항상 자애로운 미소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며, 잔잔하고 자상한 말 씬이 옆에서 들리는 듯하다. 어른께서는 일찍부터 언론계에 몸담으셨으니 우리 송도(松都)의 자랑인 고려시보(高麗時報)의 기자(記者)로 출발(出發)하시어 편집국장까지 지내시면서 우리 향토의 문화 발달에 큰 힘을 쓰셨으며, 피난 이후(以後)에는 한 때 고려인삼흥업주식회사(高麗人蔘興業株式會社) 및 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에 근무하시며 경제계에서 고려인삼의 성가를 높이는데 애쓰셨다.

나는 특히 어른에 대하여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존경하여 마지 않았다. 나의 송도중학교 동문(松都中學校 同門)인 강철순(姜哲淳) 군의 부친(父親)이어서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님(春波 朴在淸)과의 인연 때문이다. 나의 아버님과 여러 동호인(同好人)이 모여 만드신 그 오래됨을 자랑 할 수 있는 고려시보(高麗時報)에서 같은

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른은 함께 일하셨다. 1·4 후퇴 이후 내가 유격대에 있을 당시 어른께서 강화(江華) 산이포를 거쳐 남하(南下)하시면서 내 손에 쥐어준 일금(一金) 2천 원,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면서 주신 그 돈은 지금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항공화물업(航空貨物業)을 시작한 1968년도(年度)경에 홍종규(洪鍾奎) 사촌형님(四寸兄任)과 나는 다동(茶洞)에 위치하고 있던 고려인삼흥업(高麗人蔘興業)에 찾아갔다. 수출하는 홍삼의 항공 운송을 저에게 맡겨 주십사고 부탁드렸을 때 어른의 흔쾌한 말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개성(開城)사람끼리 안도와 주고 누굴 도와주겠느냐”고. 2년 전(年前) 미국(美國)을 떠나시기에 앞서 전화로 나를 부르시고는 “나는 떠나네”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세상(世上)을 떠나신다는 말씀이 되고 말았다.

어른께서는 연연히 이어오는 송도민보(松都民報)에도 많은 글을 실어 오셨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될 영원하여야 할 송도민보(松都民報)가 마침 발행호(發行號) 백 호(百號)를 돌파하게 되었다. 반드시 성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개성 거리에 번듯이 간판을 거는 송도민보(松都民報)를 못 보시고 어른은 가셨다. 그러나 기뻐하시리라. 지하(地下)에서도... 송도민보(松都民報) 기념 백 호(紀念百號)를. 그리고 망향(望鄉)에 젖으시리라. 본지(本紙) 1979년 2월호(號)의 망향(望鄉) 30년(年)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운 고향의 흠냄새를 이 백 호(百號)에서 말으시려 애쓰시리라.

어른이 몸담고 계시던 고향의 계명지(啓明紙) 고려시보(高麗時報)가 1933년 4월에 창간(創刊)된 이후(以後) 그 백 호(百號)를 1938년 11월에 발행(發行)하였으니 당시(當時) 나의 아버님께서 그 백 호(百號)를 찬양하는 시조를 쓰셨으며 어른께서는 이를 그 기념호(紀念號) 1면(面)에 실으셨다. 그 중 한 구절을 옮겨보면.....

일백호(一百號) 무엇이랴 천호(千號)이내 보리로다.

무량수(無量壽) 고려시보(高麗時報) 만호(萬號) 또한 고대리니

일월(日月)이 이 뜻을 알아 기리비쳐 주리라

— 춘파(春波)의 백호찬중(百號讚中)에서

어른께서는 이 구절 중 고려시보(高麗時報) 자리에 송도민보(松都民報)를 바꿔 놓으시고 고향의 흠냄새를 만끽하고 계시리라.

이제 어른도 가셨다. 고향의 부모님(父母任)을 떠난 지 벌써 35년(年). 그 동안 무척이나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父母任)을 애타게 갈망하던 나는 어른의 타계(他界)로 더욱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한 분 두 분 옛 어른들이 타향(他鄉)에서 사라져 감에 망향(望鄉)의 애절함은 극에 달한다.

언제나 뵈어볼 수 있는 고향이라. 어른께서는 한도 많으시고 설움도 많으셨던 실향민(失鄉民)으로 그 한을 못 푸시고 외지(外地)에서 눈을 감으시니 이 빠져린 한을 누가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송도인(松都人)들의 열렬한 기원이 하늘에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으니 언젠가는 귀향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때 어른의 염원은 성취될 것이다.

어른의 명복(冥福)을 두 손 모아 빌면서 고이 눈 감으시길 이 글로써 조(吊)하며 동시(同時)에 어른께서 남겨 주신 그 정신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겨둔다.

아울러 35년 간(年間) 못 만난 나의 부모님(父母任)의 안녕을, 그리고 모든 이산 가족의 행운을 기원하며 송도민보(松都民報)의 장수(長壽)를 이 자리를 빌어 축원하는 바이다.

1984년 10월

임신년(壬申年, 1992년)을 보내며

임신년(壬申年), 되돌아보니 유난히도 “통일(統一)”이란 말이 많았던 해인 듯하다. 수없이 가졌던 남북 집회나 연회에서 신명나는 듯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소리 높여 부르곤 하였다. 마치 소리 높여 외치는 정도에 따라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듯이.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수없이 불러대기를 마다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부자라고, 병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건강이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실제 노력은 안 한다면 이는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 그 외치는 “통일”도 이와 같은 것이나 아닌지. 북한의 사람들은 항상 “통일”이란 말이 입에 붙어 다닌다. 도대체 어떻게 통일을 한다는 말인지 숨은 의도는 덮어놓고서 말로만 떠들고 있다.

야권이나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신나게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어떤 통일이며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체제로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아찔한 일이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공산 독재체제나 또는 친 공산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주장하고 싶다.

이 나라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인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

나 곧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통일이라면 우선 가능성이 많은 “이산가족 재회”라도 먼저 이루어 천만 이산가족의 한부터 풀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임신년이라 불러보니 얼핏 임신(妊娠)이 연상된다. 올해는 발음 그대로 이산가족 재회하는 소망을 잉태하여 내년에는 눈물겹게 갈망하던 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란 복동이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희망을 걸어본다.

1992년 말, 송도지 1992년 송년호에 게재

을해년(乙亥年, 1995년)을 맞으며

을해년(乙亥年) 아니 을해년(乙亥年)이라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맥이 탁 풀린다. 무심히 들어 넘기던 지난날들과는 달리 새해가 을해년(乙亥年)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감회와 깊은 감상에 젖게 된다.

아이구, 을해년(乙亥年)이 되었구나.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을해년(乙亥年)에 태어났으니 이제 내가 환갑이 되었던 말인가. 그 옛날 어릴 적에 아버님(春波 朴在淸) 어머님께서 “재는 을해생(乙亥生)”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간신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득하던 을해(乙亥)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니, 새삼스럽게 옛 일이 돌이켜지고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

내가 벌써 60년을 살아 왔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더욱이 그 60년의 세월 동안 불과 4분의 1만을 고향에서 지냈고, 나머지 40여 년을 부모를 그리며, 가고픈 고향에도 못 가보면서 타향에서 허송하여 왔다니,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었다.

고리고개, 노적봉, 구남골을 누비던 시절은 고작 십여 년, 아직 머리때도 벗지 않은 어린 그 때뿐. 언제 다시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곳에서 어깨를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되겠는지.

너무나 빠른 세월이었구나. 너무나 허망한 지난날이었구나. 벌써 회갑(回甲)이라니. 이 무슨 야속한 세월이란 말인가. 나오느니 한탄과 한숨뿐이다.

언젠가는 가보겠지 하고 여유있게 기다리던 젊은 시절은 다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하는 초조한 입장이 되어 버렸구나(연만하신 어르신네들께 무례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희만이 애국하고 있고 주체성도 저희만이 뚜렷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법은 없애야 한다, 조문은 하였어야 했다는 등, 민족을 들먹이고 통일이 어떻다며 목청 높여 떠들어 대고 있다. 이들이 이산가족의 설움과 절실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주의적인 해결을 우선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참으로 저의가 의심스럽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도 목청을 높이고 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시간은 참말로 우수같이 흘러 왔구나. 또 화살같이 지나 갈 것인가. 부디 세월이여 천천히 흘러 가다오. 을해년(乙亥年)이여, 제발 오래 머물러 있어 주오. 그래서 이 철천지 한을 풀어주는 값진 한 해가 되어 주오. 모두가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면 우리 이산가족의 재회



1995년 7월. 내 환갑을 기념해서 아내와 함께. 잔치는 생략하고 조촐하게 수근의 집인 여의도 화랑아파트에서 직계 가족만 모였다.

는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을해년(乙亥年)은 드디어 다가왔다. 나의 삶이 61번째 연도로 접어들었다. 환갑이 되었으니 제2의 행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실향 송도인들의 설움을 대변하고 다독거리 주고 있는 송도지(松都誌)도 61호를 내면서 새로이 가다듬었다. 부디 우리 곁에 있어 계속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

개성시민회(開城市民會), 송도지(松都誌) 발행 편집인, 옥고(玉稿)를 계속 두고 하여 주시는 집필인, 그리고 모든 개성출신 실향민 여러분들, 이 을해년(乙亥年)에도 무궁한 행운과 변함없는 발전이 지속되기를 송악산, 진봉산, 용수산, 자남산 등 모든 고향 산신령님께 기도드립니다.

1995년 1월 2일 송도지 61호에 게재
(개성시민회 부회장)

경진년(庚辰年, 2000년) 신년사(新年辭)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묘년 묵은 해가 물러가면서 경진년 새해가 어김없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새 밀레니엄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희망찬 신년으로 새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들뜬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이 맞는 2000년의 소망과 설계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새 밀레니엄의 신년보다 49번째 맞이하는 이산가족으로서의 신년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년간 한결같이 가져왔던 신년의 소망과 기대는 매 번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다시 신년을 맞이하기를 49번을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리운 부모형제를 갈망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해가 갈수록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더해 졌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만 되면 혹시나 하는 희망과 초조함이 배가 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경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실향민, 특히 송도인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고향 땅도 밟아보고 너무 오래오래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이웃들을 상봉하게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송도인 1세대들은 부디부디 몸 건강하시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함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맺힌 5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떠들고 있는 1,000년의 단위 또는 한 세기인 100년 단위를 생각할 때의 50년은 별 것이 아닌 듯하지만, 홍안의 소년기에 고향산천을 떠나, 부모형제를 생이별한 후 하얀 이슬을 머리에 이게 된 60대가 되었으니 정말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실향, 이산가족들은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허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실의의 세월 중 개성시민회와 송도지는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송도인 1세대들은 개성시민회와 송도지를 아끼고 서로 돕고 살아오기 수십 년입니다.

일반 사회의 개혁 논리와 세대교체 등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며, 우리만이 절실하게 열망하는 모임이고 매개체인 것입니다. 비록 불만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개성시민회와 송도지는 우리들의 희망의 등불로서 실향과 생이별을 위로하는 절대적인 실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원로 유지분들이 어렵게 가꾸어 온 이 자랑스러운 모임과 그 발행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깊은 뜻을 잘못 헤아려 희망의 등불을 꺼지게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회한의 무리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송도인들은 이 곳 개성시민회로 뭉치고, 송도지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 빨리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많지 않은 보답도 개의치 않고 개성시민회와 송도지 발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또 봉사하고 계시는 전, 현직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회림 회장님의 그 간의 육성, 지도에 진심으로 존경하여 마지않습니다.

저는 송도지 창간호(1985년 1월 발행)부터 제 90호인 직전 발행분까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이 송도지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송도인들의 애향심과 향수가 듬뿍 들어있는 이 송도지야 말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보물입니다.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개성시민회와 송도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박수치는 송도인들이 적지 않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더욱 힘낼 수 있게 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든 실향 송도인, 개성시민회 임직원 여러분의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공수 공수 축원합니다.

2000년 1월, 송도지 91호에 게재
(개성시민회 부회장)

신사년(辛巳年, 2001년) 신년사(新年辭)

희망 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해 보이는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성출신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남북관계의 예기치 못했던 서광이 그 동안 갈망하던 우리들 바로 옆에 다가왔고, 반면 경제는 상상 밖으로 악화되어 사회 불안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민 화합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민생혼란이 대단하였던 기복이 심한 한 해였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질서는 정직하여 어김없이 1년 회기를 마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새로운 약진을 해야 할 것이며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은 경진년(庚辰年)은 물러가고 매우 기대되는 신사년(辛巳年)이 되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불러 보니 경칠년(야단맞아 마땅한 여자)은 물러나고 신사(紳士)의 해가 우리 앞에 다가 왔습니다. 역지와 생떼가 없어지고 점잖고 너그러움이 짝 차 있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산가족이 가장 많은 개성사람들, 지척에 두고도 50년 이상 가보지 못하는 고향을 항상 그리고 있는 개성사람들의 한이 신사년(辛巳年)에는 신사(紳士)답게 풀어지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개성 관광이 실현되어 고향을 실로 오

랫만에 밟아 볼 수 있게 됨은 물론,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찾아 나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서로 가깝게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때때로 늘문이(판문점)에서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눌 계기가 곧 오리라 자위해 봅니다. 우리 개성출신 모두 가시적인 희망을 밝아오는 신사년(辛巳年)에는 기대해도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로지 확신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희망을 우리는 가져도 되리라 확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함께 고향을 찾고 아주 오래 헤어졌던 부모형제, 자식, 친척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금년에는 허사가 되지 않으리라 가슴 부풀려 고대합니다.

2001년 정월 초하루에, 송도지 97호에 게재
(개성 시민회 부회장)

축사(祝辭)

- 송도지 100호 기념

송도지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비참한 한국의 실향민, 그 중에서 개성 실향민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여 온 송도지가 어언 16년여를 보내며 100번째 책자를 발행하게 되었다니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경하스러울 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우리 모두의 송도지를 발행하여 오는데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개성시민회 회장님 이하 여러 편집인, 고료 없이 원고를 보내 주신 많은 기고자, 광고계재, 소식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향어른 여러분들의 정성의 결정체가 100회에 이르렀습니다.

1985년 1월, 꿈에도 잊지 못하는 선죽교 전경을 표지로 하여 발간된 창간호에서부터 차곡차곡 꽃아온 송도지가 제 책장을 가득 차게 메워 왔으며 이제 그 100번째의 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서가를 채워가는 송도지를 보면서 대견하고 흡족하게 생각해왔지만 한편 이 책이 늘어가는 것만큼 망향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타향에서 100호를 맞이하게 된 개성실향민의 향토지인 송도지가 번듯하게 우리의 고향에서 실제 향토지로 발행될 수 있을 때가 머지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개성시민회를 중심으로 모두 모여 합심하여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소아병적인 아집을 가지고 있는 동향인이 있다면 제발 큰 마음을 가다듬어 모두 함께 하루 빨리 건강하게 귀향하게 되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손잡고 비참한 실향민들에게 정신적 영양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 우리의 송도지가 더욱 송도인 애독자의 간절한 탐독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합니다.

우리의 송도지를 아끼고 열과 성을 다하여 밀어 주시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여 주시는 국내외 송도인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송도지 100호 발간을 눈물겹게 감사하며 축복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제가 금년 6월 25일부로 개성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덕망 있는 후임자에게 이 자리를 이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며 그러한 뜻에서 별도의 취임사는 생략코자 하오니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 되더라도 제 근무 중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7월 송도지 100호 (2001년 7월)에 게재
(개성 명예시장 박광현)

2001년 신년사

희망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해 보이는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해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예기치 못했던 남북 관계의 서광이 우리 옆에 다가왔고, 반면 경제는 상상 밖으로 악화되어 사회 불안과 민생혼란을 야기하였던 기복이 심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경진년(庚辰年)은 물러가고 무척 기대되는 신사년(辛巳年)이 밝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억지와 불법, 불규칙과 부조리, 이기주의와 배타성, 온갖 문제점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백의민족이라고, 순박하고 건실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 민족이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辛巳)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들이 신사적(紳士的)으로 신사(紳士)답게 풀려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총동창회의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교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란 사실이, 회측에 명시되어 있지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 동문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전을 위한 작은 마음 하나 하나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모교의 장래를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 마지않습니다.

신사년(辛巳年) 신년에는 하시는 일들이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하면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1월 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광현(해대 10기)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보 2001년 신년호에 게재)



2001년 11월 5일,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 총동창회장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학교 우수직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2002년 신년사

존경하는 해대동문 선배님, 동기님, 후배님 여러분.

2002년 새해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며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0년 신 세기에 접어든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해가 지났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보낸 어렵고 혼란했던 지난해를 회고하며 지난해보다 더욱 활발하고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리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한국해양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 해운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2002년 1월,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총동창회장 개회사를 한다.
총동창회 회장 박광현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축배. 왼쪽부터 전효중 전총장, 박현규 모교 후원회장, 김병춘 신임 총동창회장, 나, 심상호 고문, 신태범 고문.

각 관계 분야에서 중추적인 인재들을 착실하게 양성하여 오고 있으며 이로써 명실상부한 해운 전문인들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대 동문들께서 어느 타 학교 동문회보다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의 활동에 진심에서 우리나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들의 애교심은 참으로 대단하여 이 분들의 헌신적이고 철저한 봉사와 기여가 오늘날의 우리 모교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의 반짝 지원을 하고 자만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시종여일하게 성심으로 후원하시는 대 선배님들을 본받아 우리 모두 금년에도 모교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총동창회 조직이 구성되어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총동창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새해에도 우리 모교 한국해양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그리고 동문 여러분과 그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월 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 광 현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보 2002년 신년호에 게재)



2002년 12월,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송년의 밤 개최인사를 하고 있다.
총동창회 회장 박광현

2003년 신년사

2002년은 흔히 말하는 다사다난했던 일 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사의 큰 변혁의 획을 그리는 대선도 치루어 낸 아주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해대 동문 선배님, 동기님, 후배님 여러분, 지난 임오년을 무사히 보내고 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융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교 한국해양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활발하여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훌륭한 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을, 우수한 대학교로 거듭 된 변신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동문 여러분이 힘을 모으는 새해가 되기를 새삼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운계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는 계속하여 훌륭한 해운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모교의 발전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해운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밝고 풍요롭고 자랑스럽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동문여러분, 제가 재력, 활동력, 융화력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아 온 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총동

창회를 이끌며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여러 동문 선배님, 동기 동문님, 후배님, 특히 우리 총동창회 고문님, 회장단, 임원 및 상근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회장이 새로운 기분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면서 모교와의 유대가 더욱 공고하여지고, 모교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동창회도 더욱 활발해져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기쁘고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함께 힘찬 첫 걸음을 옮겨 놓자고 제의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운이 충만하기를, 우리 모교와 총동창회가 더욱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1월 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 광 현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보 2003년 신년호에 게재)

2004년 신년인사

계미년 묵은 해를 보낸 지도 벌써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으며 많은 희망과 새로운 결의를 다진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드리고 싶은 신년인사를 여러 동문님께 새롭게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무궁무진하시라고 그리고 모교의 발전과 괄목할 만한 성취를 기원합니다.

항상 모교의 발전만을 갈망하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동문들은 오늘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교가 자랑스러운 대학교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온 것은 동문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하며 총동창회의 더욱 활기 넘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무릇 총동창회의 중요한 사명, 즉 그 존재 이유는 첫째가 모교의 발전이고 다음으로는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유대 강화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도 십시일반의 힘을 모아 총동창회를 밀어 주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감히 제언 드립니다.

우리는 남다른 모교애와 동문애를 활력소로 하여 어려운 역경을 무수히 헤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 자리를 확고하게 정착하여 왔습니다.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모교를 정성껏 위하

는 모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대한 새해의 특별한 소망은 발전을 거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충장을 맞이하여 교내의 돈독한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자가 패자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극히 미흡한 우리나라의 다수결 선택은 크게 잘못되어 있어 국가적인 대사에서부터 작은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합은 없고 분열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분쟁만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주가 최선이고 권위적으로 성과만을 과대 선전하는 것보다는 구성원을 두루 포용하는 아량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는 내실 있는 단결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화합하는 모교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미력이나마 외부에서 협력함으로써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길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난관과 앞으로 닥치고 있는 외부의 변화와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해 갑신년을 뜻 깊고 보람 있게 그리고 모교의 무한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해 총동창회 송년회와 금년 신년 하례 겸 총회를 치르던 그 열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2004년 새해를 맞으며 한국해양대학교총동창회 고문 박 광 현
(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보 2004년 제17호에 게재)

헌신적인 지원과 공헌에 감사

-이회림(李會林) 재단법인 개성시민회 명예회장의 18년간 송도지에 기고한 발간사, 권두언의 단행본 발간에 즈음하여

개성시민회 회장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실향민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이북 지역 실향민회 중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개성인 소식지 송도지의 발행을 도맡아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오셨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면서 직·간접으로 송도지 유지 보존에 정성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회



1980년대에 포천 동양화학 소유 별장에서 기념 촬영. 오른쪽 두 번째가 나, 네 번째가 개성시민회 이회림 회장,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홍종규 형님

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성 실향민들의 자랑스러운 송도지가 그의 100호 발간의 큰 족적을 넘어서 계속 항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억울한 실향민이 되어 쓰라린 타향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많은 고향 관계 소식지가 등장하였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76년 6월 25일에 창간된 송도민보가 발행 겸 편집인 유신영 전 개성시 명예시장님과 주간 겸 편집국장 유세형 씨의 각고의 노력으로 근 10년간 이끌어 오다가 그 뒤 baton을 넘겨 받는 듯 송도지가 1985년 1월에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도하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송도지의 발행인으로는 당시 개성시민회 이회림 회장님이, 편집인으로 박성규 부회장이 그리고 당시 개성시민회 왕종배 총무님이 실무를 맡아 오늘날의 송도지를 출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무력하였던 개성시민회 활동을 강화하고 각박한 타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이회림 회장님께서서는 송도지 발간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송도지가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하고, 무게 있고 뜻 깊은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성심 성의껏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고향 어르신네 여러분들의 노고와 특히 이회림 회장님의 물심양면의 노력에 힘입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성시민회의 송도지 발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훗날의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여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전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집 보관할 예정입니다. 편협한 편집이 계속되더라도 송도지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자랑스러운 송도지의 차질 없는 발행을 위하여 매회 정성을 쏟으시는 이회림 회장님께서서는 창간 당시의 발간사에 이어 매회 주옥같은 권두언을 쓰셔서 독자인 실향 개성시민들에게 무게 있고 값지며 의미심장한 뜻을 전하여 오셨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간의 생이별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내용, 함께 울어주시는 글, 고달픈 피난생활에 대한 따뜻한 조언, 신랄한 사회비평,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국충언 등을 주제로 매회 새롭고 뜻 깊은 권두언을 발표하여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오직 개성시민회의 운영과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홀로 헌신하신 이회림 회장님께서 문자 그대로 명예롭게 개성시민회 명예 회장으로 물러나신 후 측면에서 새롭게 개성 실향민들의 힘이 되고자 노심초사하시던 그 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송도지 발간사와 함께 18년 동안의 권두언을 단행본으로 엮어 발간하기로 하였다는 발의에 쌍수로써 찬동합니다. 이회림 명예회장님의 노고와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무궁한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03년 박광현 개성 명예시장

이복희(李福喜) 문선(文選) 및 보도 기사

내 곁에 오신 부처님
요리 잘하는 주부 이복희 씨의 공개 제안





1976년. 영훈중학교에서 강연하는 아내(이복희)



1987년 12월. 세종문화회관 서예전.
자신의 서예 작품과 함께 서 있는 아내(이복희)

내 곁에 오신 부처님

-코끼리 밥술과 보시 약속

이복희(육천암 신도회장)

곧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이 오신 날 전에 나는 그 동안 다짐했던 일을 하고자 주지스님을 찾아뵈었다. 식당을 짓고, 도량을 확장하고, 일주문을 건립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고 싶어서였다. 스님은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리고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시에는 재시와 법시와 무외시가 있다고, 재시는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의 법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무외시는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모든 보시의 시작은 재시라고 하셨다. 자기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부처님께 기쁜 마음을 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법시나 무외시를 베풀 수 없다고, 재시가 모든 보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무아”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때문이라고 하셨다.

주지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주 오래 전 일이 떠올랐다. 서울의 집들이 다 연탄을 때고 있던 때였으니까 꽤나 오래 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숭동의 자그마한 집에 살며 동네의 포교당에 나가고 있었다. 비구니 스님이 운영하는 포교당이었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느 날 새로 짓는 법당에 천불을 조성한다는 소리를 듣고 큰마음을 내어 다섯 부처님을 봉안하겠다고 스님 앞에서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우리 집 식구가 다섯이니까 다섯 부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한 부처님 봉안에 삼만 원씩 도합 십오만 원이 있어야만 했다. 나는 정말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 당시 십오만 원은 정말 큰 돈으로 쉽게 모아지지 않았다. 이것저것 아끼고 계도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갈 즈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그 집 부엌에 있는 코끼리 밥술을 보았다. 코끼리 밥술이 있는 그 집 부엌은 너무나 환해 보였다. 정말 코끼리 밥술을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보시한다고 했던 약속이 코끼리 밥술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흐려져 갔다. ‘저 코끼리 밥술부터 사고 나중에 부처님을 봉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며칠을 코끼리 밥술과 부처님께 한 보시의 약속 사이를 방황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할 일이 생겼다. 하얀 투피스를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과 맞닥뜨렸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빨리 우산을 펴들고 걸음을 재촉하며 동숭동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서너 걸음 앞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치고 나무가 우두둑 쓰러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놀라움과 공포로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나는 그 나무에 맞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외출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돌아와 놀란 가슴을 진정 시키며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내디뎠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쳐도 많이 다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우,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한숨이 나왔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부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나를 살피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었을까? 그 날 아침 내가 백팔 번

의 부처님 명호를 외운 공덕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재난을 면했다는 생각이 드니 부처님을 향한 고마움이 너무나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 사건으로 나는 얼른 마음 속의 주저와 갈등을 접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교당을 찾아 약속했던 보시금을 건넸다. 코끼리 밥솥을 생각 속에서 지우고 보시를 하니 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고 기쁠 수가 없었다.

보시금을 건네면서 그 때의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오늘의 이 보시가 내게 한없이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써야 할 곳도 많지만 부처님을 위해 그 마음을 다 누르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내 땀에는 큰 돈을 주지스님께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신심이 그만큼 자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건을 탐하고 아까워하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고, 자비로운 보시는 법왕자라는 말씀이 너무도 생생한 아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옥천암의 불사가 원만히 시작되고, 우리 신도님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2002년 5월 1일 옥천 지에 기재

요리 잘하는 주부 이복희 씨의 공개 제안

-“우먼 센스” 1997년 2월호에 기사

“요리솜씨 좋은 주부라면 자녀 교육도 문제없어요”

주부 이복희 씨(58세)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집에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을 때에도 요리는 반드시 자신의 손을 거쳤을 만큼 음식 만들기에 관한 한 거의 전문가급 수준.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를 파악하고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

“결혼 전에 잠깐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요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애들의 기호가 어떤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유치원 일은 그만두었지만, 그녀에게도 세 자녀가 태어나는 바람에 처녀 적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오후 2, 3시쯤 이었는데, 저녁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길었죠. 그 동안 아이들의 허기를 메워주는 동

시에 성장발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식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맛도 있어야 했구요.”

그 때는 요즘처럼 피자나 스파게티나 하는 음식들이 대중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선가 서양요리를 먹어보았는지 그 음식이 먹고 싶다고 주문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리 잘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직접 배우기 시작했다.

“10년 전 쯤 ‘니콜’이라는 외국인 선생님께 직접 요리를 배웠어요. 라자니아, 스파게티, 피자는 아이들에게 항상 인기있는 음식이 됐죠. 어쩌다 애들 친구가 집에 와서 함께 먹게 되면 아주 야단들이었어요. 그 때는 흔하지 않은 음식이었고, 또 애들 입맛에도 맞았으니까. 전 애들이 잘 먹어주니까 그게 또 신이 나서 즐겁게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위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이복희 씨는, 아이들마다 식성이 다르다는 것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그 애들의 식성에 맞게 조리를 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예를 들면 큰 아들은 김치 중에서도 나박김치를, 둘째는 총각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식탁 위에 항상 이런 김치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지금도 애들은 요리에 있어서는 엄마를 ‘최고’로 알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먹이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해먹였죠. 지금도 애들은 소시지를 못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식은 먹어보질 못했으니까요. 콜라도 잘 안 먹는 걸요.”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은 셋 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마쳤다. 큰 아들은 고려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둘째와 셋째는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다. 자녀 기르기에 요리솜씨만이 능사는 아니었겠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먹였던 ‘정성’이 오늘을 있게 했다고 믿는다.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 있을 때에도 제가 만들어 주는 요리방법을 적어가서 해 먹곤 했어요. 어떤 때에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구요.”

그래서인지 30대 중반에 접어든 이복희 씨의 세 자녀는 힘든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현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천문학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녀들이 출가해서 낳은 손주만도 4명, 그 손주들에게도 인기만점이다.

“요리는 여자들만의 무기예요.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요리는 인기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요리에 관한 한 ‘욕심’을 부렸던 그녀. 새로운 요리에 대한 흥미와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주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지인(知人)의 글 및 보도기사(報道記事)

춘파 박재청 씨를 생각한다-강운성

송도인 중소기업 탐방-송도지

송도에 있을 죽마고우 박재청 형을 상기하며-김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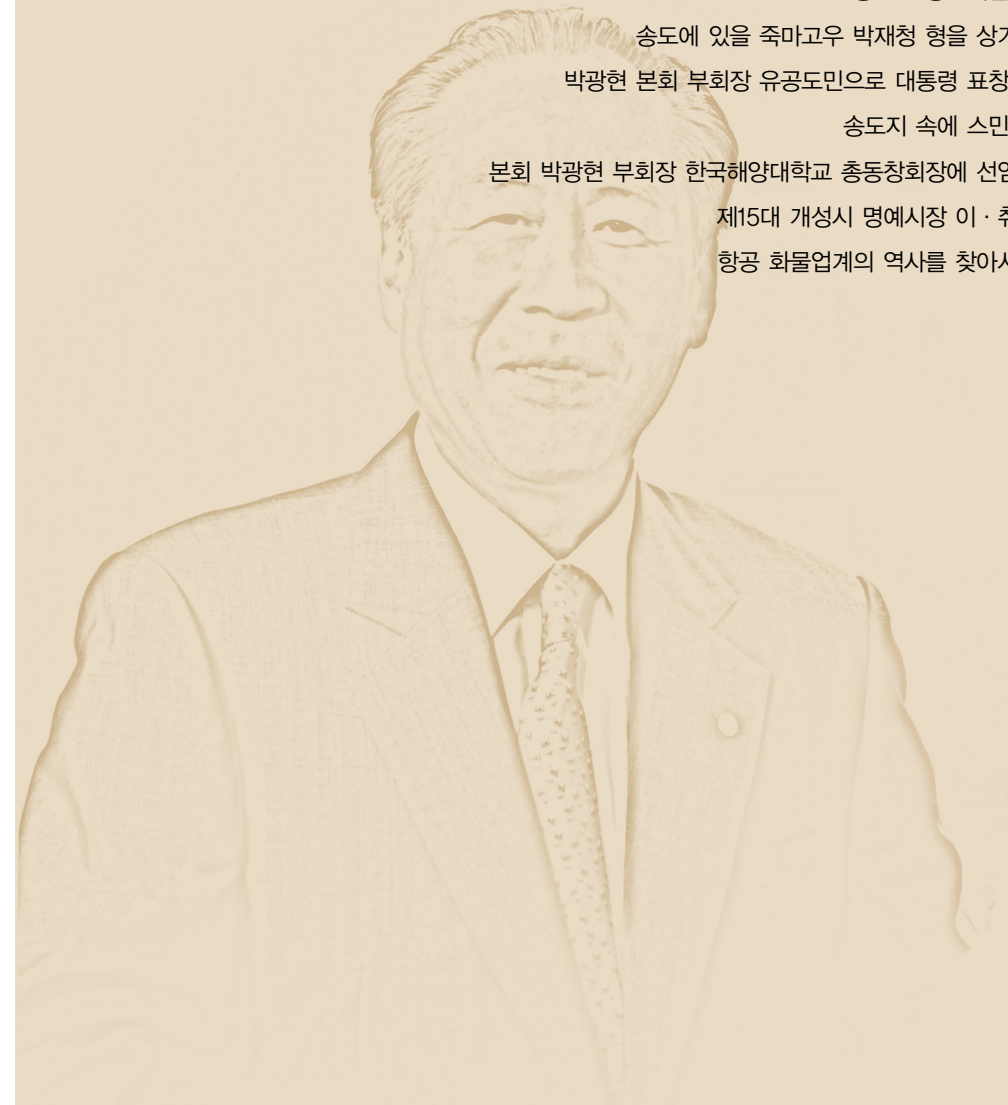
박광현 본회 부회장 유공도민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송도지

송도지 속에 스민 감화-장경태

본회 박광현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임되다-송도지

제15대 개성시 명예시장 이·취임식-송도지

항공 화물업계의 역사를 찾아서-카고프레스



춘파(春波) 박재청(朴在淸) 씨를 생각한다.

-고려시보 발취문집을 읽고

강운성(姜雲聲) 전 고려시보 편집국장 송도민보 1979년 2월 28일에 기재

월여 전에 뜻밖에도 나는 귀중한 문집을 한 권 선사 받았다. 개성사람으로 60대 인사라면 거의 짐작하는 고향의 자랑스러운 문사인 춘파 박재청 씨(朴芽枝, 박아지)의 시조, 기행문, 시평, 논문 등을 실은 고려시보(개성에서 발행한 향토지, 해방 전에 미나미 총독에 의하여 강제 폐간됨)의 발취 문집이다. 춘파는 재화를 풍기던 문장가(文章家)요, 격조 높은 풍자와 독설로서도 유명한 인사였다.

춘파가 자주 가 노는 부잣집 사랑방은 그의 구수한 재담과 유모어에 반한 풍류객들로 늘 만원사태를 이루었으며, 그가 속필로 써내는 문장은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인품의 향기는 물론,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유분방한 호기와 협기를 느끼게 하였다.

박아지(朴芽枝)라는 펜네임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초창기의 고려시보 편집동인이고, 창간호서부터 수많은 작품을 써서 지면에 넘치는 감명과 공감을 자아내게 한 재사이다. 몇몇 친구가 앉아서 잡담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춘파의 재담은 가히

프로 수준급의 능변, 달변가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가 고려시보 일을 본 5년 동안 그는 나에게 고마운 선배로서 양식을 지닌 언론인으로서 언제나 너털웃음 속에서 서투른 후배인 나를 감싸주고 고무해 주신 분이였다. 춘파는 두주불사의 주객이요, 나는 보리밭에서부터 몽롱해지는 바보여서 그는 이따금 술자리에서 나에게 “학산(鶴山)은 술 못 먹는 것만 빼놓고는 그런 대로 합격점을 주겠는데 참 아깝게 낙방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뇌까리기가 일수였다. 나는 춘파에게 한번 단단히 당한 일이 있다.

춘파가 개성인간기(開城人間記)라는 인물평을 몇 호 계속 집필한 일이 있다. 윗트와 파라독스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그의 만평인 이 글을 게재한 죄로 나는 사수뇌부의 눈총을 받고 상당한 기간 면목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서구 유학을 한 영국풍 신사인 K사장은 직접 나에게 대놓고 꾸중한 일은 없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춘파의 인물평 속에 K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분으로 서울서 젊은 날에 한때 바람을 피운 스캔달을 춘파가 그 작품 속에 파헤쳐 놓았고 당사자가 남의 사생활을 몹시 공격한 저의가 무어나고 K사장에게 들이댔다는 것이다.

초년생 편집기자인 내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춘파의 글이니까 어린하랴 싶어 시보에 실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한동안 무색한 나날을 보낸 끝에 춘파를 만나서 “그래 아무리 내가 사정을 몰라서 천하태평 식으로 그 글을 실어서 당하고 말긴 했지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고 크게 항의하였더니, 그는 그의 가는 눈을 더 가늘게 뜨고, 두툼한 큰 입을 벌려 그야말로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춘파형은 이미 다시 만나 뵙기는 어렵게 생각된다. 그의 문재와 구수하고 부승 부승한 성격을 이어받은 두 영식이 피난 나와서 장자 대현(大鉉) 씨가 대한민국 해군 제독이 되어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있고 차자 광현(光鉉) 씨도 제일항역 사장으로 무역계에서 웅비하고 있어, 두 형제가 선친의 옛 글을 모아 자비 출판으로 호화 사진판 문집을 내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보내 준 것은 선배를 기리던 한 후배로

서 참으로 감사하며 선배의 옛정을 회고하며 행운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

춘파의 생질인 홍종규 씨도 독실한 삼농인으로 대성하였고 또 내가 아는 춘파의 혈연도 모두 어디 내놓아도 떳떳한 생활인으로 또는 유망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니 춘파형이여 부디 평안하시라.

송도인(松都人) 중소기업 탐방

기업을 착실히 키워가는 제일항역(第一航易) (주) 박광현 사장

1987년 3월, 송도지 14호에 실린 기사

“인간은 가도 기업은 남아야 한다. ‘자원’, ‘자금’, ‘인간’은 기업경영의 3요소라고 그는 말한다.”

제일항역주식회사 박광현 사장은 열일곱 어린 나이로 단신 개성시에서 남하하여 피난살이를 겪으며 ‘한 가닥의 꿈’인 오늘의 중소기업인이 되었다. 아마 그 꿈이 없었다면 그는 오늘의 젊은 기업인이 아니 되었을 것이다. 늙은이도 작으나마 한 가닥의 소망이 없다면 이미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꿈은 확실히 젊은이에게나 늙은이에게나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4-44에 본사를 둔 제일항역(주) 대표 박광현씨는 육·해·공 모든 분야를 연결 운송하는 국내 유일의 업종 중의 하나이다.

그 영업의 종류는 국제항공화물 취급(Air Cargo), 국제선박화물 취급(Sea Cargo), 국제항공서류 송달업(Courier), 국내화물운송알선업(Inland Transportation) 등의 업무를 취급하며 국제 항공서류 송달업(Air Courier)은 순

수한 한국적 업체로서 세계 각처에 대리점 망을 구성하고 있어 외국 업체의 한국 지점과는 자랑스럽게 구분된다. 국제 상거래에서 막강한 외국 업체와 그 등에 업혀 움직이는 국내 대리점과 대등하고 떳떳하게 경쟁하는 순수 한국적인 업체를 만들어가는 데 그 자랑스러운 목표를 세우고 1백여 명의 사원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에 여의도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서초동 화물터미널사무소, 영동 서울세관사무소, 부산시내사무소, 미국 LA사무소, 홍콩연락사무소, 부산CY 연락사무소, KAL빌딩 선박부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1969년 5월 28일 설립자본금 5백만 원으로 설립하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항공운송주선업(면허 제 8호) 및 전기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 목적으로 현재의 대표이사 박광현 씨가 설립, 72년 5월 27일 자본금 7백만 원으로 증자, 75년 5월 28일 자본금 1천 5백만 원으로 증자, 75년 1월 22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증자, 76년 10월 30일 국제복합운송체제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에 외항해상운송주선업을 추가하며 사세 확장으로 77년 2월 7일 현재 본사 사옥을 신축하였으며 동년 5월 13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증자했다. 79년 1월 15일 자본금 6천만 원으로 증자, 79년 10월 15일 일관된 국제복합운송 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국내 운송사업을 개시했다. 79년 10월 19일 자본금 8천만 원으로 증자, 80년 4월 3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증자, 81년 3월 31일 사세를 확장하며 시내사무실(중구 회현동 2가 16)을 구입, 81년 8월 8일 부산연락사무소를 부산영업소로 승격하고 업무를 강화했다.

82년 2월 25일 자본금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증자, 82년 10월 2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미주사무소를 설치했다. 84년 9월 4일 교통부로부터 상업서류 송달업 지정을 받아 명실공히 국제복합운송 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가의 수출증대정책 및 수출상사의 원가 절감에 적극 기여하고자 국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왔다. 85년 3월 9일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증자하

며 85년 4월 6일 대구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84년 개성시민회가 발족하고 송도지가 발간되자 시민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는 시민회 상임이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내는 송도가 낳은 기업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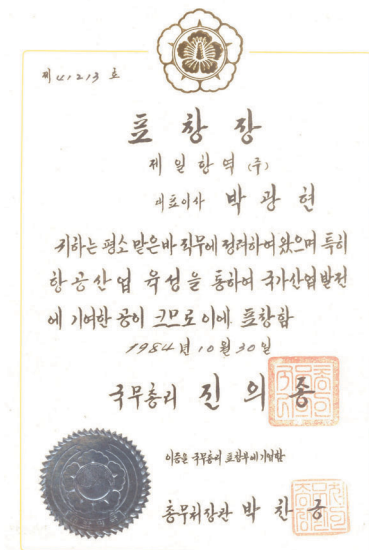
송도에 있을 죽마고우 박재청(朴在淸) 형을 상기하며

-소죽(素竹) 김진원(金鎭元)

송도지 47호(1992년 9월)에 기재



1984년 10월 30일 항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식



1984년 10월 30일 항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장

박재청 씨의 아호(雅號)는 춘파(春波) 또는 박아지(朴芽枝)라 하였다. 필자와는 유년시절부터 동문수학(同門修學)하던 죽마고우(竹馬故友)이며 소꿉동무였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13년경, 그러니까 필자는 7살, 춘파는 6살로 송도(松都) 용골(龍洞) 천변(川邊)에 사시는 김규진(金圭珍) 옹택(翁宅) 사랑채를 개방한 소위 <용동(龍洞) 글씨 초당(草堂)>에 함께 입학하였었다. 그 때 이 서당에는 30여 명의 동창이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연소자(年少者)였다.

그 때 필자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이란 책을 배웠고, 춘파는 이미 사서(四書) 중 “논어(論語)”를 배워 여러 학우 학부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는 4살 때 벌써 천자문을 떼었기로 주위로부터 신동이런 칭찬을 받았던 천재소년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하루는 갑작스런 선생님의 제의로 전 학우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었다. “한문독본” 제3페이지에 있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이란 문구 여덟 자를 분판(粉板-나무판에 분을 바르고 그 위에 들기름을 여러 번 발라 절인

판)에 써서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인 다음 곧바로 거둔 뒤 이 문장을 종이에 옮겨 쓰라고 하는 시험이었다. 그 때 필자도 한두 자 틀렸었고, 학우 전원이 정확하게 맞힌 이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유독 어린 춘파 소년만이 완전하게 이기(移記)하여 선생님은 물론 일반 학우들의 그의 뛰어난 기억력을 감탄한 일도 있었다.

그 때의 ‘용동 글씨 초당’을 좀더 소개해 보자면, 주인 어른인 김규진 옹이 그의 손자 12살박이 김영관(金永觀)이라는 글씨에 뛰어난 재질(才質)을 가진 소년을 위해 초당을 개설하면서 스승으로는 충청도 계룡산에서 수도하셨다는 한비(韓斐) 선생님을 모셔왔다. 한비선생님께선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특히 서도(書道)에 능란한 분으로 그 당시 서화계(書畵界)의 대가였던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선생과도 친우지간이었다.

한비선생께서 한번은 제자 김영관을 데리고 서울의 해강선생 댁을 방문하여 김영관의 필재(筆才)를 과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필자도 구경삼아 동행하였었는데 해강선생께서 영관소년의 필재를 보고는 극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년은 장차 대필가(大筆家)가 될 재질이 있다고 절찬(絶讚)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것을 들은 일도 있었다. 그 때 영관소년의 필재를 시험하던 자리에서 시필(試筆) 한 글귀 “월도천심처 풍래수면시(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란 시구가 아직까지도 필자의 기억에 아련히 남아 있다. 인명은 재천이라. 정말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는지. 그로부터 3년 뒤 이 글씨 잘 쓰던 김영관 소년은 불행히도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글씨초당도 부득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봉착하였다. 아마도 하늘은 천재소년들에게만은 굳센 건강과 수명을 함께 주지 않는 섭리를 갖고 있나 보다.

역시 신동으로 지칭을 받던 나의 벗 박재청 소년에게도 건강이 따르지 않아 다년간 치병차(治病次)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다. 그는 간 질환으로 장기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 시절에 속방(俗方)으로 전해 내려오는 상약(常

藥)의 하나로 간이 나쁜 환자에게는 소주(燒酒)가 병의 진전을 막아준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나 여러 친우들도 소주를 자주 권하며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춘파의 음주량은 보통 이상이어서 당시 주호(酒豪)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그 무렵 그와 관련한 실화 한 토막을 적어보면, 그 당시 송도에는 주호(酒豪)로 소문난 젊은이가 세 사람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한데 모여 음주(飲酒) 내기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들이란 다름 아닌 나중에 만화가가 된 박성선(朴性善), 소설가인 민병휘(閔丙徽), 그리고 춘파였다. 그들 셋은 30도 소주 한 되(一되)씩을 단숨에 안주도 없이 마시고 그 위에다 정종(正宗) 한 되씩을 더 마시고는, 남대문에서 출발하여 동부(東部) 행길로 가서 선죽교를 경유하여 호정(虎亭) 앞 두렁길로 올라가 개성박물관 앞을 지나 다시 남대문까지 돌아오는 코스 시합이었다. 오후 1시경 똑같이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친우들은 걱정이 되어 이 코스를 따라 가보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선죽교 돌난간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개성박물관 부근에 쓰러져 있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도 관덕정(觀德亭) 근처까지 와서는 곧드레 만드레 역시 코를 골고 있어 세 사람 모두 ‘골인’을 못했던 소화(笑話)가 있었다.

그 후에도 춘파는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계속한 끝에 다행 중 다행으로 완쾌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1933년경에는 공진항(孔鎭恒) 씨가 주간(主幹)하던 송도의 유일한 지방지 <고려시보(高麗時報)> 동인회(同人會)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 특유의 재치 있는 문구와 주옥같은 문장으로 한시(漢詩), 시조, 산문, 수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고물을 했다. 일제 말엽 이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신문편집에 온통 그의 젊음을 불태웠다.

유감스럽게도 1·4후퇴 시 함께 남하하지 못해 여태껏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안부도 모른 채 지냈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남북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호방문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혹시 우리도 반갑게 상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손꼽아 기다려질 따름이다.

춘파의 가문은 송도에서 누대(累代)로 명문거족(名門巨族)을 이루고 있는 밀양박(密陽朴) 씨 집안이다. 그의 큰아버지 박원혁(朴元赫) 옹과 춘부장 박두혁(朴斗赫) 옹은 전통적 가업인 고려인삼업에 종사하셨으며, 춘파의 친형인 박재숙(朴在淑) 氏는 큰아버지계로 출계(出系)하였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춘파의 아들 대현(大鉉), 광현(光鉉) 두 형제가 1·4후퇴 때 단신으로 남하하여 형 대현 군은 해군에 입대한 뒤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였고, 동생 광현 군은 해양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해운 및 항공운수 사업에 투신하여 열심히 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현 군은 우리 개성시민회 부회장으로서 시민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공헌이 있을 뿐 아니라,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송도실향노인회”에도 역시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성인 모두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춘파의 시고(詩稿) 가운데 한시(漢詩) 한 수와 시조 두 수를 옮겨 볼까 한다.

(漢詩) 慶州懷古

麗都客來羅都城 송도사람이 신라(新羅) 옛 도읍 경주에 와보니
撫今追古滿腔情 현실과 옛날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다.
巫峰送鹿山空碧 무봉에 사슴은 사라지고 산만 푸르렀고
半月失光水獨淸 반월성(半月城)이 무색(無色)한데 시냇물만 홀로 푸르구나.
去國金冠尙有色 망국(亡國) 후에 금관만 옛 색대로 남아 있고

忘君玉笛却無聲 주인(主人) 없는 옥(玉)피리는 불 사람이 없구나.
千年往事何須問 천 년 전의 일을 물어 무엇하랴.
亂草蓬蓬陵上生 왕릉(王陵) 위엔 잡초만이 무성하다.

(時調) 부산동(扶山洞)

돌고개 차고 넘어
구슬 뿜는 저물소리
부산동곡(扶山洞谷)에
있음직한 노래로세
구름도 가던 걸음 멈추고
귀 기울여 듣더라

수음(樹陰)은 장막인데
절벽(絶壁)은 병풍이라
반석(盤石)을 자리 삼아
청풍(淸風) 속에 누었으니
어디서 단소일성(短簫一聲, 한 가닥 피리 소리)이
구름 가에 울더라

계곡(溪谷)에 몸을 씻고
돌을 베고 누었으니
물소리 거문고요
매암이는 노래로다
노송(老松)도 풍류(風流) 아는가
우줄 우줄 하더라

박광현(朴光鉉) 본회(개성 시민회)

부회장 유공도민(有功道民)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 제 12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1994년 10월, 송도지 59호에 실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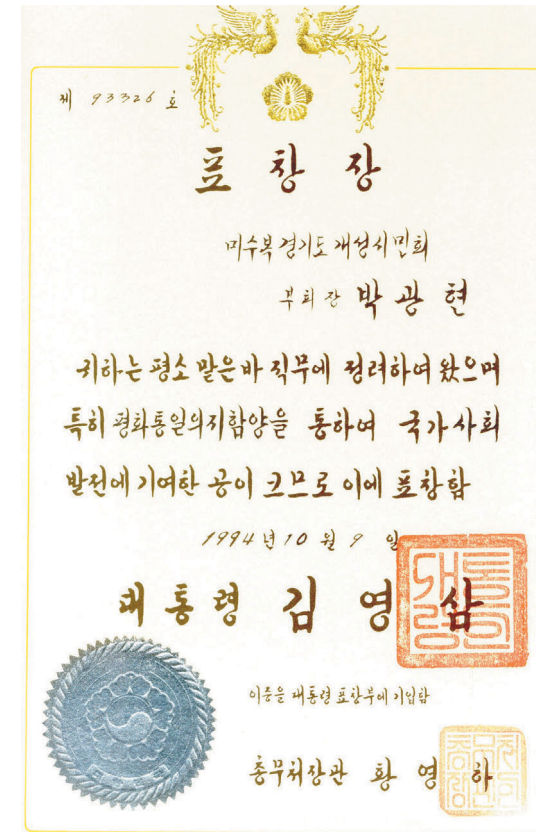
1994년 10월 9일(日) 제1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장에서 제일항역(第一航易)(주) 대표이사 회장이며 본회 부회장인 박광현 씨가 영예의 대통령표창자 대상이 되어 수상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하며 애향심이 누구보다 많아 본회 부회장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였으며 특히 경로정신이 남달리 철저하여 행동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 왔고 본회 발전과 송도지 육성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장학생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희사해 왔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송도인 특유의 생활신조를 지니고 있으며 조상숭배와 애향심을 함양하는데도 그의 2세, 3세에게 철저히 전수하며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그는 고향의 원로 유지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모범적인 인물이다.



1994년,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수상, 대통령 표창장



• 영광스런 수상소식

제12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朴光鉉 本會副會長 有功道民으로
大統領表彰 受賞



수상후의 朴光鉉 부회장



수상후 손자 태영(우) 준영(좌)과 기념촬영

10月9日(日) 제1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장에서 第一航易(주) 대표이사 會長이며 本會 부회장인 朴光鉉씨가 영예의 대통령표창자 대상이 되어 수상했다.

朴 부회장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하며 애항심이 누구보다 많아 본회 부회장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였으며 특히 경로정신이 남달리 철저하여 행동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 왔고 본회발전과 松都誌 육성에 몰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나이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장학생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회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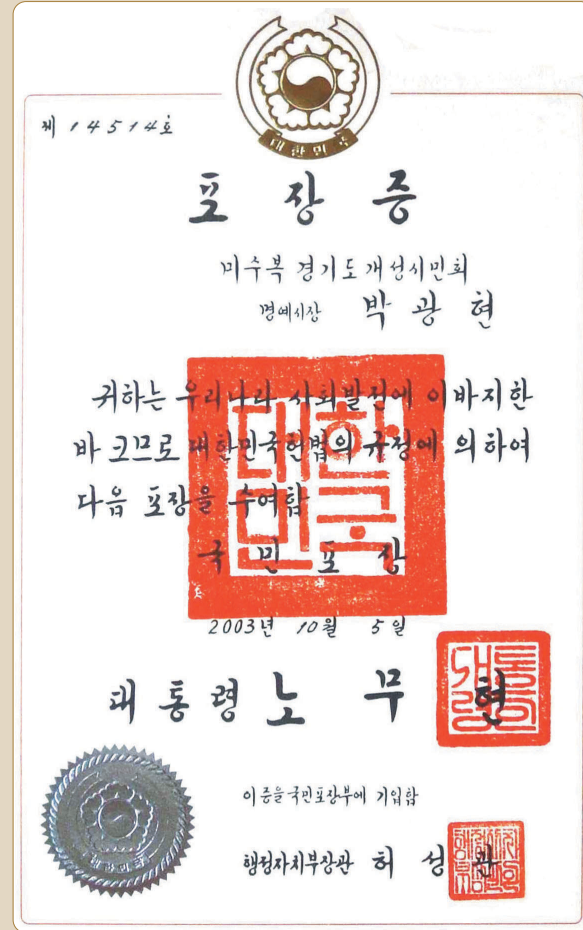
항상 겸손한 가운데 松都人 특유의 생활신조를 지니고 있으며 조상숭배와 애항심을 함양하는데에도 그의 2世 3世에게 철저히 전수하며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그는 고향의 元老 有志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는 모범적인 인물이다. <C.>



수상후 선배와 함께

2003년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송도지(松都誌) 속에 스민 감회

개성유격대(박광현 씀) 등 송도지에 기재된 글을 읽고

장경태(張慶泰)

1999년 4월 20일 송도지 87호에 기재

나는 요즘 지나간 송도지(松都誌)를 창간호(創刊號)부터 읽으면서 많은 감흥을 받고 실향송도인(失鄉松都人)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위안이 되고, 향수의 시름을 달래주는 위로의 샘이 되는 이를 데 없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향토지(鄉土誌)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 그 무엇인가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펜을 들었다.

책을 읽어 가면서 느낀 것은 개성(開城)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개성의 역사, 명승고적(名勝古蹟)의 유래나 사실(史實)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事實)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상식은 구전(口傳)으로 듣고 알게 된 피상적인 알팍한 것이었으니 스스로 무식하다고 느끼며 부끄러움을 가졌다. 나는 송도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깊은 감회(感懷)도 느꼈다. 책을 들면 표지부터 차례대로 기업체 광고, 목차, 권두언(卷頭言)을 비롯하여 내용물을 읽고 애독자 성수찬조명단(愛讀者聲授贊助名單)을 살펴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고 동정 소식란(動靜消息欄)을 눈여겨보고 편집후기까지 소상(昭詳)하게 읽는다. 창간호 표

지의 선죽교(善竹橋) 사진을 보니 대뜸 아! 이것이 바로 우리 향토지(鄉土誌)구나 하는 반갑고 정겨운 생각이 든다. 표지사진들에서 선죽교를 비롯하여 남대문(南大門), 박연폭포(朴淵瀑布), 태조릉(太祖陵), 박물관, 송양서원(崇陽書院), 공민왕릉(恭愍王陵), 만월대(滿月臺), 성균관(成均館) 등의 능(陵)을 대하고 보니 이런 저런 옛 추억에 가슴이 뿌듯한 한편 한스러운 생각에 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걸장을 넘기면 고향사람들의 기업(企業)을 소개하는 광고사진들이 나온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동향인(同鄉人)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기업광고가 송도지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고마움과 정(情)겨움을 느낀다. 다음 장 목차를 열면 제목들만 보아도 고향의 숨결이 담겨 있고 다종다양(多種多樣)한 고향이야기는 향토지로서의 면목이 약여(躍如)하다.

나는 언제나 본문을 읽기에 앞서 이 회장(李會長) 님의 권두언(卷頭言)부터 읽는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활지표가 있고 우국충정(憂國衷情)이 있고 시의적절한 경각(警覺)과 충언(忠言), 격려(激勵)가 있다. 1987년 학원소요사태(學園騷擾事態)가 극심하였을 때는 6·25 전화(戰禍)의 참상을 모르는 젊은 학생들이 미군(美軍)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배척(美帝國主義排斥) 운운하며 반미구호를 외치며 격렬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타하시면서 국가안위(國家安危)나 4천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들의 언동을 우려하시며, 각성을 촉구하였고, 1987년 9월 노사분규(勞使紛糾)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부터 국가기간산업(國家基幹產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산업이 파업 휴업(罷業休業)으로 들어가고 국민경제활동이 마비 직전에 이르렀을 때, 기업주(企業主) 측에게는 설비투자를 지속해 고용증대를 기(期)하고, 타협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측(勞組側)은 무질서한 행동을 거두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當付)하시며, 노사분규로 인하여 외채(外債)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주어, 경제가 몇 년을 후퇴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와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셨다.

또한 소위 3저 시대(三低時代)-유가하락(油價下落), 국제금리하락(國際金利下落), 미불화가치하락(美弗貨價值下落)-에는 자본재(資本財) 부품소재(部品素材)의 국산화,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개선을 하여 값이 싸서 가 아니라 품질이 좋아서 수출되는 산업구조개선(產業構造改善)을 벌써부터 역설하시고 대일 무역적자의 감축(減縮)을 촉구하셨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IMF 경제체제(經濟體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외채(外債)가 4~5백억 불 안팎일 때인 10수년 전부터 외채상환(外債償還)을 걱정하시고 퇴폐풍속의 심화와 극에 달한 사치와 소비, 외제품을 선호하고 1인당 2,000불 소득인데 10,000불 소득자처럼 흥청대는 소비성향을 우려하시며 송도인 특유의 근검절약하는 생활신조로 소비절약과 근면검소하고 생활의 절제를 고양(高揚)하시는 글을 읽을 때마다 논지(論旨)에 공감을 느끼고 그 선견지명에 경탄하였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장마다 고향의 향훈(香薰)이 그윽하다. 고려의 역사를 비롯하여 향토출신 선현(先賢)들과 인걸(人傑)들의 사화(史話), 풍류(風流), 풍습사화(風習史話), 야화(野話), 전설(傳說)이 다양하게 실려 있고 명승고적의 사진과 유래사실 설명이 곁들여 있어 고향의 역사적인 개요(概要)와 문화, 인맥 등을 다양하게 알 수 있어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었다. 그 안에는 향토문화의 열이 스며 있고 선조들의 숨결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다. 개성 구석구석의 명소와 골목길 3백여 군데의 이름과 그 위치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고 어찌나 반가운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옛날 이 구석 저 구석 쏘다니던 골목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또한 개성의 말씨를 알게 되니 사투리들이 정겹다.

무엇보다도 내가 깊은 감명을 받고 경탄(驚歎)한 글은 박광현(朴光鉉) 씨의 16세에 겪은 개성편의대(開城便衣隊)와 유격대 참전비화(遊擊隊參戰秘話) (3호-12호

연재)와 한병채(韓炳彩) 씨의 개성인의 독립정신(3호-17호 연재) 두 편의 특별수기이다.

이 글을 읽고 비로소 개성 재탈환(開城再奪還) 선봉(先鋒)에서 활약한 편의유격대의赫赫(赫赫)한 전공(戰功)을 알게 되어 감심(感心)하였다. 열여섯 살의 중학교 3학년생의 어린 학생이 부모님을 졸라 잠시 피난(避難)갔다 곧 돌아온다는 생각에 영정포(領井浦)를 거쳐 강화(江華), 인천(仁川)으로 갔다가 다시 강화에서 유격대에 자원 입대한 후 충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어 적지에 들어가 공산군과 총격전을 벌이며 고투(苦鬪) 끝에 드디어 개성에 입성하여 부모님을 한 달 만에 뵈게 되고 전진(戰塵)으로 찌들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딸기를 부모님과 먹으며 집을 떠난 뒤의 한 달 동안의 생활을 말씀드리고 임무수행을 위해 하룻밤도 부모님과 지내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른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떠난다.

그러나 그날 밤 중공군의 야습(夜襲)으로 중과부적(衆寡不敵)하여 사선(死線)을 넘어 후퇴(後退)하게 되니, 내일 아침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덧 어머니께서 정성드려 챙겨주신 새 옷을 입어 본 지도 30수년이 지났고 옷 속에 스며있는 어머니의 체온은 이제는 다시 느껴볼 수 없게 되었다고 슬회(述懷)한다. 아침에 다시 들르겠다고 하고 떠난 후 밤새껏 총포성이 끊이지 않고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니 행여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고 사체(死體) 속을 찾아 헤메시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과 다시 들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심심(深深)한 마음으로 떠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회상한다. 어떻게 아직도 16세밖에 안 된 미숙(未熟)한 소년이 생사존망(生死存亡)의 위험한 전지(戰地)에 나가겠다고 서슴없이 자원한 그 기백(氣魄)은 아마도 고려시대로부터 이어 내려온 개성인의 정의감과 충의심(忠義心)의 발로(發露)이고 개성의 열이라고 생각하며, 그 용기와 실천력에 감복(感服)하였다.

한편으로는 날이 밝으면 귀여운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흥분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치고 안위조차 알길 없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이제는 천추(千秋)의 한(恨)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을 모심(母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애절(哀絶)한 생각에 장탄식(長歎息)이 저절로 난다.

개성인의 독립정신(獨立精神)은 1944년 10월 개성상업학교에 재학 중인 7명의 학생들이 일제(日帝)에 항거(抗拒)하고 지하독립운동단체(地下獨立運動團體)인 고려재건당(高麗再建黨)을 조직하고 혈서(血書)로써 서로의 혈맹(血盟)을 재확인하며 일제퇴산(日帝退散)의 기회를 포착하면 거족적(舉族的)인 항전과 투쟁에 필요한 살상용(殺傷用) 무기의 확보와 조달을 위해 개성상업학교 무기고에 보관 중인 소총과 대검(帶劍)들을 탈취(奪取)하기로 하고 마침내 1944년 10월 초순 야심(夜深)한 밤중을 틈타 무기고를 파괴(破壞)하고 장총대검 등을 탈취하는데 성공하고 천마산(天磨山)에 은거(隱居)하게 만들고 끝내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천인공노할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는 용감한 애국학생들의 독립정신의 의거수기(義擧手記)이다.

내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해방되기 수개월 전이다. 그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참으로 장한 일이다. 어떻게 그런 대담무쌍(大膽無雙)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학교보다도 소위 황국신민화 교육에 철저하였고 온유(溫柔)한 상인(商人)만들기 교육에 철두철미하였던 개성상업학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사존망(生死存亡)이 걸린 위험한 일을 해 냈을까 하고 깊은 감명과 탄복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해방(解放)이 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사건은 거의 뇌리(腦裡)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송도지에서 그 수기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15회 연재기를 단숨에 읽고 또 정독(精讀)하였다. 몇 번이고 탄성을 올리며 이것이야말로

개성인의 얼이고 표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이 자랑스러운 후배라고 자부(自負)하면서 현실에 아부하고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더욱이 민경천(閔庚天) 의사(義士)는 8·15해방 몇 일을 앞두고 해주형무소(海州刑務所)에서 처형순사(處刑殉死)했다는 사실에 걸잡을 수 없는 의분(義憤)과 비감(悲感)에 명목(瞑目)하고 원비혼(冤悲魂)에 천상영복(天上永福)을 길이 누리시라고 축원(祝願)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해방이 단 열흘만 빨랐어도 귀중한 목숨을 구하고 청사(靑史)에 빛났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나는 이 수기(手記)를 읽으면서 이 투쟁사(鬪爭史)가 역사 안에 묻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후세들을 위해 향토지(鄉土誌) 속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으로 지나간 송도지를 들어가면서 뼈 아프게 느껴지는 글은 혈육들과의 이별의 비애(悲哀)를 토로(吐露)한 사모불망(思慕不忘)의 하소연의 글들이다. 6·25 전란(戰亂)은 우리 민족에게 숭한 비극을 안겨주고 하루아침에 혈육들과의 이별이란 비운(悲運)의 늪 속으로 휘몰아 넣고, 장구한 세월을 애절(哀絶)하고 통한(痛恨) 속에 원심(怨心)을 풀지 못하고 애달프게 살고 있는 실향민(失鄉民)은 부지기수이지만 어느 지방사람보다 개성사람의 수효(數爻)가 많을 것이다.

6·25사변 전에도 가끔 38선 접경에서 피차간(彼此間)에 총격전이 있었고 그때마다 격퇴시켰으니, 공산군이 침입해 왔을 때도 막강한 국군은 곧 침략자를 격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잠시 전화(戰禍)를 피해 임진강(臨津江)만 넘으면 곧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늙으신 부모님과 나이 어린 형제와 유소(幼少)한 자녀와 아내를 남겨둔 채 떠난 것이, 어느덧 반백 년(半百年)이란 세월이 흘러 10대에 떠난 소년도 이제는 백발이 되고 환갑이 지난 노경(老境)에 이르렀으니,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탄을 하며 절규해본들 그 한

땀 뻘뻘 흘리는 풀길 없고 어디다 호소할 곳도 없으니 영원한 유한(遺恨)이 되고 말았다. 많은 분들의 고향에 남겨둔 부모형제, 처자식들을 그리며 애인(哀咽)하는 단장(斷腸)의 울부짖음의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몇 번이고 책을 손에 쥔 채 한숨짓고 목이 메었는지 모른다.

어떤 분은 개성에 살았을 때 서울나들이를 가면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어머니께서 늘 개성역으로 마중을 나오셨는데 피난길을 떠나면서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떠났으니 집 떠난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루같이 정거장(停車場)에 나가셨다가 긴 세월이 지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마도 한에 땀 세상을 떠나셨으리라는 애모(哀慕)의 심정을 노래로 적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정을 살피고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어떤 분은 10대의 여고생(女高生)으로 집을 떠날 때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행어나 딸자식 잘못 될까봐 치마폭을 적시던 어머니께서 3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지 만수무강하시기를 비는 비수(悲愁)에 가득찬 심회(心懷)를 시(詩)에 담았고, 어떤 분은 첫 봉급을 타고 나니 고향에 남아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라 어머니가 좋아 하시던 색깔의 옷감을 사려고 시장을 헤매고 다니다 본전(本絹) 치마저고리감을 사서 간직한지 1년, 2년... 수십 년이 지났어도 옷장 속의 치마저고리는 보낼 곳이 없으니 어머니 무덤 앞에라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와하는 심정(心情)이 애달프다.

어떤 분은 며칠간 피해 있으면 곧 돌아올 수 있으려니 하고 어린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떠난 후 다시 돌아갈 수 없이 세월만 흘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두고 온 비정감(非情感)에 고민(苦悶)하다가 이산(離散)의 아픔과 한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난 부심(父心)이 있고, 6·25로 일단 공산군에게 밀려났어도 3개월 만에 수복이 된 전적(戰績)이 있어 곧 국군이 북진해 올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기고 떠난 것이 쉽게 돌아갈 수 없게 되어 하

는 수 없이 새 살림을 차렸으나, 언제나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며, 북쪽은 먹을 것이 없다는데 굶주리거나 앓나 엄동설한(嚴冬雪寒)이면 헐벗고 살지나 앓나 하는 애끓는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면 언젠가 통일이 되어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애절한 부심(父心)도 있다.

고향에 두고 온 혈육을 그리워하고 통음(慟泣)하는 절규(絕叫)의 글들은 이밖에도 열거할 수 없이 많다. 모두가 열흘 또는 스무날이면 돌아올 수 있고 임진강만 넘어 잠시 동안만 전화(戰禍)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노약자(老弱者)인 부모님과 어린 자녀와 아내를 남겨둔 채 홀로 떠나온 분이 많다. 잠시 동안 피한다고 생각하고 떠나온 것이 반세기란 긴 세월이 흐르니 못사람들에게 이산(離散)의 아픔과 통한의 슬픔과 슬한 비극만 안겨 주었다.

나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두고 온 자녀들의 슬픈 마음에도 눈물지었으나 고향에 남아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살폈을 때 가슴이 찢개지는 듯한 아픔을 가늠할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사랑하는 마음이요 목숨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어머니의 무조건이고 희생적인 자식 사랑이다. 그 부모님도 연로(年老)하셨으니 대다수의 분들이 자녀 그리워하는 원망(願望)을 한으로 품고 타계하셨을 것이니 유한(遺恨)에 서려 눈도 편안히 감지 못하고 떠나셨을 것을 생각하니 비탄(悲嘆)한 마음으로 또 다시 눈시울을 적셨다. 어린 자녀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홀로 떠나와 어쩔 수없이 재혼(再婚)을 하고 살면서 한시도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질 수 없는 자녀와 아내의 환영을 안고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부심(夫心)을 생각하니 애인(哀咽)하는 통곡(痛哭)이 들려오는 듯하다.

이러한 원루(冤淚) 속에 긴 세월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비단 지상(誌上)에 호소한 그분들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이고 아마도 실향인 치고 혈육과의 이별의 아픔을 안 가진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체념(諦念)하고 잊으

려고 노력하고 현실에 야합(野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점이, 그것을 내 운명이려니 내 숙명이라고 납득하고 살아갈 뿐이지 어찌 가슴속 깊이 사무친 한을 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으랴.

이렇듯이 우리의 명든 마음을 풀 수 없는 한(恨)을 후련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은 향토지(鄕土誌)밖에 없다. 그러므로 송도지는 실향개성인의 위안처이고 만남의 광장이고 서로의 마음이 교결하는 구심(求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송도지는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알게 모르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헌납하고,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이제 새삼스럽게 중언부언(重言復言)이 필요 없다. 개성인의 얼이 담겨 있는 송도지는 누구나 일진월보(日進月步)로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런데 지난 1월 85호에 실린 두 분의 제언(提言) “송도지를 살립니다.” “시민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읽고 참으로 지당(至當)한 제언(提言)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느껴져 누구나 다시 한번 음미(吟味)해 보고, 내가 협조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성(自省)해 볼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요지를 적어 보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유지들께서 연로(年老)하셔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어 지원금과 광고계재도 줄어들고 독자성금도 작년 한 해 동안에 3,500명 중 901명밖에 보내지 않았으니 독지가(篤志家)나 유지(有志)들에게만 의지할 때는 지났으니, 상부상조정신과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가짐으로 친구들과 마시는 술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개성시민의 자랑이요, 긍지인 송도지를 환향(還鄕)의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 이어가자는 것이었고, 또 한 분의 제언은 시민회는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송도지 발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화은행(同和銀行)의 퇴출(退出)로 2억 원의 주식(株式)이 휴지화(休紙化) 되었으니 (1) 전 회원이 연 30,000원의 회비 납부 (2) 2세 경영인들이 계속하여 시민회를 지원하는 방법 (3) 회원업체간의 상거래 활성화 방법 (4) 아직 회원등록이 안 된 약

5,000여 명의 동향인들의 참여 등을 촉구하고 세대간(世代間)의 끈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 놓아야 하고 세대(世代)와 세대 간(世代間)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민회도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경각심을 깨우치고 있다. 이 두 분의 제언은 누구에게나 공감대(共感帶)를 이루리라 믿는다.

개성시민회가 눈에 띄게 발전을 거듭하고 활발한 것은 그 동안 애향심(愛鄕心)에 불타고 물심양면으로 크나큰 희생과 희사(喜捨)를 아끼지 않은 독지가(篤志家)가 있었기에 이룩되었음을 믿고 있다. 시민회는 우리 고향의 표상이고 구심점이며, 송도지는 만남의 광장이고 망향(望鄕)의 한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다. 망향의 시름에 허전할 때 빈 마음을 채워주고 어루만져 주며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 송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디서 고향이야기를 듣고 고향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랴.

매 호(每號)마다 송도지 발행은 회원 성금과 광고로 제작 발간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간청의 글이 실려 있지만 새삼스럽게 부언(附言)할 나위도 없이 두 분의 제언대로 어려운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을 아끼는 정성으로, 우리의 진심을 애향심과 묶어, 성의 있게 물심으로 협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처지(處地)에서의 작은 힘이 큰 힘을 이룩할 것이다.

모두 함께 작은 힘이라도 합치자. 그리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개성시민회와 송도지는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본회 박광현(朴光鉉)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임되다

-2000년 7월, 송도지 94호에 실린 기사

본 시민회 부회장인 박광현 제일항역(주)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에 선임되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왔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배우고 닦은 해운분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해운 강국을 이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졸업생 총수가 2만 명을 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운분야 여러 곳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내외에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해양대학교가 개성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개성사람들이 상업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한 것이 고려 폐망 이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신라시대부터 개성사람은 국제적인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시대의 잘 알려진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우리나라 남해안과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로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개성의 상인들은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와 예성

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는 풍덕을 기점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무역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이 해양진출의 관문이 있는 송악이 탐이 나서 후고구려 궁예는 개성으로 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개성인은 해양과 친밀하였고 이를 잘 활용하였다. 한참 고려가 융성할 때 송도 시내에서 예성강 하구 벽란도까지 건물이 즐비하여 가리개(우산) 없이 우중에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왕래하였다는 사실이 개성인의 해운에 의한 해외진출을 증명해 준다.

해방이 되자 몇 안 되는 뜻있는 해운인들이 빼앗기고 잃었던 해운분야를 되찾으려 서둘러 1945년 11월에 진해에 한국해양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입학한 분들이 제 1기생이 되며 그 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금년 52기 졸업생을 해운 분야에 방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을 전후하여 많은 개성인 또는 개성에 와서 수학한 분들이 한국해양대학교를 찾은 것은 바로 개성인에게 흐르고 있는 해양의 동경과 야망의 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해운에의 진출을 갈망하는 정신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이후에도 한국해양대학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인천으로 옮겨 온 송도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국 해양계에서 칠대양을 무대로 눈부신 활약을, 그리고 괄목할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개성출신 및 개성소재 중학교(송도중, 개성중 등)출신 해양인들을 소개하면,

1945년 입학, 제1기로 강경욱(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임광선(전 극동해운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제4기 박태안(오람해운 회장), 제5기 신호철(세계적인 한국선급협회 부회장 및 고문, 전 송도중학교 교장 신옥철 씨 형님), 이병대, 김영소, 마종빈(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제6기에 방석훈(전 범양상선 부회장), 최성원, 제7기에 현증휘, 강원배, 제8기 김영세, 제9기 인재혁, 제10기 박광현, 제11기 김

통호 등 해운계에서 평생을 몸바쳐온 해운인들이 기라성같다. 인천의 송도고등학교 출신으로 송봉현(제9기) 외 수많은 분들이 뒤를 이었다. 본 시민회 이사이며 송도지에 많은 기고를 하는 김동민(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도 한때 한국해양대학교에 입교하였다.

말년에 한국해양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적이 있고 학장으로 계시는 동안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신성모 씨는 개성사람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셨다. 영국 런던 항해대학 수학시는 개성의 명문가 공진항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그 자제분 신명구 씨는 만몽회사에 근무하며 개성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다. 해방 후 정계에 몸담고 있을 때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으나, 한국 해운계에서는 독보적인 분으로 인정된다. 영국 런던 항해대학 졸업 후 명 선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동양인으로는 일곱 명밖에 없다는 영국의 마스터 면허(작위) 소지자이고 신 라인이라는 영미간 항로를 개척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분은 항상 개성사람과 해양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개성인의 해양 진출을 크게 칭찬하시곤 했다.

제 15대 개성시 명예시장 이·취임식

—하림각 2층 행사장에서
2001년 7월, 송도지 100호에 실린 기사

7월 18일(수) 12시 30분 이회림(李會林) 개성시민회장, 김종인(金鍾寅) 전임 개성명예시장, 박광현(朴光鉉) 신임 개성명예시장과 유신영(劉信榮) 원로 개성명예시장, 시민회 이사, 원로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구 명예시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김완진(金完鎭)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공응중(孔應重) 편집국장의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이회림 시민회장의 회장 인사, 관인 인계, 전임 김종인 명예시장의 이임사, 박광현 신임 명예시장의 이력소개와 취임사, 전임 명예시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전임, 신임 명예 시장에게 화환 증정, 유신영 원로 명예시장의 축사가 있던 후 폐회되었다.

이회림 시민회장은 인사에서, 신·구 명예시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퇴임하는 김종인 명예시장의 업적을 치하하는 한편, 제 15대 박광현 명예시장의 시민회 설립 당시부터 참여해서 시민회에 공헌한 업적을 소개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명예시장인 아닌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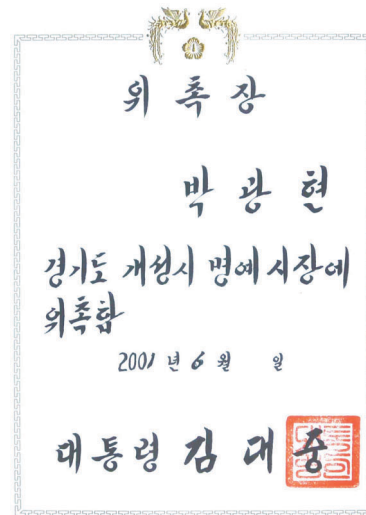
제 개성시장의 이·취임식을 개성시청 광장에서 거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대하며 다시 한번 신임 박광현 명예시장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종인 전임 명예시장은 이임사에서 제13대, 제14대 명예시장직을 연임하면서 고향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었는데, 지나고 나니 부족하게 생각되는 점도 있으며, 제일 막내적인 제가 먼저 명예시장직을 맡았던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신임 명예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박광현 신임 명예시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명예시장의 공적을 치하 드리며 이번에 제15대 명예시장에 선임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나 덕망 높은 인사가 나온다면 시장직을 인계하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친 후에 본회 문성모(文聖模) 이사의 제청으로 건배가 있는 다음 오찬이 있었다.



2001년 6월 25일, 개성 명예시장 임명장 수여식.



2001년 6월 25일, 개성 명예시장 임명장.

항공 화물업계의 역사를 찾아서

- 제일항역 박광현 회장님 인터뷰
카고프레스 2002년 3월호에 실린 기사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역사를 말한다면 당연히 한국항공화물(KAS)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만, 항공화물의 면허 자체가 없었던 초기 항공화물 시절에 활동했던 8개의 선구 업체들 중 아직까지 현 업에서 활동 중인 당시 경영자를 찾았다면 제일항역의 박광현 회장이 최고일 것이다. 해상운송분야에 먼저 발을 들여놓기도 했지만 초기 우리 항공화물 포워드 업계에서 제일항역의 박광현 회장은 협회 설립과 면허제 도입 그리고 전문 혼재사의 출범 등 많은 분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가발 수출산업이 호황을 구가하던 1968년 이후 70년 초기 우리 업계의 이야기를 박광현 회장을 통해 들어본다.

60 8

제일항역이 항공화물 포워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6년으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항공화물업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용환 사장이 한국항공화물(KAS)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으며, 그 외에는 대표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 에어카고와 해운 선박회사면서 항공사업에 진출한 에버레트 기선(이동

혁 사장)이 있었다.

우리 제일항역이 항공사업에 뛰어들고 나서는 세방여행과 대한통운, 그리고 반도 에어카고와 대영항공 등이 진출하여 초기 이들 8개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화물 업계를 자연스럽게 구성하게 되었다.

나는 1958년 극동해운에 입사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1959년 이후에는 자랑 같지만 사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랐다. 당시 젊은 패기로는 나중에 대한민국 최대의 선박회사를 경영해 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선박회사 출신 직원들이 선박회사 오너의 꿈을 키우며 독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심심치 않은 일이었으나 쉽지는 않았으며 1966년 독립을 결심하고 사표를 냈지만 축약형식으로 남아 달라는 회사의 요구가 있어 이른바 직파영업 형태로 독립회사를 꾸리기 시작했다.

극동해운에서 독립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제일선박인데 당시는 개인기업의 형태였다. 항공분야로의 진출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해운영업과 더불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항공분야로의 진출은 당연했기 때문에 1966년 제일항공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후 이들 2개 회사를 합쳐 1968년 정식으로 주식회사 제일항역을 출범시키게 되는데 회사 이름에 항역(航易)을 붙인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무역 관련 사업도 일부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포워더들 중 '항역'이라는 상호는 훗날 서울에어카고를 인수한 이상영 사장이 잠시 서울항역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으며, 아라항역이 이를 사용, 아직까지도 이렇게 3개 사만이 '항역'을 상호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IATA “ ” NON-IATA A B

어쨌든 초기 항공화물 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8개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영업을 했는데 역시 한용환 회장의 KAS가 가장 많은 실적과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 많지 않은 업체였지만 회사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나타나곤 했는데 그 이유는 항공사 B/L(AWB)을 얻기가 무척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IATA 대리점이 아니면 AWB를 주지 않았으며, 상당기간 영업실적을 쌓아야 겨우 B/L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당시 대한항공 담당자였던 김두철(씨)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포워더들이 힘들었던 것은 NON-IATA 대리점에게는 항공사들이 5%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마도 반도에어카고와 대영항공이 무너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당시 KAS와 세방이 제일 열심히 했고 실적도 높았으며, 그 다음에 우리 제일항역이, 그리고 에버레트는 해상운송에 주력했기 때문에 항공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당시 활동했던 모든 포워더들은 너도나도 IATA 대리점을 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때에는 지금보다도 IATA 대리점 되기가 더 어려웠다. 우리 제일항역이 제일 우선 순위로 IATA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IATA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당시 NON-IATA 대리점이 IATA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IATA 항공사와 거래 실적이 있어야만 했다. IATA의 극동지역 담당 항공사는 일본 항공사였는데 우리 제일은 다행히도 일본항공과 관계가 무척이나 좋았다. 특히나 상당량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던 노스웨스트 항공과 잠깐 선 B/L 사건으로 관계가 소원해져 어려움을 겪

었는데 일본항공이 많은 도움을 줘서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좋은 관계 덕분에 우리 제일항역은 IATA 대리점 취득 시에도 일본항공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다행히 최종 심사를 하는 싱가포르의 IATA (극동)본부까지 서류가 제출되었다. 물론 제출 서류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많았으며 여러 가지 보증도 필요했었다. 회사 재정 상태증명은 물론이고 한국 내 상당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보증과 영업 실적 등등, 지금 기억으로 당시 제출 서류량이 웬만한 책 두께만큼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여하튼 당시로서는 우리 제일도 여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IATA 대리점 취득이 회사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서 결과를 기다리기 조바심이 나서 직접 싱가포르로 달려갔었다. 당시 싱가포르 IATA 심사 담당관은 일본인이었는데 서류를 훑어 본 뒤 뜬금없이 “너희 회사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해 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 우리나라 포워더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한참을 난감해하고 있는데 다른 담당자가 “혹시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로터리 클럽에 가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반색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오케이’를 했다. 운이 좋았던지 싱가포르 출장 이전에 다른 이유로 할 수 없이(?) 로터리 클럽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제일항역의 IATA 대리점 취득에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다.

B/L 5

IATA 대리점 취득 때와 같이 초기 우리 포워더들은 항공사들에게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고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과정에서 항공사들에게 섭섭했던 점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제일 큰 불만은 B/L을 수령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매일 5부씩만 B/L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수령시간이 정해져서 1분만 늦어도 담당자들이 “내일 다시 오라”고

해 화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받을 동동 굴렀던 기억도 새롭다. 항공사와 운임정산은 지금처럼 15일과 말일에 2번씩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은 별로 기억에 나질 않는다.

당시 우리 제일항역은 대한항공과 노스웨스트, 일본항공, 그리고 영국항공을 통해서 케세이 퍼시픽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쉽게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포워더들은 많은 고생을 함께 했는데 초기 우리 제일항역에는 송기옥을 필두로 김광호, 정신일, 서징호 등 인재들이 많았다. 특히 송기옥은 에버레트 출신으로 당시 우리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직접 교육시켰으며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실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이랄까 여하튼 인재양성을 위해서 회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자랑 같지만 KAS와 우리 제일항역이 가장 열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세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실무자들은 교육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외국항공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수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 ... B/L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항공화물을 취급하던 196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인 가발이 전성시대였다. 기억으로는 70년 이후 스웨터 등 섬유가 항공 수출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무역용 샘플이 전부였다. 지금과는 달라서 당시 수출화주들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미약해서 우리만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

우리 무역업체들은 자금 흐름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가끔은 지급어음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 포워더들을 찾아온 회사들이 적지 않았다. 김우중 사장이 직접 온 것은 아니지만 대우(전신 한성무역)도 우리에게 어음 연장 때문에 찾아 온 적도

있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웃음)...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선 B/L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솔직히 열악한 무역업계의 사정으로서 운송업체들이 우리들을 찾아와 선 B/L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우리 포워더들도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고정거래처인 경우 많은 업체들이 선 B/L을 발행하고는 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 B/L처럼 악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 B/L을 요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산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단지 공장을 돌리기 위한 자금조달로서 가끔 선 B/L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운송업체들은 굳이 선 B/L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이를 수락한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무역업체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욱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선 B/L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가지 공신양행 건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제일과 상당히 오랫동안 거래해 온 가발 전문업체인 공신양행이 어느 날 갑자기 에버레트로 거래선을 바꾸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공신양행 사장과는 친밀한 관계여서 몇 건의 선 B/L이 남아 있었기에 더욱 화가 났으며 전화로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와 거래에서 남겨 놓았던 선 B/L건을 다 해결하고 나서는 에버레트와 거래하던 중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피해가 전혀 없었지만, 에버레트는 뒤늦게 거래한 업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생각해보니 당시 공신양행 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거래처를 옮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에버레트는 큰 회사이고 외국기업이니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공신 사장이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웃음)...

70

가발 수출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 수출의 대명사였던 만큼, 당시 우리 항공 포워더들은 이렇듯 가발 수출업체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해서 전 직원이 운송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시 우리 제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장인 나를 포함하여 불과 6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했다. 지금 우리 제일항역이 13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외국에만 11군데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당시 포워더들의 운송수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필요하다면 지게든 리어카든 동원하여 물건을 옮겨야만 했다. 우리 제일도 내가 업무용으로 쓰던 픽업용 화물차량 1대가 전부였다.

여하튼 화주가 신고 오든 우리가 픽업을 해오던 가발 공장에서 박스에 담겨져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우리 회사가 있던 무교동 사무실이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당시 우리 회사가 있던 무교동 금일빌딩은 2층이어서 직원들이 박스를 어깨에 메고 직접 옮겨야 했다. 도착한 가발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 가발수출검사소 직원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수출상품을 직접 검사해야만 비로소 공항으로 화물을 옮길 수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수출검사가 끝난 화물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하는 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벨작업을 하고 B/L 발행하고 항공기에 기적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다만 공항에서의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국제선 제 1청사 옆 정도에 위치한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곳 보세창고에 사무실을 열기가 무척 어려워서 공항업무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김포에는 당시 3곳의 보세창고가 있었는데 이들의 위세(?)가 항공사 못지않았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항공사 스페이스가 나는 대로 가발이 채워져 나갔으니 호황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다.

1968년 당시 기준으로 우리 제일항역은 항공으로만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월간 1만 6,000달러(항공사 FLAT RATE 기준)정도를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KAS는 월간 1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업계가 월 20만 달러 정도를 했으니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업계가 항공화물을 취급하던 초기에는 면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정부 기관의 지원이 전무했던 관계로 여기저기서 홀대(?)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해서 업계사장단들은 1968년부터 교통부를 통해서 꾸준히 면허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우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협회 출범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1970년 11월 교통부로부터 협회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면허 문제도 해결되었다. 굳이 차례를 지킨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면허 1호는 KAS가, 2호는 서울카고, 3호는 에버레트가 취득했으며 우리 제일항역은 4호로 네 번째가 되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협회 설립으로 초대와 2대의 회장에는 KAS의 한 회장이 선출되었고 3대 회장은 에버레트에서 나왔으며 4대 회장에는 내가 선출되어 회장도 4번째로 하게 되었다.

협회 출범과 면허제로 우리 업계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으며 면허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후발로 진입하게 되는데 72년인가에 6~8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었다. 기억나는 회사들을 보자면 게이트웨이, 동아항공, 해외항공, 아세아항공, 고려항공, 점보익스프레스 등등이 이들 업체들이었다.

당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파트너라는 것은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었다. 일본이 해외 파트너로 각광(?)받게 된 것은 이른바 콘솔(혼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업계에 콘솔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우리 제일항역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니 무엇보다도 혼재를 통한 수익창출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의 형태도 그렇고 우리 포워더들의 능력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콘솔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해서 내가 생각하길, 일본으로 혼재 가능한 물건을 보내서, 파트너로 하여금 혼재를 하여 미국 등으로 보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 해서 당시 일본항공의 소개로 일본 측의 세이부 실무자가 방한, 우리와 일본 콘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일항역은 당시 일본 세이부의 계열사였던 UAC(UNITED AIRCARGO CONSOLIDATOR)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일본 현지 콘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본에는 이밖에 TAC (TOKYO AIRCARGO CONSOLIDATOR)와 JAC(JAPAN AIRCARGO CONSOLIDATOR) 및 NEC 등이 콘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KAS는 TAC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현지 콘솔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업체들에게도 그리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질 못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일본 현지 콘솔은 일본 업체들만 유리한 것이어서 72년 이후 차라리 우리도 혼재사를 만들어 영업을 해보자는 방안을 내고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교통부로부터 전문혼재사 면허를 받도록 일을 추진했다.

면허제 이후 진출한 업체들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 3개의 전문 혼재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이때 구상되었으며, 마침내 1975년 교통부가 다음 해(76년) 7월까지 5개사 이상이 혼재 그룹 3개에 대해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어 탄생한 것이 세계혼재(WAC), 범한혼재(PKC), 대한혼재(DAC) 등 3대 혼재사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항공화물업계는 전문혼재사와 일반대리점이 함께 시장을 구성하는 현대 모습의 틀을 갖추어 나갔으니 이때가 1976년이다.

...

마지막으로 해외파트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

인 유수의 외국계 포워더들과는 제일이 모두 한 번씩은 파트너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내 성격은 외국 기업에 종속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서 이들과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외국기업이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제화, 세계화 등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무슨 전근대적인 생각이냐고 비난할지는 몰라도 나는 여전히 싫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외국 포워더들은 한 마디로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는 업체들을 선호했다. 자연히 나를 포함한 우리 제일 항역이 거북스러웠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들에게 ANTI-FOREIGNER란 말까지 들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하고 해외 지사 설립(네트워크 확장)에 보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네 정서상 해외지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키웠던 직원이 배신하기 일쑤고, 투자한 만큼 효과도 별로다. 그러나 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68년 우리가 1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달러가 가까워서라도 외국업체들이 우리 시장에서 잘 되는 것은 보기가 싫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자. 전체 시장에서 외국 포워더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실상 외국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업계에 젊고 똑똑한 후배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요즘은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경쟁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 고객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언도 하고 싶다.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복창을 하고 행동에 옮기듯이 고객의 말에 복창하는 기분으로 서비스에 임해야 할 것이다.

春波 박재청(朴牙枝) 문선(文選)

동아일보 1927년 신춘 현상 당선시
어머니시여

시조
만월대, 선죽교, 남대문, 부조현, 장안도중,
경덕궁, 흥국사, 부산동탁죽, 서기정

송악산 등척기

정월 중 개성의 이상한 풍속



어머니시여

—동아일보 1927년도 신춘현상 당선시

박아지(朴芽枝)

어머니시여!

어린 애기에게 가르치소서

어린 애기로 하여곰 악(惡)한 길을 떠나게 하오소서

어린 애기의 령혼은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기에 피곤하였스며

어린 애기의 눈은 어머니 얼굴을 차든지 오래엿습니다.

아시는 사람을 애기에게 가르치소서

사람이 되려하는 마암의 씨를 가졌사오니

어린 애기로 하여곰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오소서

어린 애기를 보실 때와 갓흔 인자하심을 가르치소서

어린 애기로 하여곰 누리의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리의 사람으로 하여곰 인자하게 하옵소서

어머니시여!

어린 애기는 우습을 차든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애기에게 우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사한 그 우습을 배우게 하소서

어린 애기로 하야곰 어머니가 조와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어린 애기의 생명(生命)을 새롭게 할 노래를 부르게 하오소서

그리하여 누리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하오소서.

출처: 동아일보 1927년도 신춘현상 당선시(新春懸賞當選詩)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SEOUL. [日曜金] 日一十月二十年九和曆 (K22內報編三第卷第百五第)

新春懸賞當選發表

作品은 元日부러掲載

農村振興策	入選者 京 都 盧東奎	三等 (同賞)	南慶熙
青年運動振興統一策	選外 京 城 李石初	同 (同賞)	李貞求
短篇小說	選外 京 城 李石初	同 (同賞)	李貞求
小作(人畜者)	同 (同賞)	同 (同賞)	李貞求
朝鮮現代文藝概論	入選者 京 城 李石初	同 (同賞)	李貞求
家庭改良	入選者 京 城 金龍培	同 (同賞)	李貞求
余의 婚姻觀	入選者 京 城 金龍培	同 (同賞)	李貞求
詩 歌	入選者 京 城 金龍培	同 (同賞)	李貞求
兒童作品	入選者 京 城 金龍培	同 (同賞)	李貞求

東亞日報

동아일보 1926년 12월 31일 제1면. 신춘현상 당선발표 기사.

懸賞當選詩

어머니시여!

其二 朴芽枝

어머니시여!
어린애기에게가르쳐주소서
나게하소서
어린애기의령혼은어머니의가
르치신을기달이기에피곤하였
었스며
어린애기의또은어머니얼굴을
차든지오래였습니다
아시는사람을애기에게가르쳐
주소서사람이되려하는마암의
씨를가르쳐주소서

어린애기로 하야곰 사람의 눈
을 뜨게 하오소서
어린애기를 보실때와 같은이
자 하심을 가르쳐주소서
어린애기로 하야곰 누리의 모
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누리의 사람으로 하
여 공인자하게 하옵소서
어머니시여!
어린애기는 우습을 차든지 오
래였습니다
어린애기에게 우습을 보여 주
십시오 다사한 그 우습을 배우
게 하소서
어린애기로 하야곰 어머니가
조와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어린애기의 生命을 새롭게 할
노래를 부르게 하오소서
그러하여 누리의 모든 사람의
生命을 새롭게 하오소서

우리는 아이

金時容

가시덤불을
다듬바질하는
우리는 아이
가시에 켜려 어
피가 흘러서 다 커도
상관안하고
밝은 봄을 차즈려
감감한 가시덤불을
해매는
우리는 아이

동아일보 1927년 1월 6일 제3면.

만월대(滿月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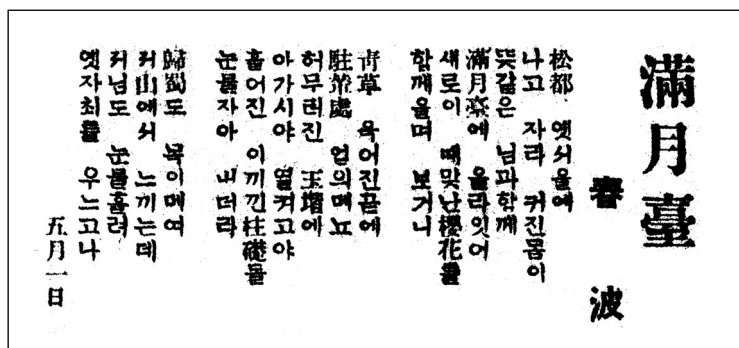
시조-춘파(春波)

송도(松都) 옛 서울에 나고 자라 커진 몸이
 뜻 같은 님과 함께 만월대에 올라 있어
 새로이 때 맞난 앵화(櫻花, 벚꽃)를 함께 울며 보거니

청초(靑草) 옥어진 골에 주거처 어드메노
 허물어진 옥계(玉階, 옥섬돌)에 아가시아 열켜고야
 흩어진 이끼낀 주초(柱礎)돌 눈물 자아 내더라

귀축도(歸蜀道, 소쩍새) 목이 매여 저산(山)에서 느끼는데
 저님도 눈물 흘러 옛자취를 우느고나

출처: 고려시보 1933년 5월 16일 8면



선죽교(善竹橋)

시조-춘파(春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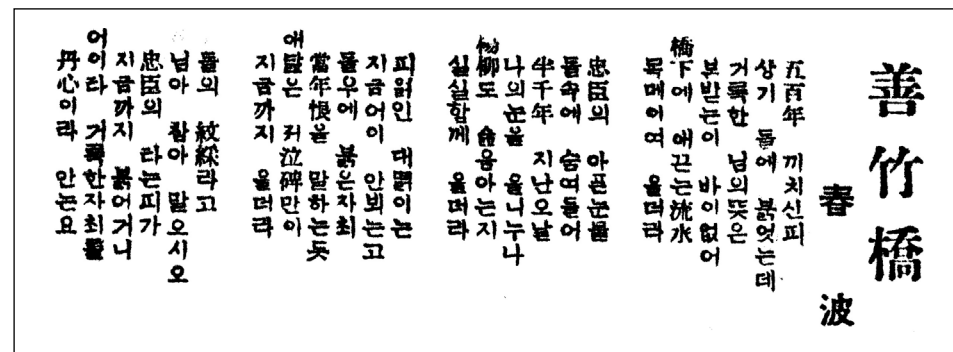
오백년(五百年) 끼치신 피 상기 돌에 붙었는데
 거룩한 님의 뜻은 본받느니 바이 없어
 교하(橋下)에 애꾸는 유수(流水) 목매이여 울더라

충신(忠臣)의 아픈 눈물 돌 속에 숨여들어
 반천년(半千年) 지난 오늘 나의 눈을 울니누나
 양유(楊柳, 늘어진 버들)도 숲을 아는지 실실 함께 울더라

피엎인 대뺨이는 지금어이 안되이고
 둘우에 붉은 자취 당년한(當年恨)을 말하는 듯
 애닦은 저 읍비(泣碑)만이 지금까지 울더라

돌의 문채(紋綵)라고 님아 참아 말으시오
 충신(忠臣)의 타는 피가 지금까지 붉어거니
 어이라 거룩한 자취를 단심(丹心)이라 안느요

출처: 고려시보 1933년 6월 1일 5면



남대문(南大門)

시조-춘파(春波)

고려(高麗) 예스성지(城趾, 옛 성의 터)를 직혀잇던 저 남대문(南大門)
 서울야 옮겨졌건 낙망(落望)할 바 아니로다
 오백년 바람비 속에 변(變)잡없이 섰더라
 성은 뭉어지고 문루(門樓)만 외로운데
 지난날 쓰린자취 가시울에 갖엇고야
 이따금 이 자손(子孫) 만나서 바람 속에 울더라

누상거중(樓上巨鐘)

연복사(演福寺) 절을 떠나 문루(門樓)에 옮겨진 뒤
 밤과 낮을 울어 인정(人定, 밤의 통행금지신호)을 외치던 몸
 어이라 때 바뀐 설음을 하소함도 없나니
 한(恨) 많은 저 쇠북이 잠든 지가 멧해러노
 꼭지는 떨어져서 흙속에 묻혀잇네
 다시금 큰 소리 울 때면 이겨레도 깨리라

출처: 고려시보 1933년 6월 16일 5면

다 시금 큰 소리 울 때면 이겨레도 깨리라 흥속에 묻혀잇네 꼭지는 떨어쳐서 잠든 지가 멧해러노 많은 쇠북이	어이라 때 바뀐 설음을 하소함도 없나니 밤과 낮을 울어 인정(人定)을 외치던 몸 연복사(演福寺) 절을 떠나 문루(門樓)에 옮겨진 뒤	이따금 이 자손(子孫) 만나서 바람 속에 울더라 가시울에 갖엇고야 지난날 쓰린자취 문루(門樓)만 외로운데 성은 뭉어지고	高麗 예스성지(城趾)를 직혀잇던 저 남대문(南大門) 서울야 옮겨졌건 낙망(落望)할 바 아니로다 오백년 바람비 속에 변(變)잡없이 섰더라	南大門 春波
---	---	--	---	-----------

부조현(不朝峴)

시조-춘파(春波)

나라이 뭉어지고 임금이 없어지니
 살음도 하잔커늘 공명(功名)이 그 무엇인가
 과장(科場, 과거시험을 보는 곳)에 관(冠)을 던지고 이 고개를 넘더라
 솔피에 재가 날고 죽교(竹橋)에 피빛나니
 뜻깊은 선배의 강개(慷慨)할 때이로다
 어이타 이씨(李氏) 무릅에 굶일줄이 잇으랴
 옥계(玉階)에 계지(桂枝, 계수나무 가지)찍음 사람의 바람인데
 그 많은 선배들이 다 마다 하엿것다
 의(義)아닌 그 날 그 자리 부조(不朝)한담 불워라

출처: 고려시보 1933년 7월 1일 6면

살음도 하잔커늘 공명(功名) 이 무엇인가 과장(科場) 관(冠) 던지고 이 고개를 넘더라 솔피에 재가 날고 죽교(竹橋) 피빛나니 뜻깊은 선배의 강개(慷慨) 할 때이로다 어이타 이씨(李氏) 무릅에 굶일줄이 잇으랴 옥계(玉階) 계지(桂枝) 찍음 사람의 바람인데 그 많은 선배들이 다 마다 하엿것다 의(義) 아닌 그 날 그 자리 부조(不朝) 한담 불워라	不朝峴 春波	治的存 在가 一般의 鄭夢周 科場에 冠을 던지고 이고 개를 넘더라 솔피에 재가 날고 죽교에 피빛나니 뜻깊은 선배의 강개할 때이로다 어이타 이씨 무릅에 굶일 줄이 잇으랴 옥階에 桂枝 찍음 사람 의 바람 이 그 많은 선배 들이 다 마다 하 엿 것 다 의 아 닌 그 날 그 자 리 부 조 한 담 불 워 라
---	-----------	--

장단도중(長湍道中)

시조-춘파(春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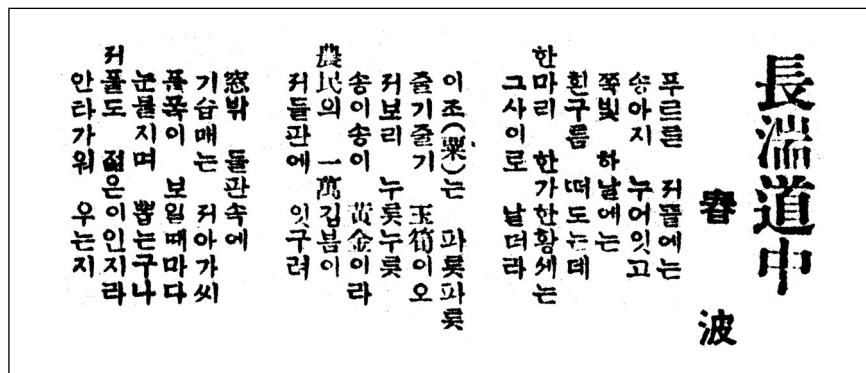
푸르른 저 뜰에는 송아지 누어있고
 쪽빛 하늘에는 흰구름 떠도는데
 한 마리 한가한 황새(황새)는 그 사이로 날더라

이조(粟, 좁쌀)는 파릇파릇 줄기줄기 옥순(玉筍)이오
 저 보리 누릇누릇 송이송이 황금(黃金)이라
 농민(農民)의 일만(一萬)김봄이 저 들판에 잇구려

창(窓) 밖 들판 속에 기습매는 저 아가씨
 풀뚝이(풀포기) 보일 때마다 눈물지며 뽑는구나
 저 풀도 짙은이 인지라 안타가워 우는지

참고: 장단(長湍, 경의선에 있는 지명 이름)

출처: 고려시보 1933년 7월 1일 8면



경덕궁(敬德宮)

시조-춘파(春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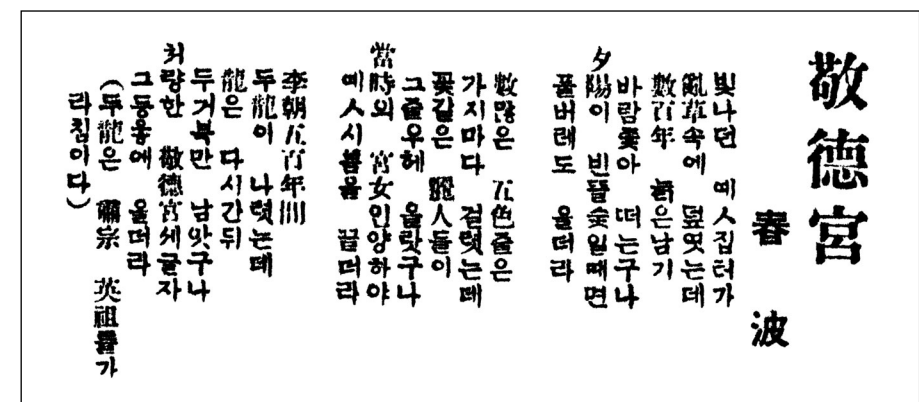
빛나던 예시집터가 난초(亂草)속에 덮였는데
 수백년(數百年) 늙은 남기 바람쫓아 떠는구나
 석양(夕陽)이 빈뜰 솟일 때면 풀버레도 울더라

수(數) 많은 오색(五色)줄은 가지마다 걸렸는데
 꽃 같은 여인들이 그 줄 우헤 올랐구나
 당시의 궁녀(宮女)인양하야 예시시름을 끝더라

이조(李朝) 오백년간 두 용(龍)이 나렸는데
 용은 다시간뒤 두 거북만 남았구나
 처량한 경덕궁 세글자 그 등웅에 울더라

(두 용은 숙종(肅宗), 영조(英祖)를 가라침이다)

출처: 고려시보 1933년 7월 16일 3면



흥국사(興國寺)

시조-춘파(春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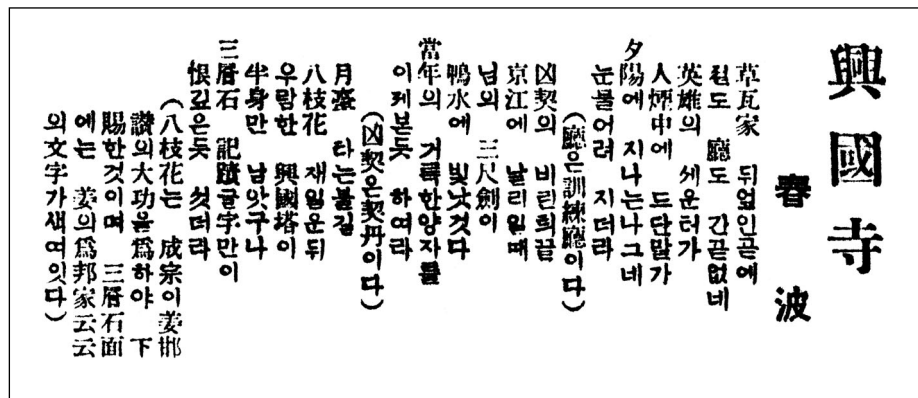
초와가(草瓦家, 초가집) 뒤엎인 곳에 절도 청(廳)도 간 곧없네
 영웅(英雄)의 세운 터가 인연중(人煙中)에 드단 말가
 석양(夕陽)에 지나는 나그네 눈물어려 지더라
 (廳은 훈련청(訓練廳)이다)

흥계(凶契, 契丹-걸안)의 비린 티끌 경강(京江)에 날리일 때
 님의 삼척검(三尺劍)이 압수(鴨水)에 빛났것다
 당년(當年)의 거룩한 양자를 이제 본 듯 하여라

월대(月臺) 타는 불길 팔지화(八枝花) 재일운뒤
 우람한 흥국탑(興國塔)이 반신(半身)만 남았구나

삼층석(三層石) 기적(記蹟)글자만이 한(恨) 깊은 듯 섰더라
 (八枝花는 성종(成宗)이 강감찬의 대공(大功)을 위하여 하사한 것이며 三層石面에는 강(姜)의 僞邦家云云의 문자가 색여있다)

출처: 고려시보 1933년 8월 16일 6면



부산동탁족(扶山洞濯足)

시조-춘파(春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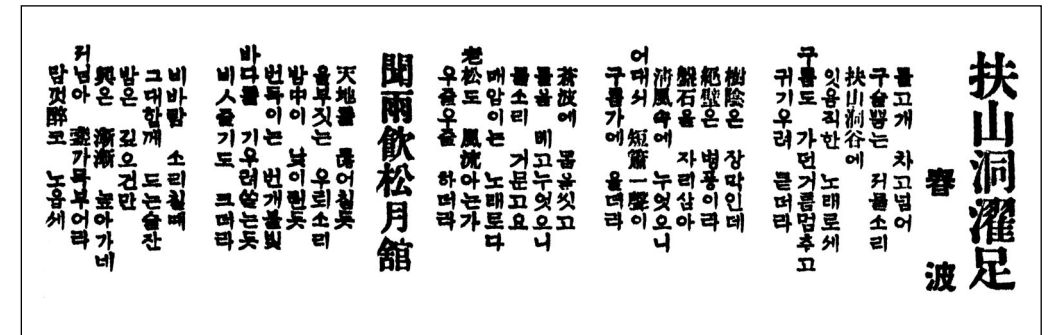
돌고개 차고 넘어 구슬뿜는 저 물소리
 부산동곡(扶山洞谷)에 잇음직한 노래로세
 구름도 가던 걸음 멈추고 귀기우려 듣더라

수음(樹陰)은 장막인데 절벽(絕壁)은 병풍이라
 반석(盤石)을 자리삼아 청풍(淸風)속에 누었으니
 어데서 단소일성(短簫一聲)이 구름가에 울더라

창파(蒼波)에 몸을 씻고 돌을 베고 누었으니
 물소리 거문고요 매암이는 노래로다

노송(老松)도 풍류(風流)아는가 우줄우줄 하더라

출처: 고려시보 1933년 9월 1일 7면



서기정(逝欺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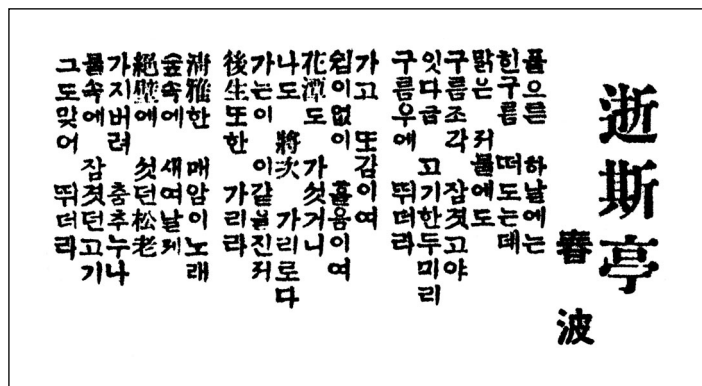
시조-춘파(春波)

풀으른 하늘에는 흰구름 떠도는데
 맑은 저물에도 구름조각 잡겄고야
 잇다금 고기 한두마리 구름우에 뛰더라

가고 또 감이여 섬이없이 흠음이여
 화담(花潭)도 가섯거니 나도 장차(將次) 가리로다
 가는이 이 같을진저 후생(後生)또한 가리라

청아(清雅)한 매암이 노래 숲속에 새여 날제
 절벽(絶壁)에 섰던 노송(老松) 가지 버려 춤추누나
 물속에 잠겄던 고기 그도 맞아 뛰더라

출처: 고려시보 1933년 11월 1일 7면



송악산(松岳山) 등척기(登陟記)

박재청(朴在淸)

고려시보 1933년 8월 1일자에 기재



2004년. 개성의 송악산 전경

개성의 진산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 위용을 자랑하며 개성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송악산(松岳山) 송악산 내가 나고 자란 개성(開城)을 지켜 섰는 진산(鎭山)이다. 진국 명산 만장봉의 고려조 480년 이 나라의 서울을 지켜있던 이 산이 때가 옮기고 풀이 변하여 고도(故都)로 반갑지 않은 이름을 뒤집어 쓴 이 송도를 그래도 그 래도 지켜주기를 싫다 안는다.

나라야 없어졌건 서울야 옮겨졌건 산은 늙지 않았다. 울울창창한 송림을 가슴에 안고 변함없이 이 고도를 지켜 서있다. 씩씩하고 웅장한 옛날의 그 얼굴로 잔약하고 노쇠한 이 땅 자손을 굽어 볼 때 그의 가슴에는 말하지 못하는 쓰라림이 있을 것이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물은 간 곳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한꿈인가 하노라

뜻있는 나그네 이 땅을 찾아들며 이 노래로 인물 없어진 이 폐허를 탄식할 때에 감개한 그의 가슴에는 응당 비분의 눈물이 용솟음하였을 것이다.

내 또한 잔약하고 노쇠한 이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와 한 가지 탄식 할 줄도 모른다. 다만 어릴 때부터 쳐다볼 때마다 씩씩한 그의 얼굴만을 감탄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이 산을 뛰어 오를만한 때부터 십여 년 간 나의 발끝은 근 백 회의 많은 회수를 이 곳에 던졌었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없어진다 건만 보고 또 볼수록 더욱더 싫지 않고 감회 깊은 것이 나의 이 산에 대한 인상이다. 그러나 피치 못할 세고(世苦)와 인수(人愁)는 나에게 그 기회를 빼앗기 시작하여 정묘년(丁卯年)부터 7년간 한 번의 관참(觀參)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금년 여름 어느 날 문득 이전의 잠들었던 감회는 나의 발끝을 봉화봉(烽火峯)으로 채찍질하였다. 7년간 동경하던 이곳으로 다시금 발길을 던지게 되니 나의 희망이 어느 정도까지 실천된다고 할는지!

골속을 시원히 울리는 물소리는 아름다운 리듬으로 나의 발걸음에 박자를 맞추

어준다. 어디서인지 멀지 않은 숲 속에서 청아한 산새소리가 들리어 온다.

산허리 언덕진 곳 푸른 소나무 아래에 걸음을 멈추고 처연히 서니 서늘한 바람은 솟아나는 방울진 땀을 날리어 주고 대우주의 신선한 공기는 나의 구비를 적서 가슴이 상쾌하여 진다.

맑은 바람을 안고 신선한 공기를 헤치며 구름 위에 문득 솟은 봉화고봉을 향하여 꼬불꼬불한 험로를 답파하고 일보이보를 되풀이하여 겨우 한 시간에 산정에 뛰어 올랐다.

아! 사람의 결심이란 못할 것이 없으며 또 앞길의 장애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험로 첩첩한 곳을 나의 찰나의 용기로 능히 돌파하여 홀연히 난세 독립의 쾌감을 얻으니 이것으로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안광을 멀리 던져 운무가 자욱한 곳을 이리 저리 지점하니 넓은 대지 무변한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어 스스로 이 세계가 적은 듯한 느낌이 일어난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태산(泰山)에 오르시어 천하(天下)의 적음을 탄식하시었다. 공자는 자기의 포부로서 천하를 적다하심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안계의 광활함으로서 세계를 적게 봄이다.

서쪽으로 예성강(禮成江) 푸른 물결은 동남으로 길게 흘렀는데 그 가운데 떠 있는 범선들은 자그마한 나뭇잎 같이 보이고 동으로 삼각산은 구름 밖에 점 셋을 찍어 놓은 듯 이것을 가리켜 삼봉반락청천외(三峰半落靑天外)라고나 할까. 북으로 천마성거(天魔聖居)의 웅장한 봉우리는 마치 전장에 나가 승전한 장사가 갑옷정장을 갖추고 군례(軍禮)를 드리는 듯 어머 어마하게 옷깃을 바로 잡지 않고는 아니 될 만큼 엄숙하게 보이고 남으로 강화도(江華島)를 가슴에 품은 넓은 황해는 그 끝이 하늘에 붙은 듯하니 일찍이 얻어 들었던 중국 고시인 소동파의 수광접천(水光接天) 운운의 일절이 머리에 떠오른다.

아! 사방산수(四方山水)의 기절(奇絶)한 풍경, 이를 본 상쾌한 기분, 나는 또 다

시 가까운 곳을 본다. 오공(蜈蚣, 지네), 용수, 진봉, 태종 등 사방을 휘두른 연산의 봉우리는 울타리와 같이 둘러섰으며 그 새새마다 흐르는 시내는 일광을 받아 반짝인다.

다시 눈을 내려 장안(長安)을 굽어보니 만호인가(萬戶人家)는 고기비늘 같이 줄에 줄을 차려 아북다북 벌려 있고 그 사이로 왕래하는 사람의 그림자는 개미가 움직이는 것 같다. 만월대(滿月臺) 황량한 뜰에 드문드문한 주춧돌은 청승맞은 잡초 속에 덮였는데 그 위로 걸어오는 초동목수(樵童牧豎, 나무하는 소년과 소를 치는 청년)의 구슬픈 노래 소리가 가늘게 울리어 올 뿐이다.

아! 오백년 고도(故都) 십만호 장안의 태평연월 한 꿈을 짓고 말았구나.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붙었으니

석양에 지나는 손이 눈물겨워 하노라

하던 원운곡(元耘谷) 선생의 시조일절을 연상하니 또 다시 눈물 떨어짐을 금할 수 없다.

암상귀운은 명일우요 산간낙엽은 거년추(岩上歸雲 明日雨 山間落葉 去年秋)라 더니 봉화봉 날카로운 서슬에 한 떼구름이 허리를 잘리는 그 바람에 두어 조각 마른 낙엽이 공중에서 종달새 춤을 춘다. 가지가지로 버려지는 축안의 만경 이것을 조화옹(造化翁)의 한 장난으로 생각할까?

세상만사(世上萬事)는 일탄지(一彈指)라 칠 년 전 학창에 있을 때 하기휴가 40일간 이덩어리를 소하장소(消暑場所)로 삼삼친우(三三親友) 한 가지 맑은 물에 발도

씻고 높은 바위에 뛰어도 오르며 꽃도 꺾고 이끼에 글자도 새기어 유쾌히 뛰놀았더니 풀들이 인연(因緣)이 있어 7년을 지난 오늘 이 곳을 다시 찾으니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라.

동반(同伴)과 척신(隻身) 천진(天真)과 강작(強作) 옛 터를 찾아 옛일을 회상하니 다시금センチ멘탈한 느낌이 마음 가운데서 몸부림친다.

아아! 벌써 백일(白日, 구름이 끼지 않은 밝은 해)은 서산(西山)에 걸렸다. 원촌(遠村)에 밥짓는 연기는 산을 둘러보고 여울에 돌아오는 배는 그물을 건넌다.

어둑어둑한 하늘에 그림 같은 구름산이 죽 일어섰으니 봉우리 삼사(三四)요 서산에 떨어지는 해 붉은 광선(光線)을 흘리니 경(景)이 만천이라. 저무는 석양의 복잡한 실경(實景)이야말로 참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나는 다시 등산 최고 정점인 봉화고봉(烽火高峰)을 등지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니 산새도 나를 따라 보금자리로 날아든다.

임간석경(林間石徑, 숲 속의 지름길)에 울리는 발자취 소리가 적막(寂寞)한데 임하잔류(林下潺流, 숲 속에서 소리를 내며 물이 흐름)에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더 처량하다.

(원본의 한자와 옛 문구를 후세가 읽기 쉽게 한글과 현대어로 고침)

기 안 하는 이가 없으며 심지어 4, 50대의 노부인들까지도 이 놀이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정초에 널을 뛰면 1년 동안 재앙이 소멸되고 신체에 잔병이 없어진다 합니다. 이것은 고려조의 지난 풍속이라 자연히 고려의 옛 고장에서 유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나 개성은 유독 부녀자의 특별한 놀이로서 유명합니다. 정초에 시중을 한 바퀴 돌아보며 담 넘어 집안 뜰을 가만히 엿본다면 곱게 차려 입은 이팔가인의 향기로운 머리 그림자가 담 밖으로 솟았다 내렸다 하는 미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양력설을 쇠느니 음력설을 쇠느니 떠드는 것은 매년 겨울만 오면 소란하여 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조선인은 재래의 고루한 습관으로 인하여 일조 일석 그리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개성사람은 더군다나 양력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항상 양력설을 일본 정월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설이 온 때에는 그야말로 시중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일차 음력설이 온다면 시중 사람들은 야단입니다. 새 옷을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설이 되면 어느 곳이나 의복을 새로이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이겠지요. 그러나 개성은 예부터 음식 잘 만들기로 유명한 곳이라 음식 준비에 있어서 지방보다 특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이 없으나 그 중에도 유명 또 유명한 것은 엿과 강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지니 집집마다 아니 만들어 먹는 집이 없으며 정초 소위 세배라는 축하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래 저급의 유행가 가운데 “꿀보다 더 단 것은 진고개 사랑이라” 하였지만 이것은 개성의 정초 강정과 엿을 못 먹어 본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즐겨하는 소리가 한창 무르익어지는 15일이 되어 밝은 달이 동쪽산마루에 오르려고 할 때이면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이 ‘새’ 라는 풀로 만든 회를 들고 높은 언덕을 찾아 불을 붙이어 흔들면서 솟는 달을 향하여 수없는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는 다시 진언을 외는데 그 일 절을 소개하면 “해년 부수 1년 열두 달 3백예순 날 무사태평”입니다.

요컨대 신년으로는 처음으로 맞는 동근 달을 향하여 일 년 운수를 비는 말일 것입니다. 이 날 달이 뜨는 시간에 한번 시중을 거닐면서 수없이 번득이는 불들을 바라보며 정성껏 외는 진언소리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그 결과는 어떻든지 자연히 겸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려조 당시 불교를 숭상할 때 월광(月光)보살을 향한 일종의 기도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풍속의 하나일 것입니다.

개성이 예부터 상업지인 까닭에 대차에 관한 건이 많습니다. 좀 전의 대차, 물품의 대가 이 모든 것을 12월 말일까지는 독촉할 수 있으되 한번 말일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면 그 거래는 어찌 되었던지 받을 자는 지불하여야 할 자에게 감히 변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싫던 좋던 신년의 축하 인사를 아니 받을 수 없으며 그러다가 15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대차 관계 일을 이야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六卦冊)

이것은 연초 4~5일 동안에 행하는 것으로 이지함 선생의 비결이라고 떠드는 어떤 고대 괴인의 책을 펴들고 자기 일 년 동안 운수를 점치며 또는 육괘책이라는

점책을 가지고 주사위를 던져 자기 일 년 동안 운수의 길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 좋을 때는 자기의 호운이 이미 발 앞에 있다고 즐거워하며 이에 반하여 좋지 않다면 악운이 도래하였다고 그만 낙심천만하여 하려던 사업을 중지하고 마는 이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괘(下卦)가 나오면 도리어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까지 갖게 되며 심하게는 자기들끼리 괘를 본 후에는 만사는 이미 결정된 듯이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기까지를 합니다. 토정비결이라는 책은 남자 역시도 이를 믿으며 후자 육괘책 외 여러 종류는 부녀자를 중심으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初狗日)

술과 조리는 우리 조선인 생활에 음식용 집기로서 하루라도 없지 못할 물건임은 필자의 구구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성인은 어인 일인지는 모르나 정월의 축하 기분이 한창 무르익을 때 달려드는 첫 개(犬) 날을 맞이하여 집집마다 주부는 이 두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 날에 한해서 는 조리 술 두 이름 위에 각각 복자 한 자를 붙여서 복조리, 복술이라 부르며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날은 의례히 조리와 술을 사 들었고 조리와 술을 파는 상점에는 그야말로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 날 조리와 술을 사면 복이 조리로 건지듯 술술 들이 밀린다 합니다. 그 복이 들어오고 안 들어옴은 물을 것이 없이 일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1년의 시작에 예비한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 일년지계 재어원단(一年之計在於元旦)이라고 이 같은 부지런한 습관이 곧 복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는 요 근년에 와서 조리와 술 이외에 성냥과 양초를 사는 습관이 유행 되어 스스로 말하기를 일 년 동안 운수가 이와 같이 환하여진다고들 합니다.

(初寅日) (關王占)

임진란의 은덕으로 명나라 군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없는 살림에 굉장한 집을 짓고 불안하였던 중국군 관우모는 명군이 철수한 뒤 3백 년 지금까지 미신의 마굴로 변하여 버린 것은 경향을 통하여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로 관왕묘 명칭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사가에 차려진 것에 이르기까지 그 어리석은 남녀들을 속인 폐해는 이루 붓과 입으로 말하고 쓸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개성이 예부터 우상을 끝없이 신봉하여 왔던 것은 물론 알지 못할 허황한 악인이 꾸며 놓은 관왕점이라는 못난 이름은 일반 어리석은 남녀의 일을 시작하매 주저함을 결단하여 주는 심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구는 대개가 어린 아해를 속이기에 부족한 해석으로서 일부를 소개하면, <상략-혼인은 이루고 행인은 돌아가고 병은 낮고> 운운의 무구를 간단하게 나열한 것으로서 혼인에 주저하는 사람은 이를 보고 좋아하며 병이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믿으며 타향에 남편을 보내고 기다리는 규중여인은 남편의 꼭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과연 이 점이야말로 만능입니다. 아 이럴 수가, 어리석은 남녀의 어린 아해도 속지 않을 이 점괘에 속아 신념을 가져서 불의에 낭패를 조우하는 가련한 그 특이한 풍속이여.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점괘로 일 년의 길흉을 예지한다고 개성의 어리석은 남녀들은 첫 호랑이 날에 일금 십 전을 들고 북촌 산모퉁이에 있는 관왕묘로 향하여 마의 굴 뜰 안에는 못난 자들의 총 전람회를 열게 됩니다. 문제는 좀 탈선의 느낌이 있으나 몇 년 전 개성의 13개 위생조합이 합동하여 이 마굴의 증축 개수에 돈을 모금하고 주민에게 부역까지를 강행시키었던 것은 개성의 수치였음을 지적하며 겸하여 고려동의 위생조합장으로서 관왕묘 기성위원장이 되었던 모씨의 대역할이었음을 소개하여 둡니다.

正月中的 開城奇俗 朴 芽 枝

俗俗이라든가 아담은 지방의 認識이다. 그 俗俗의 變遷은 政治的인 變遷과 經濟的인 變遷에 依하여 變遷한다. 開城의 俗俗은 古來로 政治的인 變遷과 經濟的인 變遷에 依하여 變遷해 왔다. 開城의 俗俗은 古來로 政治的인 變遷과 經濟的인 變遷에 依하여 變遷해 왔다.

婦女의 蹴板戲

蹴板戲는 開城의 俗俗이다. 蹴板戲는 開城의 俗俗이다. 蹴板戲는 開城의 俗俗이다. 蹴板戲는 開城의 俗俗이다.

上元日의 炬火祈

上元日의 炬火祈는 開城의 俗俗이다. 上元日의 炬火祈는 開城의 俗俗이다. 上元日의 炬火祈는 開城의 俗俗이다.

初寅日에 關王占

初寅日에 關王占은 開城의 俗俗이다. 初寅日에 關王占은 開城의 俗俗이다. 初寅日에 關王占은 開城의 俗俗이다.

古時調 李廷蕪

古時調 李廷蕪은 開城의 俗俗이다. 古時調 李廷蕪은 開城의 俗俗이다. 古時調 李廷蕪은 開城의 俗俗이다.

宗 孝

宗 孝는 開城의 俗俗이다. 宗 孝는 開城의 俗俗이다. 宗 孝는 開城의 俗俗이다.

書 讀

書 讀은 開城의 俗俗이다. 書 讀은 開城의 俗俗이다. 書 讀은 開城의 俗俗이다.

오백여 년 정치적 자유를 상실한 개성은 예전부터 사람이 난 때부터 학교나 서당보다는 상업자의 용인이나 사환이 되어 상업술을 배웠으며 성인이 되면 곧 본토에서 혹은 지방으로 실제 상업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래의 습관으로 연말까지를 결산기로 하여 상업 행동을 마친 후 정초부터 일 년 동안 분투하였던 육신을 휴양합니다. 그리하여 본토에 잔류한 상인은 물론 지방에 출상하였던 장꾼들도 적으면 10일 많으면 1개월 동안의 안식일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기간을 상한기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는? 이에 그들 사이에는 이 휴양하는 동안 별 재미있는 장난들이 일어납니다. 웃놀이, 장기 등 오락물이나 그 수를 들 수가 없지마는 특히 나이 어린 점원층, 근일 중 소학생이 될 아이들 가운데는 연날리기라는 장난이 시작됩니다.

대를 빼로 하고 백지를 살로 하여 만든 종이 연을 실을 때 공중에 띄우는 그것만이라 하더라도 재미있는 노릇인데 더구나 그 줄과 줄을 무기로 하여 소위 얼린다는 시험은 장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초 평화로운 하늘 위에 달과도 같고 구름과도 같은 수없는 종이 연들이 혹은 쫓기고 혹은 쫓아 좌왕우래 공중전을 연출하는 광경은 쾌활하기 한이 없으며 패배자의 수급(떨어지는 종이 연)이 바람을 따라 나부끼면서 지상을 향하여 낙하하는 것도 불만하거니와 이를 얻고자(속어에 걷는다고 한다) 달음질치는 소년의 인파는 더 한층 이 경기의 기분을 쾌활히 합니다. 전설에 이 연은 고려 말 충신이요 명장인 최영 장군이 섬나 여인국을 함락시킬 때에 발명하였다는 것이니 적이 고성을 고수하여 용이히 굴복치 않으므로 연을 수없이 성 위로 날리어 사다리를 만든 후 줄을 타고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별 문제로 하고 어쨌거나 이것도 고려 말 옛 놀이의 하나입니다.

이상 여러 종류의 풍속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이 허락지

고려시보 1936년 1월 1일 제5면

않고 겹하여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갖지 못한 나로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불가능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목만을 든다면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 먹기, 정월 15일 까지 방 안 먼지를 밖으로 내지 않는 풍속, 상원일(上元日)에 밤 깨미는 풍습, 초하룻날 밤에 양고양이 온다고 신발 감추는 것, 정월 대보름 밤에 다리(橋) 밟는다는 것, 용의 밥 준다고 밥 세 덩이 우물 속에 집어넣는 버릇 등등의 이상한 풍속이 있으나 상세한 것은 약합니다.

(원본을 손자 박수종이 현대문으로 수정하여 1996년 1월 송도지 67호에 다시 소개함.
이 내용을 다시 한글과 현대문으로 고침)

고리고개에서 추리(醜李)골까지

인 쇄 · 2005년 월 일
발 행 · 2005년 월 일

글쓴이 · 박광현
펴낸이 · 김진수
펴낸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1683 두엔캔 B/D 502호 133-823

전 화 · (02)464-7708 / 3409-4488

팩 스 · (02)499-0846

등록번호 · 제2-1276호

등록일 · 1991년 11월 9일

Homepage · www.hankookmunhwasa.co.kr

E-mail · hkm77@korea.com

비매품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